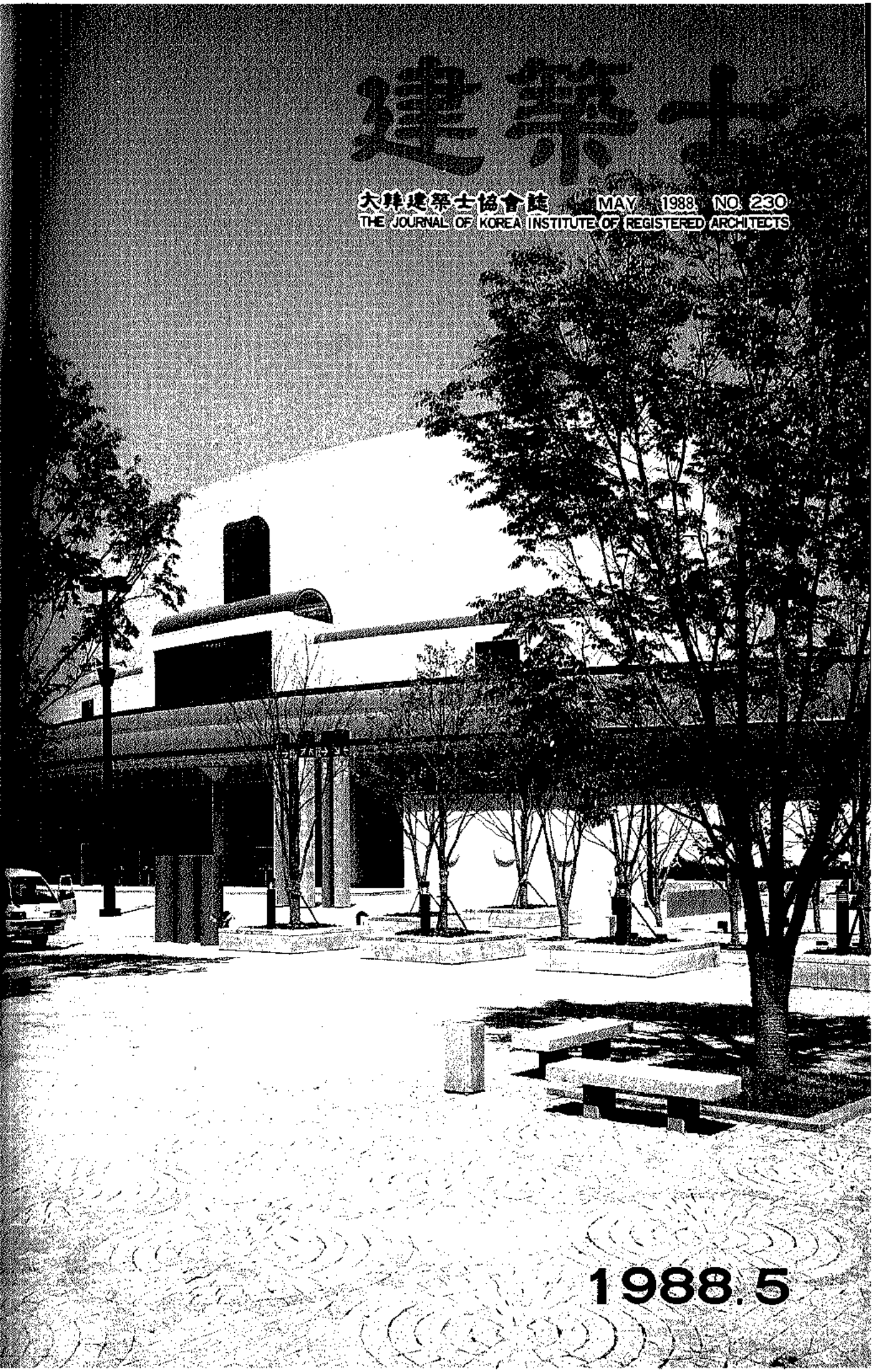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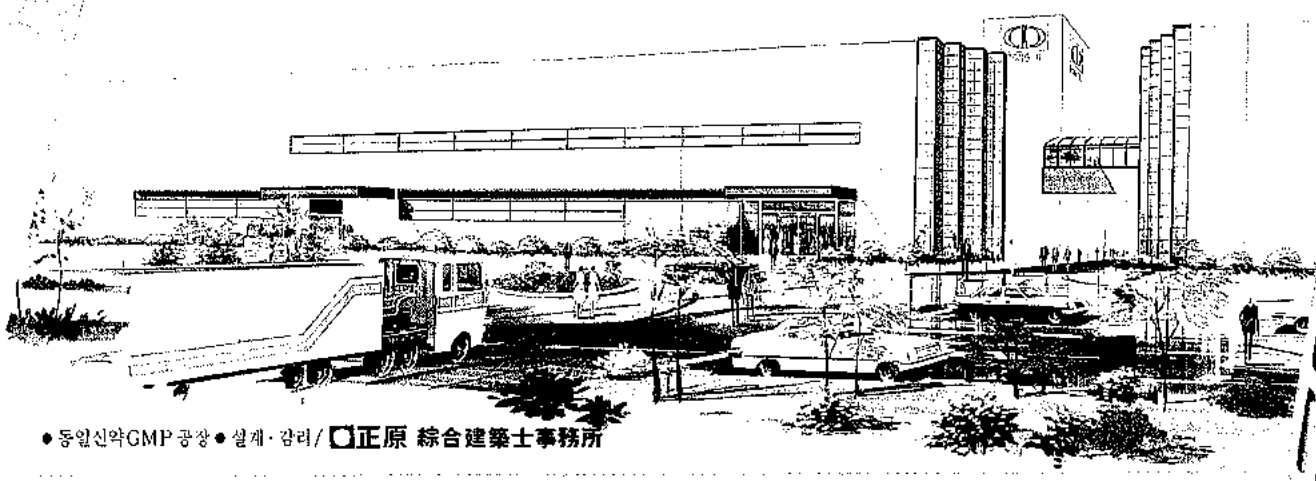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MAY 1988 NO. 230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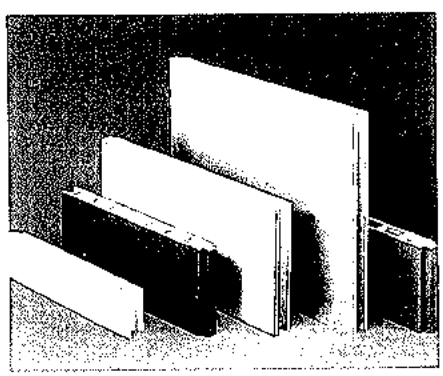
1988.5

국내최대의 건자재 종합메이커
주식회사 벽산



● 동일신약GMP 공장 ● 설계 · 감리 /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요.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 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읍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읍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읍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 · 칸막이 · 계단 · 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 제품 · 시공문의상담 / 273-9211~9 (구내281) 베이스사업부

제14회 建築士設計作品 巡廻展
제 3 회 新人·學生 建築設計 公募展

The 14th Architects' Design Show & The 3rd Debutants' / Students' Design Show

本 協會에서 年例行事로 開催하는 建築士設計作品巡廻展과 新人·學生 建築設計公募展을 다음과 같이 開催합니다. 특히 올해는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 또한 本協會에서 아시아지역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면서 本展示會를 병행 개최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13개국 建築士와 기타 세계각국의 參觀国 建築士들에게 作品이 公開됨을 감안,作品 接受磨勘日을 嚴守해 주시고 배전의 努力을 기울여 作品을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主　題
○건축사 : 제한없음(자유)
○신　인 : 都市의 區 또는 郡단위의 文化센터
(연면적 3,000㎡ 이하)
○학　생 : 도시문화센터 (대지면적 : 3,000㎡ ~5,000㎡
연면적 : 10,000㎡ ~12,000㎡) 및 자유

■ 資　格
○건축사 : 본협회 회원
○신　인 : 대학원생과 대학 및 전문대학건축과 졸업후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제외)
○학　생 : 각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과 재학생

■ 後　援 : 건설부

■ 出品要領
○패널규격 : 90×90cm(가로×세로, 규격엄수)
○출품내용 : 1작품당 패널 3개이내 및 간략한 작품설명서
○출품인원 : 1작품당 3인이내
○응모 및 출품
• 건축사작품접수 : 1988. 9. 15까지
• 건축사작품집게재 원고접수 : 1988. 8. 20까지
• 신인·학생 : 응모기간 / 1988. 6. 1~6. 20
작품접수 / 1988. 9. 1~9. 15
○출품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본부 및 각 시·도지부사무국
○기　타 : 모형은 접수하지 않으며, 모형사진과 도면을
사진으로 현상하여 패널화하지 말것.

■ 展　示
○전시기간 : 1988. 11~1989. 4.
○전시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춘천에서 '88건축사실계작품순회전과 동시에
전시

■ 施賞內容
○추후발표

■ 審査發表 : 1988. 10월중

■ 施　賞 : 1988. 10월중

■ 問 議 處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전화 : 581-5711~4)

표지사진 : 金錫澈作 예술의 전당 음악당
사 진 : 임정의

發 行 人 : 安箕泰

編纂弘報委員會
委 員 長 : 朴榮翼
副委員長 : 尹錫祐
委 員 : 金琪碩, 卞 鎬, 金晶東, 趙聖烈

編 輯 : 出版事業部

發 行 處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071
電 話 : 代表(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 (02) 586-8823
텔 렉 스 : KIRAA 33550

登錄番號 : 第라-1251(月刊)
登 錄 : 1967年 3月 23日
U.D.C. : 69/72(054-2) : 0612(519)
印 刷 人 : 全允圭(洸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 Park, Young-Ik
Vice Chairman: Yun, Suk-Woo
Member : Kim, Ki-Seok
Byun, Yong
Kim, Chung-Dong
Cho, Sung-Yu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5-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建築士

차 례

1988년 5월호(통권 230호)

論 壇
6 1995년을 向한 建築技術 …… 張起仁

會員作品
7 예술의 전당 음악당 및 서예관 …… 金錫澈
12 연세대 100주년기념관 …… 金正澈+金昶一
14 국립진주박물관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16 산림청 광릉수목원 부속박물관 …… 金常植
18 안성군민회관 …… 宋在昇
20 원광대학교 박물관 …… 車東明

硏 究
22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11) …… 金晶東
32 韓國의 傳統建築 / 三國時代의 건축문화 …… 張慶浩
38 造景(3) / 工場造景 …… 吳尚坪
88 인테리젠트 빌딩 …… 李永洙

읽히며 생각하며
37 짝짓기 놀이 …… 朴英健

법령해설
46 건설기술관리법안중 개정된 주요내용(2) …… 姜吉夫

55 **설계경기 / 한국전력공사기술연구원**
56 엄이종합건축(案)
60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案)
64 종합건축사사무소 홍진(案)
68 정일엔지니어링(案)
72 우일종합건축(案)
76 삼예종합건축(案)
80 예종합건축(案)
84 한국전력기술(案)

41 **支部運營方向(3) / 忠北支部**
42 **金重業先生 訃音**
90 **協會消息**
96 **올림픽광장**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230호
구입년월일	1988·5·31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ONTENTS

May 1988 Vol. 230

FOCUS

Architectural Technique for the 1995 ····· Chang, Kie-In 6

WORKS

Seoul Arts Center in Kang-Nam Cultural Theme Park/ Concert Hall & Hall of Calligraphy ····· Kim, Suk-Chul 7

Yon Sei University Centennial Memorial Hall ····· Kim, Jung-Chul & Kim, Chang-Il 12

Jinjoo National Museum ····· Space Group of Korea 14

Kwangnung Arboretum ····· Kim, Sang-Sik 16

Ansong-gun Residents Hall ····· Song, Jae-Seung 18

Woun-Kwang Univ. Museum ····· Cha, Dong-Myung 20

REPORT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 Kim, Chung-Dong 22

Korean Architecu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 Chang, Kyung-Ho 32

Fine View of Factory ····· Oh, Sang-Pyung 38

For Intelligent Office System Planning ····· Lee, Young-Soo 88

ESSAY

Match Game ····· Park, Young-Kun 37

Competition for Korea Electric Power Coporation Research Center 55

Aum Lee Architects Associates Plan 56

Keumsung Architecture Association Plan 60

Hongjin Architects Associates Plan 64

Jungil Engineering Architects Engineers & Planners Plan 68

U-Il Architects & Engineers Plan 72

3 Art Archi-Group Plan 76

Art Group Plan 80

KOPEC Plan 84

METERIALS

Commentary on the Revised Contents of Architecture Enforcement Regulations ····· Kang, Kill-Boo 46

DIREC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CHAPTER / Choongbok Chapter 41

Mr. Kim, Chung-up is Sleeping in Peace 42

KIRA NEWS 90

OLYMPIC PLAZA 94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 581-5715~8
-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169-16 / 333-1873
-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1422-17 / 882-6744
-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 903-3425
- 강동분소 / 강동구성내동317-4 / 484-6387
-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05-5 / 604-7168
-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101-7 / 923-6213
-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 446-5244
-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 3 가81 / 634-2143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 1 가 1 (부산데파트내) (051) 23-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 가1-8 /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323-11 / (062)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 1 동558-1 /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 3 가124-5 / 7072 (0331) 42-6490
-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 (0343) 2-2698, 2-0012
-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74-6 / (032) 63-3144
- 성남분소 / 성남시신흥동5512 / (0342) 2-5445
-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의정부동182 / (0351) 2-1083
- 송탄분소 / 송탄시신장동21 / (0333) 4-6153
- 고양분소 / 고양군원당읍주교리38브럭16롯트 / (0344) 63-8902
-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409-2 / (0346) 63-8112
- 이천분소 / 이천군이천읍중리216-8 / (0336) 2-3396
-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464-7 / 682-2875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 (0361) 2-2442
- 원주분소 / 원주시일산동206 / (0371) 42-3257
-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6 / (0391) 2-2262
-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468-66 / (0392) 2-5081
-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 (0397) 2-3106
-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흥 1 리959-35 / (03732) 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2 가116-168 / (0431) 2-2752
-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673-1 / (0441) 2-3082
- 제천분소 / 제천시의림동8-8 / (0443) 2-6253
- 옥천분소 / 충북보은읍삼산리139-4 / (0433) 2461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87-1 / (042) 22-4088
-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160-14 / (0417) 2-4551
-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 (0451) 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문리710-2 / (0463) 2-221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 (대륙빌딩 508) (0652) 3-3881
- 이리분소 / 이리시남중동 1 가77-22 / (0653) 52-3304
-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 1 가85 / (0654) 2-4060
-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106 / (0671) 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 (추선회관) (062) 364-7567
-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동 1 번지 / (0631) 43-3348
- 순천분소 / 순천시장천동51-11 / (0661) 3-2457
- 여수분소 / 여수시관문동441번지 / (0662) 64-7023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가285번지 / (053) 45-4904
- 포항분소 / 포항시죽도동96-70 / (0562) 74-9 13
-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9-1 / (0561) 2-2680
-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356-2 / (0546) 52-7903
- 안동분소 / 안동시삼산동125-19 / (0571) 2-3641
- 김천분소 / 김천시남산동23-10 / (0547) 2-2263
-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 4 동470-17 / (0572) 2-4566
- 문경분소 / 점촌시점촌동261-2 / (0581) 2-2706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 가3 / (0551) 2-4530~1
-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 (0522) 74-8836 74-2555
-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7-20 / (0591) 2-6403, 42-3434~5
- 충무분소 / 충무시서호동177-101 / (0557) 2-2504, 2-7420
-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25B-17L / (0594) 2-3155
-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내일동67-1 / (0527) 53-2110
-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하동483-9 / (0598) 2-3777
-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500-3 / (0523) 4-2669
- 거제분소 /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139-2 / (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 / 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동425-1 / (0642) 62-3920, 3322

1995年을 向한 建築技術

Architectural Technique for the 1995

張起仁 / 三成建築士事務所
by Chang, Kee-In

1995年이 되면 우리나라가 光復된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며, 그간에 독립자주적으로 이끌어 왔고 발전하면서 선진국 대열에의 도약을 거듭하여 왔다. 이제 비로소 民主化의 조류속에 갈망하고 기대하던 일들이 이루어 질 것을 희망하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날의 큰 영광을 뿌리내려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앞을 내다보는 建築人으로서 어제와 다른 참신하고 우수한 技術로써 대처하는 노력과 활약이 따라야 하고 촌각이라도 안이하고 답보하는 우매를 범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私利를 위하기보다는 이 국가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것을 항시 염원하면서 앞서가는 기술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建築技術은 학술이론을 뒷받침으로 하여 축적된 建築技法과 창조개발된 선진기술이 없이는 선진에의 희망은 이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기술을 총집합하여 정리하고, 보다 참신한 기법의 탐구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건축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建築士의 기술개발에서 부터 協會의 기술연구가 요망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특별한 지원이 요청되기도 한다. 이제까지 개개인이 이룩한 기술경험의 방대한 재산이 無聊하게 방치되고 있지 아니한가. 구체적으로 광복초기에서 주택건설이 시작되어 20년, 40년을 지난 오늘까지 건물면적 규모나, 가구수의 변모등의 조류도 정립하지 않고 장래를 도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硏究와 실적을 빛낸 住宅公社라 하겠지만 대중일반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상유지로 그치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다. 일반이 할 수 없는 앞날의 국민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분발하고, 영리에 상응하는 것은 일반건설에 분담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建築生産技法이나 安全管理手法도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에 걸맞게 촉진되어야 하겠으며 監理制度의 오류도 척결하고 건축주의 뜻과 건설업자의 의지가 설계도서를 무시하는 풍조에서 또한 기능공의 안이한 시공을 사전에 일깨워도 無可奈何인것을 감리자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시공자 자신이 고도의 기술화, 정밀한 시공감리기법이 선행되어야 하다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다. 시공기술자가 없는 주택건설현장에 감리업무가 필요하지도 않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한가.

常住監理에 앞서 건축주가 임명하는 공사시공감독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또 그의 체제하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감리에 앞서 용이주도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는 우리 건축사는
한국의 大樂團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애로서
모든 것을 이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의 창조자,
기술의 선구자가
되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建築生産에 투자되는 국가재정에 비하여 민간투자액은 막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정은 고작 건설부의 一個局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 담당도 건축기술인이 아닌 門外人이고 보면 이나라의 건축기술은 애당초부터 民間処事로 始終하였다 하여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그러기에 주택건설의 발전은 고사하고 차질이 잦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建築廳이라도 두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전담하고 아울러 막중한 건축자재의 생산과 그 개발연구의 지도촉진이 갈망되는 것이다. 건축자재 실험실도 갖추어지지 아니한체 계획설계가 선진화 되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先輩後學들의 많은 개발연구와 그 실적공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더욱더 건축계를 위하여 힘써주실 것을 바라며, 技術情報交換도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에 관한 자료·연구실적 등의 정보관리에 투자육성을 바라마지 아니한다.

건축생산기술의 근본은 시공기술에 있다. 그 기술은 단순용이하고 어느 때라도 우수한 시공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또한 저렴한 공사비로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도 창조되는 시공기술로 선진으로의 기술연마가 필요하다.

건축생산은 設計에서 비롯되며 신형자동차의 모델과도 같아서 안락한 生活, 충분한 構造機能을 가지면서 건축주의 기호에 맞는 美的文化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건축사는 건축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자기작품을 완성해야 하므로 인간적으로 建築主와 建築士 그리고 施工者 여러분의 합주아래에 걸작 교향곡이 작곡되고 절찬속에 대단원이 내려질 것이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는 우리 건축사는 한국의 大樂團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애로서 모든 것을 이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의 창조자, 기술의 선구자가 되어 지기를 바랄 따름이다.

◆
張起仁
16년 평북출생으로, 경성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건축사협회 2대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삼성건축사사무소를 자영하고 있다.

예술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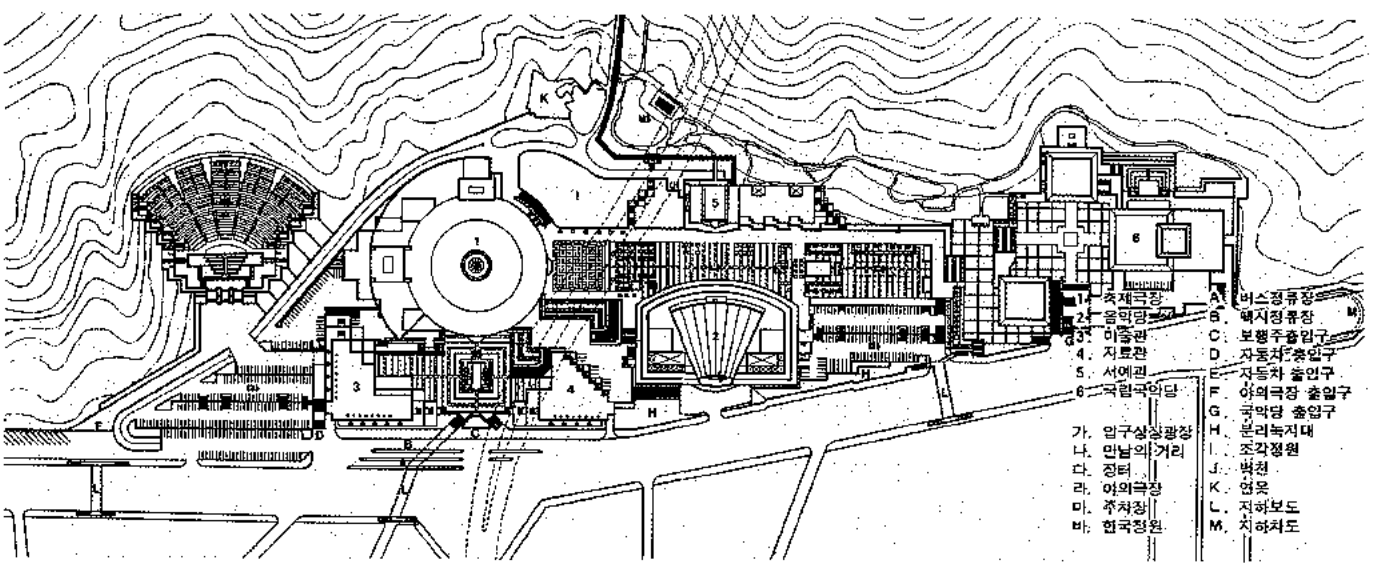
Seoul Arts Center in Kang-Nam Cultural Theme Park

음악당 및 서예관

Concert Hall & Hall of Calligraphy

金錫澈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Designed by Kim, Suk-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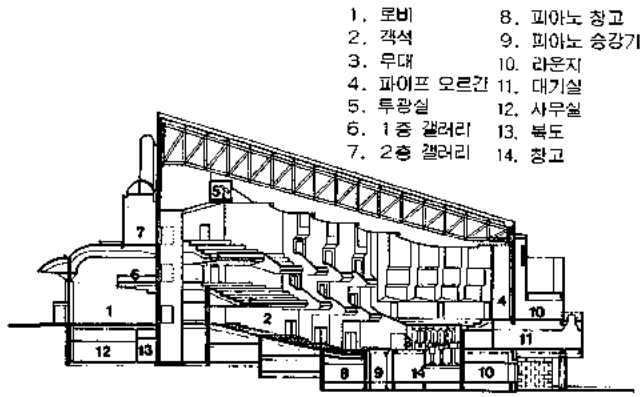
전경



전체배치도

음악당
Concert Hall

金錫澈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Designed by Kim, Suk-Chul



단면도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전체면적 / 182, 403m²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 8, 228. 59m²
지하면적 / 4, 117. 01m²
1층면적 / 3, 900. 20m²
2층면적 / 6, 049. 51m²
3층면적 / 1, 930. 01m²
4층면적 / 1, 511. 77m²
옥탑면적 / 318. 96m²
연면적 / 17, 827. 46m²
콘서트홀 / 2, 608석(코러스석 포함)
리사이트홀 / 343석
지구 / 4종미관지구 · 문화시설지구

▲음악당 대연주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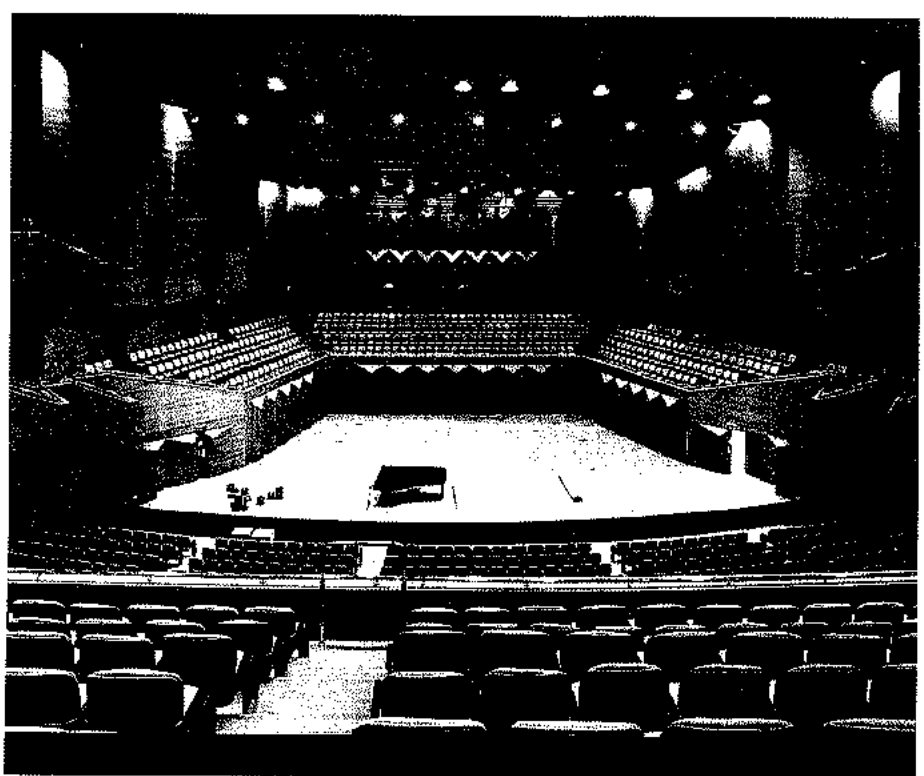
설계소묘

한국의 전통 무채모양을 한 건물로 고전음악과 현대음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악연주를 위한 2, 606석의 음악전용 연주장. 광장의 휴게공간을 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로비, 무대와 같은 조건으로 연습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연습실과 합창연습실, 분장실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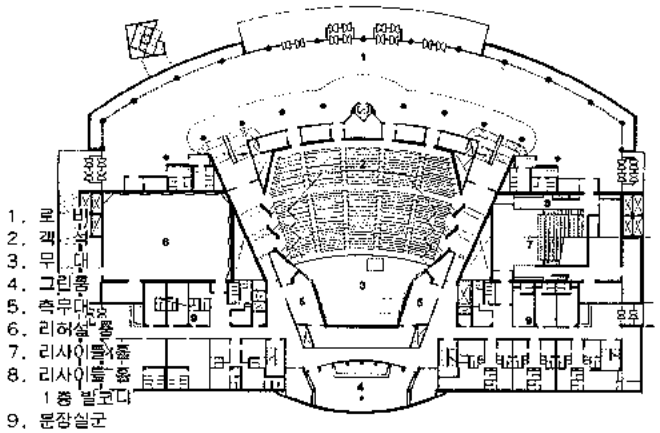
이용객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위해 지층 로비공간을 전면 축제마당 및 장터로부터 항시 개방토록 계획하였다.

또한 중앙 지하광장과 지하통로 및 주차장과 전면광장에서 별도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였으며, 자체 연주장을 갖지 못한 교향악단이 음악당에서 상주 오케스트라로서 활동하는 것이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함을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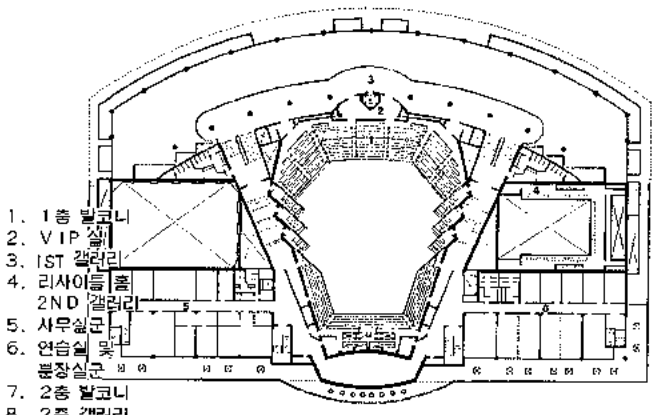
공연유무에 관계없이 지층로비 공간을 항시 개방토록 하였으며 입장권 검사는 2층 객석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과 1층 및 3층으로 가는 계단입구(모두 8곳)에서 처리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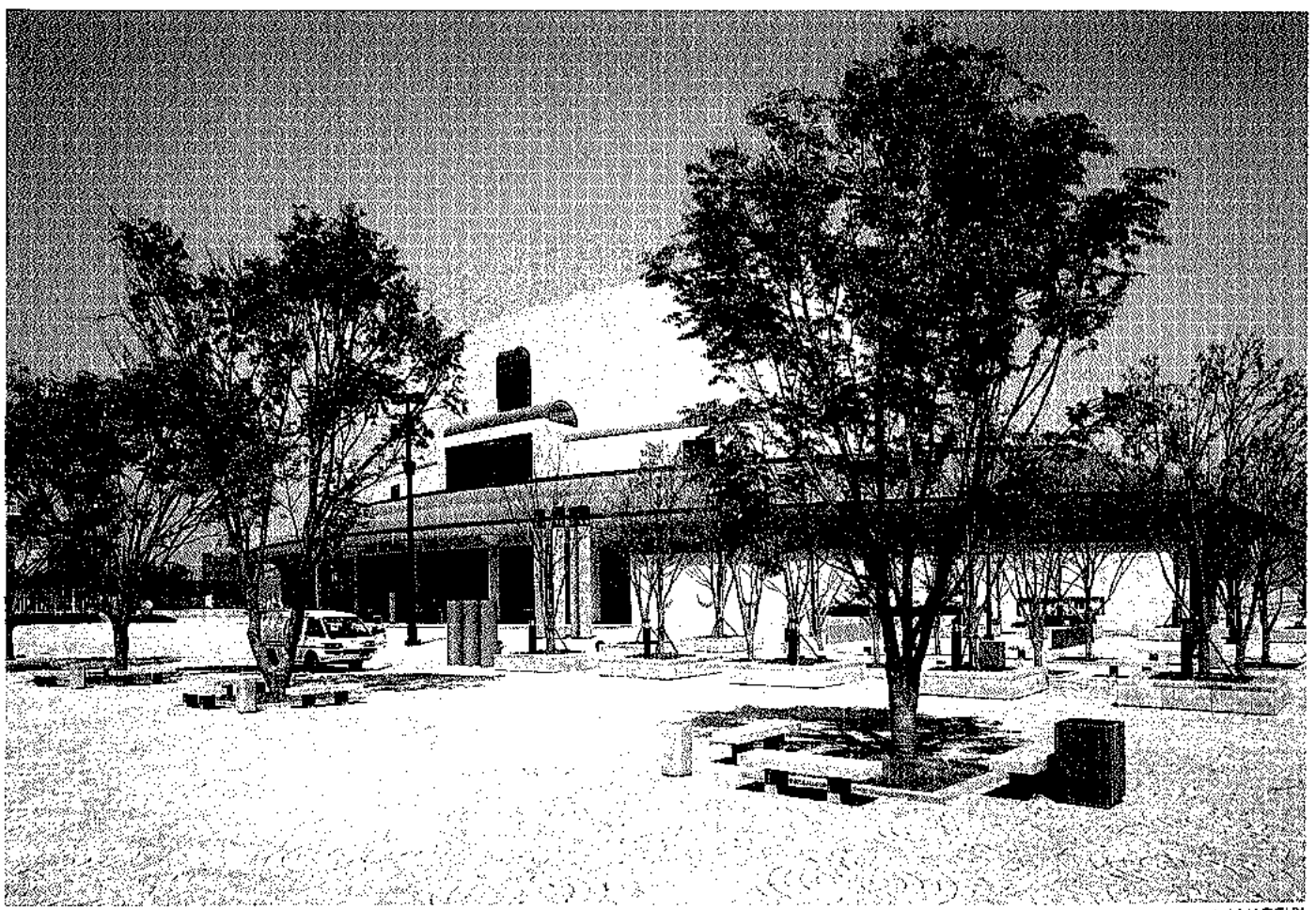
대연주홀 무대 전경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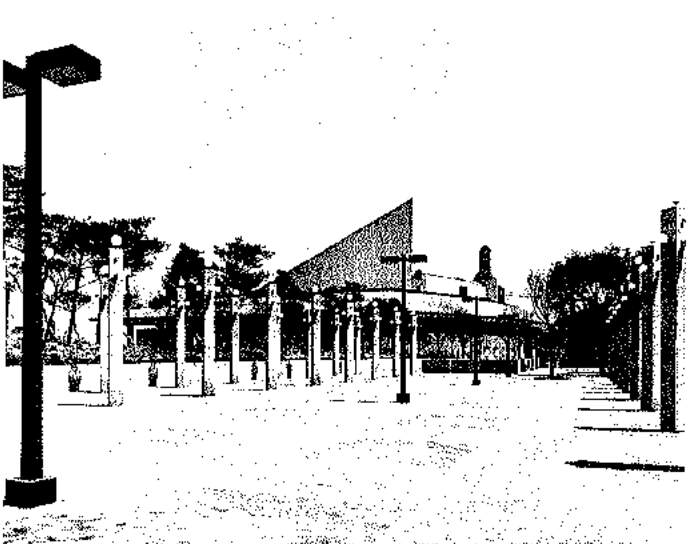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남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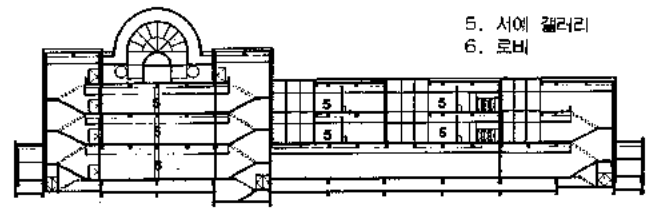
1층 로비



잠터에서본 음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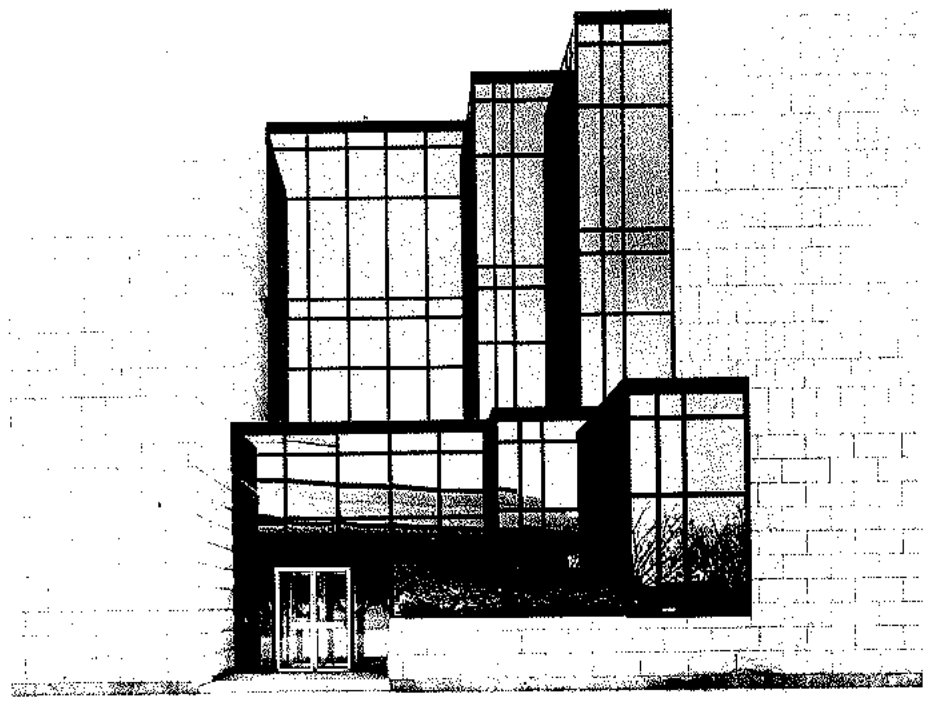
서예관
Hall of Calligraphy

金錫澈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Designed by Kim, Suk- 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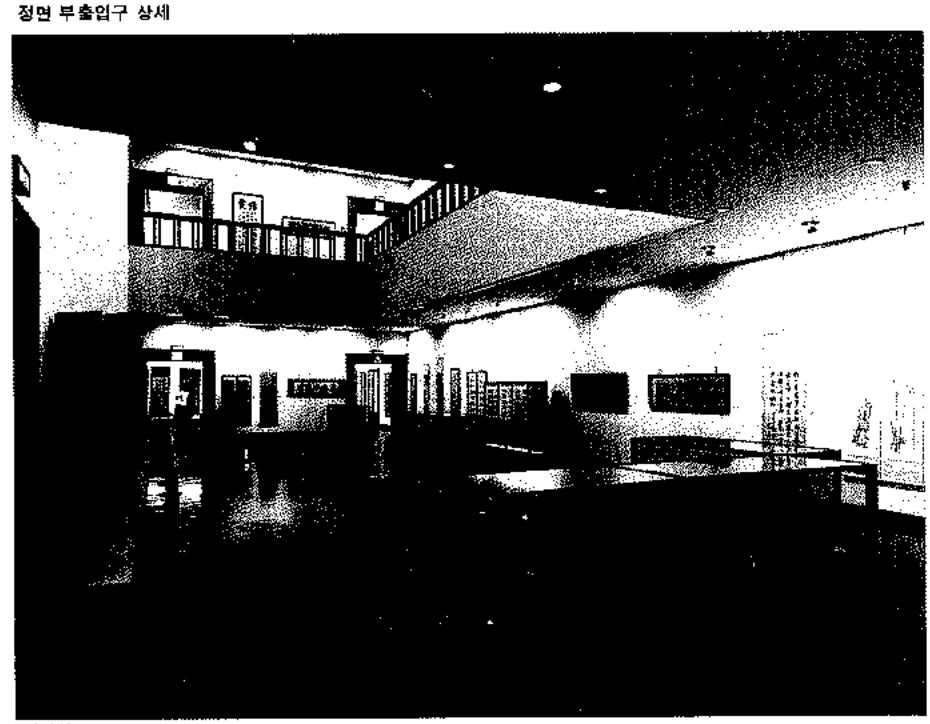


단면도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연면적 / 지하층 – 2, 268m²
1 층 – 815m²
2 층 – 2, 323m²
3 층 – 2, 293m²
4 층 – 810m²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외부마감 / 외부 – 화강석, 알미늄커튼월
시설내용 / 전시실(10개, 총 686, 4m²),
갤러리전시실(2개, 총 726m²),
실기실(9개), 컨퍼런스홀(485. 1m²),
연구 및 자료실(80, 9m²),
사무관리실, 휴게실, 지하동력실,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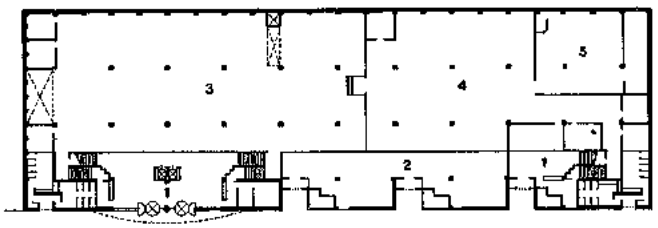
정면 부출입구 상세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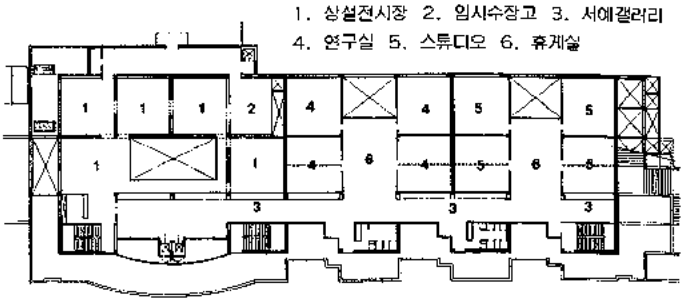
■
설계소묘
국악당 장터 및 한국정원과 연계된 "전통 예술의 장"을 구현, 마스터플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고유건축양식 (기단, 궁륭 및 전통문양)을 도입하여 전체와의 융화속에 고유의 표현을 시도하였다. 전시와 교육의 두 기능을 자료기능군의 분계로 이원구성, 전시공간의 경우 고전적 실내공간과 변형 가능한 현대적 기능공간의 이중구조로 계획을 시도하였으며 중정을 중심으로 한 특유의 구성을 가진 교육공간을 창출하였으며, 한국정원과의 적극적 연결을 통하여 예술의 전당 전체 활동과의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용토록 하였다.

1. 로비 2. 휴게실 3. 기계실
4. 전기실 5. 발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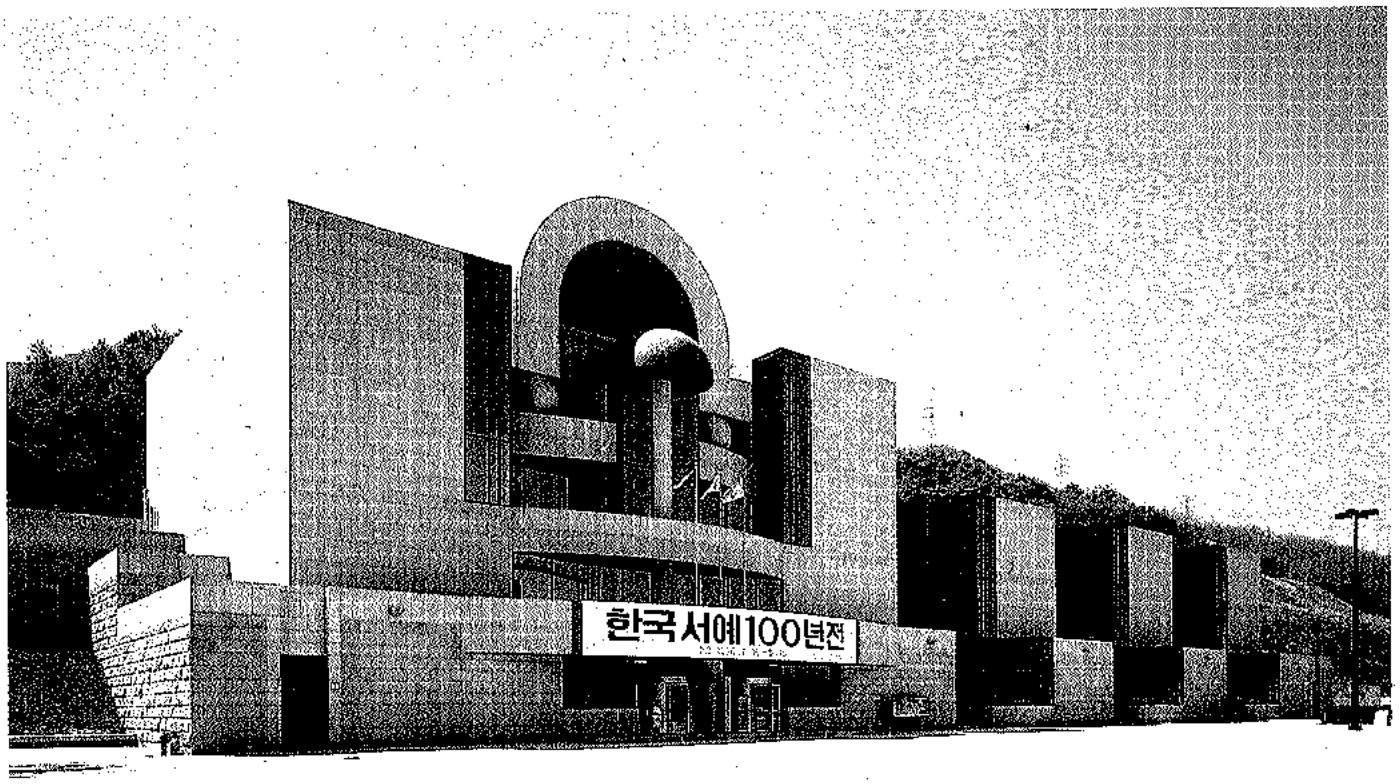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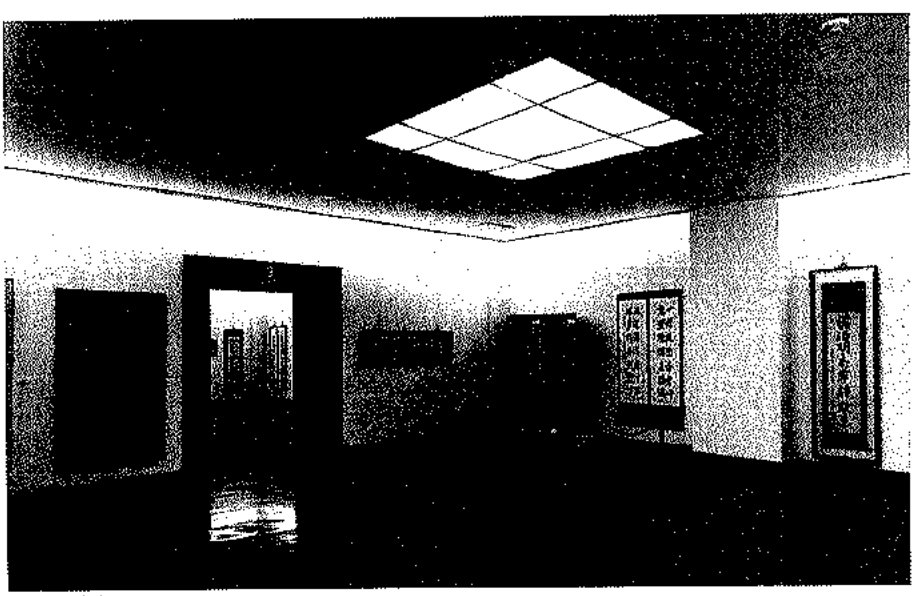
1. 상설전시장 2. 임시수장고 3. 서예갤러리
4. 연구실 5. 스튜디오 6.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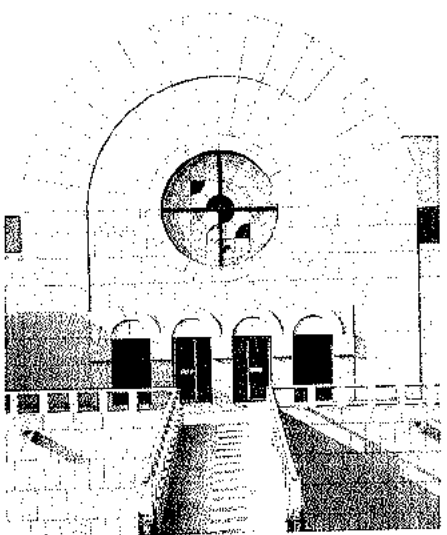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전경



서예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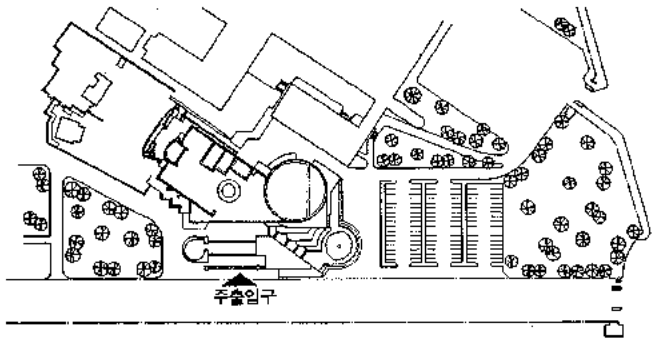


남측출입구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Yonsei University Centennial Memorial Hall

金正澈+金昶一 / (주)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ung-Chul & Kim, Chang-Il



배치도

◆

대지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내
건축면적 / 3, 110. 41㎡
연면적 / 9, 907. 91㎡
지하층 – 2, 741. 54㎡
1층 – 3, 110. 41㎡
2층 – 1, 958. 78㎡
3층 – 1, 820. 15㎡
옥탑층 – 277. 03㎡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트러스조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 / 화강석버너구이 및 혹두기
설계담당 / 체제학
사진 / 김영호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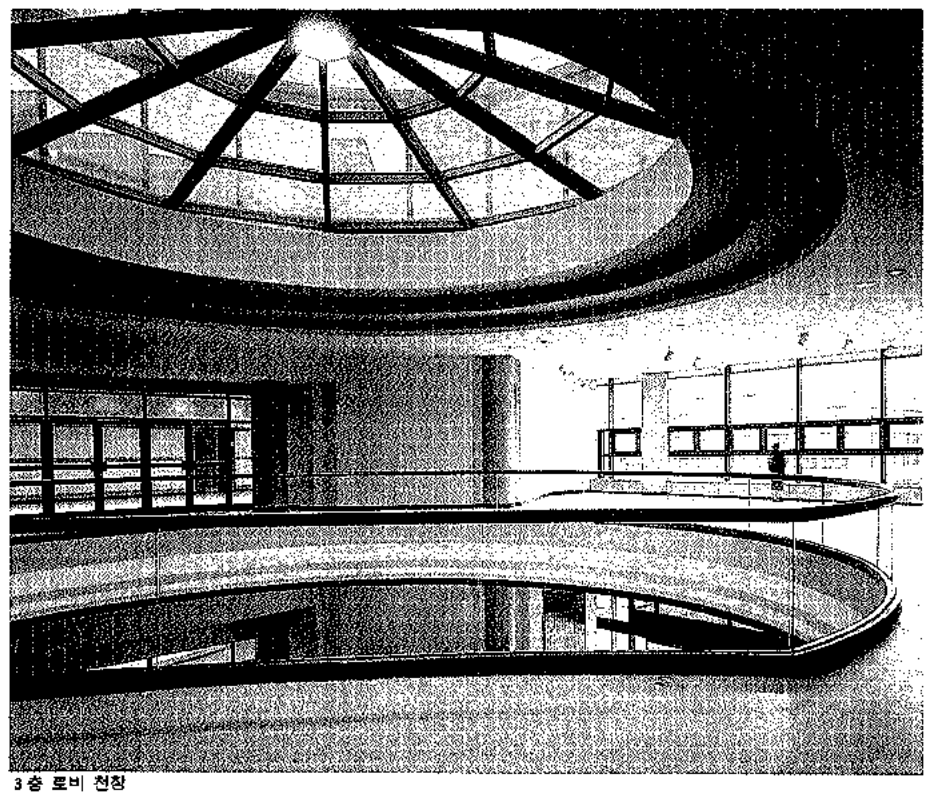
본 건물의 기능은 다목적 강당과 박물관 및 전시공간을 갖춘 건물로 계획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렵게 나타난 점은 예정된 부지의 상황적 조건과 이의 해석에 따른 건축적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과 기존의 Campus 질서와 분위기를 유지시키면서 기념관의 고유 Image와 표현성을 갖도록 하는 일이었다.

부지의 위치는 외부에서의 진입시에 바로 인지되는 Campus 경관의 중심적 위치로서 백양로에 의한 강한 축과 의료원 건물배치에 의한 축이 약 35° 의 각도로 만나게 되는 35꼭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기존 Campus의 2원화된 질서를 단일하게 엮어 새로운 질서를 갖게 하는 건축적 고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2개의 축이 만나는 위치에 원형 mass의 강당을 배치하였으며, 이러한 원형의 mass는 방향감이 다른 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Campus 진입시 인지되는 공간의 영역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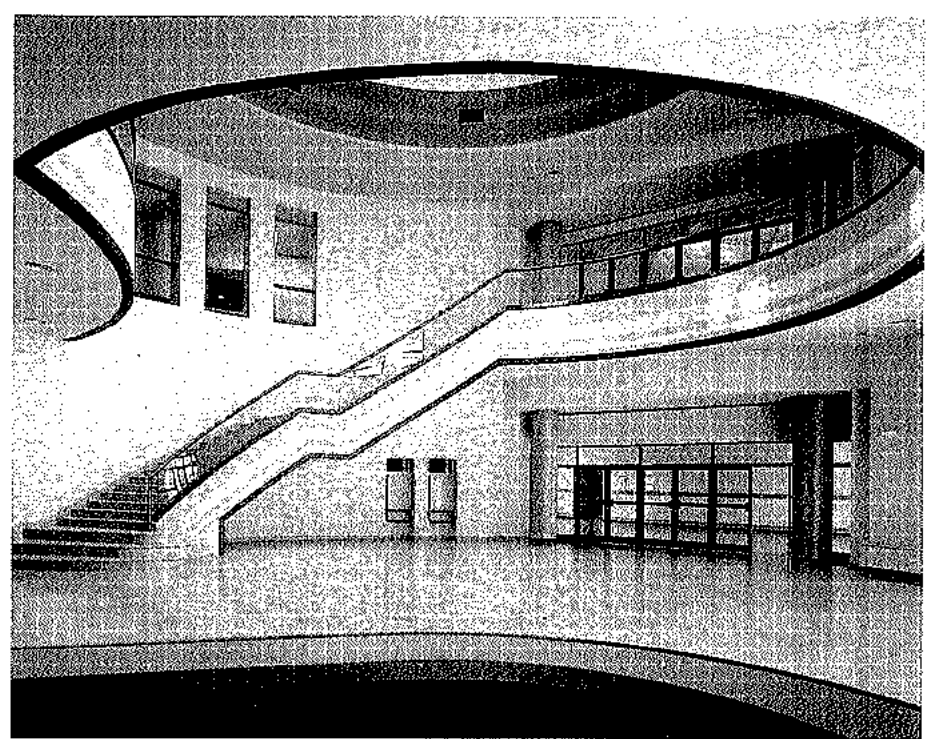
본 건물의 주진입면인 백양로측 정면은 백양로를 중심으로 약 35m를 이격시켜 기존의 건물배치 Line과 백양로 – 전면광장 – 건물로 이어지는 기존 공간체계를 유지시키도록 하였으며, 기념관으로서의 Image를 나타내기 위해 Solid와 Void, Penetration 등의 요소를 백양로의 Scale에 적응하도록 단순하고 강하게 구성하였으며, 기존 건물들과 대비적 표현 효과를 갖게하여 독자성을 부각시키도록 하였다.

내부의 공간체계도 Rotunda Hall을 중심으로 2개의 축을 갖도록 하였으며 광혜원, 제각을 향해 열리는 공간의 방향성은 과거와의 만남에 의한 역사성의 암시적 표현이 되며, 외부공간의 방향감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변화감을 갖게 하였다. 또한 Rotunda Hall은 공간형태와 관념적 역할로써 연계·영속성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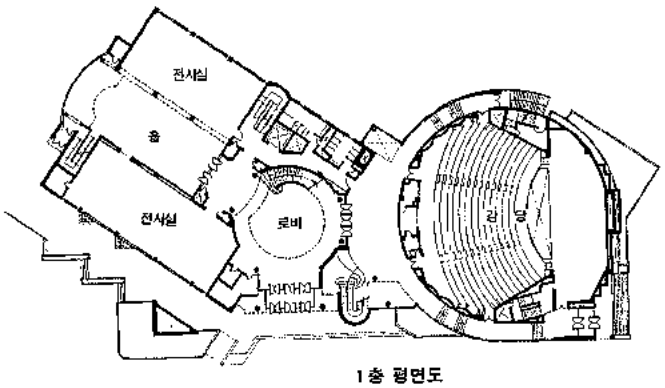
끝으로, 전면의 느티나무는 기존 환경으로서의 의미와 장소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존시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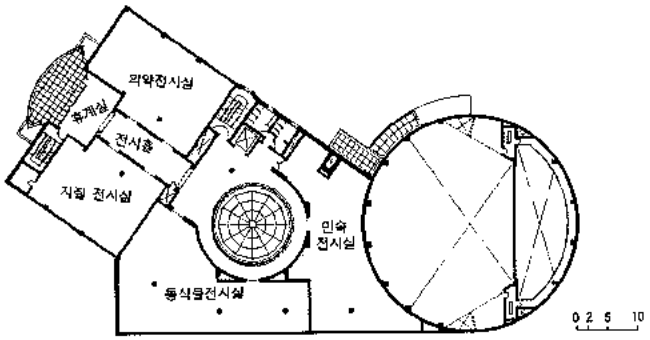
3층 로비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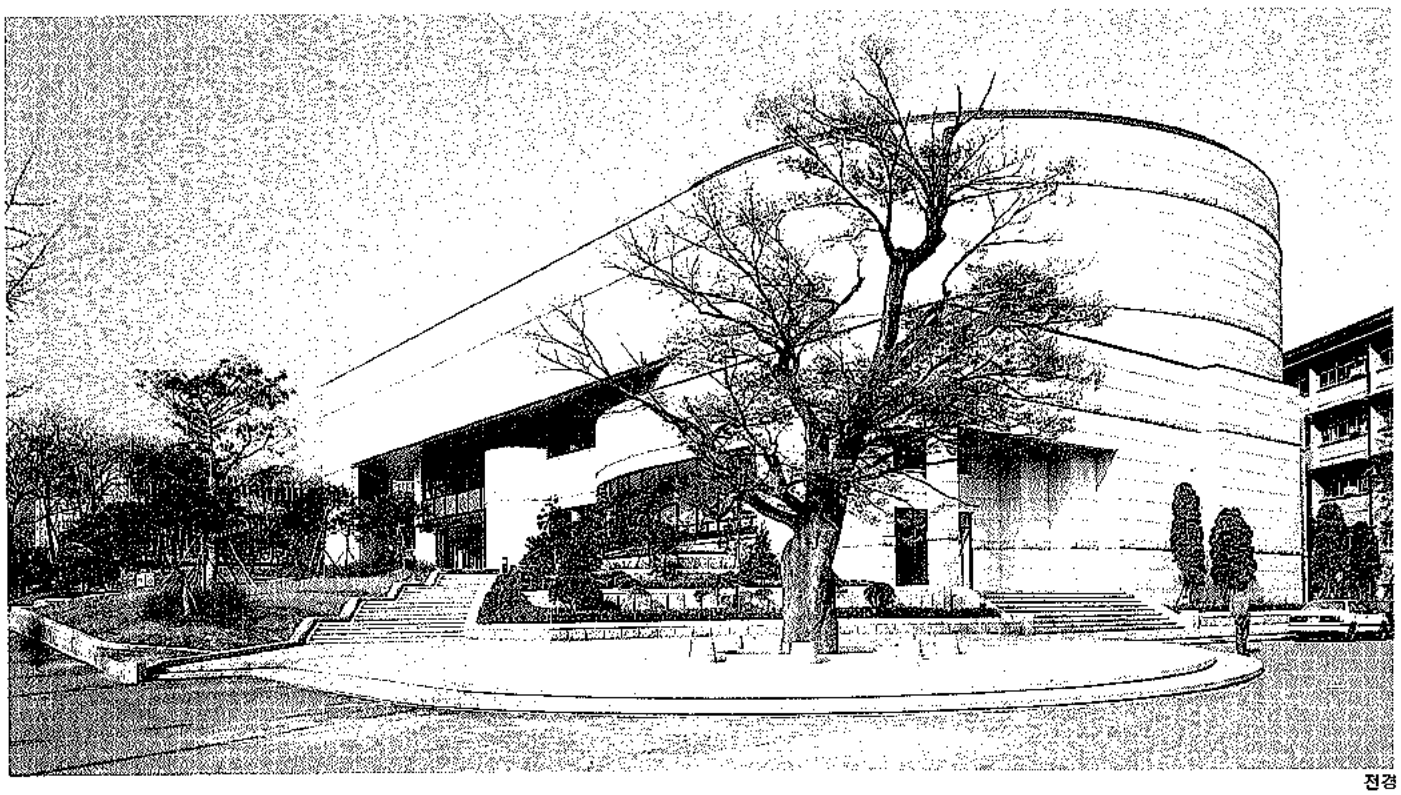
2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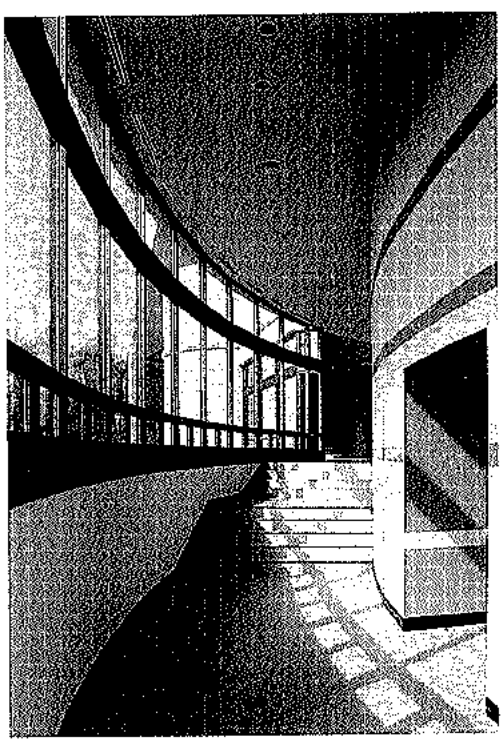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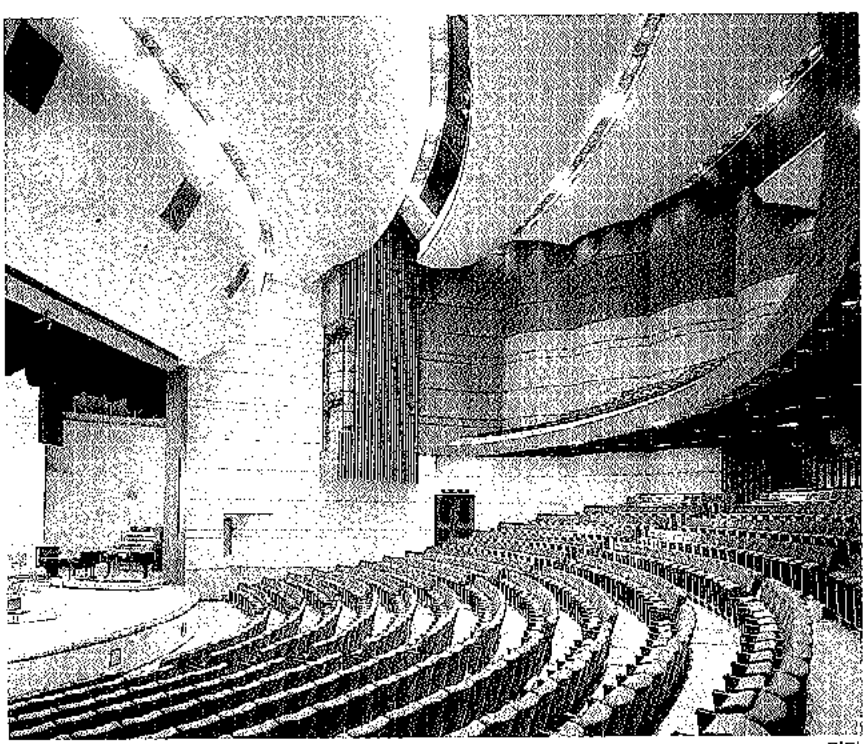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전경



강당출입구 계단



강당

국립진주박물관

Jinjoo National Museum

(주)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pace Group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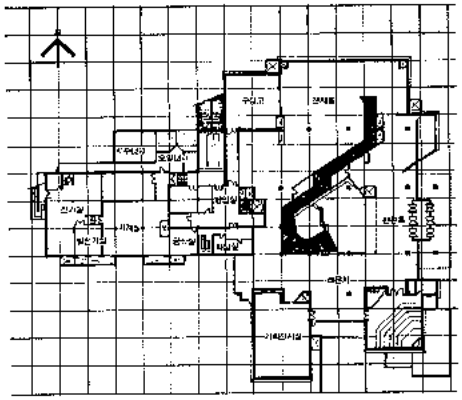
서측 입면도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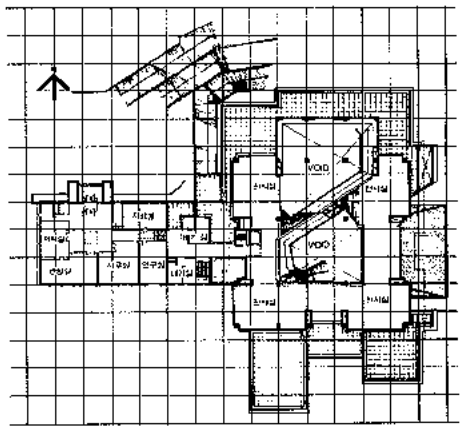
◆
대지위치 / 경남 진주시 남성동 진주성내
대지면적 / 17, 930. 659m²
건축면적 / 2, 727. 285m²
연면적 / 4, 948. 782m²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시공 / (주) 부원건설
준공년도 / 1985

서측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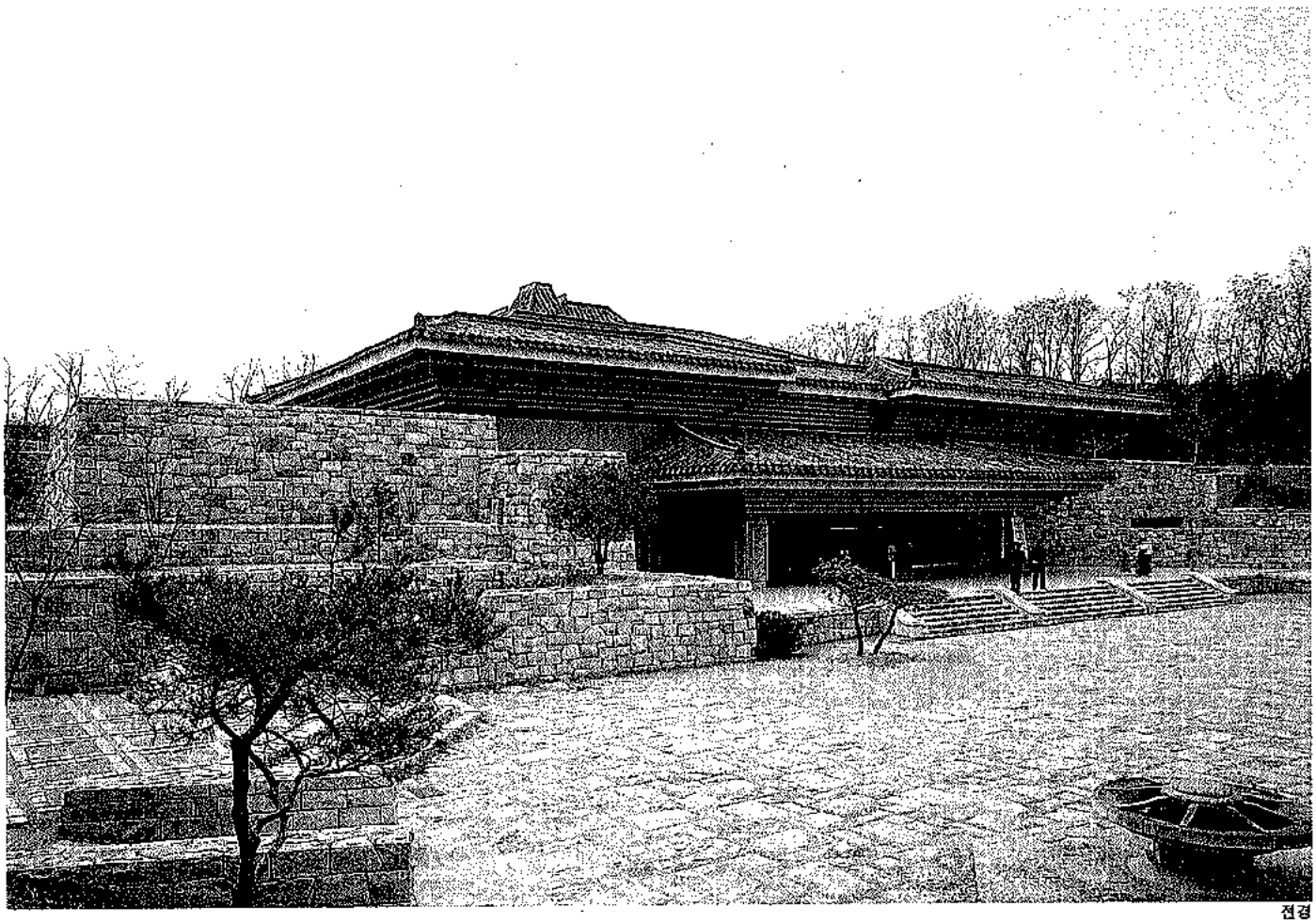
남측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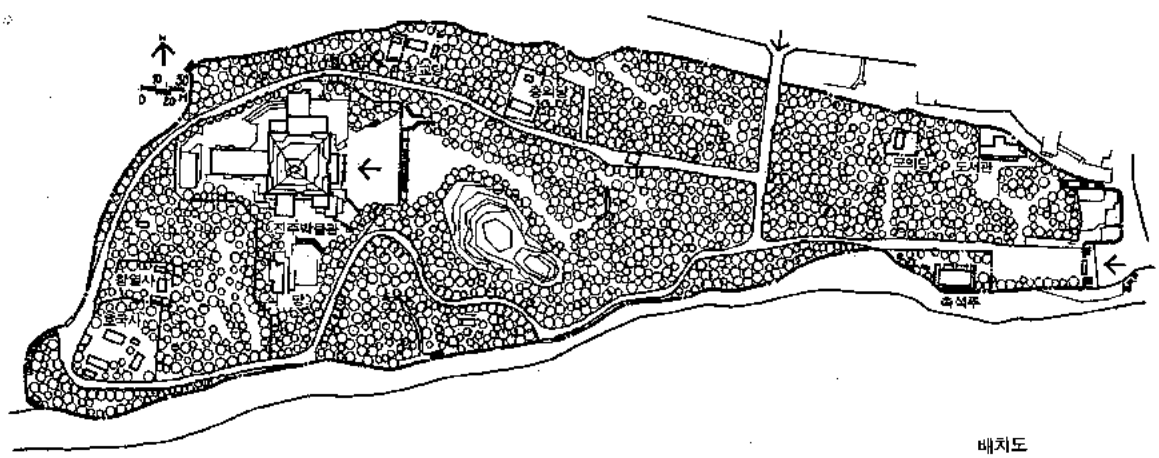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전경



배치도

산림청 광릉수목원 부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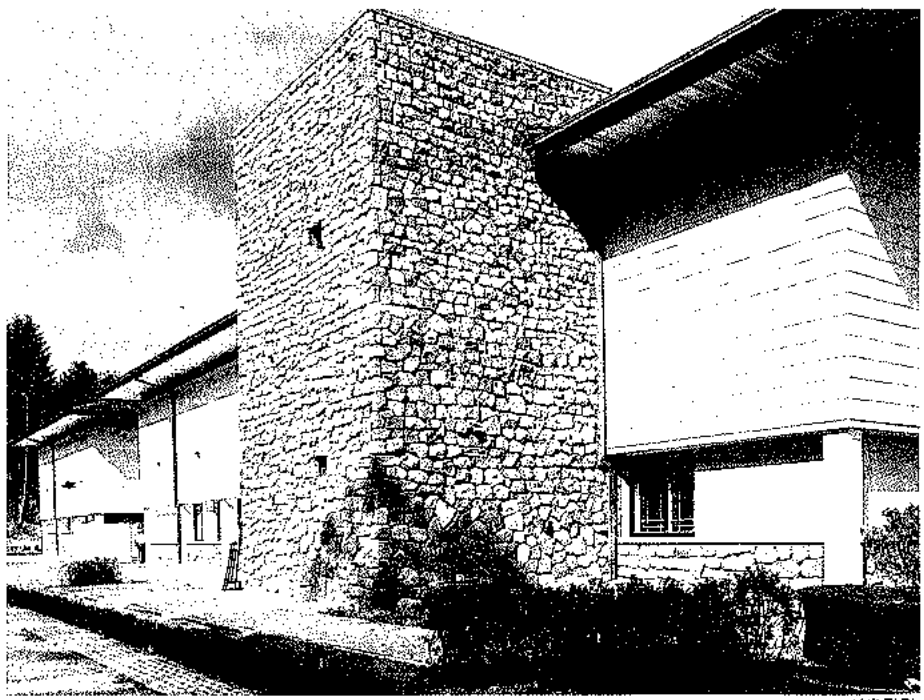
Kwangnung Arboretum

金常植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ang-Sik

단면도

◆

대지위치 /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직동리
대지면적 / 11, 407 ㎡
건축면적 / 2, 278 ㎡
연면적 / 4, 616. 5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외부마감 / 외벽 – 화강석버너구이+산석
지붕 – 천연스레이트 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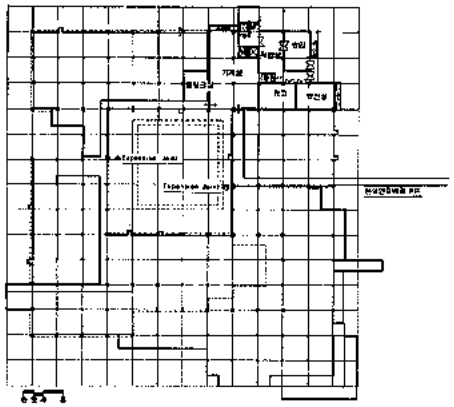
서측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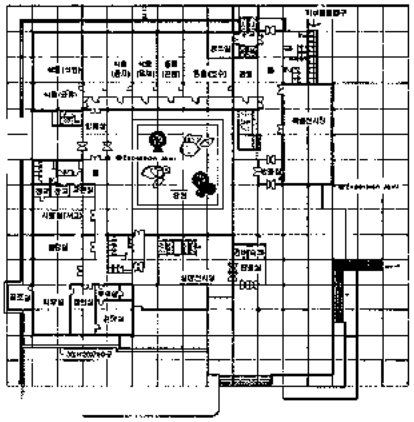
설계소묘

박물관의 설계개념을 형성케 하는 객관적 요소들은 지역적 특성과 주어진 Area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전시방법과 관리문제, 성장하는 인자들에 의한 공간의 배분 및 건축물의 조형적 처리등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Scheme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시설물 배치는 북서쪽으로 산세가 위요 공간을 형성하며, 남서면으로 비교적 평활하여 오픈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쪽에 설정하였다. 남북쪽으로 흐르는 자연 발상적 축을 따라 건물과 외부전시공간을 두었으며 수목원 주진입로측에서 박물관으로 연계되는 동선은 기본축에 따라 비정형적이고 자유로운 동선의 흐름을 전개함으로써 기·승·전·결의 전통적 공간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변화와 깊이를 부여하였다.
평면은 "ㅁ"자 형식으로 구성하여 지하 및 1층에 관리·자료실을 두고 2층에 전시실을 두었다.
이로써 Control Area와 Exhibition Area로 크게 구분되어져 명쾌한 Zonning을 꾀하였으며, 상호기능이 수평·수직동선상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박물관의 외형은 하나의 큰 관전이었으며 결국 평면기능에서 주어지는 형태를 무리없이 수용하여 우리 눈에 친숙해져 있는 조형적 개념으로 처리케 되었다.
즉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의 재료를 이용하여 소박스럽게 지어졌던 우리네 건축에 그 본질성을 두고 여건에 맞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그 자체로 처리하려고 부심하였음을 알리고 싶다.
이외에도 반외부 공간도입이나 피로티 밑의 목조 캐노피처리, 자연채광, 에너지 절감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에 반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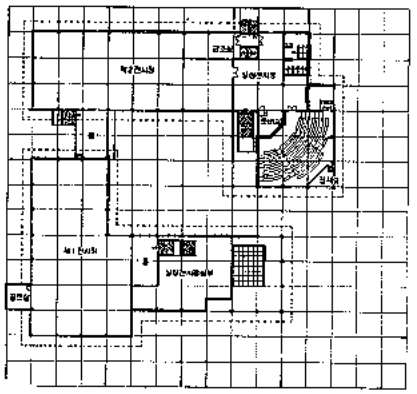
제 1 전시장 (목재가공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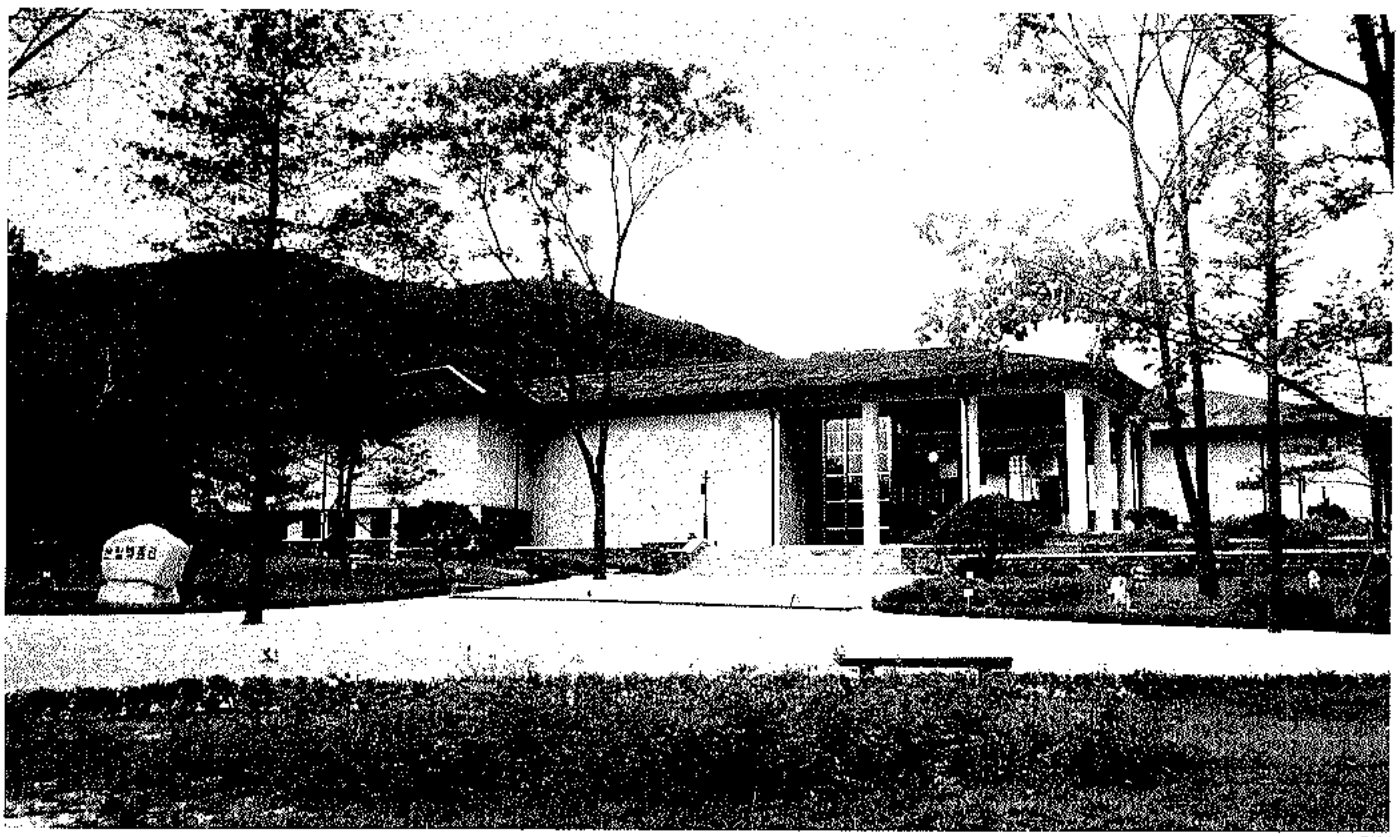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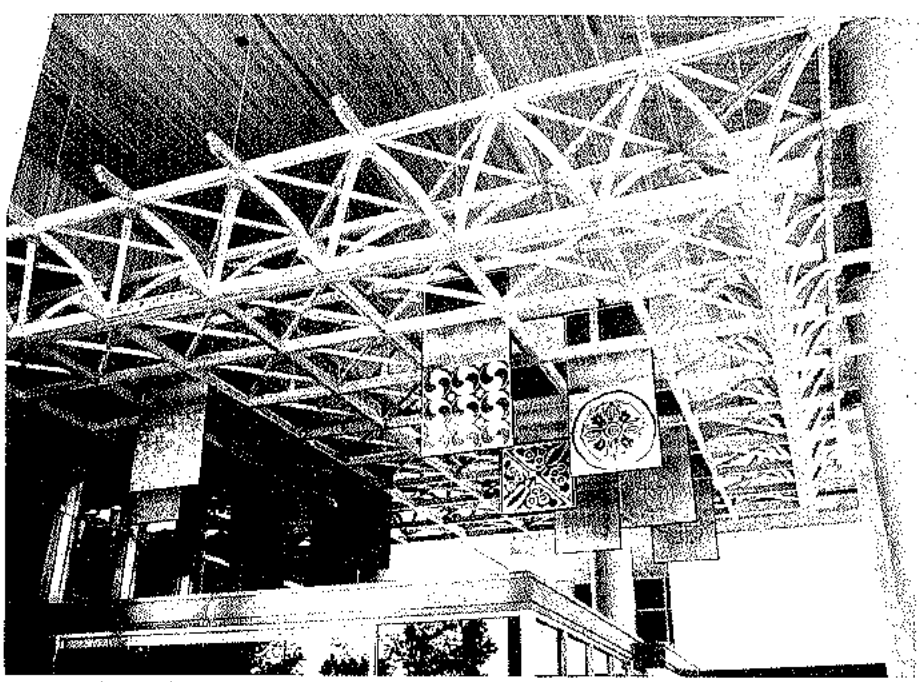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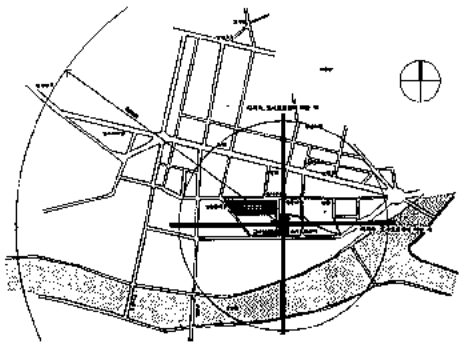
주출입구 상부 조형물

제 2 전시장 (목판조각 수렵도)

안성 군민회관

Ansŏng-gun Residents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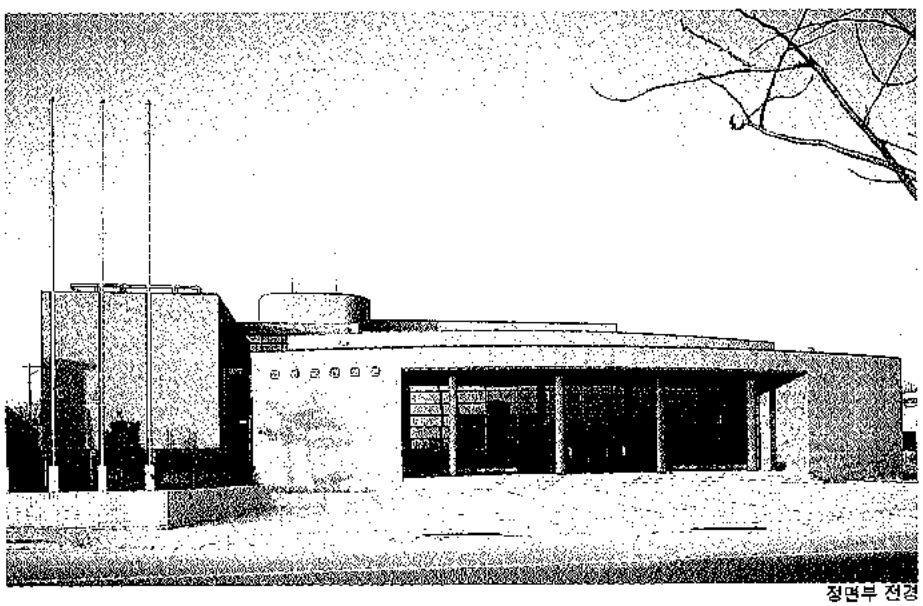
宋在昇 / 바로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ong, Jac-Seung



지형 현황도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낙원동
대지면적 / 3,117㎡
건축면적 / 1,436㎡
연면적 / 2,635㎡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설계년도 / 1985. 8
준공년도 / 1986. 10
외부재료 / 적벽돌치장쌓기



정면부 전경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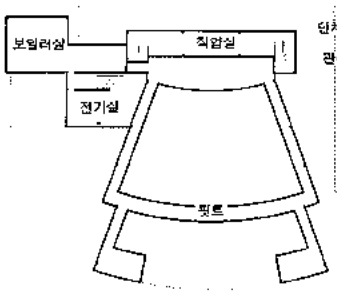
대강당 로비(50평)는 필요시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소회의실(63평)은 회의, 세미나, 강연회 이외에 소규모 연극, 각종 발표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필요시 리허설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안성은 옛부터 내륙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경기도립병원이 본 대지에 위치하였다. 기존에 있던 병원건물이 헐리고 본 문화회관이 세워지게 되었다. 기존건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외벽은 적벽돌을 사용하였고 기존 대형 은행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건물위치의 설정등이 건물계획에서 중요한 디자인요소로 작용했다. 건물 전체의 형태는 세종문화회관 아류의 형태를 벗어나 내부기능(강당 기능, 도서실 기능)에 의한 순수한 형태를 만들려고 했다. 도서열람동의 층고를 낮추기 위해 워플슬래브를 사용한 것이 구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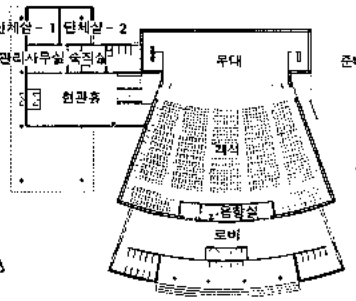
대강당(550석 규모)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및 무대장치를 완벽하게 계획하였고 소회의실(200석 규모)와 도서실(200석 규모)는 난방시설만 하였다.

계단홀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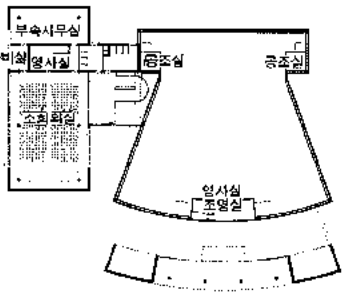
서측입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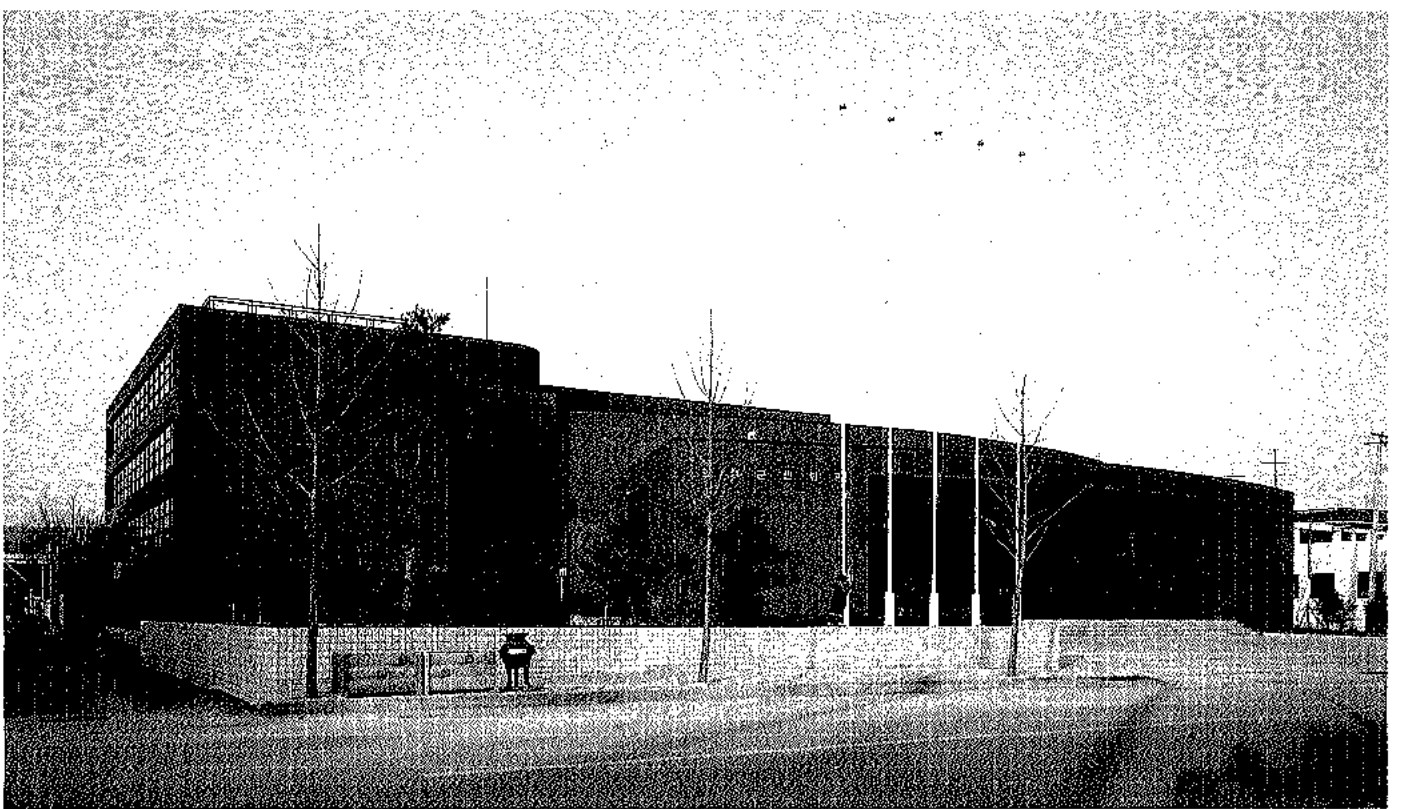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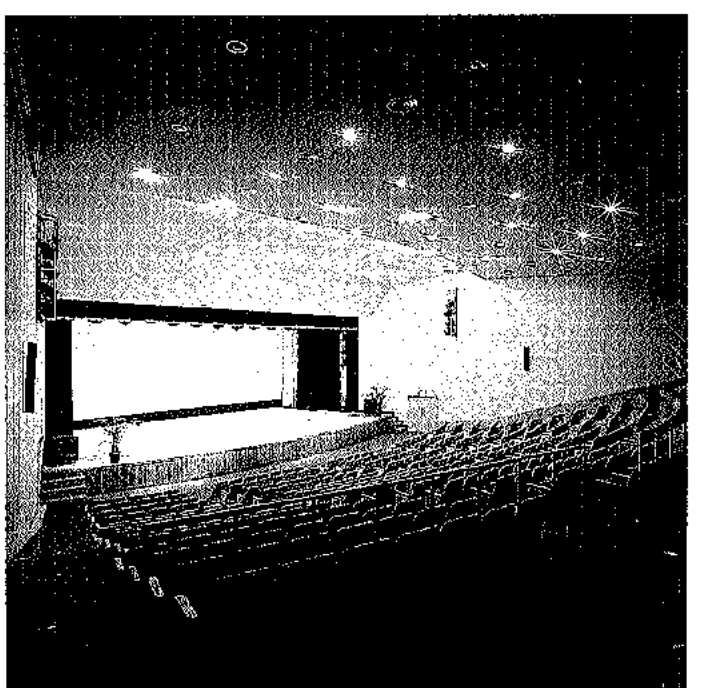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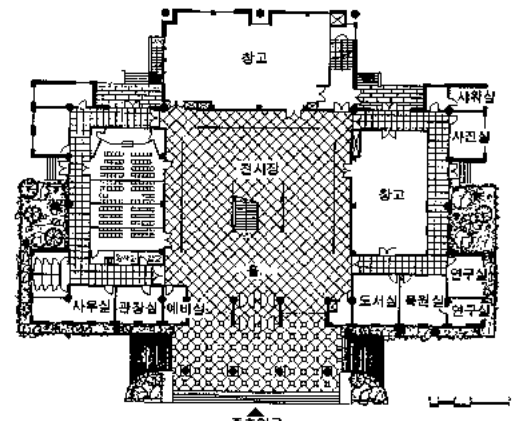
2층로비



대강당

원광대학교 박물관
Woun-Kwang Univ.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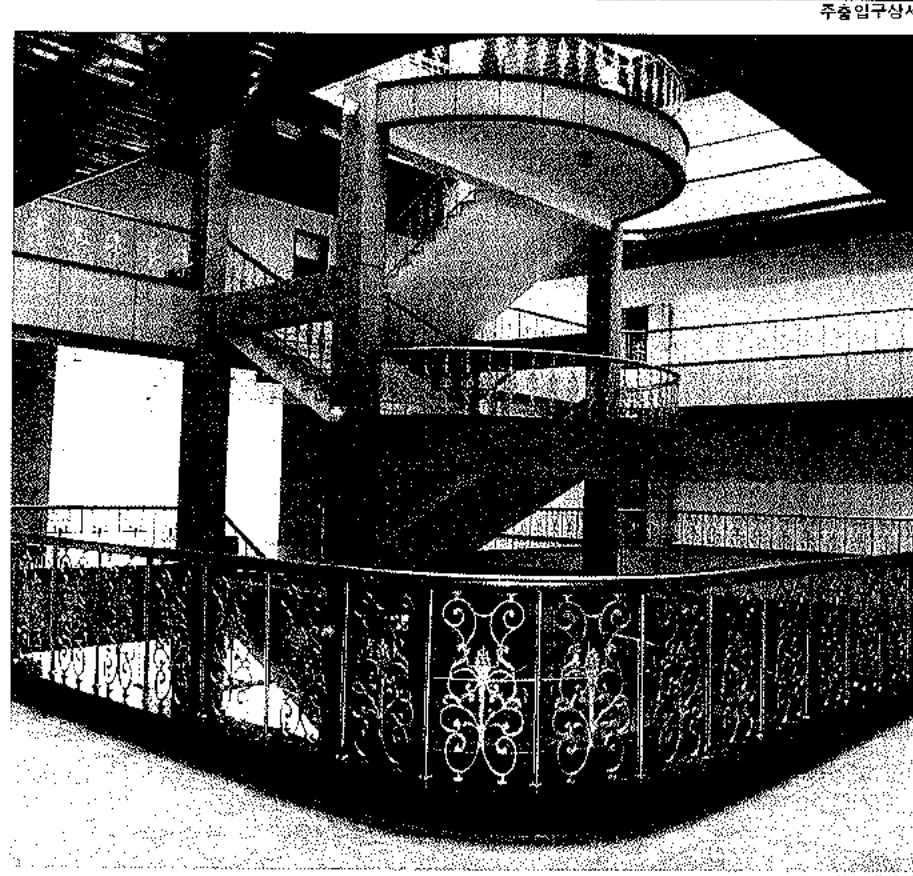
車東明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일 · 하나로건축
Designed by Cha, Dong-M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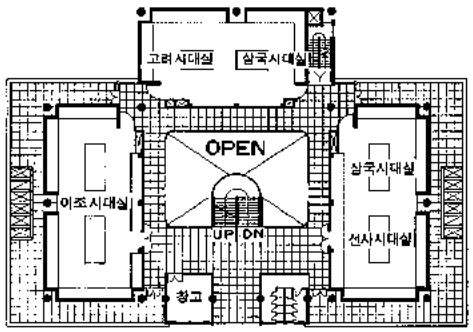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대지위치 / 전북 이리시 신용동
대지면적 / 35,000m²
건축면적 / 2,090m²
연면적 / 6,065.11m²
건폐율 / 5.97%
용적률 / 16.45%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암, 바나구이, 에말그라이트뿜기, 변색벽돌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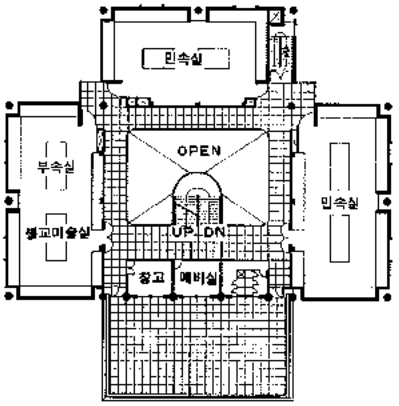
주출입구상세


내부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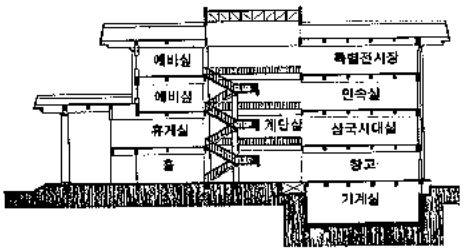
■
설계소묘
본 박물관은 대학이 위치한 마한 백제 문화권의 중심부에 있으므로 주위에 산재해 있는 유형 · 무형 문화재를 쉽게 발굴할 수 있어 마한 백제문화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한 문화재를 전시하여 학생은 물론 관련 인사들에게 쉽게 접촉할 수 있게 함 목적으로 본 박물관을 신축하였으며, Campus Master Plan에 의해서 정문의 이전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Campus 중심부에 배치하였고, 계획상으로는 배치계획에서 접근이 쉬운 주위의 소나무숲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입면계획은 박물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웅장하고 섬세하게 표현하려 노력하였다.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중앙의 계단부분이 1층 현관 Hall에서 4층 천정까지 Void되어 수직공간의 팽창감과 천창에 의한 자연채광을 1층까지 끌어들였다.
박물관의 기능상 관람객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의 연계성까지도 고려하는 평면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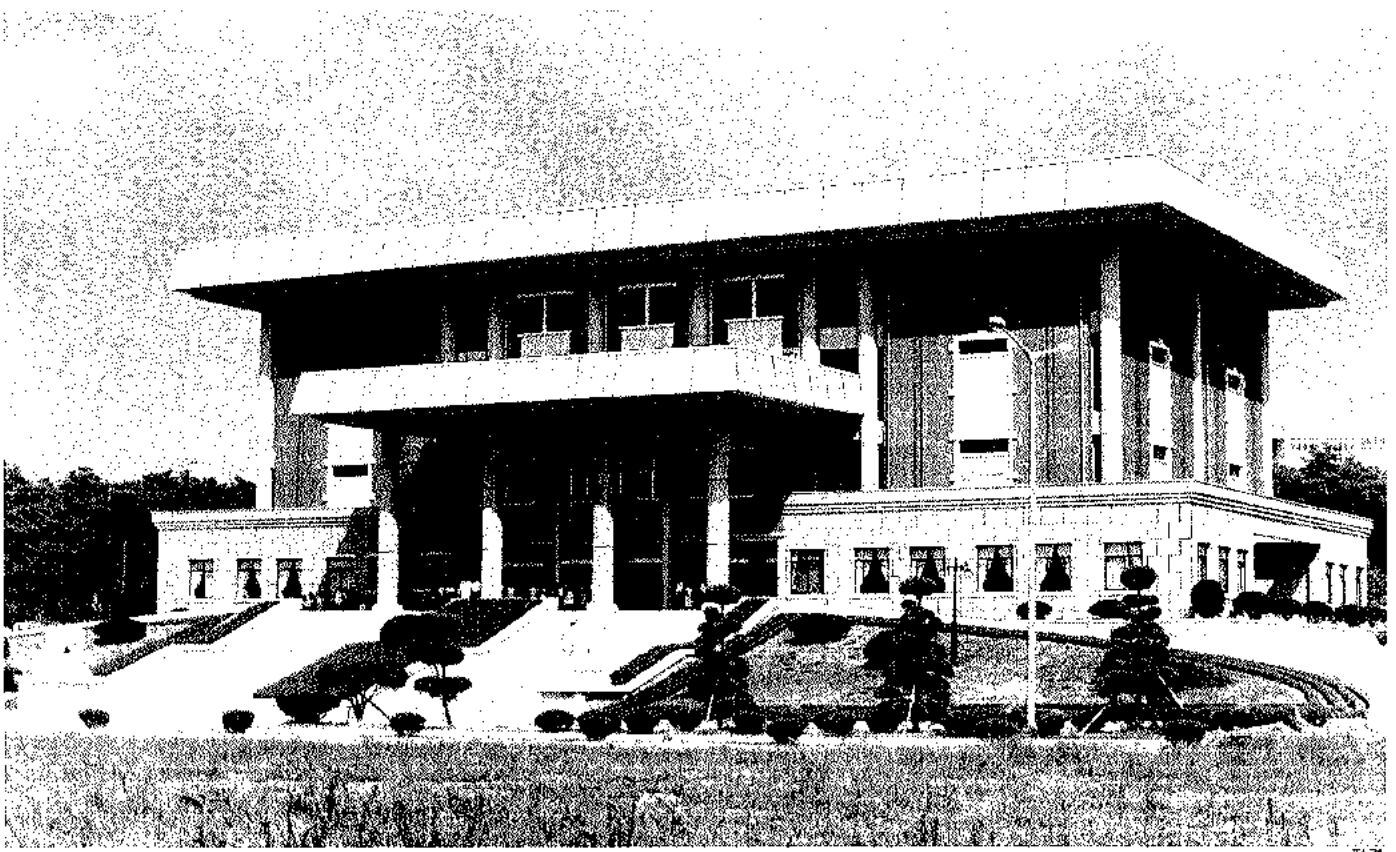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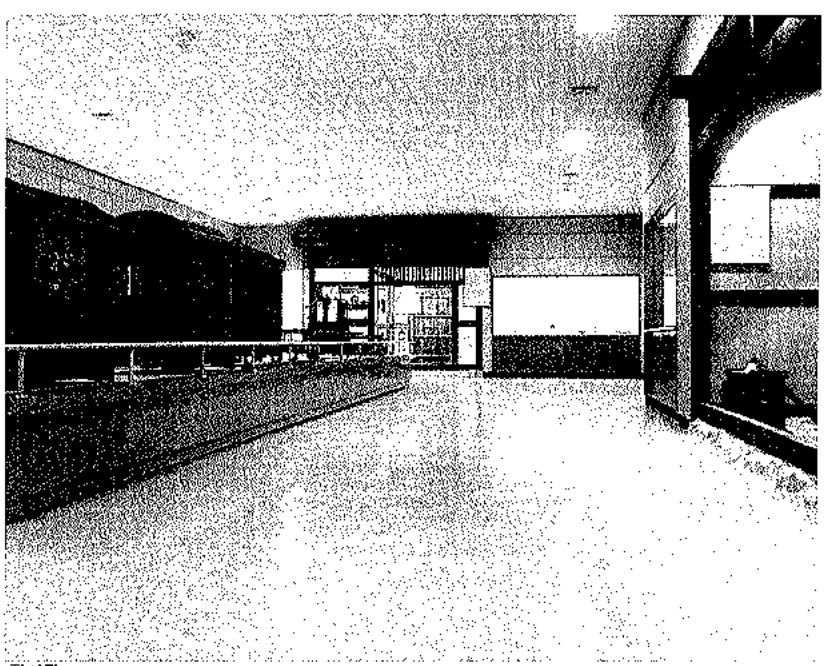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단면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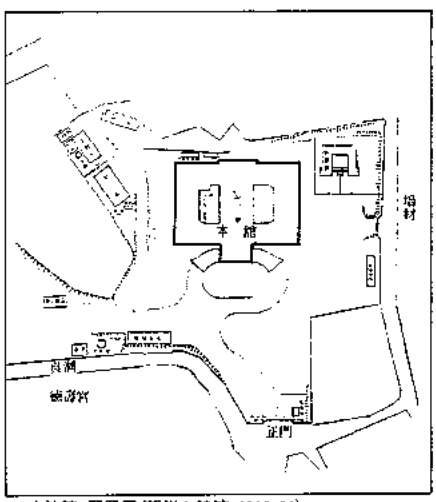
전시장

정면도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金晶東 / 목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by Kim, Chung-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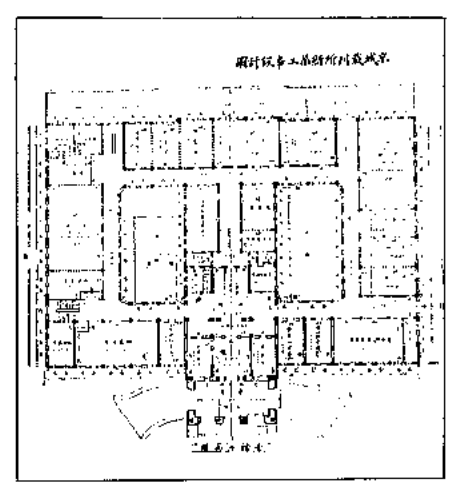


▲大法院 配置図(朝鮮と建築. 1928. 11)

72. 大法院 廳舍

위치 / 중구 서소문 37
착공년월일 / 1927. 6. 20
준공년월일 / 1928. 11. 9
설계자 / 岩井 + 笹慶一
시공자 / 多田組
건축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벽돌조
층별 : 지하 1, 지상 3
대지면적 : 4,860
건축면적 : 632.66 평
연면적 : 1,962. 72평
보존상태 / 1개 층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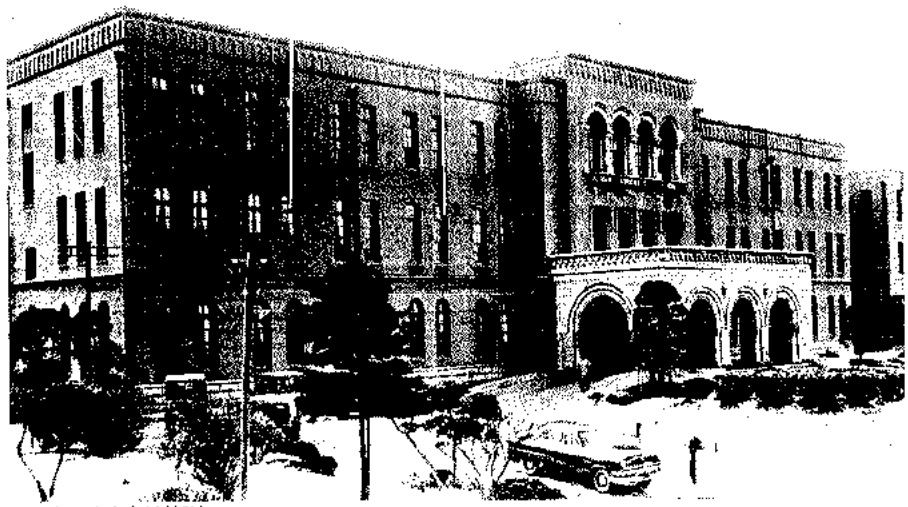
貞洞 돌담길이라 하면 德壽宮을 옆으로 하고 도는 그 긴 길을 말하는데 그 곳은 법원들, 교회들, 학교들, 외국의 영사관들로 인해 그 이미지가 近代化되어있다.
그 축의 한 結節点 가장 높은 곳에 大法院은 세워져 있다.
이 터전의 유래는 1886년 이 곳에 세워졌던 國立 育英公院 (The Royal University) 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곳에서는 미국식 新교육이 시작되었으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곧 해체되었다. (1895년)
1895년 3월 이 터에 우리나라 최초의 近代式 재판소인 平理院[1]이 들어섰다.
李儁열사도 이 때 平理院의 검사로 재직했었다.
李儁열사의 회고록에 의하면 이때까지는 평리원과 덕수궁 사이에 구름다리가 놓여져 있어 高宗도 자주 왕래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2]
그 후 平理院(漢城裁判所)은 公平洞 부근에[3] 신축 건물을 세우고(1908. 6~1908. 11) 이전했다. 이 후 貞洞의 옛 평리원 건물은 조선총독부 조사국 分室로 사용되어 왔다.
그들은 1919년 4월에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이라는 법을 제정 공포하고 일제의 치안에 위배된다는 憂國志士들을 대량 체포, 구금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공평동의 한성재판소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어 新廳舍의 신축을 요구하게 되었다. 1926년 6월 그들은 다시 정동 옛平理院址에 이른바 「京城3裁判所」를 세우기로 하고 대지 4,860평을 확보했다. 대지는 도로면 보다 21尺 높으므로 高壇 (High Place) 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군림과 권위의 상징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돌담길 4거리에서 大法院으로 진입하려 하면 그 位階로 인하여 어떤 두려움을 받게 된다.
재판소는 岩井과 笹慶一의 설계에 의하여 1927년 6월 20일 착공되었다. 공사는 多田組가 맡아서 했다. (준공은 1928. 11. 9).[4]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약 1,962평의 이 건물은 立面에 近世고딕식 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平面은 日字形을 채택했다. 건물 전체는 近世고딕식이나 현관의 Arcade 식 Arch 돌림과 3층 중앙부의 창문의 Tracery 부분의 아치 돌림으로 인해서 모던한 기분을 가미하고 있다.[5]
철근콘크리트조와 벽돌조에 화장석과 화장타일을 붙여 재마감한 이 재판소 건물은 道廳舍 등 官工事의 典型이 되어 지방에까지 널리 파급되었다. 특히 현재 韓國文藝振興院으로 쓰이는 옛 京城帝國大學 本館이 이 건물과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1931)
「京城裁判所」는 준공 후 高等法院, 覆審法院, 地方法院의 3법원이 들어서게 되었다.[6]
8. 15해방 후 대법원이 사용하기 시작,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보이는 上部 1개층은 후에 졸속 증축한 것이다.
현재 서울市와 법원관계자들의 계획에 의하면 1989년 강남구 서초동에 준공되는



▲1층平面図(朝鮮と建築)

◆
金晶東
48년 경기도 개성생으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재 목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및 「꾸밈」지 주간을 맡고 있다.

새법원 건물로 정동, 서소문일대의 법원(검찰청)들을 옮길 예정이라 한다. 이 계획에 의하면 현 大法院청사 건물은 서울市에서 인수, 「圖書館」으로 용도변경 사용할 예정이라 한다.[7]



▲日帝下의 庁舍(大法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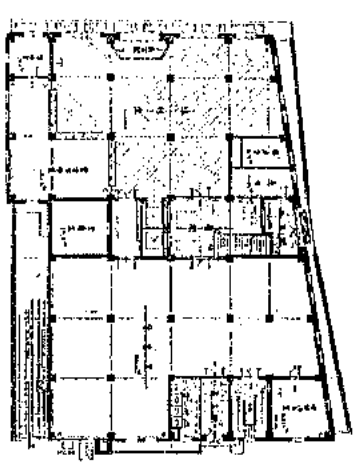
□註□

1. 平理院내에는 法官養成所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후에 京城法學專門學校가 되었다.
2. 柳子厚, 「李儁先生傳」, 1947.
3. 현 第一銀行本店 新築址, 公平洞 163(옛 신신백화점 후편).
4. 地整공사는 京城刑務所에서 맡았다.
5. 「서울600年史」, 제 4권, p.362.
6. 「朝鮮と建築」, 1926.12, 1927.10, 1928.11.
7. 1987.11.7 韓國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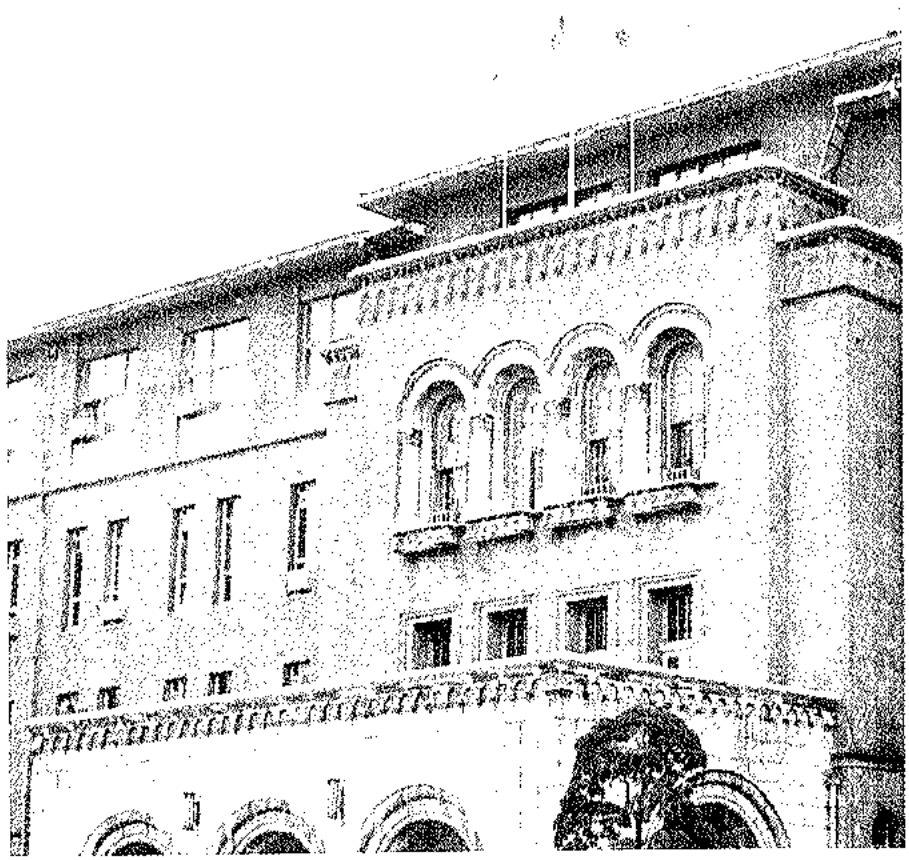
▲貞洞 네거리에서 올려다 본 庁舍,준공직후

73. 韓國電力公社 社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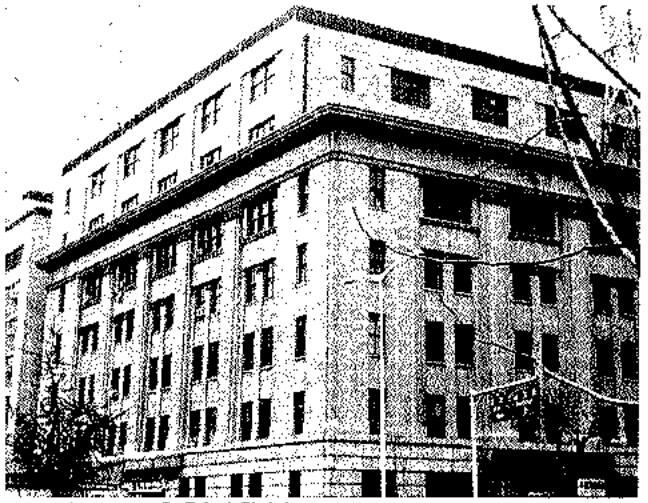
위치 / 중구 을지로 2가 사거리
착공년월일 / 1927.8.20
준공년월일 / 1928.12.30
설계자 / 小笠德藏
시공자 / 清水組
건축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 지하1, 지상5, 옥탑2
대지면적 : 700 평
건축면적 : 266.3평
연면적 : 1,666 평
보존상태 /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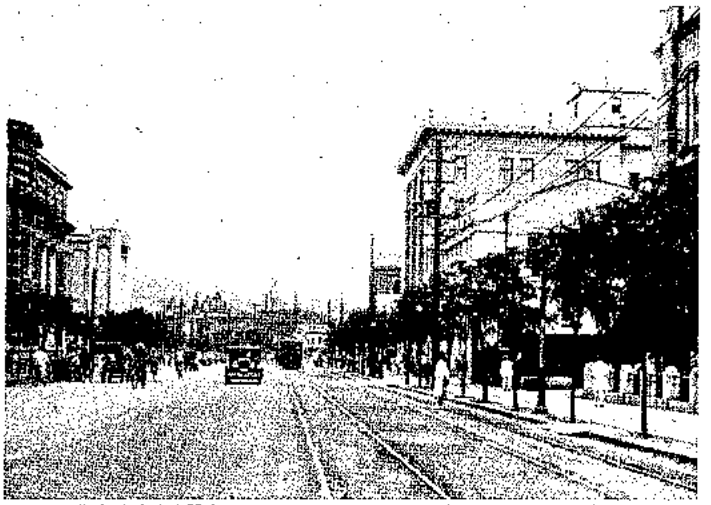
▲社屋의 一層平面図(朝鮮と建築)



▲正面部分, 上部 1 個層은 증축된 것이다.



▲現在의 韓電,屋上은 증축된 것이다



▲1920년대 후반의 南大門路. 좌측이 朝鮮殖産銀行, 우측이 韓電이다(朝鮮殖産銀行 20年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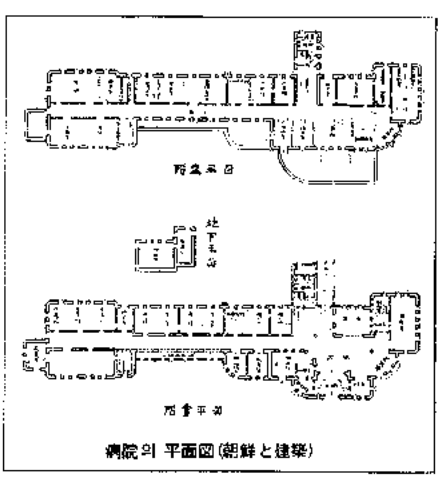
韓國電力의 母胎는
「漢城電氣會社」(1898)였다. 그 후
「韓美電氣會社」로 되었다가 다시
「日韓瓦斯電氣會社」(1909)로 바뀌었다.
「京城電氣會社」로 된 것은 1915년이었다.
이때까지는 韓美電氣會社의 舊 社屋[1]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1925년 이후부터의 韓電 사옥은 충무로
2가에 있었다.[2]
그 후 한전의 社勢가 크게 확장되자 보다 큰
新사옥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남대문로에 新사옥을 세우게 되었다.
대지는 약 700평이 확보되었다.[3]
설계는 淸水組 본점 설계부의 小笹德藏이
맡았다. 공사는 淸水組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 공사 현장에는 金相根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설계는 Chicago School 적 Office
취향에다 Renaissance 적 장식 요소를
일부 삽입했다. 柱頭와 窓台(Window
Sill), 그리고 처마 밑부분에 Dental
Ornament 의 요소들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사는 1927년 8월 20일에 시작되어
이듬해인 1928년 12월 30일에 준공되었다.
건평은 266.3평, 연건평은 1,666평에
이른다.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Slop 지하도와 Dry
Area 도 도입했다. Slop 지하도는 좌측면에
나란히 붙어 있었고 Dry Area 는 전면을
포함, 3면에 걸쳐 설치했다.[4]
구조는 1923년 9월 日本 東京을 강타한
대지진에 놀란 직후라 耐火, 耐震,
鐵筋混凝土을 함께 채택했다.
우리나라에 耐震설계가 처음 도입된 사례가
된 건물이다.
건물의 1층부분은 前後, 左側의
3방향으로부터 진입되게 되었다. 내부는
영업실과 진열실로 半分 되었다. Core 는
中央과 前面의 두 곳으로 나눴다.
전기 생산의 본산인 관계로 Elevator 도
2대나 설치되었다.
5개층의 각 평면은 Module 화 시켰고 모두
사무실로 분할되었다.
해방 후 옥상 부분은 철거되고 2개층을
증축했다. 그러나 건물의 원형은 비교적 잘
保存되고 있으며 현재는 韓電
受容家奉仕室로 사용되고 있다.[5]

□註□

1. 鍾路 2街
長安빌딩址(韓美電氣會社 참조)
2. 「朝鮮と建築」, 1926.12, 本町2丁目.
3. 「朝鮮と建築」, 1926.12, 건물의
左側面 을지로 4거리에는 日本生命빌딩이
세워져 있었다.
4. 도로 부분은 모두 Glass Block 으로
덮었다.
5. 고층의 新사옥은 강남구 삼성동 167에
세워졌다.(1986)
韓國電力公社는 이자리에
「電力館」(古燈器博物館 포함)을 계획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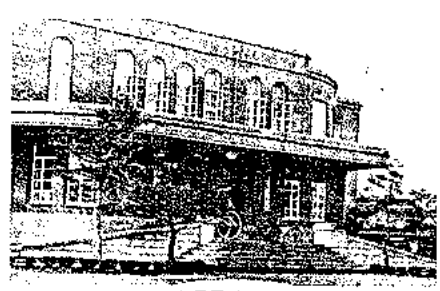
74. 龍山 鐵道病院

위치 / 한강로 16
착공년월일 / 1928. 3
준공년월일 / 1929. 3
설계자 / 鉄道局 工務課 建築係
시공자 /
건축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 지하 반, 지상 2, 옥탑 1
대지면적 : 2,600㎡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2,105.86 평
보존상태 /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사용



病院의 平面図(朝鮮と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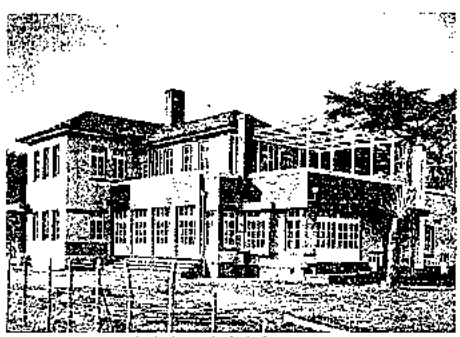
이 병원은 龍山同仁病院이란 이름으로
1907년 12월 설립되었다. 처음은
소규모였지만 鐵道病院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13년 9월 龍山鐵道病院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 후로 수요와 확장의 추세가
계속되어 1926년 4월부터 鐵道局에서
직영하기에 이르렀다.[1] 이에 따라 병원은
철도국 전용병원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日帝下의 철도국은 大組織으로 군림했다.
단위 조직으로 체신국과 兩立 관계였다.
이에 부수적으로 철도 災害가 증가되었고 그
상해 처리가 시급하므로 새로운 의료 시설이
요구되었다.
龍山 鐵道 構內는 그 모든 것들의
중추였다.[2]
新병원의 설계는 1927년에 시작되었다.
공사는 1928년 3월에 착공되었다.
平面은 환자의 이용 편리에 유의하여
불필요한 분할을 피했다. 외관은
近代式으로 無用한 장식을 배제했다.
붉은 벽돌로 단순히 쌓아 올렸다.
角面은 되도록 버리고 曲面으로 했다.
현관부는 물론이고 모서리 부분도 모두
曲面처리를 하였다. 현관 Canopy 부분과
2층의 Arch 窓이 원형 리듬을 살리고 있다.
병원의 규모는 대지면적 2,600㎡에
건축면적 2,105.86평으로 했다.
半地下(일부)와 지상 2층, 屋塔으로
구성했다. 아직 승강기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고층은 환자의 이용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축 설계는 철도국 공무과 건축계에서
맡았다. 철그콘크리트조에 붉은 벽돌로
마감했다.
병원은 1929년 3월에 준공되었다.[3]
8.15 해방후에는 한때 국립서울병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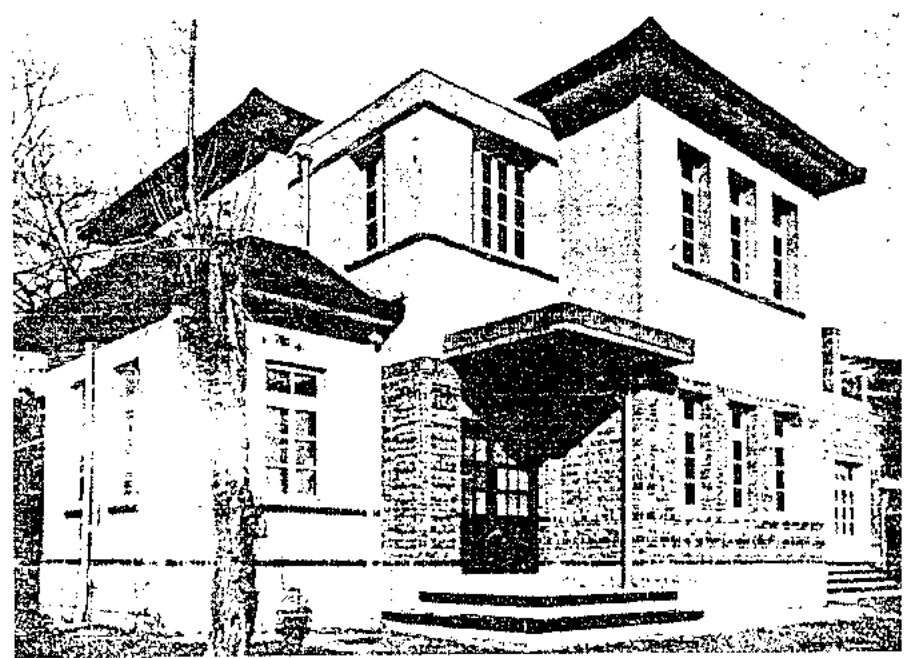
1929년 준공당시의 病院(京城と仁川)▲

▲부분디테일

▲中央大学校 부속용산병원이 되었다.



▲측면, 주위의 환경이 고려되었다.



▲朴吉龍의 現代的 住宅, 계획이 의도적이다.(朝鮮と建築)

사용되었다. 그 후 다시 철도병원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최근 中央大學校에서 인수, 보수하고 대학부속병원으로 개원했다. 전면 현관부의 건축적 요소들은 이때 모두 제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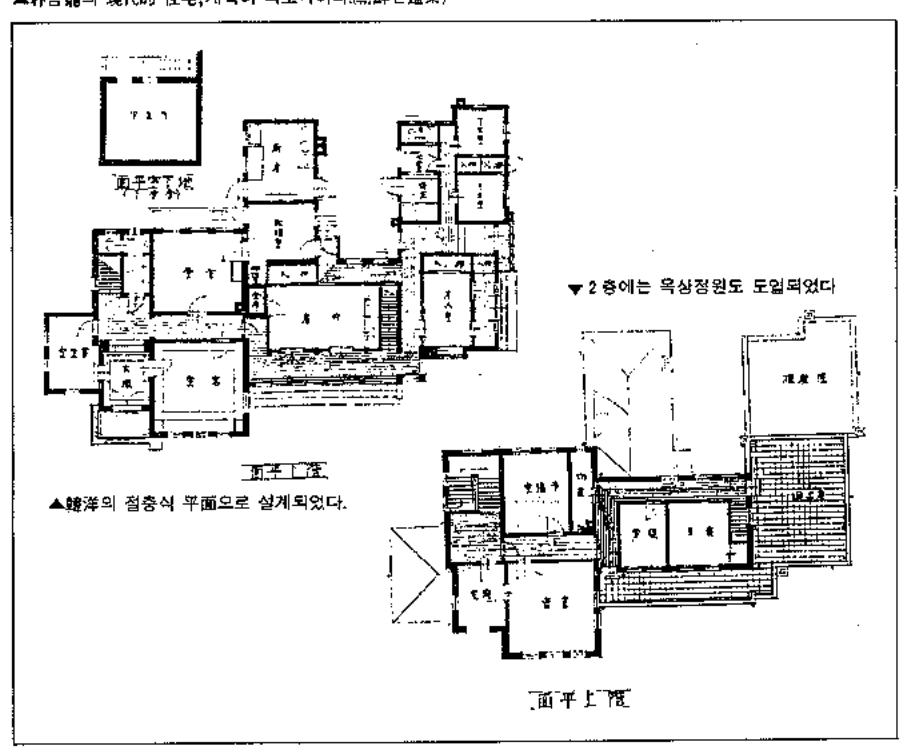
□註□

1. 「서울600年史」, 제4권, p.1,099.
2. 京城府 漢江通 16(龍山鐵道 構內).
3. 「朝鮮と建築」, 1929. 5.

75. 金秊洙의 住宅

위치 / 성북동
착공년월일 / 1929. 6. 25
준공년월일 / 1929. 9. 17
설계자 / 朴吉龍
시공자 / 今岡組
건축규모 / 구조 : 벽돌조
층별 : 지하1, 지상2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78. 35평
연면적 : 124. 62 평
보존상태 / 미확인

京城紡織株式會社는 1919년의 3.1 운동이 일어난 몇달 후인 10월에 설립되었다.
初代 社長은 朴泳孝였으나 실제적인 설립자는 金性洙였다. 常務取締役은 金秊洙였다.[1]
金秊洙의 住宅은 城北洞에 세워졌다.



▶
좌측은 宗親府 오른쪽은 景福宮이다.
宗親府 건물들을 헐고
高官들을 위한 病院이 세워졌다.
삼청동에서 東十字閣쪽을 향한 사진.

그 곳은 東小門 밖의 城北里로서 1920년대까지만 해도 교통편이 불편한 곳이었다.
溪流가 흐르고 丘陵이 펼쳐지고 松林이 우거진 곳이었다. 또한 어떤 詩人의 말처럼 "성북동 비둘기"가 넘나 들던 곳이기도 했다. 더구나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도시의 잡음도 없었다.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도 아주 좋은 환경을 갖는 장소였다.
朴吉龍은 1929년 金季洙로부터 이 주택의 설계를 의뢰받았다. 주택은 벽돌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되었다. 연건평은 100평이 넘는 규모였다.
이 住宅은 韓國的 曲線을 갖는 지붕 部分만 제외한다면 F.L.Wright 의 住宅과도 유사하다.
1층의 현관을 들어서면 좌측에 書生室, 우측에 客室을 두어 公的 空間을 우선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前面에 놓여 있고 계단참 밑에는 화장실을 두었다. 비교적 긴 속복도를 끼고 식당, 內房, 하인, 하녀실 등이 놓여졌다. 住宅의 중심은 內房인데 4面이 복도, 계단으로 둘러싸여 있다. 內房의 上部는 2개의 침실이 놓여있어 私的 空間을 만들고 있다. 書齋도 그 곳에 있다.
書生室은 單層으로 2층 건물의 현관 진입을 부담없이 처리했다. 全體的으로 平面은 자유스러웠다. 凹凸이 너무 심한 것이 단점이다. 이것은 기능과 Privacy 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따라온 결과였다.
和室의 다다미가 流行하던 무렵 「溫突」의 우월함을 돋보이게 했다. 韓國人의 韓國式 居住方式이라는 것은 韓國的 風土와 그 곳에 적응된 생활양식이 우선하는 것이었다. 建築物의 外觀에도 日本式의 분위기는 배제되었다.
오히려 Wright 의 住宅風이 들므로 해서 西歐風이 앞섰다. 1층 玄關部 주위는 燒過變形벽돌을 노출시켜 使用했다.
또한 Cream 色 Scrach tile 로 壁面을 둘렀다. 지붕은 天然 Slate 로 올려 주위의 松林에 잘 어울리게 했다. 全體的으로 처마선은 지나치게 투박하다.[2]

□註□

1. 金季洙는 金性洙의 동생이다.
2. 金襖子, "金季洙 氏邸를 봄", 朝鮮と建築, 192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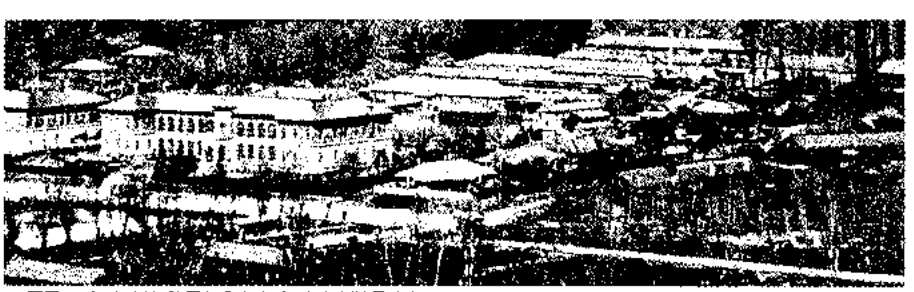
76. 國軍서울地區病院

위치 / 종로구 소격동 165
착공년월일 / 1927. 7. 1
준공년월일 / 1929. 12. 10
설계자 / 總督府官房会計課
시공자 / 長門組
건축규모 / 구조 : 벽돌조
층별 : 지상 2
대지면적 : 6,000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414.89 평
보존상태 : 대보수됨

景福宮 東側 三淸洞 길의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軍을 위한 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은 제한되고 있다.
이 터는 朝鮮朝시대부터 宗親府[1]가 있던 곳이었다. 그 후로는 王室圖書 15萬권을 보관하는 奎章閣 書庫로 쓰였던 역사성이 깊은 장소이다.
그 후 日本 統監府 學務局 學務課에서 奎章閣의 건물을 인수했다. 당시의 대지규모는 6,000평에 이르고 있었다.
總督府는 이 터를 「京城醫學 專門學校 부속의원」[2]으로 쓰기로 하고 건물을 세워나갔다. 병실 건물을 주로하여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병실의 설계 및 감독은 總督府 官房會計課에서 맡았다. 벽돌조 2층으로 설계된 이 병원의 설계 主務는 韓國人 建築家 朴吉龍이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 병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그가 설계한 京醫專(首都陸軍病院)에서 오히려 모더니티를 보이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 용도의 差異에서 오는 外觀의 差라고나 할까…』[3]
이 병원의 건축 규모는 연건평 414.89평이었다. 外壁은 그 당시의 병원답게 붉은 치장벽돌을 주로 사용하였다.
공사는 1927년 착공되어 1929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시공은 長門組에서 맡았다.
舊 宗親府의 건물 3棟은 병원에서 헐지 않고 사용했다. 많은 樹木이 境內에 있어 입원 환자의 산책로로 애용됐다. 그 후 日本은 戰時體制下에서 이 병원을 「京城 陸軍 衛戍병원」으로 變用하고 병원을 증축해 나갔다.
그 때 宗親府의 大門과 舊 建物 행랑채, 담장 등은 모두 헐렸다. 解放 後, 日帝末 陸軍 病院으로 쓰였던 緣으로 軍人 專用의 病院으로 사용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病院 前面에 흐르던 개울과 돌다리 등은 1960年代 三淸洞 길 확장시 복개되면서 모두 헐려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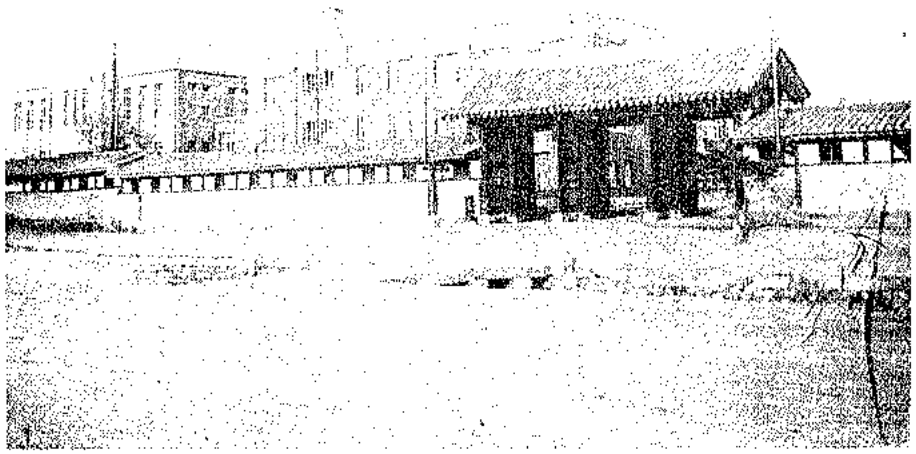
□註□

1. 조선의 歷代 御譜 御眞影을 받들어 모시는 衣蜀을 만들고 宗室諸君의 封爵, 承襲, 冠婚喪祭등의 사무를 집행하던 곳으로 高宗元年(1864)宗簿寺를 이곳으로 병합했고 高宗 31年(1894)宗正府라 改名했고 다음 해에 宗正祠·宗正院으로 개칭하고 光武9年(1905)에는 宗簿司로 다시 고쳤고 隆熙元年(1907)에 이를



▲軍国, 日本의 京城 陸軍衛戍病院이 되었다(植民地史)

▶ 숭례大門과 행랑채만 남기고
대부분의 古家는 헐려나갔다.
그 자리에 세워진
京城医学専門学校 부속의원
(朝鮮と建築)



▼부속 의원의 新病院 外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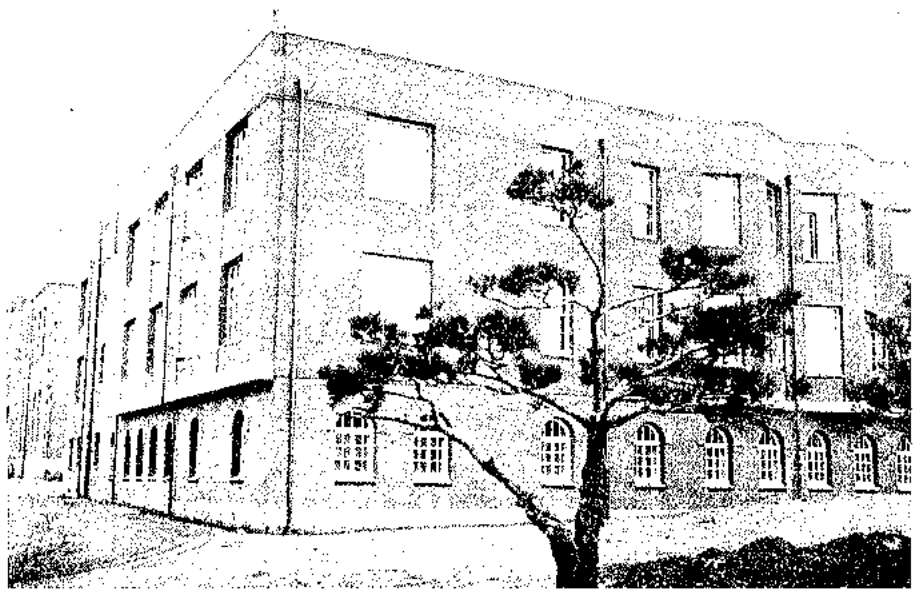
폐지하고 이곳 사무를 歪章閣으로 옮겼다.
前 육군병원 後園쪽 넓은 대지 위에
남아있는 건물은 八作 지붕에 2翼工의
正面 7間의 조선후기의 건물이다.(서울시
有形文化財 제9호)

2. 京城帝國大學醫學部 부속의원,
연구실은 1次와 2次로 나눠 세워졌다.
1차 : 1929. 7. 1~1929. 12. 10
2차 : 1932. 11. 1~1933. 9. 13
이 항목에서 다루는 것은 1차의 것이다.

3. 尹一柱, "朴吉龍 特輯記事", 「空間」, 196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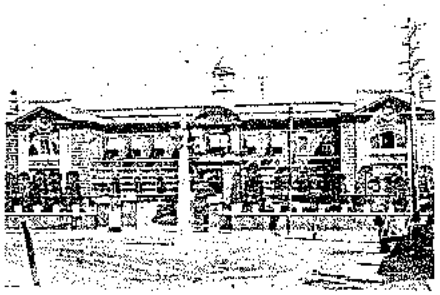
77. 商品陣列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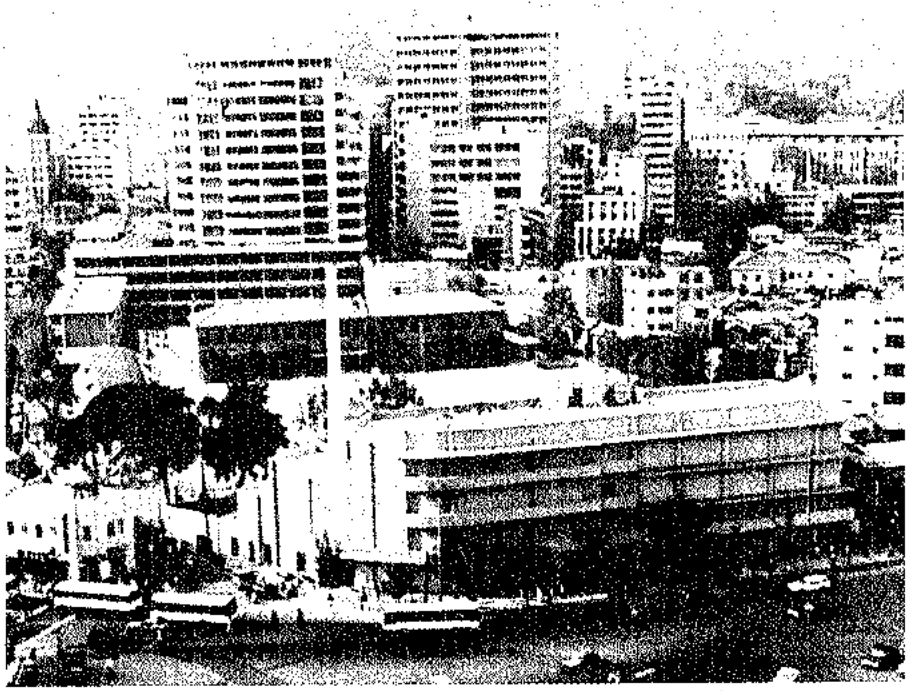
위치 / 南大門西側
착공년월일 / 1928. 11. 5
준공년월일 / 1929. 12. 11
설계자 / 笹慶一 + 江島清
시공자 / 間組
건축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 지하1, 지상4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231. 93평
연면적 : 846. 16 평
보존상태 / 1970년대에 헐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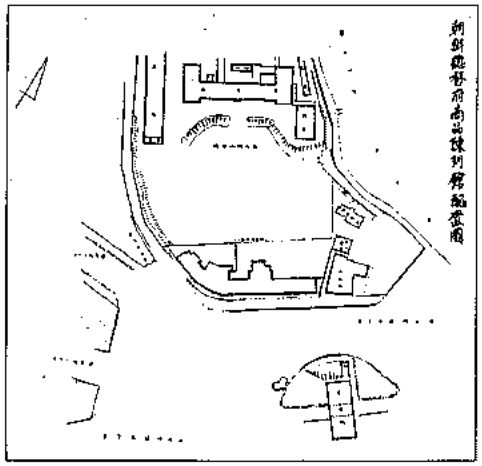
▼再開発되기 전의 商品陣列館 주변. 뒤에 보이는 건물이 南大門国民学校였다.

日本의 對韓 진출은 政治, 經濟, 軍事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했다. 그들은 그들의
우월한 日製상품을 朝鮮 땅에서
Marketing 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했다.
日本의 상품견본시장인 상품전시관은
1908년 5월 개관되었다. 건물은 大韓帝國의
農商工部 청사를 改修하여 사용했다.[1]
그러나 그 후 상품 수요가 늘어나
舊屋으로는 충족치 못하여 독자적인 건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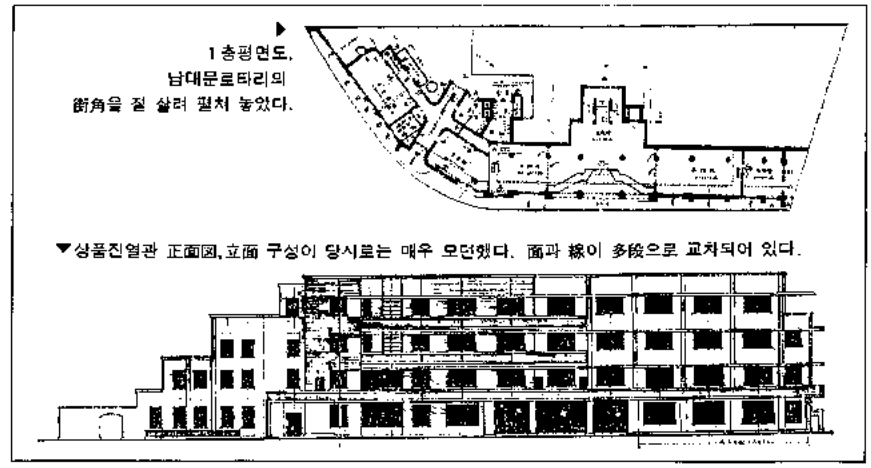




▲商品陣列館 자리에 세워져 있다. 農商工部庁舎. 度支部의 設計(1906. 6~1910. 8)로 세워졌던 것이다. 日帝下에 總督府 專賣局이 되기도 했다(京城と仁川)



▲아래쪽에 南大門이 있다.(朝鮮と建築)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 곳에서는 日本 內에서 생산되는 상품뿐아니라, 韓半島, 台灣, 滿洲 등 식민지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진열될 수 있게 했다.
商品陣列館은 계획 초기에는 舊 共和黨 黨舍 부근에 세우려 했었다.[2] 그러나 계획은 변경되어 서울의 關門인 南大門 西側의 舊 南大門 國民學校 부지 인접도로변으로 확정되었다. 진열관의 설계 및 감독은 總督府 建築課에서 맡았다.[3]
商品陣列館은 이른 바 近世 自由型으로 계획되었다.[4]
이것은 1920年代의 세계적 추세였던 신 건축의 새로운 도입이었다.[5]
陣列館은 1928년 11월 착공되었다. 공사는 京城의 間組에서 맡았다. 陣列館은 대지의 折角部를 이용, 자유스럽게 Plan 됐고 立面은 그 부분에 强한 힘을 주었다. 이 부분은 또한 의도적인 돌출 Cantilever 로 처리, 발코니를 만들었다.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 이 전시관은 계획 자체에서 面과 線을 서로 교차시키며 多段으로 처리했다.
장식적인 요소는 완전히 배제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외벽은 1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치장 타일로 발랐다. 1층은 木浦産 石材를 사용했다.
近代式 건물로 세워진 이 진열관은 건평 231.93평에 연건평 846.16평에 이르렀다. 내부에는 個室 30室을 만들었다.
商品陣列館의 성격에 따라 1층에는 Show Window 도 설치하고 陣列室, 整理室, 圖書室도 개설했다. 4층은 講演會場으로 설계되어 商工奬勵, 産業啓發의 기능 발휘에 쓰이도록 했다. 건물은 1929년 12월 준공되었다.
상품진열관은 해방 후 商工奬勵館으로 사용되다가 1970年代에는 貿易振興公社 전시관이 되었다.
그 후 南大門 부근 再開發 계획에 의해 헐리고 현재는 大韓商工會議所 新築 建物이 이 일대에 들어서 있다.

□註□

1. 「朝鮮施政年報」, 統監府, 1908, 南大門 西側에 있었다.
2. 大觀亭 內이므로 현 小公洞 朝鮮 Hotel 맞은 편 언덕, 駐車場 자리이다. 共和黨 정권시 그 黨舍로 쓰였었다.
3. 笹慶一과 江島淸이 담당했다.
4. 朝鮮 유일의 近世오란다式 이라고도 불렸다.(朝鮮と建築, 1929.1) 또한 堅宇優雅한 近代復興式이라고도 했다.(笹慶一)
5. 같은 해에 세워진 京城齒科醫學전문학교도 新建築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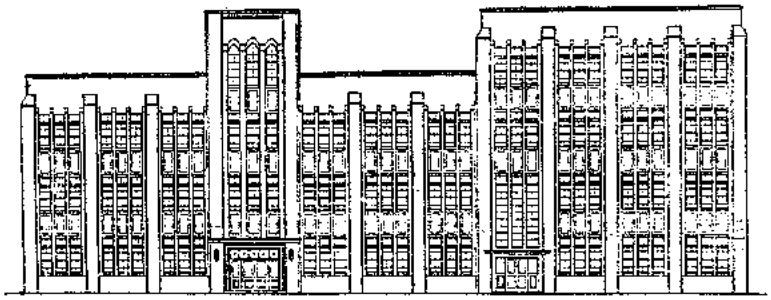
78.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위치 / 小公洞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1929.
설계자 / 川澤道正
시공자 / 間組
건축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 지상4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294평
연면적 : 968 평
보존상태 / 1969.10 용도변경후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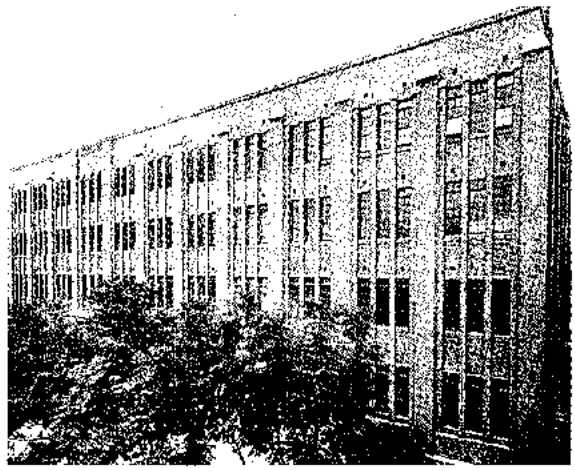
尙洞 중턱에는 松峴宮이 있었다.[1] 이 宮은 宣祖의 아들 元宗(16代 仁祖)이 王이 되기 전까지 살던 곳이었다. 소나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都心의 언덕에 있던 이 宮은 1927년 日本人이 京城齒科醫學전문학교를 지을 때 철저히 훼손시켰다. 그 때 그들은 宮의 正門과 下馬碑만을 韓國銀行 뒷뜰로 이전해 놓았을 뿐이었다.
齒專은 1922년에 설립되었는데 開校 당시의 이름은 京城齒科醫學校였다. 1929년에 專門學校로 승격되었다. 校舍의 위치는 현재의 小公洞길 韓國銀行 뒷편이었다.[2]
설계는 日本人 建築家 川澤道正이 맡아서 했다. 施工은 하자마 구미(間組)였다.
校舍는 철근콘크리트조 4층으로 세워졌다. 교사의 설계 당시 입면은 건물의 성격으로 보아 비교적 현대적이었다. 또한 左側의 7 Bay 는 3층으로 하고 (그 중 1 Bay 는 屋塔) 右側의 4 Bay 는 4층으로 했다. 古宮의 언덕 위에 세움으로써 屋上部는 서울市內를 展望할 수 있는 휴게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계획했다.
계획건축면적은 294평이고 연건평은 968평으로 했다.
立面은 東京 文京區의 東京大學 齒大 건물과 유사하게 보인다. 이 건물을 설계한 당시인 1920年代에 이러한 段形 立面의 처리는 의도적이고 현대적인 것이었다.
수직 기둥면의 Capital 부분은 Parapet 부분에서 강조됐다.
屋塔部에 둔 3개의 Arch 窓은 현관부까지 의장적으로 지배했다. 그러나 校舍는 준공을 앞두고 段形을 버리고 4층으로 수평 처리해버리고 말았다. 건축 면적의 증가 요구에 따른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平面은 단순 直4角形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속에 속복도를 두었다. 복도 좌우에 實習室, 敎授室, 講議室 등을 두었다.
이 校舍는 8.15 해방 후 서울大學校 齒科大學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이른바 小公洞 캠퍼스라고 불려졌던 것이다.
1969년 12월 인근의 韓國銀行 本店이 聽舍 면적 부족을 느끼면서 이 齒大 校舍를 매입하게 되었다. 그 후 齒大는 蓮建洞 서울醫大병원 캠퍼스내로 이전해 갔다.
舊 校舍는 이후 헐려버렸고 현재 이一帶에는 韓國銀行 新館이 새로 세워져 있다.

□註□

1. 조선 宣祖의 다섯째 아들 元宗의 舊邸로 옛 이름은 松峴宮이었는데 英祖 31년(1755)6월에 宣祖와 後宮인 仁嬪 金氏의 神位를 모시고 이 이름으로 고쳤으며 仁祖의 潛邸이기도 한 곳이다. 純宗 2년(1908) 이궁은 毓祥宮에 합치고 그해 7월에 그 터를 국유지로 하였다. 宮의 건물은 1927년 4월까지 존재했으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건축과 동시에 헐어 버리고 宮의 正門과 下馬碑만은 현재의 한국은행 뒤뜰에 남아 있었는데 그후 1936년 10월에 正門이 철폐되고 下馬碑만 치과대학에 보존되고 있다.
2. 당시는 長谷川町 大觀亭의 東南側(현 小公洞一帶).
현재 韓國銀行 新館이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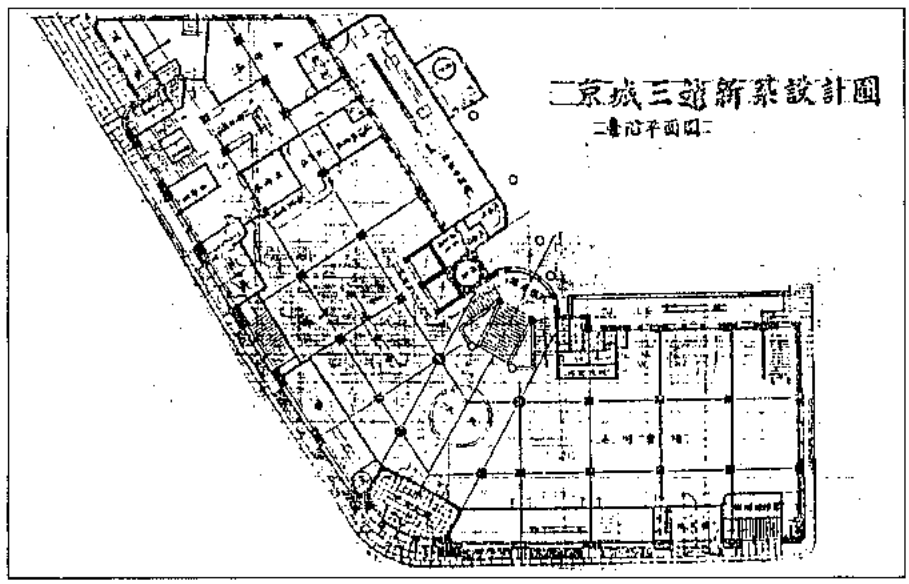
▲처음 계획은 段形이었으나 屋上 마감선에 모두 마춰졌다.(朝鮮と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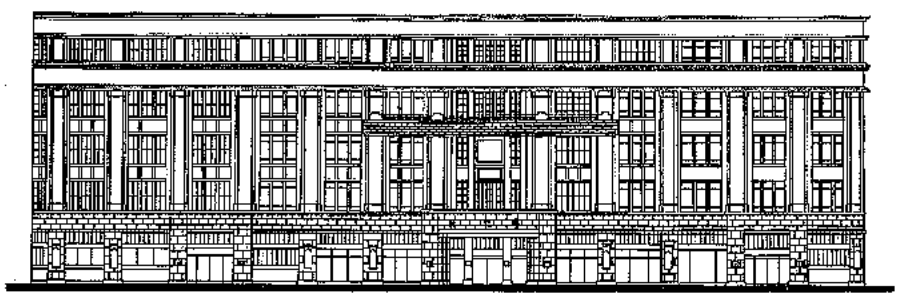
小公洞에 세워진 京城치과의학 전문학교 교사. 수직선이 강조되었다. 立面과 다르게 세워졌다.(朝鮮殖産銀行 20年史)▲

79. 新世界百貨店

위치 / 忠武路 1街 52－2
착공년월일 / 1929. 3. 17
준공년월일 / 1930. 10. 21
설계자 / 林幸平
시공자 / 多田工務店, 高島屋出場所
건축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 지하 1, 지상 4, 옥탑 1
대지면적 : 730 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2, 252. 88평
보존상태 / 新世界百貨店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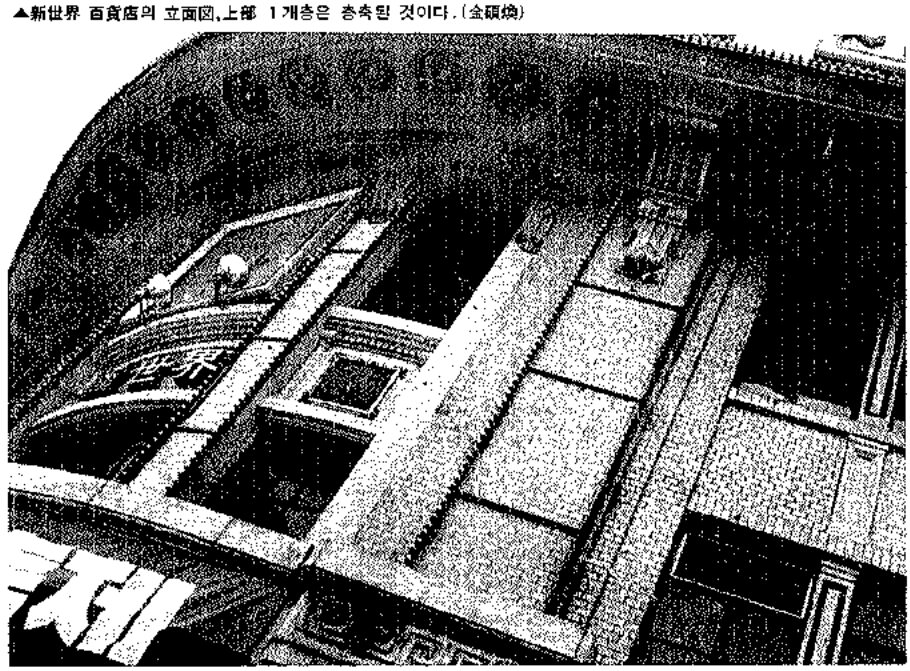


▲1930년 준공당시의 백화점, 平面図(朝鮮と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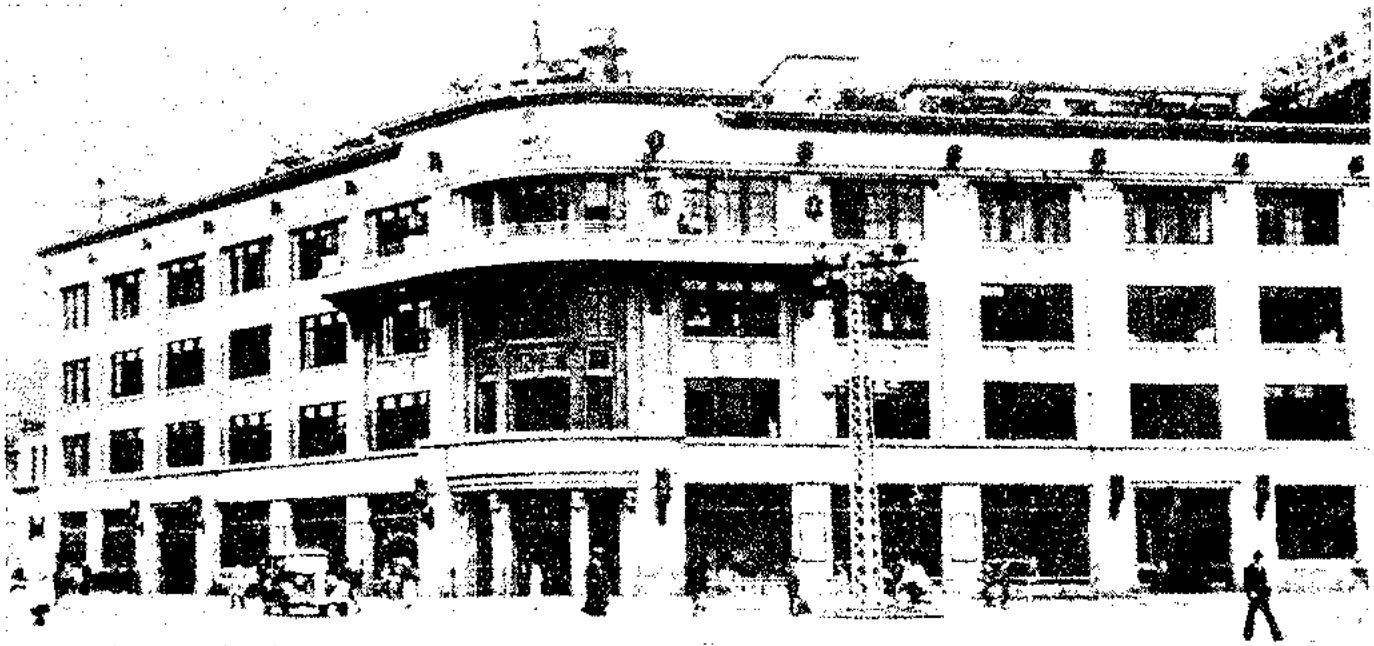


▲新世界 百貨店의 立面図, 上部 1개층은 증축된 것이다. (金碩煥)

日帝의 統監府가 들어서면서 一攫千金을 노리는 日本의 商人들도 줄지어 이 땅에 몰려 들어왔다.
그들은 南山 주변을 감싸고 돌면서 기회를 엿보다, 忠武路邊에 새로운 백화점 거리를 형성했다.
미쓰이 (三井) 재벌은 그 직영 백화점인 미쓰코시(三越)[1]의 京城지점을 1906년 忠武路에 세웠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등장한 백화점 건물이다.[2]
日本人의 對韓 진출 러쉬가 일어나고 상행위가 활발해지자 三井은 더 큰 백화점을 세우기로 했다.
위치는 舊 京城府廳 자리로 정했다.[3]
1926년 京城府廳이 현 서울市 廳舍자리로 이전해가면서 舊청사는 (1927년)헐렸다. 그 후 한때 이 舊址에는 「樂天地」라는 가설 상품전시장이 들어서 娛樂場, 曲藝團, 再上映 映畵館으로 쓰여지기도 했다.
三越백화점에서는 이 대지 730평을 확보, 신축 백화점을 세우기 시작했다. (1929. 3. 17)
설계는 日本의 三越건축사무소에서 맡았다. 이 설계의 主務는 日本人 건축가, 林幸平이고 현장주임은 玉田橘治였다.
백화점은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세워졌다. (中2층과 옥상층 설치)
건축 연면적은 2, 252. 88평이었다. 옥상에는 Le Corbusier 식의 「옥상 정원」도 설치했다.
건물의 양식은 절충식, 르네상스양식을 취했다. 외부는 전체를 타일로 마감했으나 1층 쇼윈도우부만은 대형 테라코타를 발랐다. 중앙과 좌우 현관부는 全南 黃登産 화강석을 장식 조각하여 마감했다.
窓臺 (Sill) 부분은 서울産 화강석을 물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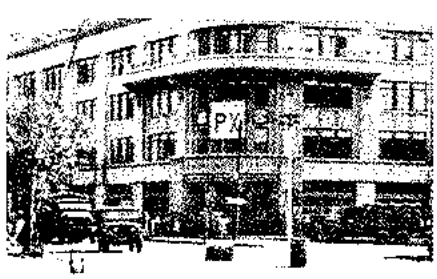


▲현재의 玄關部 디테일



▲面部 街角이 玄關이다. 오른쪽에 第一銀行 本店이 新築중이다. (京城府史, 제 3 권)

마감하여 설치했다.
기둥 무위는 테라코타로 발랐고 그 외 부분은 인조석 물갈기했다. 창들은 모두 스틸 샷슈를 썼고 일부에는 Stained glass 를 붙였다. 그 외 주요 부분의 철물은 鑄物조각 장식하여 첨부했고 현관문은 스틸도아 自在門을 설치했다. 평면은 折角대지에 맞춰서 넓은 角으로 펼쳤다. 角部에는 主현관을 두었다. 입면은 전체적으로 수평선을 강조했는데 南大門路와 小公路에서 보면 마치 펼쳐진 부채형이 된다.
의장의 포인트는 역시 현관부 3층의 발코니다. 2~3층의 숨킨 휴게소를 음영으로 강조시키고 있다. 내부 마감재는 상업용 건축답게 화려한 석고 몰딩을 쓰고, 각종 실내 장식류는 첨단고가품을 썼다.[1]
백화점의 공사는 多田工務店에서 실내장식 공사는 高島屋出張所에서 각각 맡았다.
백화점은 1930년 10월 21일 준공되었다.[5]
이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종로의 상권은 몰락을 가져왔고 이 일대는 주위의 朝鮮銀行 本館(韓國銀行), 京城郵遞局, 貯蓄銀行 (第一銀行)과 함께 日帝盛勢의 萬物殿化 되었다. 그 후 8.15 해방이 되면서 東和百貨店으로 개칭 사용되었다. 6.25 동란 중에는 美8軍 PX로 쓰여졌으나 서울 收復後 곧 민영화 되었다. 1962년부터는 경영권이 三星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직영백화점이되. 이름도 新世界 백화점으로 고쳐졌고 이즈음 상부 1개층을 증축했다.[6]
이 후 여러 번의 改築, 修理, 增築했으나 原形의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8·18 해방후 美軍이 PX로 사용했다(光復40年, 서울신문사)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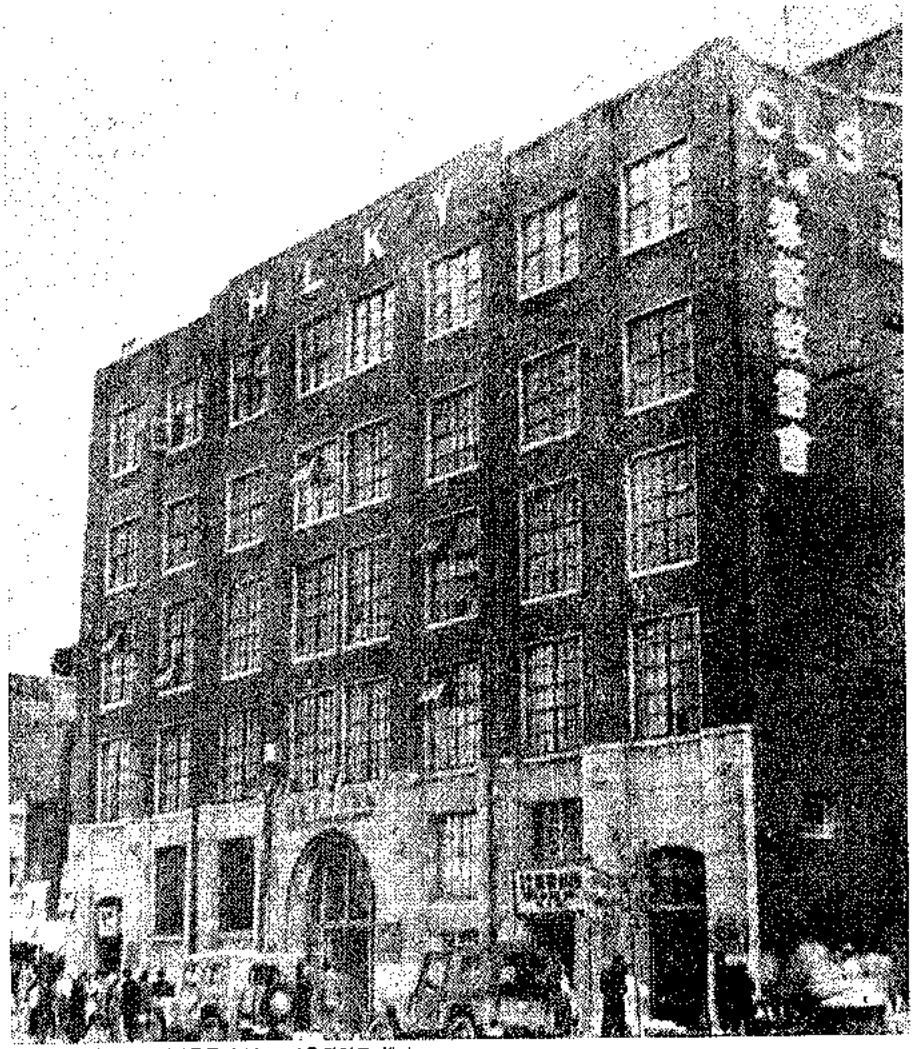
1. 「미쓰코시(三越)백화점」은 日本 굴지의 재벌그룹인 미쓰이(三井)家가 1673년에 에도(江戶, 東京) 니혼바시(日本橋)에 포목점을 차린것이 시초가 되어 발전을 계속,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룩한 백화점이다.
2. 忠武路 1街, 현 사보이호텔 건너편, 이 三越百貨店의 1층에는 다다미를 깔아 놓아 고객들이 일일이 신발을 벗거나, 덧신을 신고야 출입할 수 있었다(「和信50年史」, p. 104).
忠武路일대에는 1921년에「丁子屋」이 1922년에는「三中井百貨店」, 1926년에는「平田百貨店」이 각각 들어섰다.
3. 이 위치에는 1895년부터 日本總領使館이 세워져 있었다. 1906년에는 京城理事廳이, 1910년에는 京城府廳이 각각 사용했다.
4. 日本人 건축가 前川國男이 신세계백화점의 室內장식(설계?)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다.
5. 「朝鮮と建築」, 1930. 11(三越 특집호). 三越백화점은 竣工 後 1936~37년 사이에 한번 補修공사를 했다.
6. 이자리에「東洋 TV 방송」이 개국되었다.(1963. 2)

80. 大韓基督敎書會

위치 / 종로2가 90-91일대
착공년월일 / 1930. 4
준공년월일 / 1931. 6
설계자 / C. A. Gunn(필리핀)
시공자 /
건축규모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 지하 1, 지상 4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600 평
보존상태 / 1970년철거

1889년 10월 몇명의 선교사[1]가 貞洞에 있는 Underwood 목사 집[2]에 모여 「예수교서회」(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3]를 조직했고, 이듬해인 1890년 6월 25일에는 그 憲章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書會는 설립되었다.
書會는 文書를 통한 전도와 문예활동을 근대식으로 추진할 목적을 앞세웠다.
선교사들이 韓國 땅에 발을 디딘지 5년만에 이뤄낸 성과였다.
書會는 창립 이래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다. 書會는 당초에 따로 된 건물을 갖지 못하고 다른 건물을 빌어 쓰다가 사업이 점차로 확장되자 작은 건물로서는 원만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건물을 마련키 위하여 선교위원회에서 기성회를 조직하고 모금을 시작했다.
1907년 이 자금으로 木造瓦家를 구입, 수리하고 書會(예수교서회, the chongno bookstore) 로 사용하기 시작했다.[4]
1911년에 이르러서는 古屋인 목조기와집을 헐고(그 해) 6월 新建築인 2층 洋屋을 세웠다.
그러나 書會의 사업확장에 따라 새 건물도 또 협소해졌으므로 좀 더 크고 쓸모있는 회관의 건축을 요구하게 되었다.
書會 이사회는 南長老敎 선교사 M.L.Swinehart (徐路得)에게 건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우고 건축 기금을 모집했다.[5]
이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던 北長老敎 선교회의 C.A.Gunn 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건축 공사는 1930년 4월 착공하여 다음해인 1931년 6월에 준공되었다.(낙성식은 9월에 거행).
흥미로운 것은, 이 때는 日帝가 최고도의 盛勢期를 맞을 때로서 많은 日本人 建築家가 國內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日本人을 거부하고 멀리 필리핀에까지 가서 건축가를 초빙한 사실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연건평 600평에 이른 이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당시로서는 드물게 에레베이터가 1대

▲1911년 경의 두번째 書会建物



▲할리기전, HLKY (기독교방송)로 사용되기도 했다

설치되었다. 1930년대의 종로에서 회관은 그 雄姿를 자랑했다.[6]
日帝末, 敗戰 직전의 日本은 이 會館에서 중기 난로, 변소, 수도, 전등 설비, 전화, 철창 등도 뜯어가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다.[7]
8.15 해방이 된 후는 美軍政廳 會計課에서 수리 일시 사용하였다. 6.25 동란의 戰禍는 이 건물을 다시 휩쓸었다. 건물은 불에 타고 벽돌벽과 콘크리트 스라브 바닥만이 엉성하게 남았다. 1953년 9월부터 재수리를 하기 시작했으며 1954년 봄에는 다시 同型으로 지상 1층을 증축 그 해 가을에 완료했다.
이에 따라 同年 X-MAS 를 기하여 書會 건물 5층에서 韓國 최초의 민간 방송인 CBS 기독교방송국(HLKY)이 개국하고 방송을 시작했다. HLKY 는 1970년 種路 5가로 옮겨졌고, 書會 건물은 種路의 도로 확장 공사에 밀려 헐려버렸다(1970. 3. 20).

◀ 1931년 新築된 종로의 書会建物

□註□

1. 書會의 創立위원들은 H.G.Apenzeller, W.M.Baird (배위량), D.E.Gifford, G.H.Jones, J.S.Gale (奇一), H.B.Hulbert, S.A.Moffed (마포삼열), W.D.Reynolds (이눌서), F.Ohlinger, D.A.Bunker 이다.
2. 그래이 하우스자리, 현 監理教女宣教部宿舍(?).
3.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로도 불림.
4. 1894년 5월 8일 鍾路에다 監理教 書店을 설치 (「培材史」, p. 99).
이 위치가 書會가 계속된 장소성을 갖는 곳이다.
5. 1929년말 현재 65,000$ 모금.
6. 「大韓基督教 書會略史」, pp. 52~58.
7. 앞책, p. 70.

▶ 大韓基督教 書会의 前身인 「예수교서회」(1907~1911)의 古家(大韓基督教 書会史)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 Ho

그림 1. 夢村土城 地形圖 1985(서울大學校 發掘調査報告書에서 轉載)

百濟의 建築

백제는 高句麗 朱蒙의 아들 溫祚를 始祖로 하는 작은 部族國家였던 伯濟를 기반으로 漢江流域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百濟가 中央執權적인 貴族國家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된것은 近肖古王(346~375)때로 생각된다. 그는 369년경에 益山으로 그 중심지를 옮긴것으로 생각되는 馬韓을 멸하여 그영토를 전부 차지하였다. 그리고 371년에는 고구려의 平壤城까지 쳐서 故國原王을 전사하게 하였다. 이로서 백제는 현재의 경기, 충청, 전라 3道의 전부와 강원, 황해 兩道의 일부까지를 점유하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서쪽으로 東晋, 남쪽으로 倭와 통하여 국제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1] 384년 枕流王代에는 불교를 받아들여 새로운 觀念體系와 寺院建築文化의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게 되었다. 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고구려의 廣開土王과 長壽王의 확장세력에 대항하여 중국의 宋 및 魏의 南北祖와 통하고, 신라와 동맹을 맺었으나 475년에는 수도 漢城이 함락돼고 따라서 文周王은 지금의 公州인 熊津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또 538년 聖王대에는 도읍을 다시 옮겨 지금의 扶餘인 泗沘로 정하였다. 이 때에는 불교가 대단히 진흥되어 일본에 까지 佛經, 佛具, 佛像 등을 보내서 불교를 전하였고 이에 따라서 백제의 건축문화는 일본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백제는 고구려와 같은 종족으로 출발하여 그문화 특성이 초기에는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보다는 훨씬 남방에 위치하여 발전해온 백제는 고구려문화에 비하여 그 특성이 溫和하고 柔軟하였고 부드럽고 격높은 藝術文化를 갖추고 있다. 초기에는 樂浪및 帶方郡에 접하고 東晋, 宋, 齊, 梁, 陳등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2] 百濟文化는 5세기末에서 7세기초 사이의 황금기를 이룩하였다고 믿어진다. 특히 불교문화는 신라와 일본에 까지 영향을 크게주어 선구적인 役割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都城

河南慰禮城

처음에 溫祚는 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였다(三國史記)가 B.C. 6년에 漢山下에 방책을 세우고 도읍을 옮겼다고 하며 371년에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고 다시 도읍을 漢山城에 옮기었다. 그러나 현재 이들 백제초기 도읍지인 하남위례성이나 漢山城 등이 어느곳인지 학자들의 여러 說이 있지만 확실한 근거를 갖고 결정할 단서를 갖고 설명 할 수 있는 곳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백제의 한성시대의 중요유적으로서 夢村土城, 한강연변에 있는 風納理토성 廣州郡서부면에 있는 二聖山城등이 있는데 몽촌토성의 부근 일대에는 백제의 고분으로 알려진 芳荑洞 古墳群과 石村洞 古墳群 등이 있고 그 북서쪽에 전기 풍납리토성 그리고 북동에 이성산성과 남동에 南漢山城등이 있다.

夢村土城

몽촌토성은 수년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발굴조사중에 있는데 성곽은 粘土를 사용한 版築기법을 보이며 성곽 외부에는 일부 목책을 둘렀던 것이 확인 되었고 또 垓字(壕塹)를 두어 방비에도 철저했다. 성의 사방에는 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은 당시 하천에 연하여 낮은 구릉의 자연지세를 이용한 작은 규모의 것이다. 이곳에서는 발굴조사 결과 백제초기의 토기편들과 瓦當등이 출도되어 백제 한성시대 중요 유적임이 확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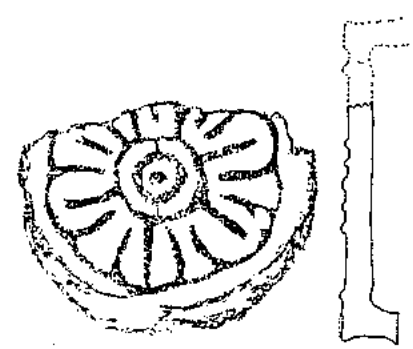


그림 2. 夢村土城 出土遺物

◆
張慶浩
32년생으로 한양공대 건축공학과를 졸업(61)하고 1975년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에서 76년 홍익대에서 석사학위 및 85년 2월 동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87년 3월 제 2 대 문화재 연구소장에 취임, 재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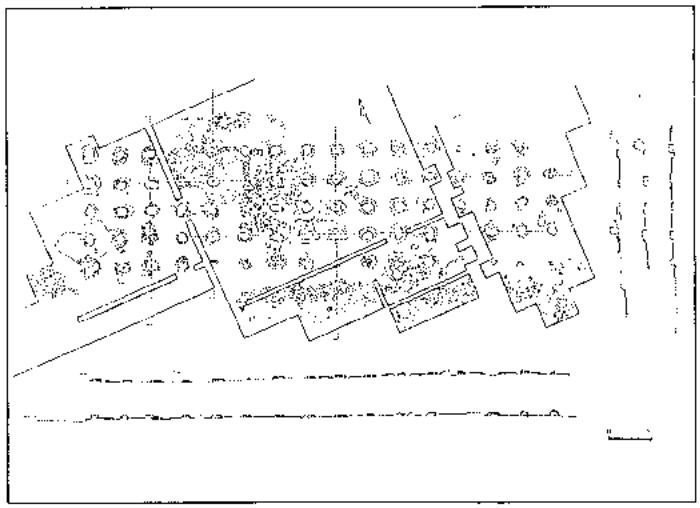


그림 4. 二聖山城 長方形 建物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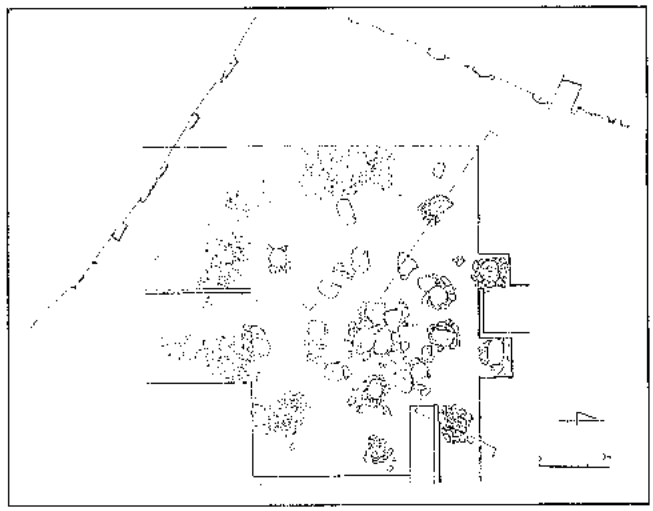


그림 6. 二聖山城 九角建物址

주위성곽의 길이는 약2285m이고 면적은 약6만7천평으로 추산이 된다[3]
성곽내에는
움막住居地가 5개 노출 되었는데 평면은 대체로 方形 또는 장방형을 이루고 기타 貯藏孔이 노출되었는데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시대는 3세기~5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토성의 건립은 단기간에 이루어 진것이 아니며 가장 빠른 시기에 속하는 유물이 중국 西晋시대(265~316)에 속하는 灰釉錢文陶器片이 저장공에서 출도됨을 보아 그 最上限년대를 3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二聖山城 :
몽촌토성에서 동북으로 약 5km떨어져 있는 二聖山城은 神檀實記에 기록되어 河南위례성으로 지목되기도 한 백제의 산성인데 1986년부터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그 성격이 차차 밝혀지고 있다.[4]
이곳은 한강을 넘어 동쪽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초일리에 있는 역시 그리 높지않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 西·北·東쪽은 한강을 끼고 높지않은 평원지역이 펼쳐지므로 前望이 좋고 要塞을 이루는 위치이다. 특히 이 二聖山城을 중심으로 몽촌토성과 풍납리토성 암사리토성 그리고 남한산성, 龜山城등이 사방으로 약 4~5km의 거리를 두고 있음은 이 주위가 가장 중요한 중심요새였으리라는 발굴조사자의 언급이 주목된다. 산성의 최고 높이는 약200m이며 성곽의 길이는 약1.7km이다. 발굴조사에서 여러곳에 건물지가 노출되었는데 이중에는 정면이 16間이고 측면이 4間인 장방형 건물지와 또 9각형의 평면을 나타내는 특수형 건물지와 8각형 건물지등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고대건물지중 유례가 없는 특수형 건물지가 발견되어 발굴조사자는 이것이 天祭壇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산성의 축조년대를 확실히 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나 출토되는 기와의 蓮花紋이나 등문양등을 고려할 때 백제의 한성시대 후기에서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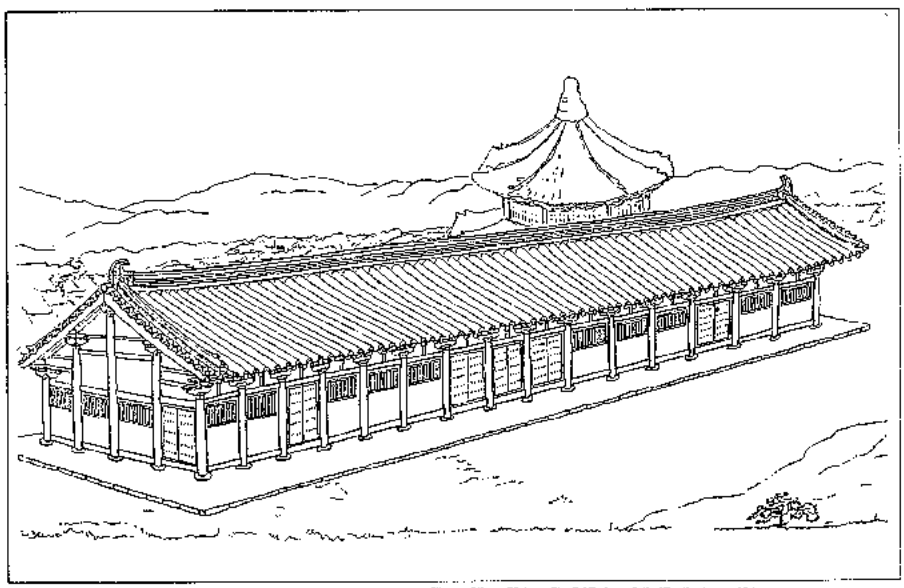


그림 5. 長方形建物 推定復元圖. 金東賢 : 文化財管理局(漢陽大學校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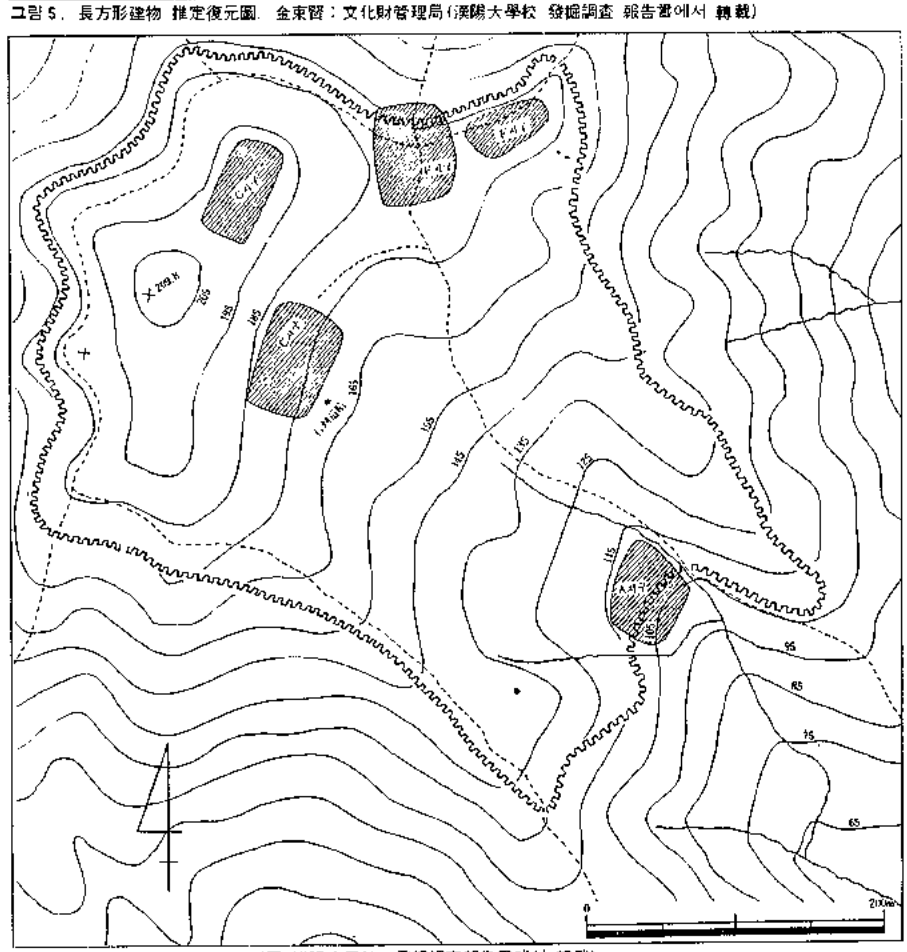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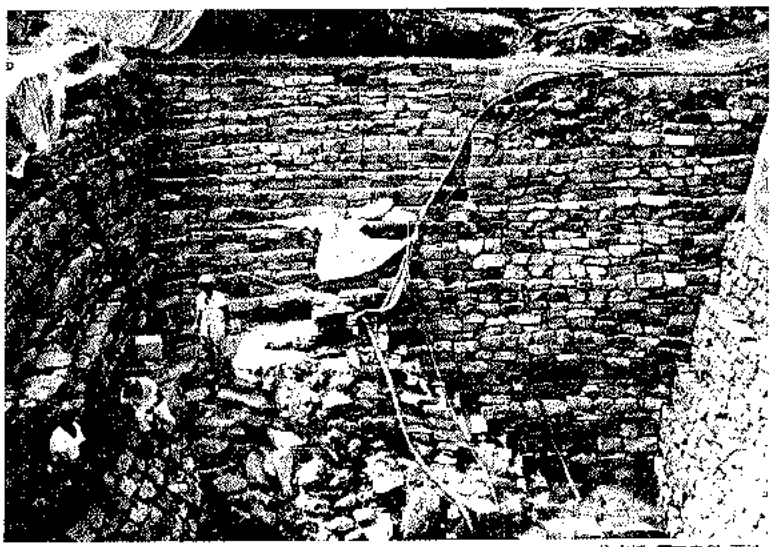


그림 3. 二聖山城發掘區域 位置圖(漢陽大學校. 發掘調査報告書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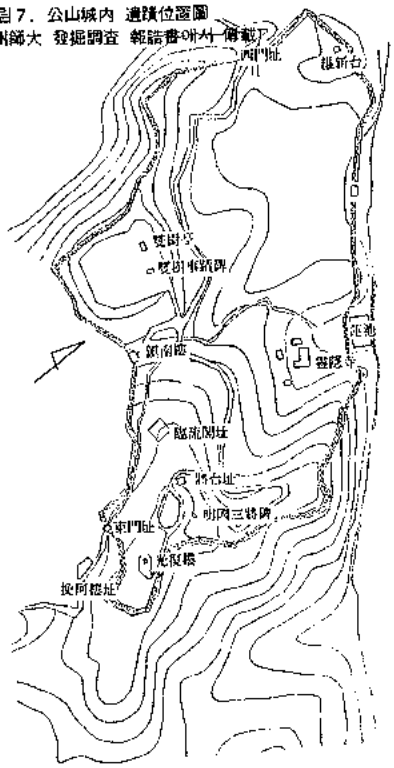


公山城 靈隱寺앞 蓮池

公山城：
公山城은 백제가 5세기말 웅진으로 都邑을 옮긴 후 축조했던 성곽이다.「삼국사기」 성왕조에 修葺熊津城, 이라 하여 이것이 바로 공산성으로 믿어지는 것이다.(526) 「삼국사기」에 나타난 백제 웅진시대의 성곽기록을 살펴보면「大豆山城의 修葺, 牛頭城, 耳山城, 沙井城, 加林城, 長嶺城, 雙峴城, 高木城」등의 기록과 「炭峴에 設柵」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많은 성곽들이 축조내지 수축되었음을 알수 있는데 이들의 기록으로 보아서 그 위치가 확실한 것은 가림성과 탄현 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명칭으로 보아 거의가 산에 위치한 독립된 산성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즉 앞의 한성시대의 백제성곽 기술에서도 나타나듯이 백제는 도성을 축조함에 그주위 요소요소에 거리를 두어 독립된 성곽을 축조하므로서 이들이 서로 유기적관계를 갖고 連繼的인 방어를 함으로서 도읍을 지키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산성은 북으로 금강을 끼고 있어 자연적 방어선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삼면은 그리 높지않은 야산을 이용하여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지금은 조선시대 축조한 石城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원래의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지형으로 보아 대략 같은 범위의 규모를 나타낼것으로 판단되어 外城둘레가 약2㎞가 약간 넘을것으로 추정된다. 이산성은 1980년 부터 공주사범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 해 왔는데[5] 기록에 있는 (三國史記)臨流閣址가 노출되었다. 건물의 평면은 대체적으로 정방형을 이루고 있는데 남면이 5간이고 東側面이 6간인 건물지로서 礎石밑에 받침 적심이 2~3장의 不定形 版石을 맞추어 평편히 놓은 것이었다. 이러한 적심석은 백제에서 흔히 사용했던 것으로 믿어지는데 익산 미륵사지에서도 일부 볼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 적심석 自體를 초석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소위 그렝이 초석을 이루었다고도 생각된다. 이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편과 기와편인데 토기는 灰色 無紋土器로서 백제계의 것이 많지만 기와의 문양은 백제 8瓣 蓮花紋은 편으로 1점만 출도되고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이는 문양와가 많이 출토되어 백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추정 挽阿樓址는 城 東문지 동쪽밖에 있었는데 원래의 토성을 낮추어 築基를 삼아 그위에 축성 하였던 것인데 그 규모는 남북 길이 약 18m 동서폭이 약6.6m이다. 건물지 상부의 유구는 교란이 심하여 건물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기단을 이룬 석축원형 일부가 노출되었는데 그 쌓은 수법은 춤이 낮고 길이가 짧은 角石을 밑에서 부터 안으로 들여 쌓기하여 마치 고구려의 통구성의 성돌 쌓기나 근래에 발굴조사된 부소산성내 남문지 양측에 쌓았던 성벽과도 같았다. 이곳에서 출토된 연화문 막새는 單瓣八葉紋으로서 子房內 蓮子가 많이 붙은 6세기에 속하는 백제와당 이었다. 공산성에서는 이밖에 폭이 2.46m 扉道길이가 6.45m 되는 소규모의 동문지가 발굴조사 되었는데 양변에 석축을 쌓았던것 같았고 문지도리석이 그앞 양측에 놓여있다. 이 역시 출토되는 백제 토기편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 성곽 북동쪽에 靈隱寺 밖에 蓮池와 樓址등이 발굴조사 되었으나 전자는 축조 연대를 확인할 수 없었고 후자는 조선시대의 누각지 였다. 또 1986~1987년 사이에는 현 雙樹亭앞 평지를 발굴조사 하고 있어 이곳에서도 여러동의 건물지와 우물등이 노출되었지만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그 성격을 알 수 없다. 이상으로 공산성의 발굴조사된 유구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지금의남은 건물들은 조선후기의 것이거나 그후에 세워졌던 것이다. 이 공산성은 백제의 宮城과 연결되었던 성곽으로 추정이 되어 宮의 중심은 이 남쪽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것은 마치 부여에 부소산성 남쪽에 宮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과도 같다.

扶餘 扶蘇山城(泗沘城)：
백제의 사비성은 백제가 처음으로 羅城을 돌리어 도시 전체를 防禦하는 도성으로서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표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公山城과 같이 그리 높지않은 야산에 자리잡고 북쪽에는 白馬江을 자연의 방어벽으로 삼았고 성곽은 외성과 내성을 두어 2중 이상의 방어벽을 구축하였다고 믿어진다. 산성의 동쪽과 서쪽에는 라성이 꼬리와 같이 연결되어 남쪽에 전개되는 도시를 둘러싸았던 것이다. 현재城의 둘레는 약 2.2㎞인데 城내에는 軍倉址, 竪穴兵營址, 서북사지, 남문지 등이 근래 문화재 연구소에 의하여 발굴조사되었다. 군창지는 城 동남측 봉우리 위에 위치하는데 초석이 비교적 잘남아 있어 그 평면이 밝혀 졌는데 長方形의 '口'자의 평면을 이루었다. 건물의 외벽선에는 火防壁쌓기의 석축이 남아있어 창고건물 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존속했던 것은 출토되는 기와편으로 보아 고려나 조선초기까지 경영 되었음을 알수 있었고 또 출토된 炭化米의 탄소측정 결과로는 9세기 초로 나타나고 사용된 초석은 비록 자리는 바뀌었어도 백제초석으로 추정되어 이 건물은 백제에서부터 후에 계속하여 개축되어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산성내 남서측에는 西腹寺址가 위치하는데 그 이름은 알수없고 서편 산중턱에 있다고 하여 붙인이름이다. 사지는 발굴조사 결과로 백제의 一塔式 가람임이 밝혀졌다. 산성의 동서 남북에는 각각 門址로 추정되는 터가 남아 있는데 이중 남문지로 추정되는 유지를 1986년부터 발굴한 결과 문루 형식의 건물지를 확인 하였고 그 양 옆에 석축벽이 남아있었는데 여러번에 거쳐 重修와 改築을 알수있고 시대는 출토유물로 보아 백제에서 고려시대까지 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것은 이문지의 초석 배열로 보아서 그 평면이 한때 정면한 間에 측면이 2間이었던 평면을 한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것은 문의 出入을 집의 박공쪽으로 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의 박공쪽을 정면으로 하여 문을 두고 출입하는 것은 伽倻의 家形토기(국립중앙박물관소장)에서도 볼 수 있고 경주月城 東門址(1間×2間) 발굴조사에서도 밝혀지고 일본 九州지방에

그림 7. 公山城內 遺蹟位置圖
(公州師大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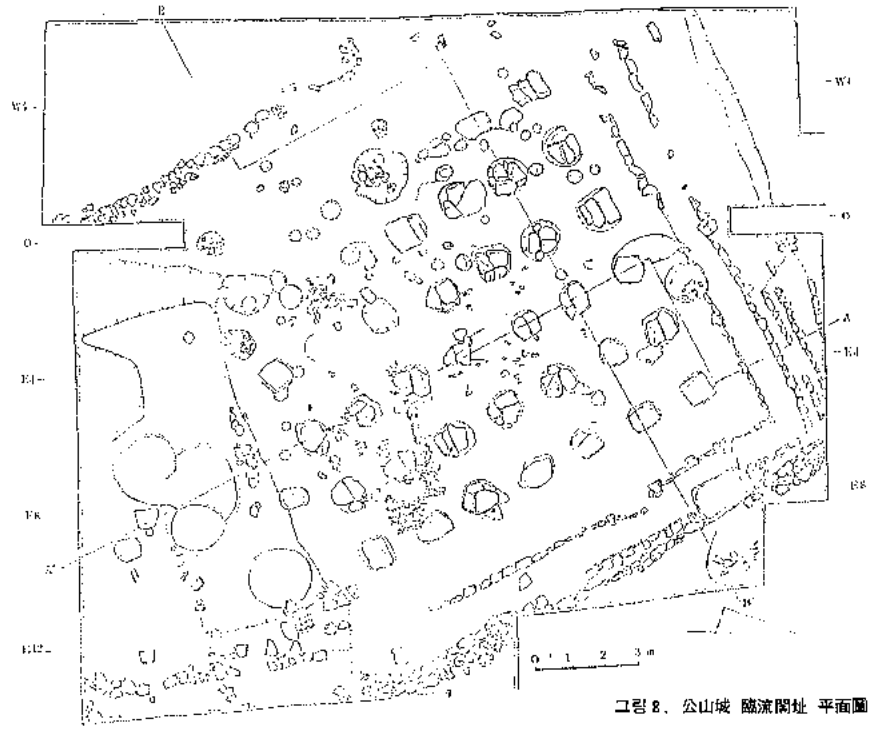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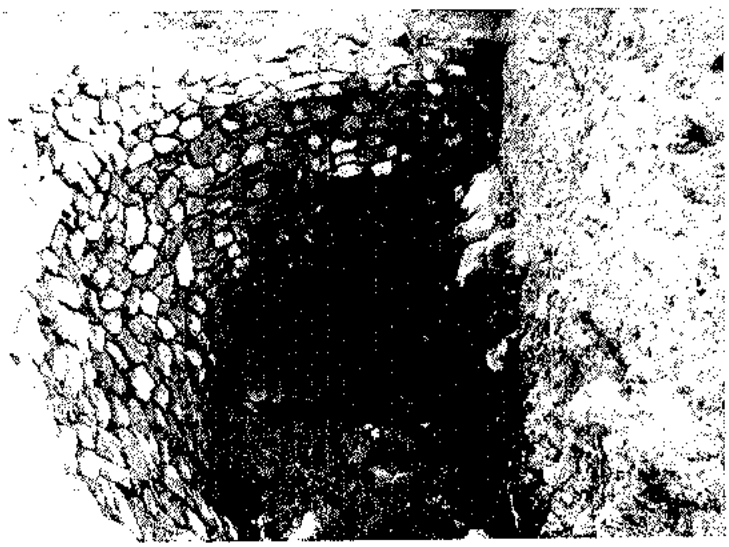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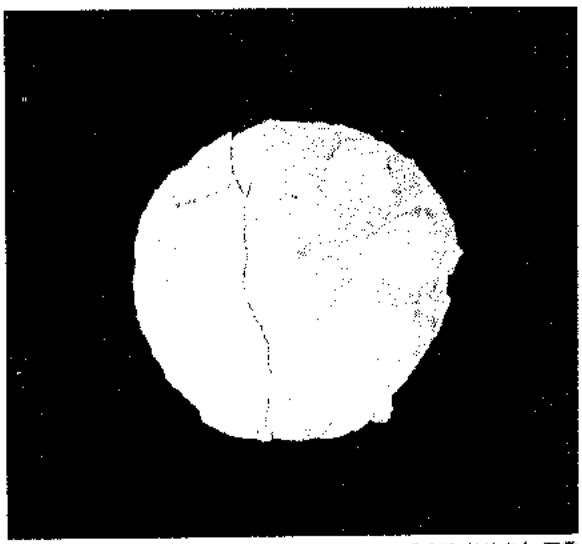


그림 8. 公山城 臨流閣址 平面圖



雙樹亭앞 百濟塘池(1985年 露出)



公山城 塘池出土 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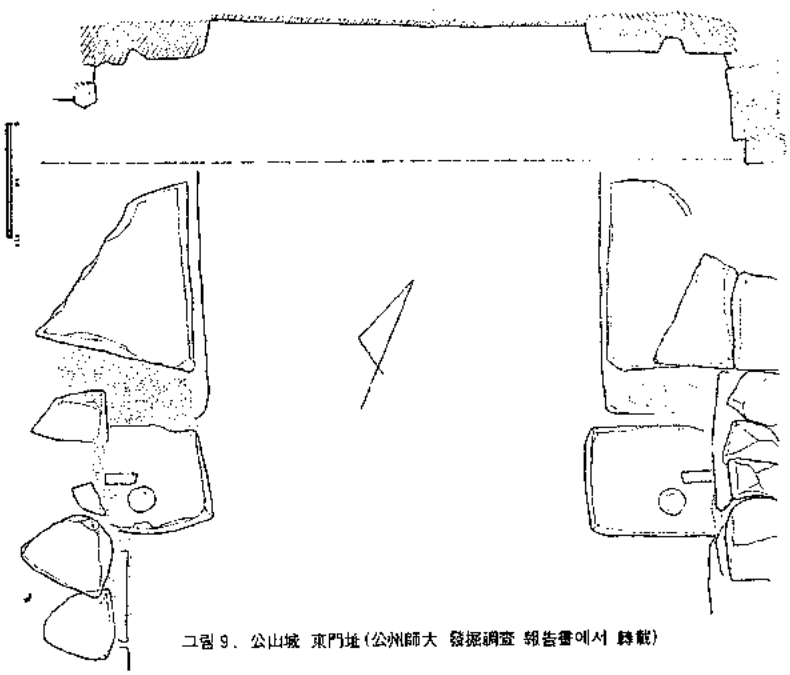


그림 9. 公山城 東門址(公州師大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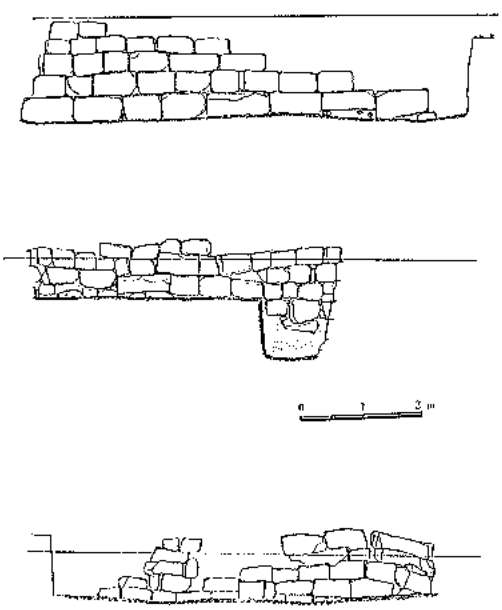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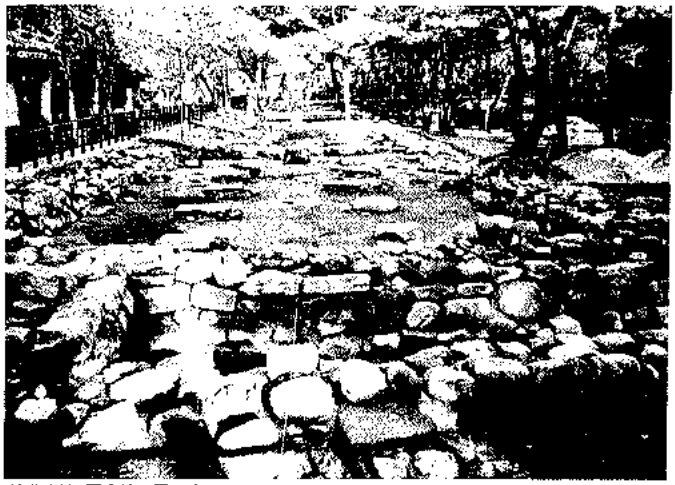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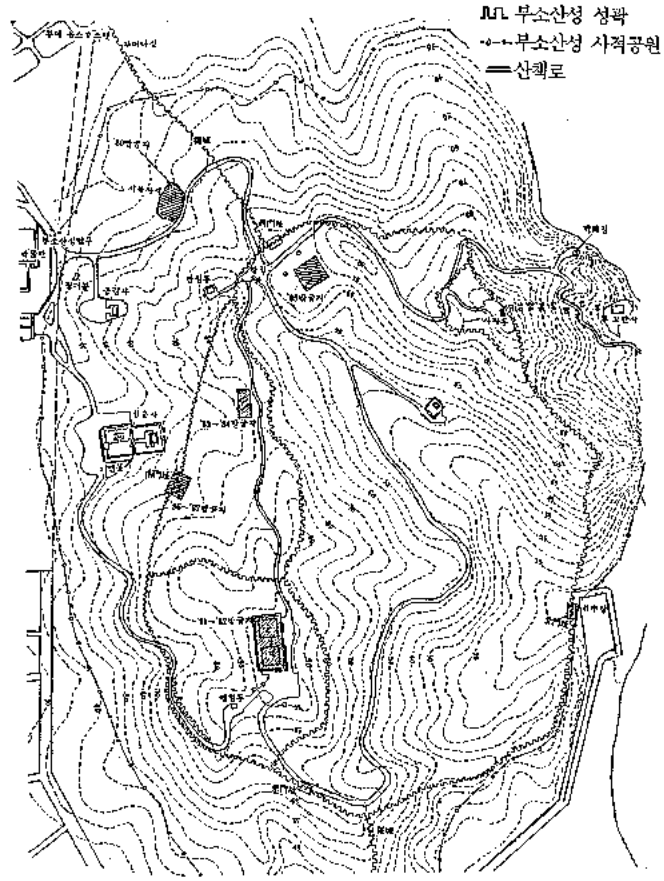
그림10. 阿樓址 西側石築 立面圖
(公州師大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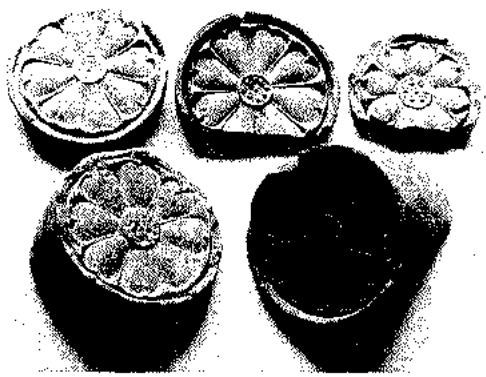


扶蘇山城 軍倉址) 西→東

扶蘇山城 南門址 全景

扶蘇山城 南門址 石築





扶蘇山城內出土 遺物(各種 百濟瓦當)

그림11. 扶蘇山城 配置圖

多賀城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식은 古代로부터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대에 측면출입을 흔히 사용한 것은 지붕을 낮게꾸미었기 때문에 開口部를 넓게 利用할 수 있는 부분이 박공쪽의 벽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부소산성 남문지의 양측에는 일정한 區間에 석벽을 쌓았는데 그 높이는 약1.2m로서 짧고 춤이 낮은 角石을 밑에서 부터 뒤로물려 가면서 쌓은 것이다. 또 석축면에는 약3.5m내외의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석축에 물려 세우게 하였는데 이 위에는 防柵板을 세웠던 시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이밖에 토성은 대부분이 粘土質 흙으로 다진 版築法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잡석을 혼용하여 土石 混築을 하고 있다.

부여羅城은 그 길이가 약8km로서 東羅城은 부소산성 북동편 에서 시작하여 青山城 외곽을 감싸고 石木理에 이르는데 이곳에는 공주방면으로 통하는 문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석목리를 옛날에는 石門里 또는 城門里라고 불렀다 한다. 다시 羅城은 陵山里 뒷산의 능선을 지나 論山 가도를 통과하여 동문다리를 지나 염창리 뒷산을 지나 백마강(錦江)까지 이어졌었다 하지만 현재는 청산성 동쪽으로 약 200여m 석목리에서 동문다리 까지 그리고 筆書峯에서 염창리까지 흔적이 있다. 한편 西羅城은 산성의 서변에서 시작이 되어 백마강을 따라 나란히 뻗어 〈빙고재〉〈장성백이〉 그리고 〈성말리〉에 이어진다. 이렇게 하여 부여를 방어하는 羅城은 남쪽에는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 금강이 흐르고 동문다리에서 궁남지를 지나 군수리사지 까지는 旺浦川이 흘러 자연적인 방어가 되므로 羅城을 두지 않았다한다.[6]

□註□

1) 李基白, 韓國史新論, 改正版, 一潮閣, 1985

2)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73

3) 夢村土城, 發掘調査報告書, 서울大學校, 서울특별시, 1987

4) 二聖山城, 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 1987

5) 公山城, 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1982

6) 扶餘郡誌, 第二章城址 p. 714, 1987

짝 짓기 놀이

Match Game

朴英健/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
by Park, Young-Kun

최근에 가까운 동료 건축사로 부터 남의일 같지 않은 고민을 들은 적이 있다.
내용인즉, 「합동」이니 「종합」이니 하는 문제가 거론되기 이전부터 같은 빌딩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인연이 되어 「건축사법」의 개정에 따라 함께 종합건축사 사무소로 등록 하고 있었던 세사람 중의 한명이 사전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다른 사무소로 이적을 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함으로써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결원이된 한 사람의 건축사의 자리를 메꾸기가 매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였다.
결국은, 건축사의 신상에 관한 일이나 사무소등록 사항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업무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르는 도리 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의 허가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착실하게 건축주에게 쌓아온 신뢰를 하루 아침에 잃을 것이 뻔하다고도 했다.
더욱이나, 유치원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겠지만 어른들에게는 기껏 야유회에서나 걸맞을 듯한 「짝짓기」놀이와 같은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규정에 대해 깊이 개탄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 벌써 건축설계분야의 실무경력이 20년 가까이 되어 이름깨나 알려진 그로서 이와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나 법의 정신을 모를리 없으련만, 평소의 그답지 않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죽 급했으면 그러랴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게도 그러한 경우가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70년대 초에 코딜(William Wayne Caudill)이 저술한 아키텍처 바이 팀(Architecture by Team)이라는 책이 작년 가을에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다. 「건축의 성공비결」이라고 표제가 붙은것은 아마도 일본어판을 중역 했으리라 짐작이 되지만 그런대로 원본에 충실하게 옮겨진 책이라고 생각된다.

저자인 코딜(Caudill)은 서울 용산에 세워진 국제그룹사옥 건물 설계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 있는 미국의 우수한 설계회사인 시알에스(CRS)를 창립한 처음 두사람의 「파트너」가운데 한 사람이다. 또한, 시알에스(CRS)가 현재와 같이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설계조직으로 성장하는 동안 「리더」로서 크게 기여한 바가 있으며 사후에는 메달(A.I.A. Medal)을 추서받은 존경받는 교육자이며 뛰어난 실무 건축가중의 한분이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이 책에서 그는 금세기 전반부에 군림했던 위대한 거장 건축가들에게 대단한 존경심을 표하면서도 「프리마돈나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수한 건축가들의 집단으로 형성된 천재적인 「팀」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리라는 확실한 신념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는 역설적으로 말한다. "시알에스(CRS)가 이미 수백동의 건물을 설계했고 그중에는 미국내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상을 수여받은 50여채의 건물이 있지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말과 같이 오늘날의 건축물은 한 사람만으로는 설계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으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축물은 팀을 이루어 설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무엇이 팀인가?」하는 명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미묘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함께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거나 적다고해서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코딜(Caudill)에 의하여 정의된 바와 같이 「능력있는 전문가의 집단」을 「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현행 건축사법 가운데 사무소 등록에 관한 기준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에 있어 규모에 따라 적정수의 책임 건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규정은 앞에 거론한 「팀」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견상으로 「함께」 있어야만 된다거나 실제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책임건축사를 만들어내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 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혹자는, 실제로, 모든 종합건축사사무소의 현실이 그렇지도 않은 마에야 이 정도의 강제 조항쯤은 우리가 늘상 겪어 온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사법이라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의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적절히 차원을 높여 갈 때가 아닐지?.
규제를 하기 보다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된 「팀」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내용의 설계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너 나 할 것 없이 불행한 「짝짓기」 놀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한탄 하기보다 이제 지난해에 창립2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고 아울러 독자적인 작품집을 간행한 존경스러운 「팀」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때 인 것이다.

◆

朴英健
필자는 47년 서울출생으로 69년 서울공대 건축공과를 졸업하고 독립기념관 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에 참여하였으며, 현재는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건축을 자영하고 있다.

工場造景
Fine View of Factory

吳尚坪 / (주) 正東엔지니어링
by Oh, Sang- Pyo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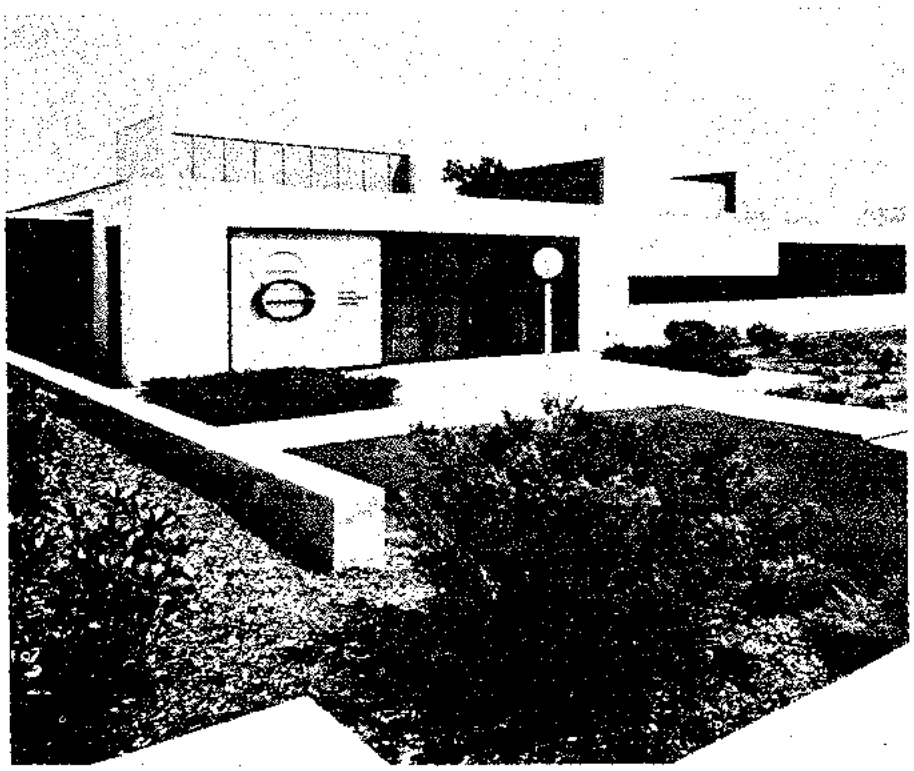
1. 工場造景의 目的과 意義

아름다운 國土의 自然과 景觀은 거듭되어온 시련의 歷史와 더불어 회손을 면치못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高度의 經濟成長에 따른 産業의 개발로 인하여 自然環境의 景觀은 더욱 파괴되어 온 실정에 서 있다.
그러므로 住居地域에 인접한 單位工場地帶는 물론 工業團地에서는 産業公害의 완화책의 일환으로 工場綠化 조성의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이상적인 工場環境을 조성한 사례도 상당히 많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經濟의 성장에 걸맞는 産業環境 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고 할것이며 工場環境의 정비와 보전에 적절한 대비를 기하지 못한 결과로 工場地帶는 公害와 産業災害등 環境汚染의 發生地帶 변하여 地域住民들의 生活環境 파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공장을 녹화하고 미화, 쾌적화, 공기정화 완충, 소음차단, 방화, 방조(바다바람 막이),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을 구체화 시켜서 공장을 조경하는 것은 공장 자체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친근감과 안전감을 높여주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시도 하기위한 절대불가결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공장경영자 측에서는 이점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종래의 공장녹화는 종업원의 정서함양, 작업능률의 증진, 보건, 체위향상, 공장자체의 P.R. 등에 큰 구실을 해왔겠지만, 요컨대 금후의 공업단지와 공장형태의 이상형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장조경으로 공장을 공원속의 즐거운 생산의 터전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장조경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전반적인 공업단지 계획속에서 특히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전반적인 공업단지 계획속에서 특히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분리시키기 위한 완충녹지, 공장의 각종공원, 환경보전녹지, 중심가로 또는 중요 가로변의 녹지대, 가로수, 공공건물에 부수된녹지, 광장 및 주차장, 등의 공공적인 녹지현황이나 계획에 관한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고차원적인 견지에서 계획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장조경은 녹지로서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나, 녹지면적의 확보를 위해서나 공장주변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이유에서도 건물의 Set Back은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주변 녹지에 관련된 주, 부 Approach와 사무실, 주요건물의 앞뜰등은 경관구성상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환경시설을 포함한 녹화시설 상호간의 연결과 건물과의 관계상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공장건설의 당초부터 건축계획, 건물배치계획 조정에 참여하여 공장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었다.
계획실시의 순서는 공장마다 각각의 업종, 업태, 규모등에 따라 자연적, 입지조건도 조사하고 공장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바탕으로하여 연차계획을 세워 실시설계, 시공, 관리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다.

2. 工場造景의 計劃

우선 工場부지 및 공장주변의 自然, 社會的環境에 관한 충분한 관찰과 조사 및 분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다각도의 조사결과를 기초로해서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工場은 海風이 많은 임해지대 이거나 저습지의 매립지 또는 표층토를 깍아버린 조성나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工場團地에서는 各 工場에서 배출되는 汚染物質과 직접, 地下水의 양수 사용에 의한 地下水位의 低下 등의 문제도 일어나며, 이와같이 工場造景의 조건은 地下에 매설된 각종 配管施設物 등 무수한 제한요소를 갖고있다.
工場은 生産活動場所인 동시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生活空間이며 空間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生産活動을 행하는 空間과 종업원이 생활하는 공간이 상호 合理的으로 配置되어 있어야 한다.

◆
吳尚坪
필자는 41년 경남생으로 경상대 농학과와 한양대 환경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정동엔지니어링을 지영하고 있으며 국토개발 기술사 (조경부문) 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勞動空間이 人間의 生活空間의 一部로서 그 정비가 중요시 되어야 함과 동시에 工場周邊環境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施設로서의 意義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3. 樹木 식재

樹木 식재에 있어서 土壤條件이 수종의 선택과 식재후의 生育狀態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工場造景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연이나 有毒 Gas 등 環境因子가 불량하기 때문에 工場부지내의 土壤의 適否는 식재후에 있어서의 樹木의 生育은 물론 관리면에 있어서도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규모가 큰 工場團地는 土地利用上 임해매립지나 저습지를 매립한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체로 특수한 土壤條件을 가지고 있으며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밭흙이나 산흙(山土)등의 사질양토, 양토 또는 점질土壤이라면 樹木의 生育上 알맞다고 할 수 있으나 工業團地가 자리잡게되는 特殊土壤층의 경우에는 식재에 앞서서 어떠한 地盤조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客土法이 있는데 樹木 한그루 마다 客土하는 埋木客土法, 대상으로 일정면적의 沙土를 파낸다음 그자리에 좋은 흙을 채누는 대상客土法, 등이 있고 城그밖에 沙土로 이루어진 지대위에 밭흙이나 산흙을 쌓아올리는 盛土法, 및 沙土중에서도 특히 왕모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보수력과 비료분을 보지하는 힘이 결여된 곳에서는 부식토양을 충분히 섞어주면 토성이 개량되어 樹木生育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조사식토혼합법, 또는 土壤改良制混合法 따위가 있었다.
그외 부지조성시 重裝備 등의 밥압으로 굳어진 땅은 트랙타로경운하여 토양을 부드럽게 다듬은 후에 식재작업에 임해야 하고 排水路 등을 철저히 설치하여 장마시기를 대비하여야 한다.
工場綠化라 해도 내륙지방에 위치한 공장의

工場造景計劃에 있어서의 綠地區分

區 分	種 類	機 能	施 設
부지周邊 綠地	완충녹지 방재녹지 기타	주변지역의 환경보존 방재를 위한 녹지	수림 열식수 생울타리 잔디밭…… 등
建物周邊綠地	사무소주변녹지 작업장주변녹지 후생시설주변녹지 주거시설주변녹지 기타	각종 건물과 외부공간과의 조화, 수식을 위한 녹지	정원용지, 잔디밭 화단, 연못 산책로 등나무시렁 …… 등
利 用 綠 地	휴양 녹지 운동 녹지 기타	휴식 산책, 대화, 운동놀이 등을 위한 녹지	잔디밭, 녹음수, 생울타리, 화단, 연못, 산책로 등나무시렁, 의자, 테이블, 휴지통, 간이운동 기구 음수대, ……등
其 他 綠 地	도로 녹지 기타	각종 시설 배치 통행처리상 생기는 생기는 녹지 및 보존 녹지	녹음수, 병목 생울타리 ……등

工場綠化用 樹木의 選擇基準

공장 류형	공해 및 재해	수종	
		남부지방	중부지방
石油化學地帶	아황산 가스	태산목, 후피향나무 녹나무, 굴거리나무 아왜나무, 가시나무	화백나무, 눈향나무 은행나무, 백합나무 버즘나무, 무궁화
製鐵工業地帶 (金屬, 機械)	비화수소 임화수소	치자나무, 사프레피나무, 감탕나무, 호랑가시나무, 팔손이나무	아카시아, 참나무 포푸라, 향나무 주목,
임해 工業地帶	조 염	동백나무, 광나무 후박나무, 돈나무 팽팽나무, 식나무	향나무, 눈향나무 곰솔, 사철나무 회양목
씨멘트 工業地帶	분진, 경음	삼나무, 비자나무 편백나무, 회화나무 가시나무	잣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가문비나무 버즘나무

경우와, 임해공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건이 크게 달라질수밖에 없어서 즉 내륙지방에 자리잡은 공장은 중소기업의 경우가 많아서 綠化를 해야할 면적도 비교적 좁고 여기에 심어질 나무도 매연과 분진에 견딜수 있는 수종이면 되지만, 임해공장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업종이 대기업에 의한 중공업의 형태를 지니는 것이므로서 綠化면적이 내륙지방의 공장에 비하여 월등히 커질뿐만 아니라 수목의 生育에 미치는 환경조건도 크게 불리하여 녹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각종기술을 동원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즉 공장이 해변에 자리잡고 있을 때에는 항상 海風의 영향을 입게되며, 특히 여름철의 계절풍이나 태풍 또는 겨울철의 찬바람이 강하게 몰아칠 뿐만아니라 그 바람이 실어나르는 바다물의 물방울이나 염분 혹은 모래알이 생리적면에 있어서는 물론 물리적 면에서도 수목해야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보아 상록활엽수류에는 내염성이 강한 수종이 많고 낙엽활엽수류는 약하다고 보아야 하며 침엽수류도 해송, 편백, 삼나무, 등의 상록성은 강한편이고 낙엽송, 낙우성, 메타세쿼이야 등의 낙엽성 수종은 약한것으로 구분된다.

한편 각종 공장으로부터서 배출되는 大氣汚染物質에 대해서는 극력 減縮方案이 마련되고 있는 현단계에 있어서도 그 효果가 미흡하여 대기속에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많도 그 양 또한 적지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工場綠化用으로 쓰일나무는 이와같은 각종 오염물질에 견디는 힘이 강한 소위 내연성 수종을 선택 식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식요령은 綠의 목적과 부지내의 녹화장소에 따라 다르나 무엇보다도 기존의 地形과 식생을 살려 그 녹화목적을 달성하고 또 그 각개소가, 일체가되어 유기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계획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래의 공장녹화에서 하고 아니면 생산시설 본위로 건물을 배치하여 구석 구석 남은장소에 녹화하는 양식을 지양하고, 일정면적의 綠地를 의무적으로 賦課하여 건설당초부터 식재를 고려하여 건물등의 배치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공장주변부분의 녹화는 외부에서 보아 공장의 景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서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도모하며 또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緩和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라 하겠다.

수림대 배식법으로서는 전기의 공장녹화용수목 가운데서 입지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골라서 상록수를 위주로 하는 교목류 수종을 수림대 중심대 주목으로 심은다음 速成綠化樹木으로서 포푸라류와 아카시아 나무등을 배식하면 비료목으로서는 오리나무류와 콩과수목을 혼식하고 그 양연부에는 저목을 배식하는 것이 좋다.

수림대조성에 있어서 그식재밀도는 수목의 생육상태를 양호하게 하기위하여 수림대조성시에 10평방 메터당 교목1주와 관목3주 정도가 되도록 하며 상록수와 낙엽수의 비율을 8 : 2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경제적인 점을 고려하여 유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평방 미터당 수고 1.5~2m 교목이면 2주정도 심는다. 이때 주수가 늘어나도 시재겨비는 늘어나지 않지만 사회적인 효과도 적고, 또 공장에서 어린나무를 육성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면 왼쪽 표와 같은 이식밀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더구나 임해매립지에 입지하는 공장은 조풍과 한풍이 강한 악조건의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정도보다 식재밀도를 가감할 필요가 있으나 오른쪽의 표와같이 밀식하여 수목 상호간의 방풍효과를 발휘시켜 수림내의 기온을 높이고 지표의 증산작용을 억제하는 등 수목의 생육을 양호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이라 하겠다.

정문에서 사무소에 이르는 접근주변 및 사무소주변부는 일반주택으로 친다면 대문에서 현관에 이르는 장소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외래자에게 공장의 첫인상을 주는 곳이며 또 종업원이 출퇴근시에 필수적으로 눈에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곳이다.

특히 정문 수위실부근 사무소 앞에는 젓꼭지나무, 가이스카 향나무, 녹나무, 소귀나무등 수형이 바른 수목과 칠쭉등의 화목을 배식하고 넓은 잔디밭에 화단과 녹음수를 배치하는등 밝으면서도 짜임새 있는 경관구성을 해야한다. 그리고 정문부근에 설치된 주차장에는 내연성이 강한 가이스카 향나무, 아왜나무등의 상록수로 산울타리를 두르고 또 주차장내에는 여지를 두어 버즘나무등의 녹음수와 철쭉류등의 화목류등을 식재하면 綠化와 美化의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잇는 곳이다.

공장의 건물주변에는 도로와의 사이에 좁은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는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하는 사이에 휴양을 위하여 적어도 폭 5m의 도지를 확보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美化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외 도로변 구내공지 식당, 진료소 등의 후생시설 지역주변은 경관의 조성과 더불어 휴게시설의 설치가 반듯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지의 여유가 허락된다면 운동시설로서 Track 야구장, 정구장, 배구코트, 수영장 등을 시설한다면 더할나위 없겠으나 최소한도 노동의 피로를 풀수 있도록 간단한 물리적 운동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工場周邊 수림대의 移植密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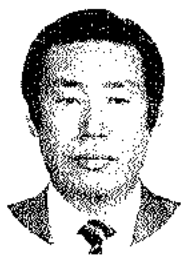
구 분		수 고(m)	移植密度(m)²	비 고
교목	성 목	4 이상	0.05	상록수와 낙엽수의 比率은 8 : 2
	유 목	1.5~2.0	0.10	
관 목			0.35	
계			0.50	

임해매립지에 있는 주변수림대의 식재밀도

구 분		수 고(m)	식재밀도(m)²	비 고
교목	성 목	4 m 이상	0.05	상록수와 낙엽수의 비율은 8 : 2
	유 목	1.5~2.0	0.15	
관 목			0.35	
계			0.50	

光州直轄市支部篇

앞서가는 運營, 앞서가는 支部



朴永憙 / 光州直轄市支部長

우리 大韓建築士協會도 어언 23년이란 나이가 들었다.
우리가 1965년 10월 23일 건설회관 7층에서
創立總會를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상이
변하여도 두번이나 넘게 변한 세월이 되었다.
창립당시에도 완전한 것은 되지 못했으나 어느 정도는
獨立豫算制에 의한 예산처리를 잘하여 왔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형태가 維新體制라면서,
統合豫算이란 청천벽력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러가지로 이유가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여기저기에서 부당함을 들어
투쟁하여 왔으나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10년이란 세월이
또 어느덧 흘러가고 말았다.
우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독립예산제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中央執權에서 地方自治로 변모를 부르짖어
왔으나 뜻대로 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끌어왔다. 우리의
主張은 통합예산제에 대한 어려운 점을 그당시
여러가지로 노출하였다.
예산 다쓰기 운동, 예산 더타기 운동,
이런 모든 문제로 인하여 예산절감이란 이유를 들어
통합예산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어쨌든 88년도부터는 어느 정도의 獨立豫算制라는
방법으로 回歸한 이상 우리 각 지부는 우리가 그렇게
원한 제도가 되었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 모든 회원과 모든
지부임원은 전에도 호주머니를 털어 운영하여 왔으나
언제고 더더욱 실감나게 우리 각 지부회원이 원하고
갈망한 방향으로 모든 예산을 유효 적절히 배정함은 물론
하나 하나 모든 것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豫算配定과
예산집행에 더많은 신경을 써서 모든 회원의 과부에 당는
예산집행을 할 것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지방자치제 운용에
한발 앞서 하는 제도로 알고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연합회 제도로 가는
첫걸음으로 생각하여 모든 지부의 운영을 과감히 처리하여
다른 단체나 모든 기관보다 앞서가는 단체가 되어 갈
것을 믿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시다.

◆
朴永憙
필자는 39년 전남생으로 63년 전남대
건축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직할시지부장과
광주직할시 도시계획위원이며 무등, 백제,
우주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지영하고 있다.

金重業先生 別世

우리나라 現代建築의 개척자로서 詩人, 建築士로 널리 알려져 왔던 金重業先生이 5월11일 오전11시30분 강남성모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향년66세.

5월15일 오전10시 강남성모병원 영안실에서 발인이 있기전 본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영결식이 거행되었는데 본협회 安箕泰 회장과 金正澈 한국건축가협회장의 弔詞를 비롯 많은 친지와 후학들의 애끓는 追悼詞가 뒤를 이었다.

한편 本協會 編纂·弘報委員會(위원장 朴榮翼)에서는 건축관련 각계 인사들의 추도사를 비롯 金重業先生의 人生과 作品을 우리나라 建築史적 차원에서 재조명 정립하기 위한 기획을 마련, 建築士誌 6月號에 追慕特輯으로 꾸미기로 하였다.

建築은 人間에의 讚歌입니다.
또 또한 自然속에 人間의 보다 나은삶에
바쳐진 또하나의 自然입니다.

人間이 빚어놓은 영원한 조각이며
또한 훌륭한 싸인 입니다.

自然속에 建築이 建築속에 自然이 서로
감싸주 주게 끓어 調和롭게 호흡하는
모습이란 人間이 이루어 놓은 極致라고
할 것입니다. 建築을 '綜合藝術'이라하고
"鉄序의 샘"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아운 건축이란 인간에게 짜릿한
感銘을 주어 끝없는 기쁨으로 昇華
시키는 드라마를 演出 합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오는 이웃에게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이야기를
펼쳐줍니다. 많은 것들에 에워싸여
빛은 묘정으로 방끗웃는 빛과
그림자의 交樂樂 입니다.

建築을 얼어붙은 音樂이라고도
합니다.

建築이란 그리 흔한 存在는 아닙
니다. 헤아릴수도 없이 구축한
무리들 속에서도 고고히 自身을지키고
있는 훌륭한 存在만을 建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建築이란 만과
하나정도의 확률밖엔 없고 이를
갖아 맞추는 建築家란 많지가
生涯속에 自身을 송두리째 불사르는
이들 입니다.

김중업

◎ 金重業先生 略歷

1939년 3月 平壤高等普通學校 卒業
1941年 12月 日本 横濱(요꼬하마) 官立 高等工業學校 建築科 卒業
1949年 4月 서울大學校 助教授 工科大學 및 師範大學 勤務, 漢陽大學校 工科大學 教授兼 梨花大學校 美術大學 講師 및 淑明女子大學校 美術大學 講師
1952年 10月 프랑스 파리市 르·꼬르뷰지에 建築研究所에서 滿3年 6個月間 建築 및 都市計劃 專攻
1956年 3月 歸國後 金重業建築研究所 開所
1963年 6月 美國 뉴욕市에서 開催한 뉴욕 世界博覽會 韓國館 設計次 渡美
1964年 7月 U. N. 本部 委嘱 韓國 UNCURK 技術顧問
1965年 9月 國展 建築審査委員長 委嘱
1968年 3月 韓國建築家 協會 副會長
1972年 3月 르꼬르뷰지에 財團 理事
1973年 2月 프랑스 몽뻬리에 國立建築大學 教授
1975年 9月 渡美 RHODE ISLAND藝術大學(L. I. S. D)教授
1978年 美國 BOSTON市 HAVARD大學 SCHOOL OF DESIGN教授
1982年 獨立記念館 建立委員會 企劃委員 大韓民國 國展 審査委員長

◎ 主要作品 및 受賞

서강대학 본관, 주한불란서대사관, 뉴욕 세계박람회 한국관, 제주대학 본관, 유엔묘지정문, 삼일로빌딩, 부산충혼탑, 을지로재개발 16, 17지구, 국제방송센타, 올림픽공원 올림픽조형물 올림픽공원 올림픽조형물외 200여점

1962年 6月 서울特別市 文化賞 受賞
1965年 12月 프랑스國家功勞勳章 受賞, 슈바리에 稱呼受領
1982年 大韓建築士協會 大賞 受賞(陸軍博物館) 大韓建築家協會 作品賞 受賞(韓國教育開發院本館), 大韓建築學會 作品賞 受賞
1985年 産業褒章 受賞(建設有功)
1988年 서울市建築賞 金賞 受賞

아, 金重業先生!

安箕泰

金重業 先生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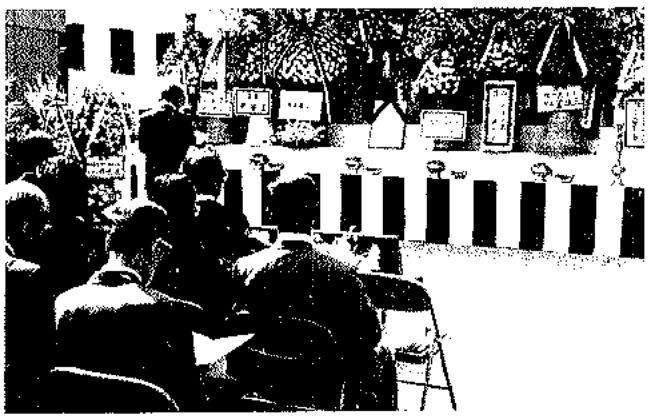
지금 先生님 靈前에는 生前에 함께 뜻을 나누고 지냈던 분들과 後學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先生님, 우리나라 現代建築의 開拓者로 建築文化史에 永遠히 빛날 그 傑出한 모습을 더 이상 뵈올 수 없으니, 슬프고 안타깝기 이루 形言할 수 없읍니다. 萬有無常을 한탄한들 무슨 所用 있겠으며, 會者定離·生者必滅의 哲理를 되吟味한들 무슨 慰勞가 되겠읍니까.
하셔야 할 일 山같이 남거둔채 한창 일하실 예순여섯 亨年에 그만 일터를 비워 두시고 無心한듯 人生을 끝내시니 그 더욱 원통합니다.

回顧하면 大韓建築士協會와는 會員이라는 立場에 계셨읍니다만 協會를 아끼고 사랑하시던 情熱은 그 어느 분 보다도 뜨거우셨읍니다. 그래서 協會가 어려움에 處할 때마다 元老로서 모시어 諮問을 請하였고 때로는 높으신 智慧에 依存하여 實務協議의 現場에까지 모시기도 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建築士의 位置가 해가 갈수록 弱해지고 있음을 걱정 하시며 激勵해 주시던 일,
對內外的으로 强力한 힘을 發揮할 수 있도록 三團體 聯合方案의 講究를 提唱하시던 일, 建築行政을 總括하는 政府機關의 發展을 위해 상당한 水準으로 編制가 格上 되어야 한다고 促求 하시던 일……
實로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發展을 위해 높으신 意見, 數도 없이 말씀해 주시더니 이제 그 音聲, 그 情熱을 더 이상 對할 수 없게 되었으니 痛歎할 수밖에 없읍니다.

個人的으로도 先生님과의 關係는 30余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고 두꺼운 歲月이 있으며, 이 世上에서의 그 恪別한 因緣을 끊고 훌쩍 떠나가셨음을 생각할 때 또한 슬픔이 북바칩니다.
先生님의 作品에 魅了되어 推仰의 一念에 불타던 不肖는 당시 20代의 建築靑年이었으며 오늘의 建築士로서 位置가 定立되기 까지에는 그 때 先生님께서 입혀주신 影響이 至大하였음을 眞實로 말씀 올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小公洞의 文化公報館에서 열렸던 펠그림·홀을 主題로 한 作品展示會는 그래서 영원히 잊지못할 所重한 追憶인 것을 告白 합니다.
그 얼마 後, 佛蘭西에서 歸國하셨을 무렵, 先生님을 모시고 明洞 거리를 걸을 機會가 있었는데, 氣慨에 찬 言行으로 闊步 하시던 그때 그 모습을 통해 뒤 따르던 제가 감동적으로 人生을 배웠던 記憶이 어제 일처럼 새롭기만 합니다.
아, 回想하면 끝이 없고 치밀어 오르는 悲哀에 목이 메일 따름입니다.

先生님,
지난 4월 7일 幕을 올려 5월末까지 日本 銀座포켓파크 紀念展의 一環으로 開催하고 있는 建築展에 出品한 先生님의 作品이, 높은 人氣 가운데 많은 參觀人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으며. 參觀人數가 2萬名을 넘었다는
日本建築士會聯合會側과
銀座포켓파크側의 書信을 바로 어제 받았읍니다.
이 消息을 오늘 이렇게 靈前에서 올리게 되다니 切痛하고 切痛 합니다. 그 紀念展에도 한번 다녀 오시겠다고 벼르시더니 이렇게 그만두고 가버리시는 것은 어찌된 일이십니까.

先生님은 어디로 가시고 이렇게 默默不答이십니까! 先生님의 그 모습, 그 말씀 뵙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가신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아, 애닯습니다!



建築은 人間讚歌라시더니

金正澈

이제는 韓國建築의 紀念碑的인
象徵이라고 評價되어 마지않는,이 땅에
남은 先生님의 作品들을 통해, 先生님에
對한 欽慕의 情을 달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 作品精神을 기리며 推仰할 수 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先生님의 體臭를
더듬을 수 있음은 참으로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先生님 肉身은 이미 가고 계시지 않지만
先生님의 靈魂은 作品속에 살아 우리와
깊이 交感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先生님 얼은 우리 속에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아! 先生님의 모습이 눈에 역력 합니다. 그
音聲도 귀에 쟁쟁 합니다.

先生님, 이제 冥界의 福복을 누리시옵소서.
통곡을 삼키고 우리 모두 이렇게 先生님의
冥福을 비오니 고이 잠드시어 久遠한
平安을 누리시옵소서.

1988년 5월 15일.

五月이 빛나는 달에 저희 建築人들은
先生님의 靈前에 모여, 옷깃을 여미고
先生님이 남기신 珠玉같은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建築家 以前에 詩人이셨던 先生님,
先生님은 不毛의 이 땅에, 建築이라는
藝術의 본보기를 심어 우리나라 現代建築의
기틀을 잡아주셨읍니다.
날카로운 感性으로하여 先生님의 作品은
풍요로운 詩가 가득하고 남의追從을
不許하는 强한 個性으로 빛났읍니다.
르·꼬르뷔제와 더불었던 4年余의 刻苦는
佛蘭西大使館을 계기로 하여 獨創的인
경지에 들어섰고, 最近의
올림픽紀念造形物에 이르러 마침내 偉大한
創造를 빚어 놓았읍니다.
40余年에 이르는 先生님의 발자취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古典의 傳統을 어떻게
이어받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努力의
歷史인 것 같읍니다.

建築은 人間을 위한 讚歌라고 믿었던
先生님의 知性은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앞날을 꿰뚫어보는 巨人의 눈으로 作品을
다루었고, 이로말미암아 마침내는
官僚主義의 迫害를 받게 되었읍니다.
기와지붕을 안씌웠다는 단순한 理由로
作品이 빛을 못보고 서울市 都市計劃을
批判했다는 理由로 마침내는 七年以上의
오랜 歲月을 外國에서 살아야 하는 悲運을
맛보기도 하였읍니다.
이에 屈하지 않고 태풍이 지나간 後, 故國에
돌아온 先生님은 더욱 샘솟는 意欲으로
새로운 造形言語로 自畫像을
빚어냈읍니다.

先生님의 作品創造에 있어서 歷史意識과
官僚主義에 대한 不屈의 抵抗意識에
저희들은 머리가 숙여질 따름입니다.
이에 대하여 幽明을 달리할 때까지 제도판에
向해 앉아 참다운 建築家의 姿勢를 손수
보여주셨읍니다.

建築家에게는 마음대로 作品을 創造할 수
있는 自由가 있는 곳이, 곧 그의 故國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故國에
대한 望鄕의 情을 달래곤 했던 先生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헛 되어 民主化의
길로 들어서고 自由로운 創作의 길이 환히
트인 우리나라에 先生님은 안계십니다.
다만 몇해
더 살아계셨더라면, 또 이번에는 어떤
作品으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가슴은 메이는 듯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先生님이 보여주신 勇氣와
不屈의意志와 建築家의 姿勢를 이어받아
이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렵니다.

부디 편안히 계십시요.

1988년 5월 15일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된 주요내용(II)

Commentary on the Revised Contents of Architecture Enforcement Regulations

姜吉夫/ 건설부 법무담당관
by Kang, Kill-Boo

Ⅱ.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건축설비

5. 굴뚝구조의 조정(제13조)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 부터의 수직거리를 0.9m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용마루, 계단탑, 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이 굴뚝주위에 연기의 원활한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이 용마루, 계단탑, 옥탑등보다 높게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6.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단지내 통로폭의 완화(제46조 1항)

인접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외벽간에 설치하는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위하여 건축물 주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한 부분제외)에 폭 3m이상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을, 종전의 연면적 5천㎡이상에서 1만㎡이상 건축물로 그 설치 대상범위를 완화하였다. 이는 소방통로의 최소폭으로는 과대하게 되어있고 소방법상 스프링쿨러설치등으로 강화규제하고 있으므로 소화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게함으로서 건축물의 전면에 보다 많은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지하층설치의무의 일부면제(제47조 1항)

인구20만이상 또는 바닥면적 20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지하층 설치대상가운데, 현실을 감안하여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은 제외하였다.

Ⅲ. 도로 및 건축선

1. 특수한 경우의 막다른 도로의 폭 완화(제62조 2항)

도로는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4m이상이어야 하고 일반건축물은 통로의 확보·화재시 연소의 차단등을 위하여 그 대지가 반드시 2m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예외로 구조 및 폭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경사가 심하여 지형상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하는 구간내의 폭 3m이상인 도로(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35m이상인 것에 한함)로 정하였다.

2.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조정(제63조 2항)

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헬스클럽등의 건축물은 대지의 도로연접요건이 가중되어 있는데 종전에 ① 바닥면적 1천㎡이상 2천㎡미만은 폭8m이상 도로에 대지둘레길이의 6분의 1이상을 접하여야 하던 것을, 이를 일부조정하여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8m미만이라도 6m이상만 되면 이의 건축을 허용하되 대지둘레는 5분의 1이상을 접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② 바닥면적 2천㎡이상인 경우는 폭 10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던 것을, 이를 일부 조정하여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10m미만이라도 8m이상만 되면 이의 건축을 허용하되 대지둘레는 5분의 1이상을 접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이는 차량통행이 적으면서도 이런 종류의 건축이 불가능한 실정 또는 도로폭은 개인이 임의로 확장할 수 없지만 도로에 접하는 인접대지는 확보하여 도로에 접하는 대지둘레를 넓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할 길이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6미터이상 8미터미만인 때(신설)	대지둘레의 5분의 1 (신설)
	8미터 이상인 때	대지둘레의 6분의 1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8미터이상 10미터 미만인 때(신설)	대지둘레의 5분의 1 (신설)
	10미터이상인때	대지둘레의 6분의 1

◆
姜吉夫
필자는 42년 경남생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는 건설부 법무담당관으로 재직중.

Ⅳ.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1. 용도지역의 세분과 명칭 조정 (제66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제는 단위용도지역면적이 지나치게 넓게 책정되기 때문에 도시의 기능이 다양하고 토지이용 형태가 복잡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지역에서는 단일용도지역만으로 규제할 수 없을 뿐아니라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일률적 규제로 인한 폐단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규모에 따라 적정한 토지이용의 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용도혼재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1988. 2. 16 대통령령제 12397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종전에 상업지역은 1개로만 되어 있던 것을 세분하여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종전의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보도를 하였다. 자연환경보전지구는 보전의 성격이 강하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개편하였다. 따라서 녹지지역은 종전에 있던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보전녹지지역이 추가되어 3개로 세분된 것이다. 한편 방재지구를 신설하여 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역에 대비토록 하였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종전 그대로 각각 3개의 용도지역으로 존칭하되, 명칭을 바꾸어 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전용지역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은 그대로, 공업지역의 경우는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명칭을 그대로 두되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어 용어 사용상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정리하였다. 이로써 4개의 용도지역은 종전 9개로 세분되던 것이 12개로 세분류 되고, 용도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없어진 대신 방재지구가 신설됨으로써 14개의 숫자는 변동이 없다. 특히 종전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연접했을 때 위락시설이 주거나 교육환경을 침범하여 악영향을 끼쳐왔던 사례등은 이번에 마련된 근린상업지역이나 종전의 준주거지역을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중심 또는 일반상업지역의 중간에 도시계획상 완충공간으로 배치함으로써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2.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조정 (제66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사항의 주요한 개정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일반주거지역내에는 폭12m 이상도로에 6m이상 접할 때는 일반업무시설의 건축은 종전처럼 허용되지만 오피스텔은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일반주거지역내에는 종전에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면적 150㎡미만인 차고만 허용되었으나 이번에 이를 완화하여 주차면적 150㎡미만인 차고이외에 시내버스차고와 폭20m 이상의 도로에

변경된 용도지역의 세분과 지정목표

	구 분		지 정 목 적
종전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상 업 지 역		상업과 기타업무의 편익의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장의 편익의 증진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건위생·공해방지·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를 위한 녹지의 보전
		자연녹지지역	
개정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보호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기능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 확충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공업 등을 수용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지역	기타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보완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립 및 녹지보전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유보
		자연녹지지역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한적 개발

지역·지구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 전 의 지 역·지 구	변 경 된 지 역·지 구
주 거 전 용 지 구	전 용 주 거 지 역
주 거 지 역	일 반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일 반 상 업 지 역
공 업 지 역	일 반 공 업 지 역
자 연 환 경 보 전 지 구 (녹 지 지 역 내)	보 전 녹 지 지 역
(기 타 의 지 역 내)	풍 치 지 구

※ 도시계획법시행령(1988. 2. 16. 대통령령 제12397호) 부칙③에 의거 종전에 결정고시된 지역·지구는 변경된 지역·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도 추가로 허용하였다.
둘째, 상업지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은 도심부 또는 부도심의 업무·상업기능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지역이므로 이지역안에는 단독주택(단, 한 건물내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은 허용), 공동주택(단, 한 건물내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은 허용)·기숙사·노유자시설(단,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허용)·격리병원·공장(단, 배출시설 최소규모의 2배이하인 인쇄공장은 허용)·창고·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위험물판매취급소와 10톤이하의 지하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허용)·폐차장 및 자동차계강습소·분뇨쓰레기 처리시설·교정시설·묘지관련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상업 및 서비스기능의 편익도모를 위한 지역으로서 경과조치도 종전의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보도록 하였으므로(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3조) 건축제한을 종전의 상업지역과 동일하다. 또한 근린상업지역(건축제한 별표6)은 인근주거지역에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지역으로서 격리병원·판람장·공장(단, 자동차정비사업장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인 도시형공장 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배출시설 최소규모의 2배이하인 인쇄·봉제·필름현상·자동차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은 허용),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단, 위험물판매취급소와 10톤 이하의 지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허용), 운수시설(단, 시외버스 정류장은 허용), 폐차장, 동물관련시설(단, 1급도계장은 허용),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셋째, 준공지역안에서는 종전에 시장, 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다중주택·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에 한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바꾸었다. 이로써 건축제한에 다중주택과 공동주택이 추가된 것이다.
넷째, 보전녹지지역은 (건축제한 별표10)은 도시의 자연경관의 보전 및 개발의 억제를 위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지구가 용도지역으로 대지 변경된 것인데 종전의 자연환경보전지구안에서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기타 그 지구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이들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근린공공시설, 교육연구시설(종전에 조례준칙에 연구소만 허용), 의료시설, 전기시설등 공익에 필요한 건축물만 허용되었는데, 자연환경보전지구가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제한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전녹지지역은 녹지보전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므로 주택과 주민편익 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도록하여 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다중주택은 불가) 및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바닥면적 500㎡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일용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약국, 의원과 300㎡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대중음식점 및 일반목욕장,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바닥면적 1천㎡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동식물원, 바닥면적 500㎡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용의 창고시설, 군사시설, 국민학교·중학교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서 허용용도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배타적(Exclusive System) 지역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다만 보존녹지지역안에 있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이외의 교육연구시설인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증축 및 개축을 허가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축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에 대한 특례로서 용도에 의한 건축제한에 부적합한 때에는 10년이내에 기준시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등 10년간이나 연면적에 관한 제한사항은 받지않고 증개축이 허용된다.
다섯째 자연녹지안에서는 다중주택은 건축할 수 없고, 자동차관련시설에 있어서는 종전에 치고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허용되었으나 이번에 이러한 제한조건을 없애고 치고는 모두 허용하였고, 자동차매매장도 허용하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시설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 용도지역중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허용되는 용도만을 열거하는 적극적 체계(Positive System)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허용해서는 안되는 용도만을 열거하는 소극적 체계(Negative System)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은 다른 용도분류와 달리 일상적 주거생활을 유지하기위해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고 있고, 이번에 단독주택의 분류에 새로 생긴 다중주택(하숙)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에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은 이를 허용하였다. 참고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주) ○ : 허용, △ : 조건부허용, 조건부불허, × : 불허

건축물의 용도분류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준공업	일반공업	전용공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전녹지
단독주택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1]	△[5]	△[5]	△[15]	△[5]	△[20]	△[23]	△[25]	×	△[30]	△[37]	△[42]
	공 관	○	○	○	○	○	×	×	×	×	×	○	×
공동주택	연립주택	×	○	○	○	○	△[21]	△[23]	△[25]	×	△[30]	△[38]	×
	아 파 트	×	○	○	○	○	△[21]	△[23]	△[25]	×	×	×	×
	다세대주택	△[1]	○	○	○	○	△[21]	△[23]	△[25]	×	△[30]	△[38]	×
기숙사	기 숙 사	×	○	○	○	○	×	○	○	×	△[30]	△[38]	×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2]	△[6]	○	○	○	○	○	○	○	△[31]	△[41]	△[43]
근린공공시설	1. 동사무소, 경찰서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으로 바닥면적 1,000 m²미만	○	○	○	○	○	○	○	○	○	○	○	○
	2.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	○	○	○	○	○	○	○	○	○	○
	3.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변소	○	○	○	○	○	○	○	○	○	○	○	○
종교시설	1.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기도원	△[3]	○	○	○	○	○	○	○	×	○	○	×
	2. 수도장 : 수도원, 수녀원, 사찰	△[3]	○	○	○	○	○	○	○	×	○	○	×
노유자시설	1.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	○	○	○	○	△[22]	○	×	×	○	○	○
	2.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	○	○	○	○	△[22]	○	×	×	○	○	○
	3. 기타 사회복지시설	○	○	○	○	○	△[22]	○	×	×	○	○	○
의료시설	1.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	○	○	○	○	○	△[26]	×	○	○	×
	2. 격리병원 : 전염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마약진료소	×	×	×	×	×	×	×	△[26]	×	○	○	×
교육연구시설	1. 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타	△[4]	○	○	○	○	○	○	△[27]	△[29]	△[32]	○	△[44]
	2. 교육원(연수원 포함)	×	○	○	○	○	○	○	△[27]	△[29]	△[32]	○	×
	3. 직업훈련소	×	○	○	○	○	○	○	△[27]	△[29]	△[32]	○	×
	4. 사설강습소(근린생활시설 : 자동차계강습소, 무도강습소 제외)	×	△[7]	○	○	○	○	○	△[27]	△[29]	△[32]	△[39]	×
	5. 연구소(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	○	○	○	○	○	○	△[27]	△[29]	△[32]	○	×
	6. 도서관	×	○	○	○	○	○	○	△[27]	△[29]	△[32]	○	×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제외)	1. 체육관(단 관람석 바닥면적 1,000m²미만)	×	○	○	○	○	○	○	△[28]	×	×	○	×
	2. 운동장(단, 관람석 바닥면적 1,000m² 미만)	×	○	○	○	○	○	○	△[28]	×	×	○	×
	3.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	○	○	○	○	○	△[28]	×	×	○	×
業務設施	1. 공동업무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타	×	○	○	○	○	○	○	○	×	×	○	×
	2.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기타	×	△[8]	○	○	○	○	○	○	×	×	○	×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	△[9]	○	○	○	○	△[22]	×	×	×	×	×
	2.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가족호텔, 청소년호텔, 해상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9]	○	○	○	○	△[23]	×	×	△[33]	○	×
판매시설	1. 도매시장	×	×	○	○	○	○	○	×	×	×	×	×
	2. 소매시장 :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경매장, 공판장 기타	×	×	○	○	○	○	○	×	×	×	×	×
	3. 상점 : 1호·2호외의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와 동일건축물 안에서 근린생활시설 제1호의 용도(또, 당해용도 200m² 이상)과 제2호, 제3호, 제9호의 용도가 복합되어 연상면적 500m² 이상인 것.	×	×	○	○	○	○	○	×	×	×	×	×
위락시설	1. 일반유흥음식점(전문음식점, 간이주점, 기타)	×	×	×	○	○	○	×	×	×	×	×	×
	2. 무도유흥음식점(무도장, 무도교습소,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	×	×	○	○	○	×	×	×	×	×	×
	3. 특수목욕장	×	×	×	○	○	○	×	×	×	×	×	×
	4. 유기장, 기원(근린생활시설 제외)	×	×	×	○	○	○	×	×	×	×	×	×
	5. 투전기업소	×	×	×	○	○	○	×	×	×	×	×	×
관람집회시설	1.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	△[10]	○	○	○	○	○	×	×	×	○	×
	2.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	△[10]	○	○	○	○	○	○	×	×	○	×
	3.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	×	×	○	○	×	×	×	×	○	×

건축물의 용도분류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준공업	일반공업	전용공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전용녹지
전시시설	1.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	○	○	○	○	○	○	○	×	×	○	×
	2.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	○	○	○	○	○	○	×	○	○	△[45]
공장	1. 공해공장	×	△[11]	△[11]	△[19-1]	△[19]	△[20-1]	△[24]	○	○	×	△[40]	×
	2. 일반공장	×	△[11]	△[11]	△[19-1]	△[19]	△[20-1]	○	○	○	△[35]	△[40]	×
창고시설	1. 창고	×	△[12]	○	○	○	×	○	○	○	△[35]	△[41]	△[46]
	2. 하역장	×	△[12]	○	○	○	×	○	○	○	△[35]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주유소	×	△[13]	△[13]	△[13]	△[13]	△[13]	○	○	○	○	○	×
	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13]	△[13]	△[13]	△[13]	△[13]	○	○	○	○	○	×
	3. 위험물제조소	×	×	×	×	×	×	×	○	○	×	×	×
	4. 위험물저장소	×	×	×	×	×	×	○	○	○	×	○	×
	5. 위험물취급소	×	×	×	×	×	×	○	○	○	○	○	×
운수시설	1. 시외버스정류장(고속버스정류장포함)	×	×	×	○	○	○	○	○	○	×	×	×
	2. 화물자동차정류장	×	×	×	×	○	○	○	○	○	×	×	×
	3. 철도역사	×	○	○	×	○	○	○	○	○	×	○	×
	4. 공항시설	×	×	×	×	○	○	○	○	○	×	○	×
	5. 해운시설	×	○	○	×	○	○	○	○	○	×	○	×
자동차관련시설	1. 차고(시내버스 및 택시 등 차고포함)	×	△[14]	○	○	○	○	○	○	○	×	○	×
	2. 세차장	×	△[14]	○	○	○	○	○	○	○	×	×	×
	3. 폐차장	×	×	×	×	×	×	○	○	○	×	×	×
	4. 자동차검사장	×	×	×	○	○	○	○	○	○	×	×	×
	5. 자동차매매장	×	×	×	○	○	○	○	○	○	×	○	×
	6. 자동차부속상	×	×	×	○	○	○	○	○	○	×	×	×
	7. 자동차계량소	×	×	○	○	○	×	○	○	○	○	○	×
동물관련시설	1. 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포함)	×	△[15]	△[15]	×	×	×	○	○	×	○	○	×
	2. 부화장	×	△[15]	△[15]	×	×	×	○	○	×	○	○	×
	3. 가축시장	×	×	×	×	○	×	○	○	×	○	○	×
	4. 도축장	×	×	×	△[18]	△[18]	×	○	○	×	△[36]	△[36]	×
	5. 동물검역소	×	×	×	×	×	×	○	○	×	○	○	×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산업폐기물처리시설포함)	×	×	×	×	×	×	○	○	○	×	×	×
교정시설	1.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포함)	×	○	○	×	○	×	○	○	×	×	○	×
	2. 감화원, 기타	×	○	○	×	○	×	○	○	×	×	○	×
군사시설	군사시설	×	○	○	○	○	○	○	○	○	○	○	○
통신촬영시설	1. 방송국	×	○	○	○	○	○	○	○	×	○	○	×
	2. 전신전화국(근린공공시설제외)	×	○	○	○	○	○	○	○	×	○	○	×
	3. 촬영소	×	×	○	○	○	○	○	○	×	×	○	×
묘지관련시설	1. 화장장	×	×	×	×	×	×	○	○	×	×	○	×
	2. 납골당	×	×	×	×	×	×	○	○	×	×	○	×
	3. 묘지부속건축물	×	×	×	×	×	×	○	○	×	×	○	×
	4. 장례식장	×	×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	○	○	○	○	○	○	○	×	○	○	×
	2. 야외극장	×	○	○	○	○	○	○	○	×	○	○	×
	3. 어린이회관	×	○	○	○	○	○	○	○	×	○	○	×
	4. 관망탑	×	○	○	○	○	○	○		×	○	○	×
	5. 휴게소	×	○	○	○	○	○	○	○	×	○	○	×
	6.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속건축물	×	○	○	○	○	○	○	○	×	○	○	×

□註□

1) 단독주택중 다중주택은 불허.
다세대주택은 3세대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

2) 근린생활시설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시설 및 제6호중 부동산중개업소로서 동일건축물 내에서 床面積의 합계 1천㎡미만(안마시술소, 헬스크럽 제외).

3) 연면적 1천㎡미만이고, 타종옥외확성장치 없는 것에 한하여 허용.

4) 국민학교에 한하여 허용

5) 다중주택만 불허이나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허용.

6)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중음식점은 1천㎡ 이하인 것에 한하여 허용. 단, 안마시술소는 불허.
7) 시립강습소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
1. 폭 4m이상의 도로에 4m이상을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백㎡이하인 사설강습소.
2. 폭 25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접하고 당해 대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하인 대학입시계 사설강습소.
3. 폭 35m 이상인 도로에 10m이상 접하고 당해 대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0m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하인 대학입시계 사설강습소.
8) 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외의 것으로서 폭 12m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허용.
9) 읍·면의 구역안에서 폭 12m 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관과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
10) 연면적 1천5백㎡미만으로 폭 8m 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11)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 규모의 2배 이하인 공장에 한하여 허용.
12) 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인구 20만 미만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와 동력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의 촉진 및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기자재 보관창고로서 읍·면의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
13) 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한하여 허용.
16) 다중주택에 한하여 불허이나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허용.
17) 자동차정비사업장·공업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한하여 허용.
18)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에 한하여 허용.
19) 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인쇄·제봉·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3배 이하인 공장에 한하여 허용.
19)-1 19)와 동일하고 최소시설규모의 3배를 2배로
20)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용도와 공판 및 다중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이 복합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
20)-1 인쇄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기준의 2배이하 허용.
21) 하나의 건축물내에 다른 용도와 공동주택이 복합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
2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한하여 허용.
23)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중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환경공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4)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으로서 사용연료량의 구분에 따른 1종 내지 4종(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안의 공장인 경우에는 1종 내지 3종)의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에 한하여 불허.
25)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중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및 환경공해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26) 보건사회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병원에 한하여 허용.
27) 사설강습소인 경우 기술계강습소,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연구시설,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하여 허용.
28) 공장에 부설된 것에 한하여 허용.
29) 사설강습소인 경우는 기술계강습소,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연구시설과 직업훈련기술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하여 허용.
30)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단독주택·연립주택·기숙사만 허용.
31)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에 한하여 허용.
32)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광업 또는 관광에 관련된 교육연구시설만 허용.
33) 청소년호텔만 허용.
34) 도정공장·식품공장·공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1차 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만 허용.
35)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시설만 허용.
36) 연면적 1천㎡이하인 것에 한하여 허용.
37) 원칙적으로 허용이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은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허용.
38)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을 위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연립주택, 기숙사에 한하여 허용.
39) 관광·농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계강습소에 한하여 허용.
40)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레미콘공장에 한하여 허용.
41) 농·수산물보관창고에 한하여 허용.
42) 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에 종사하는자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다세대주택에 한하여 허용.
43)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5백㎡미만으로 2층이하인 일용품소매점·이용원·미용원·양국·의원과 3백㎡미만으로서 2층이하인 대중음식점 및 일반목욕장에 한하여 허용.
44) 국민학교·중학교에 한하여 허용.
45)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 1천㎡미만인 2층 이하의 동식물원에 한하여 허용.
46)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 5백㎡미만으로 2층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광업·수산업용에 한하여 허용.

3.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제한특례(제66조 2항 공업배치법 시행령부칙)

건설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그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공장의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① 공장의 규모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연면적 5천㎡이하,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연면적 1만㎡이하, ② 공장의 업종 :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것 ③ 공장의 개별업소별 면적 : 300㎡이하(단, 수도권지역중 이전촉진권역은 200㎡이하)인 것. ④ 공장의 위치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높이의 0.5배이상 띄어서 건축한 것 ⑤ 공장의 개별업소별 구획 : 각 개별업소는 내화구조로 된 벽 및 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고 벽및 바닥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한 업소등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 것

그리고 수도권지역은 공업배치법 시행령개정(1988. 2. 24 대통령령 제12409호)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서울및 의정부등)은 공업배치법시행령 시행당시의 기존 소규모 무허가 도시형공장(별표2)만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시켜 양성화하는 것만 허용하도록 한정하고, 무허가도시형공장이 수용된 건물이 아파트형공장기준에 적합하거나 2년내 그 기준에 맞도록 요건을 갖추어(곧 주거용 아파트를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도변경)도지사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로서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역으로 지정받은 것에 한하여 아파트형공장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V.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1.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범위설정 및 조정(제85조 1항)

각 용도지역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영세건축물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의 위생환경의 저하나 화재등 각종 재해의 위험, 토지이용의 비효율, 도시의 슬럼화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2.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적용특례(제85조 2항)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하는 주차장중 폭25m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의 2분의1로 완화하도록 하는 적용상 특례를 인정하였다. 이는 날로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지구의 자투리 땅등을 활용한 주차전용건축물의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3. 용적율의 범위조정

용적율은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총규모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건폐율과 결합하여 건축물의 높이까지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건축밀도를 규제하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용도지역		대지면적최소한도(㎡)	
		종전	개정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50－300	150－300
	일반주거지역	60－120	60－180
	준주거지역	70－140	70－2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300－900
	일반상업지역	150－400	150－500
	근린상업지역	－	150－3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200－400	200－400
	일반공업지역	200－400	200－400
	준공업지역	150－300	150－3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350－900
	생산녹지지역	150－300	150－300
	자연녹지지역	350－700	350－700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국도이용 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취락지역·관광휴양지역(신설)과 개발촉진 지역중 공업용지기구(신설)		70－140	60－180

용도지역별 용적율

용도지역		용적율(%)	
		종전	개정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80(100)	50－100
	일반주거지역	300(400)	200－400
	준주거지역	500(700)	300－7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700－1,300
	일반상업지역	1000(1500)	500－1,100
	근린상업지역	－	350－9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300(400)	150－300
	일반공업지역	300(400)	200－350
	준공업지역	300(400)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50－80
	생산녹지지역	150(200)	100－200
	자연녹지지역	60(200)	50－100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지정이 없는 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취락지역·관광휴양지역(신설)·개발촉진 지역중 공업용지지구(신설)		300(400)	200－400

불가결한 요소임과 아울러 최소한의 도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일조·채광·통풍등 주민의 보건·위생과 방화등의 보안및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종전에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용적율을 정하던 것을 도시규모에 따라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범위만 정하여 주고 구체적인 기준은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4. 운동장·유원지 및 공원의 용적율 특례(제86조 5항)

도시계획시설중 운동장·유원지및 공원의경우 그 용적율에 관하여 도시계획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령의 용적율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하였다.

5. 인접대지 경계선(90조 1항)

시행령을 개정하기전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정의가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제90조1)과 대지안의 공지(제92조2항)규정에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어, 적용상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에 이를 통일하여 대지안의 공지규정에서도 공원·도로·철도·광장·하천·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도록하였다.

6.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의 이격거리 일부완화(제92조2항)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다음표의 거리를 띄어야 한다.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이러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세대주택중 2층이하로서 3세대이하인 것은 외벽으로부터 1m이상, 처마끝으로 부터 0.5m 이상만 이격하면 되도록 종전 규정의 각각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대지안의 공지(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구 분				외벽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일반주거지역안의 건축물					0.5이상	0.2이상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0.2이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2.0이상	1.0이상	0.5이상
관람집회시설 또는 종교시설(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3.0이상	2.0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4.0이상	3.0이상
공동주택(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인경우	2층 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것			1.0이상	0.5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 것	개구부가 있는 곳		2.0이상	1.0이상
			개구부가 없는 곳		1.0이상	0.5이상
	다세대주택이 아닌 경우				3.0이상 (2층이하인 경우에는 2.0이상)	2.0이상 (2층이하인 경우에는 1.5이상)

VI. 감독

1. 중앙건축위원회 구성운영 (제96조 2항)

건설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는 대규모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에 관한 건설부장관 사전승인사항과 도시설계에 관한 사전 건설부장관승인등 건축법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제69조 3항, 제73조 3항, 제97조 4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풍치지구안에서의 건물의 모양과 색채, 업무지구내 건축물,(지구내 건물의 모양·색채·높이는 조례로 정함)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VII. 보칙

1. 노대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조정 (제101조 1항의 3)

공동주택의 노대(발코니)의 바닥은 외벽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최근 공동주택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타원형의 발코니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바닥의 외곽선으로 부터 수직면으로 무조건 산입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조정하였다.

2. 건축물의 용도분류의 신설 및 조정(부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부표①항 단독주택에 다중주택을 신설하였다. 다중주택은 영세근로자의 생활여건을 확보하고 단독주택형태의 수요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인데, '현재 주로 공단주변에 근로자의 숙식을 위하여 건축된 소위' 벌집은 주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중에 임의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단독주택으로서의 준공검사를 받지못한 채 사용하거나 단독주택으로 준공검사를 받은후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며 이들 건축물은 일반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용도분류하기가 곤란하므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이라는 별도의 용도를 신설하여 이와 유사한 기존주택을

현실화하고 다중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다중주택은 학생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부표①항 2호 : 신설)이다. 또한 부표②항3호를 신설하여 종전에 인정해왔던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을 명기하여 삽입하였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이고 3층이하로서 2세대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부표⑩항2호 일반업무시설에 최근 주거와 업무기능이 복합된 오피스텔의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류 추가하였다. 이는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의 각 개별실에 일부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표⑩항 운수시설중 제1호에 들어있던 시내버스터미널은 이를 삭제하고 제⑩항 자동차관련시설중 차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분류하였다.

3. 과태료의 부과(제103조 4 항)
건축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을 하지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 내지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의 산정기준

구분	위 반 내 용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28조 (도로내의 건축 제한) ○법 제31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과세시가 표준액(이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이하
2	○법 제8조의2 제1항(도시설계수립공고 구역안 건축 제한) ○법 제27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폭) ○법 제32조 (지역내에서의 건축물) ○법 제33조 (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법 제33조의2 (특정가구 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법 제4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41조의2 (대지안의 공지) ○법 제48조 (용도변경)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이하
3	○법 제7조의3 제1항 (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9조 (대지의 안전 등) ○법 제9조의2 (대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법 제10조 제1항 (구조내력) ○법 제11조 (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법 제15조 (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 ○법 제16조 (방화벽) ○법 제17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22조의3 (지하층의 설치) ○법 제23조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등의 기준) ○법 제23조의 2 (건축물의 내장) ○법 제35조 (방화지구내의 건축물) ○법 제36조 (방화지구내의 지붕, 방화문 및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
4	○법 제7조 제1항 (준공검사) ○법 제22조의2 (비상급수설비의 설치) ○법 제23조의4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법 제25조 (건축재료의 품질) ○법 제29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법 제38조 (취락지역안에서의 건축물) ○법 제51조 (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 이하
5	○법 제18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법 제20조 (변소) ○법 제21조 (피뢰설비) ○법 제23조의3 (온실의 구조 등) ○이외의 위반사항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

VIII. 부칙

①이 영은 1988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준불연재료및 난연재료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내진설계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및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전에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장의 설치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의 제한기준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후 대지조성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그 착공한 날로부터 3년이내,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당초의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 건축면적, 연면적의 합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허가 또는 신고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完》

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 신축계획

Competition for Korea Electric Power Coporation Research Center

개 요

한국전력공사 기술연구원 신축공사 현상설계의 심사결과가 지난해 연말 확정 발표되었다.
87년 8월 12일 수주의향 신청을 받아 87년 10월 26일까지 기본설계(안) 제출을 마감한 이번 현상설계경기에는 총 10개 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하여 그중 당선작으로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李鍾約) 안이 선정되었다. 이밖에 우작으로 (주) 삼정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金基雄) 안, 홍진종합건축사사무소(소장 金英琪) 안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소장 韓鍾彦) 안이 선정되었다.
본지에서는 이중 8작품을 소개한다.

설계지침

●사업개요
○위치 : 충남 대덕 연구단지내(동부지역)
○부지규모
- 부 지 : 333,300m² (101,000평)
- 건 물 : 60,277m² (18,265평)
- 소요예산 : 38,283백만원
- 부지내역

구 분		면적 : m² (평)	
부지매입	사 옥	313,500	(95,000)
	사 택	19,800	(6,000)
	계	333,300	(101,000)

구 분		면적 : m² (평)	
건축공사	행 정 동	3,276	(993)
	연 구 동	15,537	(4,708)
	시 험 동	9,090	(2,755)
	복지후생 및 기타	8,003	(2,424)
	소 계	35,906	(10,880)
	독 신 아 파 트	2,211	(670)
	사 택	22,160	(6,715)
	계	60,277	(18,266)
토목공사		-	
조경 및 기타		-	
합 계		-	

●건물배치 계획(안)
○기본개념
- 기본축 : 부지형태를 최대한 살려 주위경관 및 주요 시각적 대상물과의 조화
- 자연환경과의 조화 : 기존 자연을 가능한 보존하고 건물군과 주위 산세와의 조화를 추구
- 동선계획 : 연구소내의 차량, 보행 및 서비스동선을 능률적으로 분리시키는 교통시스템 확립
- 건물배치계획 : 연구동과 시험동을 연구시설군을 두고 관리 서비스시설을 외부인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출입구 가까이 배치하고 최근 경향의 다동연결형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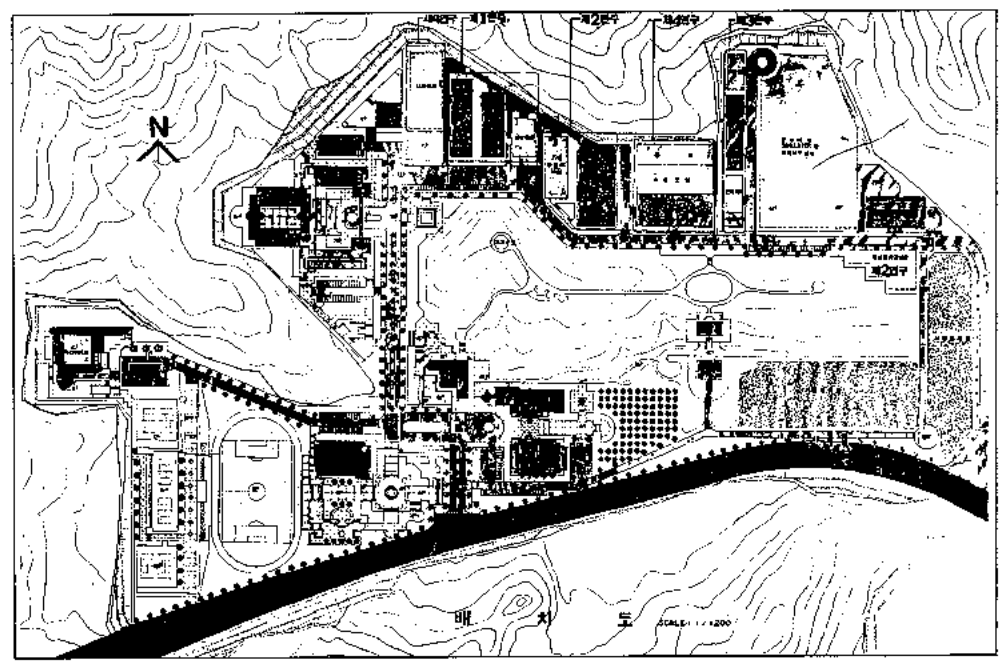
○동별 계획특성
- 연구동
  - 순수 연구기능과 실험실 구비
  - 본 연구원의 상징적 건물로서 지원 지원시설과 특수시험시설 및 후생시설의 중앙부에 배치
- 행정동
  - 관리 및 지원시설과 종합업무기능 구비 (강당, 회의실)
  - 주진입로 인근배치
- 전시관
  - 전력홍보를 위한 1층건물 국제회의실 구비
  - 외부관람객 방문이 용이토록 주진입로 근접배치
- 복지관
  - 직원의 휴식공간으로 우수경관지역에 2층으로 배치
- 체육관
  - 휴식공간과 체육공간에 근접하고 외래객 이용가능 지역 선정 (농구, 배구)
- 내빈관
  - 전망 우수지역 배치(20인 내방 기준)
- 독신아파트
  - 외부로부터 차단 및 체육시설 이용 용이지역
  - 1인 및 2인실을 갖춘 5층 건물

엄이종합건축 (案)

Aum Lee Architects Associates Plan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 李珏杓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 736－3129

◆
대지위치 :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문지동
대덕 연구단지내 (동부지역)
대지면적 / 333. 300m² (101, 000평)
연면적 / 40, 978. 5m² (12, 396. 0평)
건축면적 / 24, 455. 63m² (7, 397. 83평)
건폐율 / 7. 34%
용적률 / 12. 29%



동별평면계획

연구동

●기능

○본 연구원의 핵심적 건물로서 특수시험 시설 (시험동) 과 밀접한 업무기능을 가지며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시험을 주기능으로 한다.

●평면계획

○연구동은 연구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Group 되어지며 중앙에 컴퓨터실, 자료실, 시청각실 및 회의실등 중앙 지원시설을 위치하여 균일한 동선 배분을 꾀함.

○연구실의 남향배치와 중정의 설치로 연구환경의 향상과 Passive Solar System을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Module : 연구실 / 3. 6m × 7. 2m
실험실 / 3. 6m × 8. 1m

○실장실과 회의실을 제외한 모든실은 가동칸막이로 구획하여 Flexibility 부여

행정동 · 전시관 · 복지관

●기능

○행정동 : 연구업무의 관리 및 지원을 목표로 하는 종합업무를 수행 (강당, 회의실 구비)

○전시관 : 전력홍보와 국제회의 및 세미나 개최기능을 가짐 (휴게실 구비)

○복지관 : 연구원 전체 직원을 위한 식당 및 써클실로 구성, 연구 및 행정업무 지원.

●평면계획

○Module : 행정동, 전시관 / 3. 6 × 7. 2m
복지관 : 6. 0 × 6. 0m

○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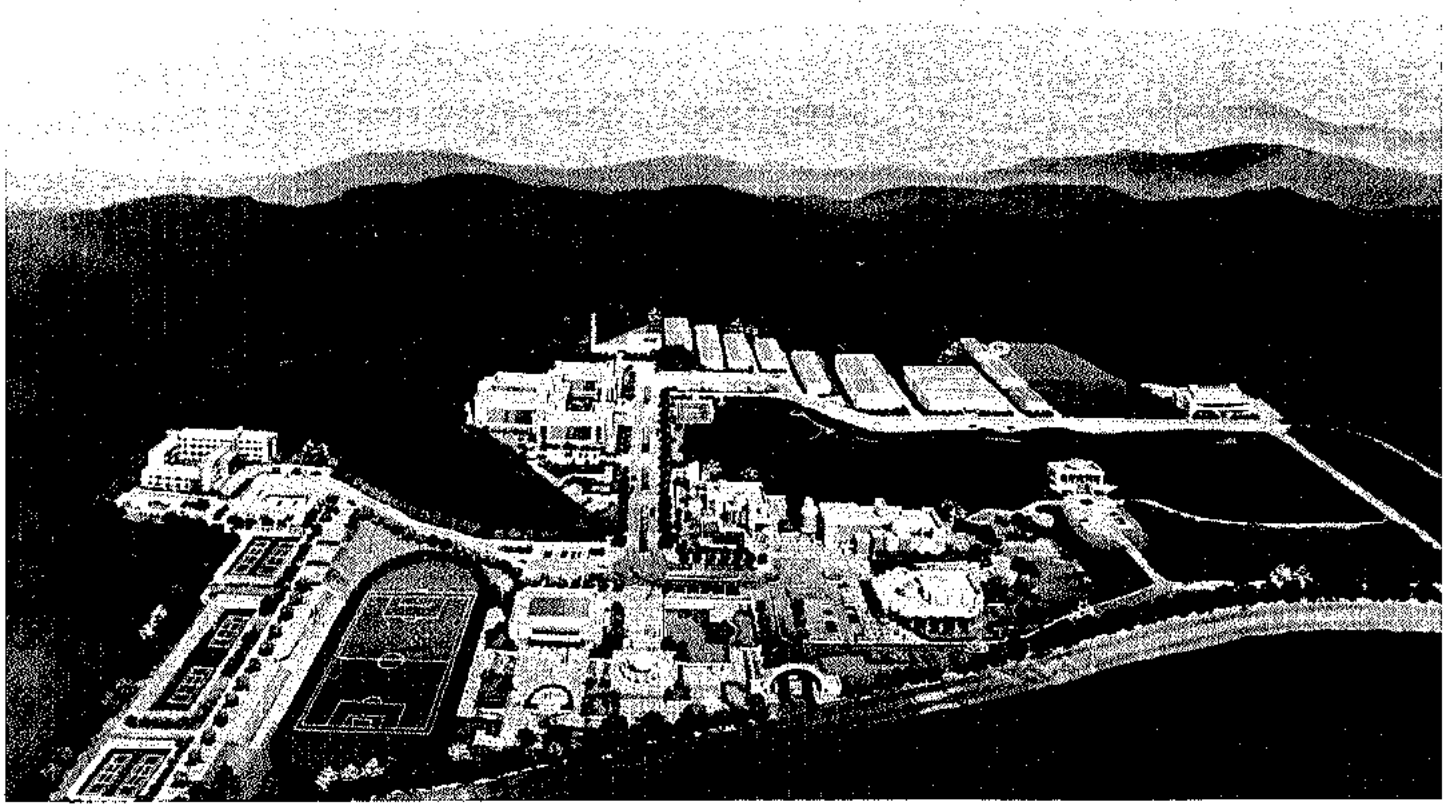
- 행정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연구동, 복지관, 독신아파트 및 내빈관과 유기적 연결을 이룰 수 있는 곳에 위치
- 주진입로 부근에 위치하여 1차적으로 외래객의 동선을 받는다.
- 필로티 공간의 반내부적 공간적 특성을 이용 행정, 전시관으로의 동선을 분리.
- 기능 및 동선의 명확한 분리를 위해 강당 회의실군과 사무실 군으로 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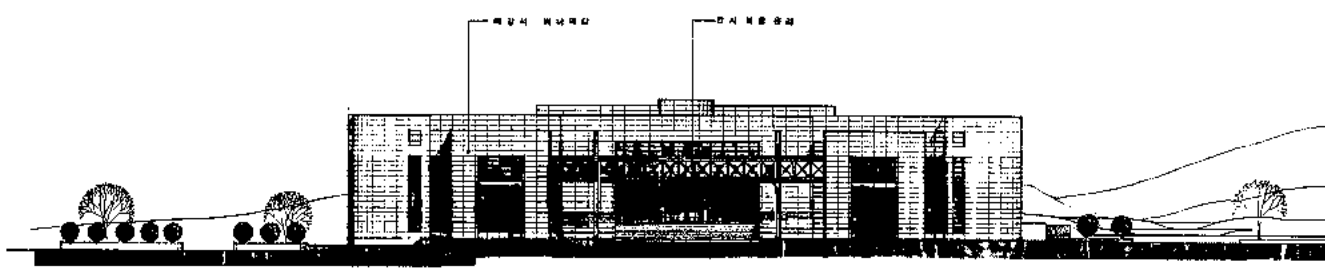
○전시동

- 필로티를 통한 행정동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
- 중앙로비를 중심으로 기능 분리 (Top Light 설치)

○복지관

- 단지내 전망우수지역에 위치하고 각 위치로부터의 원활한 동선유입.
- 적극적 수 (水) 공간의 활용으로 양호한 시각환경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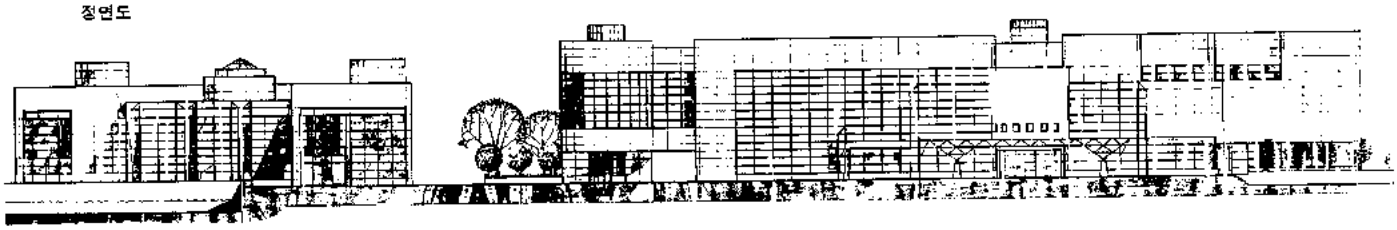




행정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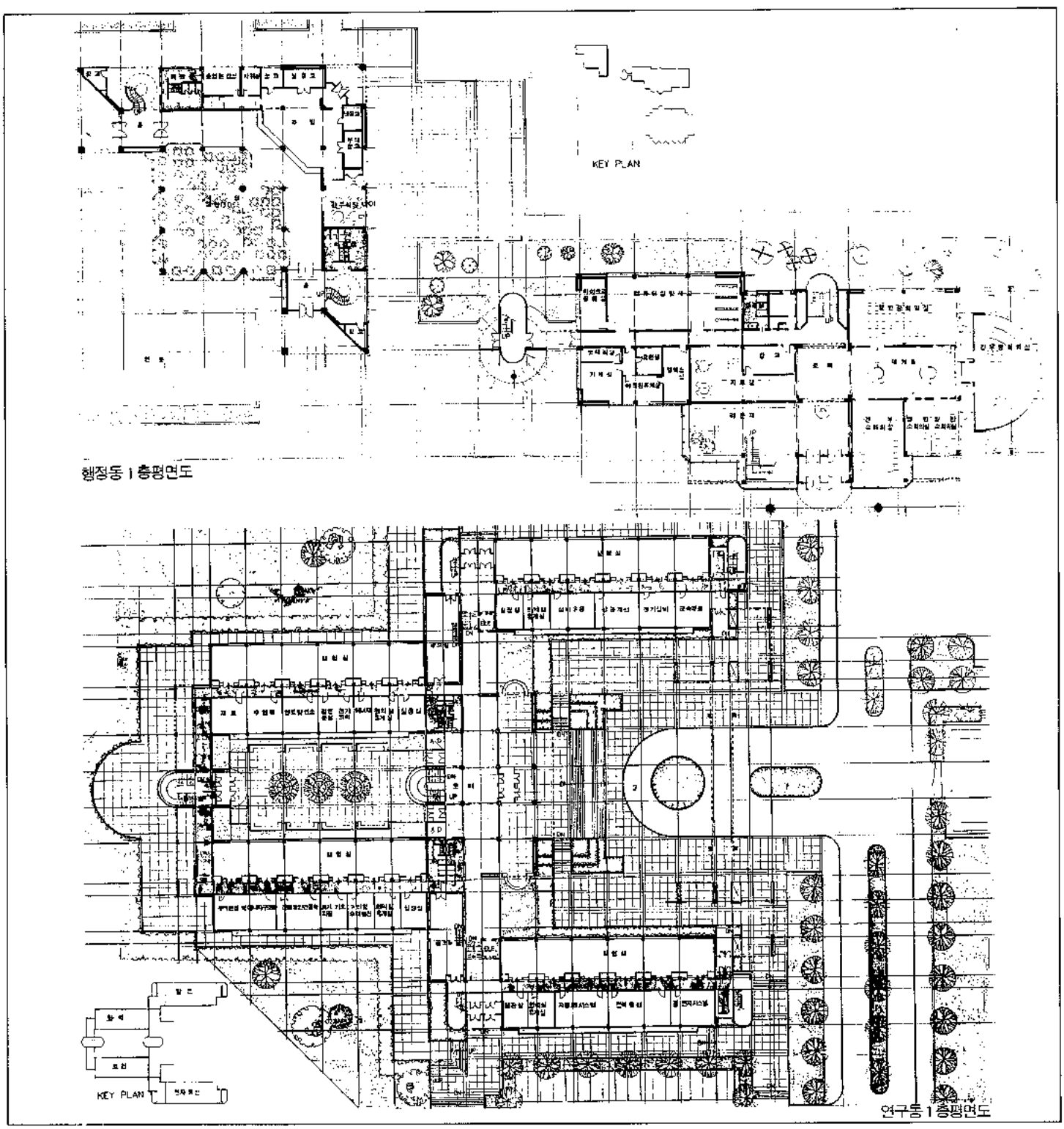
행정동 우측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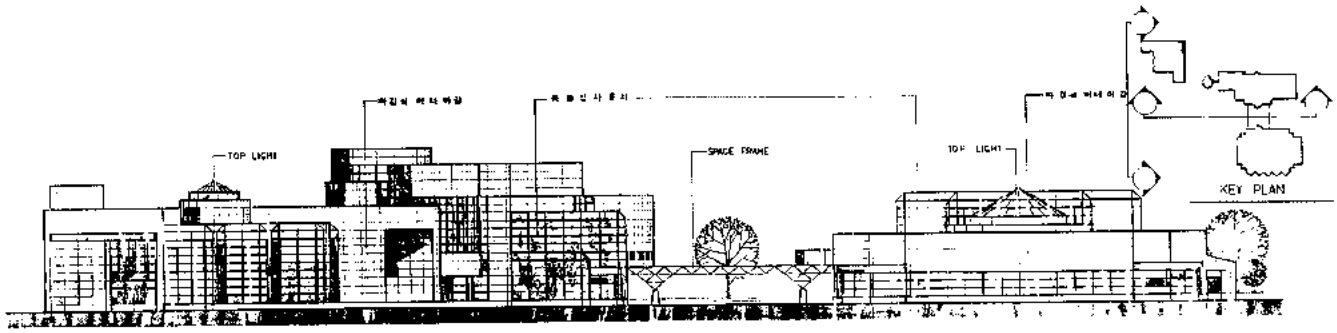
복지관

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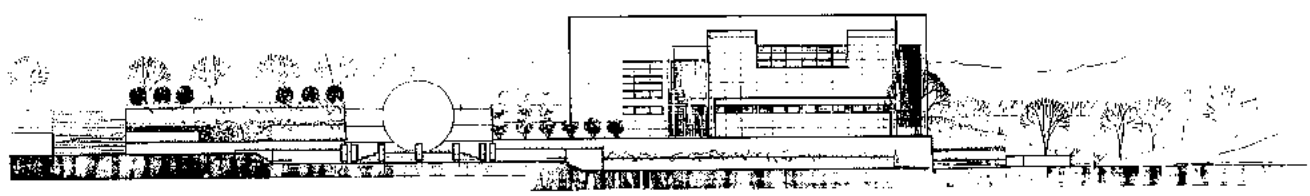


행정동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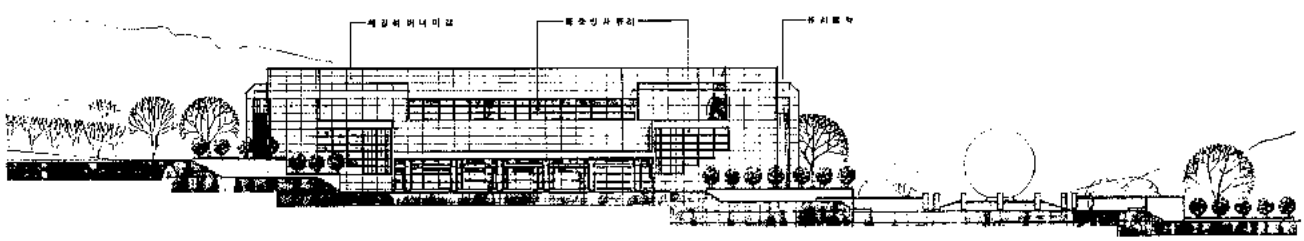
연구동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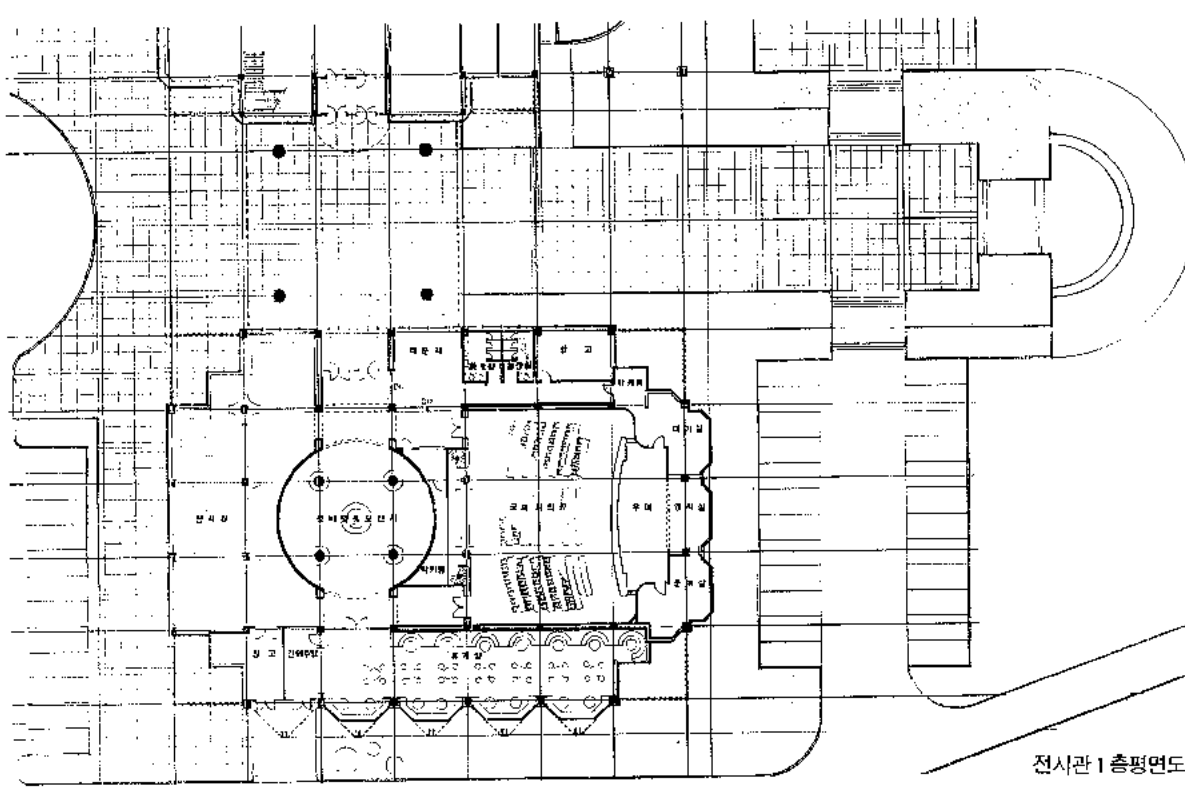
북지관 전시관



체육관우측면도



체육관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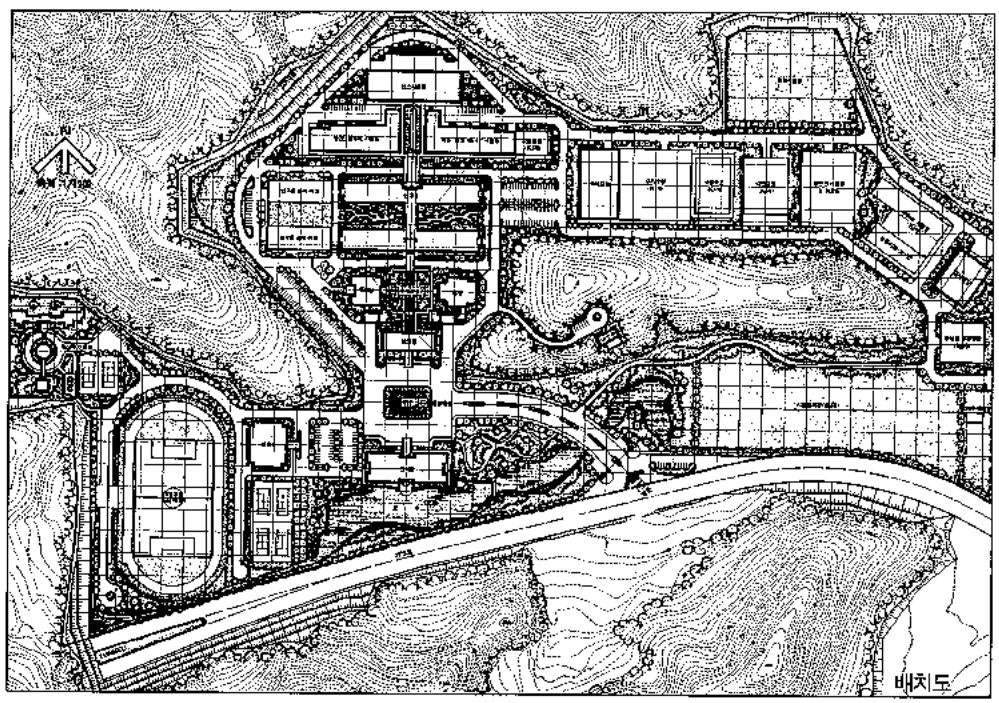
전시관 1층평면도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案)

Keumsung Architecture Association Plan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 韓鍾彦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730-9922

◆
대지면적 / 313, 500m² (95, 000평)
건축면적 / 26, 520. 30m² (8, 022. 38평)
연면적 / 41, 484. 35m² (12, 548. 96평)
지상연면적 / 38, 401. 26m² (11, 616. 33평)
법정지하층면적 / 1, 931. 14m² (584. 17평)
주차시설 / 270대 (법 105대)
건폐율 / 8. 46%
용적률 / 13. 23%


배치도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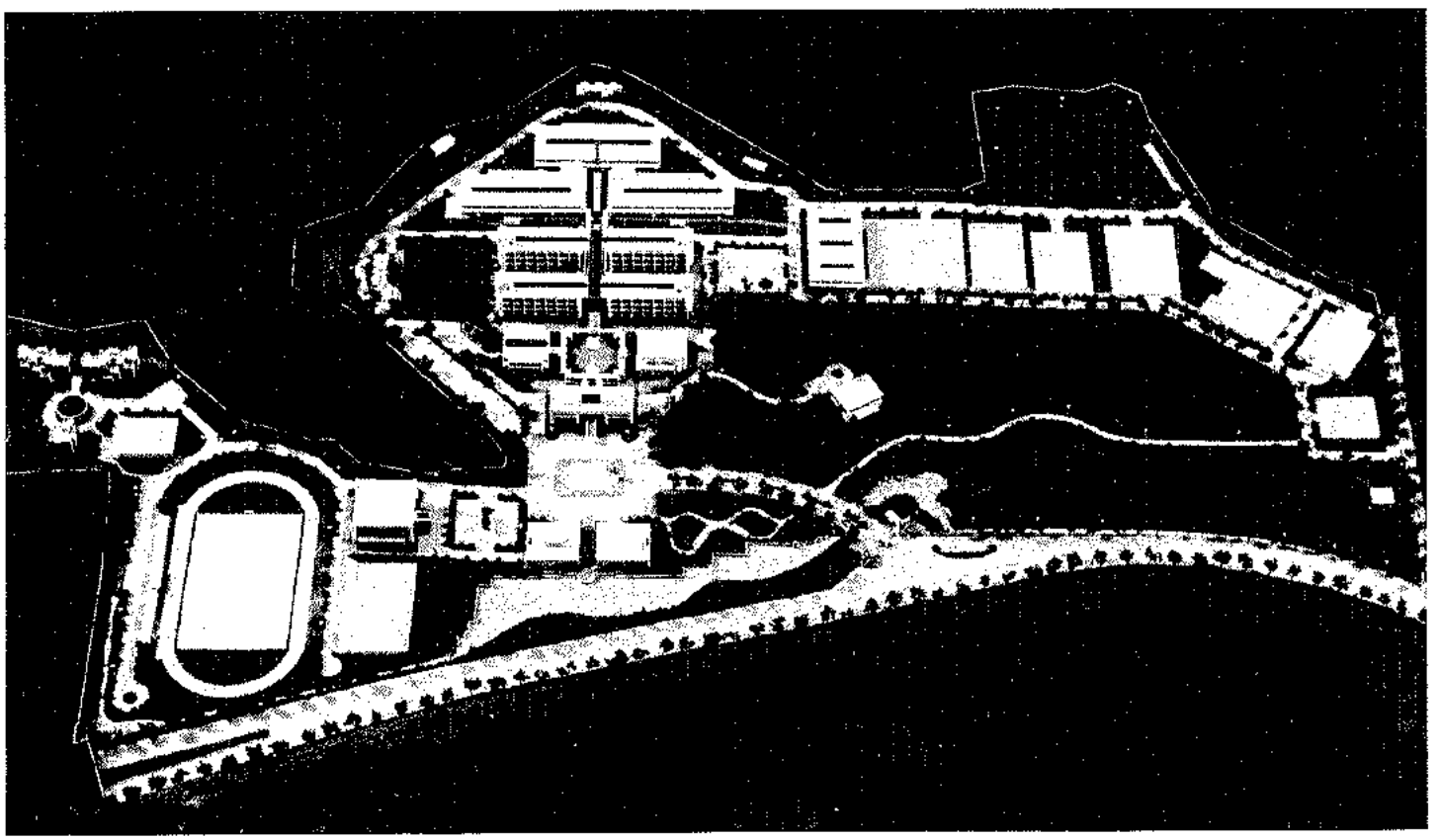
행정동
- Atrium을 중심으로 업무 공간을 양분, 2, 2층은 Over Bridge로 연결 3
- All Glass의 Atrium을 통해 투시적인 View를 부여하여 깊이감과 긴장을 고조시킴
- Communication Axis의 시작
- 업무공간의 기본Module로 3. 6×7. 2를 적용

강당
- Functual Analysis에 의해 행정동과 분리하였고 유개복도로 연결
- 600인 수용 규모로 대외적인 활용성을 고려하였음.
- 합창대회, 대회외, 영화관람 등의 기능을 기준으로 설계 – 무대의 과다한 설비 및 면적억제

복지관
- 식당, 휴게실, Circle RM의 혼합 기능으로 연구원의 복지후생에 기여
- 남측의 Open된 공간 조망
- 식당은 2교대를 기준하였음
- Module
  3. 6×3. 6m Grid에 의한 Module 적용
  써클룸의 단위실 Module : 3. 6m × 7. 2m

연구동
- Community Axis 상에 Atrium의 휴게공간을 설정하고, 회의실, 자료실, Cumputer실 등 공용시설과 계단 및 화장실을 인접배치
- 각 연구실의 위치는 후면의 각 시험동과의 연결동선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계획기준Module
  – 연구실 : 3. 6m × 7. 2m
  – 실험실 : 3. 6m × 10. 8m
  - 실장실, 행정실 및 전실, 회의실을 조합하여 4m (14. 4m × 7. 2m) 로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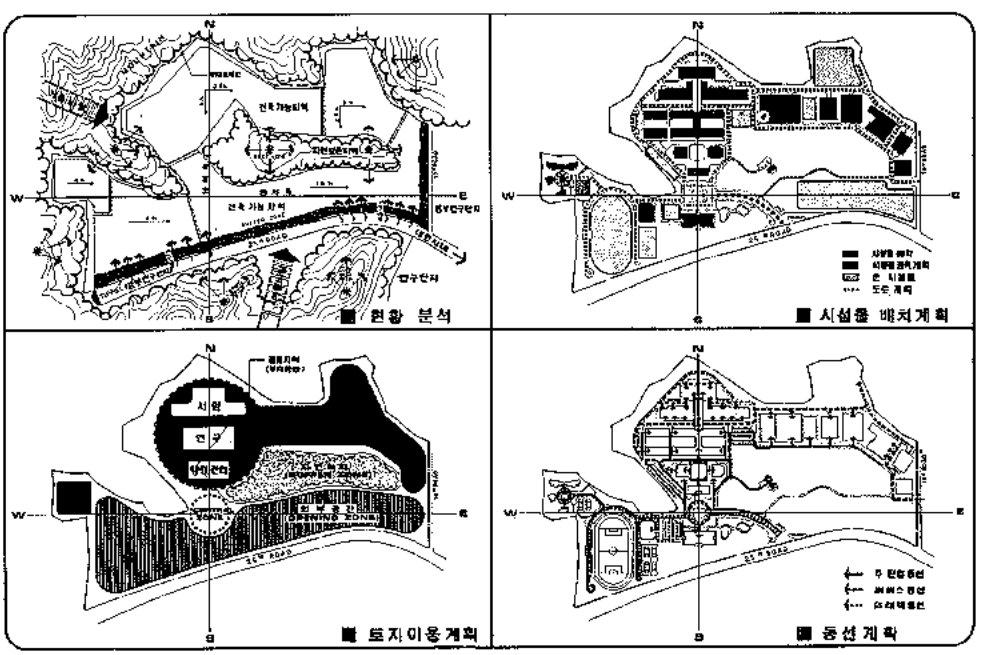
시험동 및 중앙기계실
- 관련 시험기능을 인접, 단일 건물화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대.
- 각 시험동의 위치는 연구동 각실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결정.
- 3. 6×3. 6m Grid에 의한 Module 계획.
-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중앙기계실은 시험동 하부에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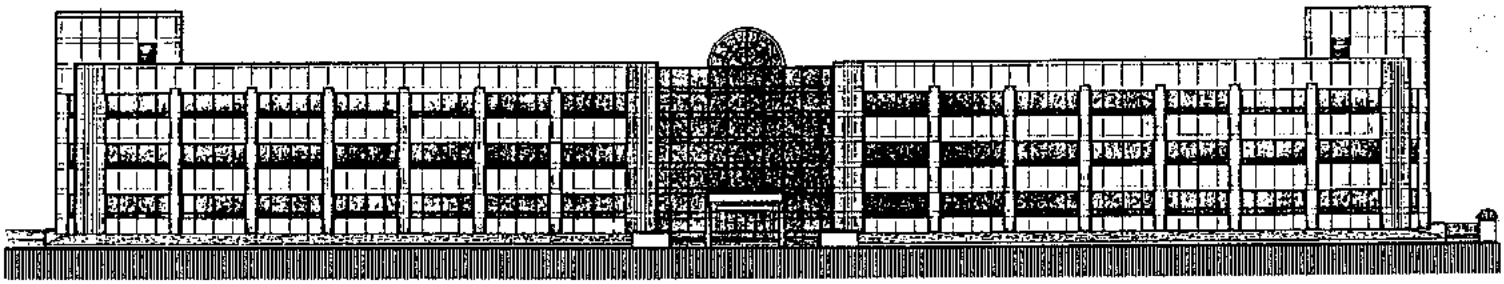


실내체육관
- 규모 : 400인수용 관람석(고정석)
- 경기장의 설계는 농구 및 배구경기를 기준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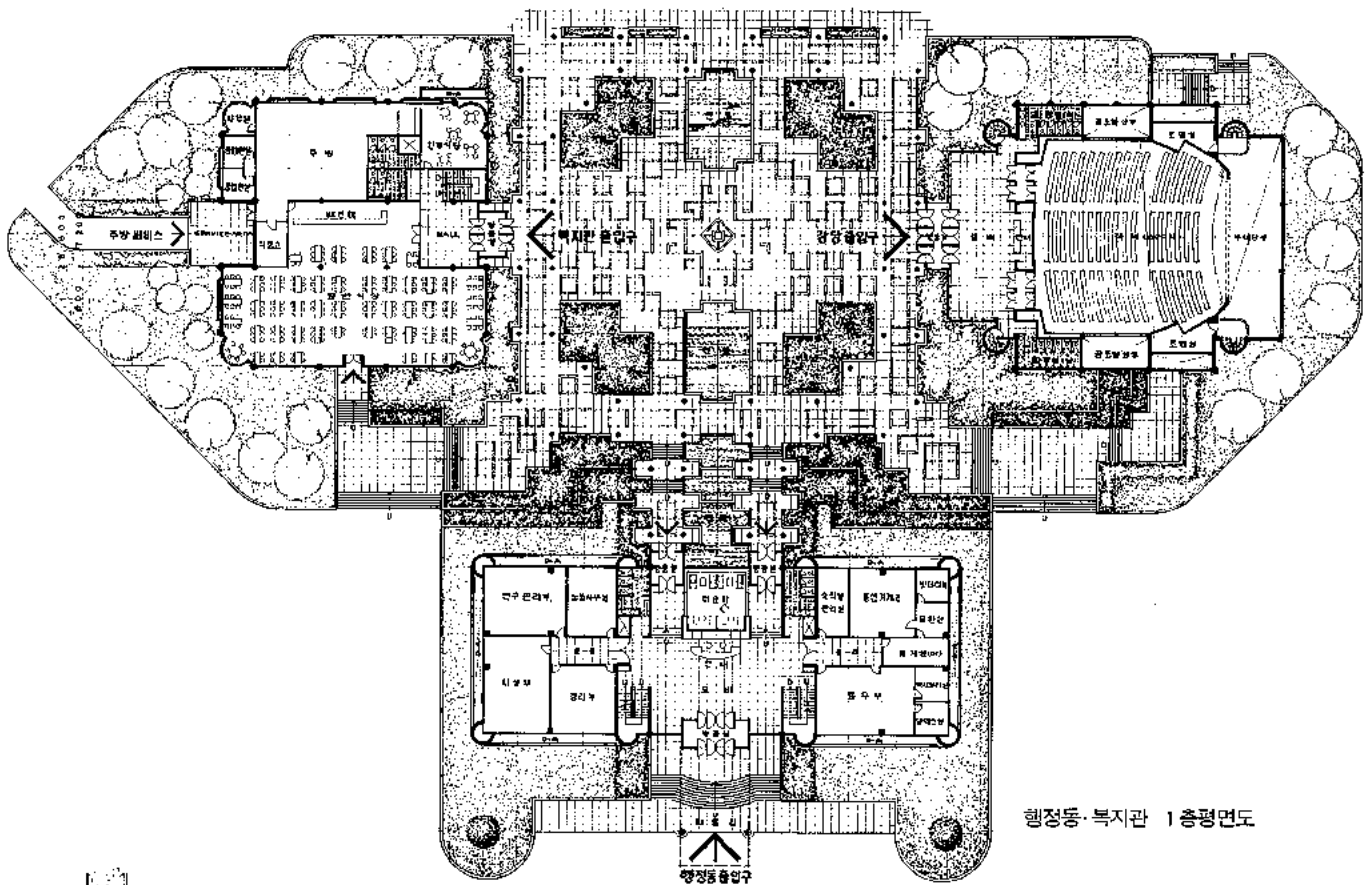
전시관
- 전력 홍보를 위한 전시장, 150석 규모의 국제회의실이 주용도.
- 중앙Lobby 부분의 Glass Wall을 통하여 인공호수가 두시됨.

내빈관
- 중앙부 소능선의 독립된 지역에 위치
- 자연속의 정적인 분위기, 양호한 조망을 갖음 가짐
- 방문객에 대해 한국적 Image의 조형감각을 경험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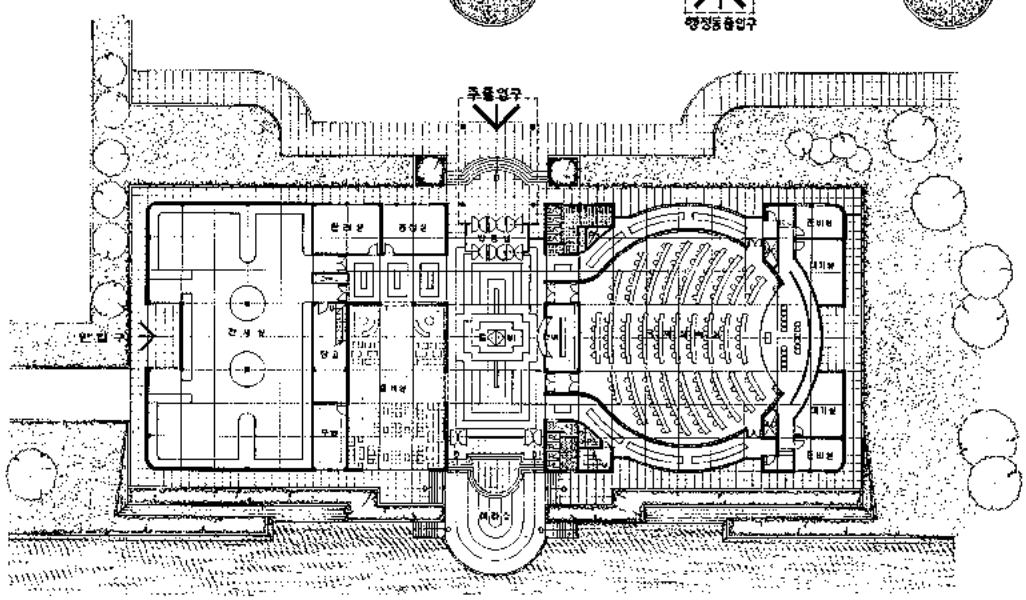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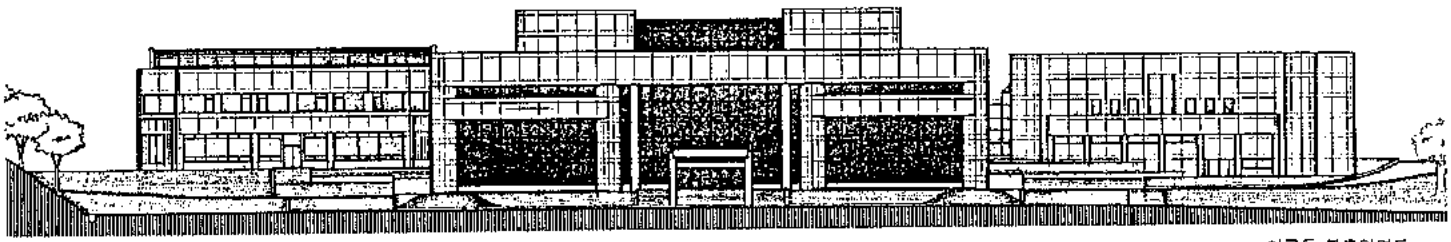
연구동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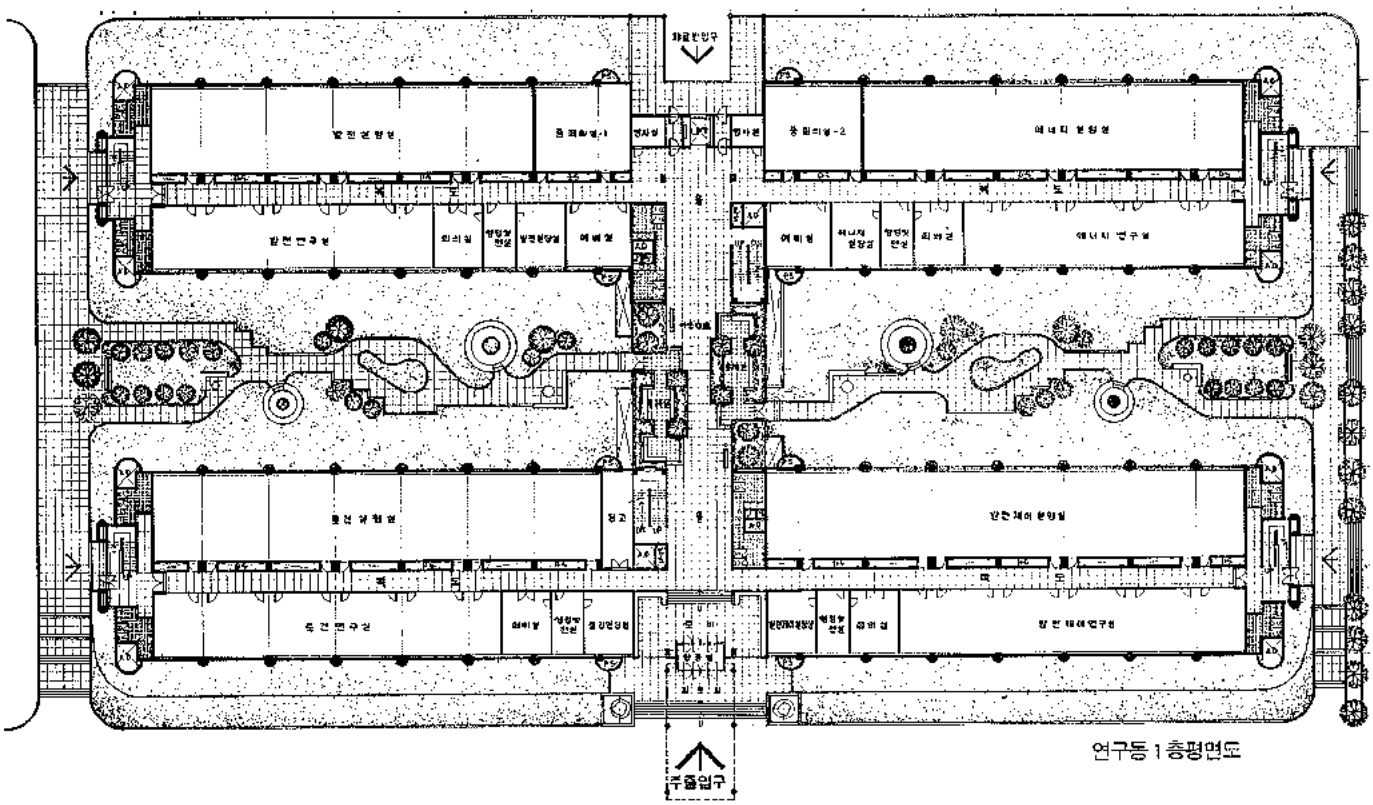
행정동·복지관 1층평면도



전시관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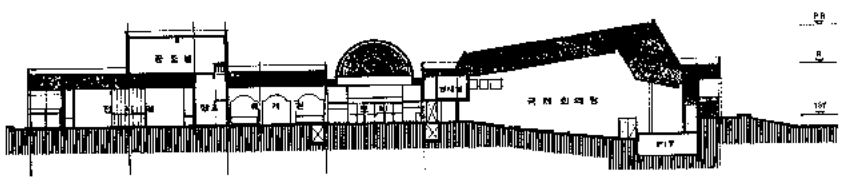
연구동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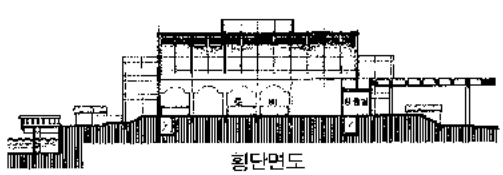
연구동 1층평면도

전시관북측입면도

서측입면도



전시관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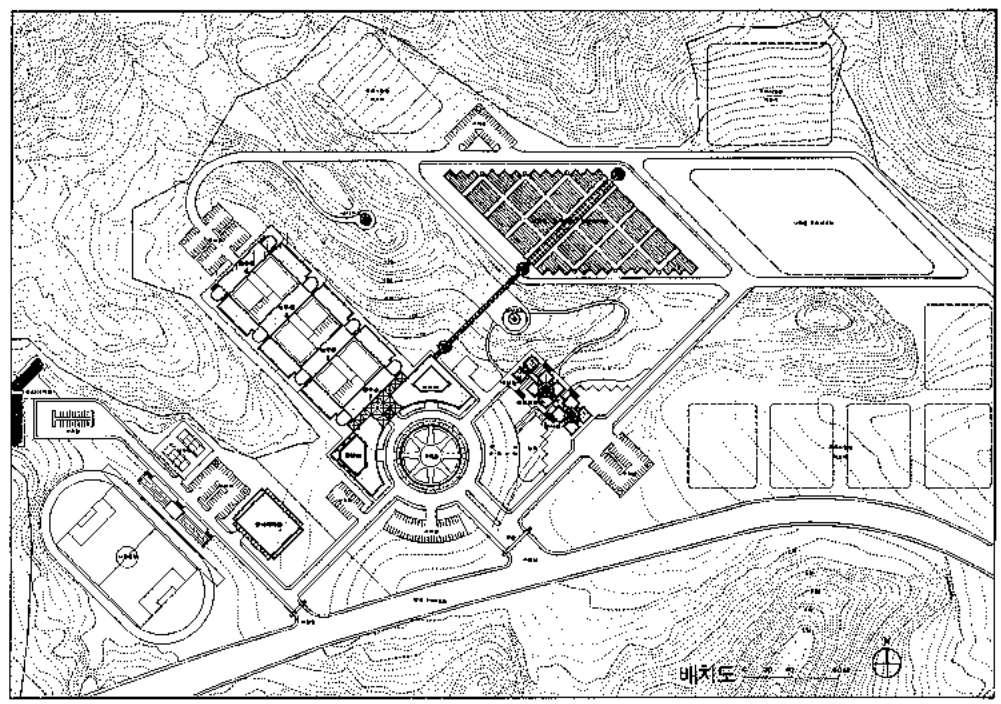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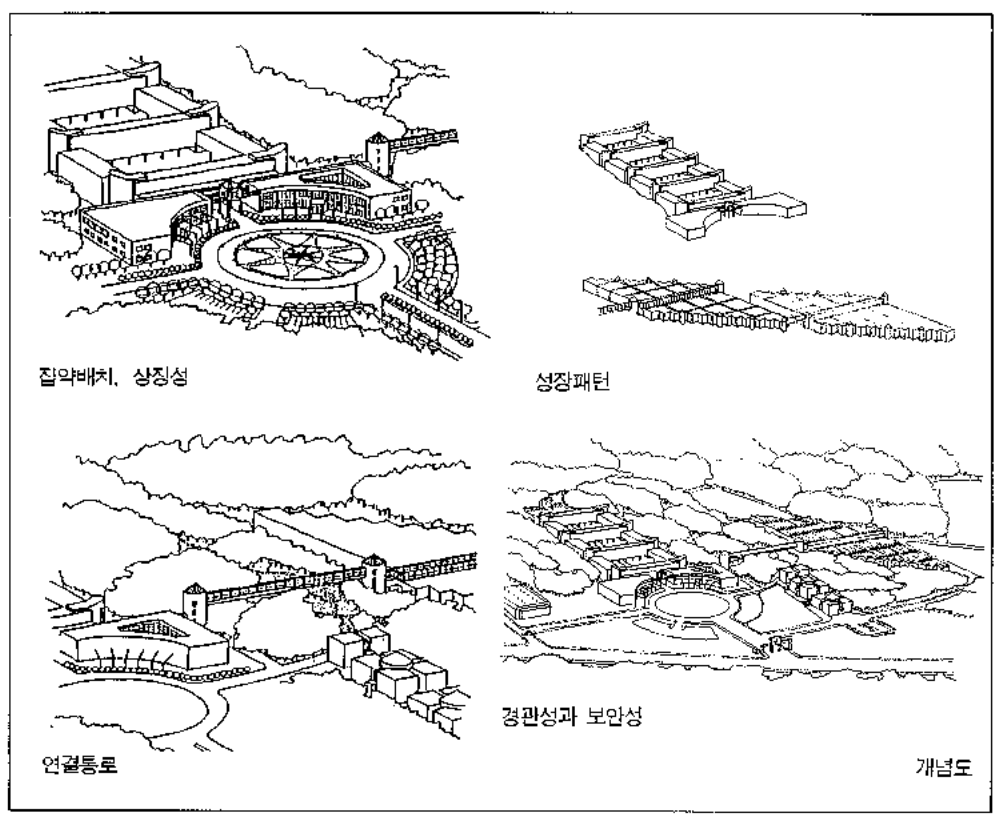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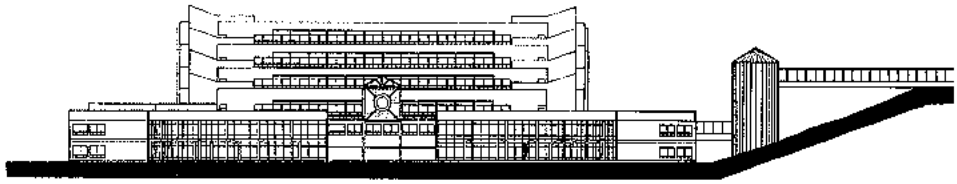
종합건축사사무소 홍진 (案)

Hongjin Architects Associates Plan

종합건축사사무소 홍진 · 金英琪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3 / 782-1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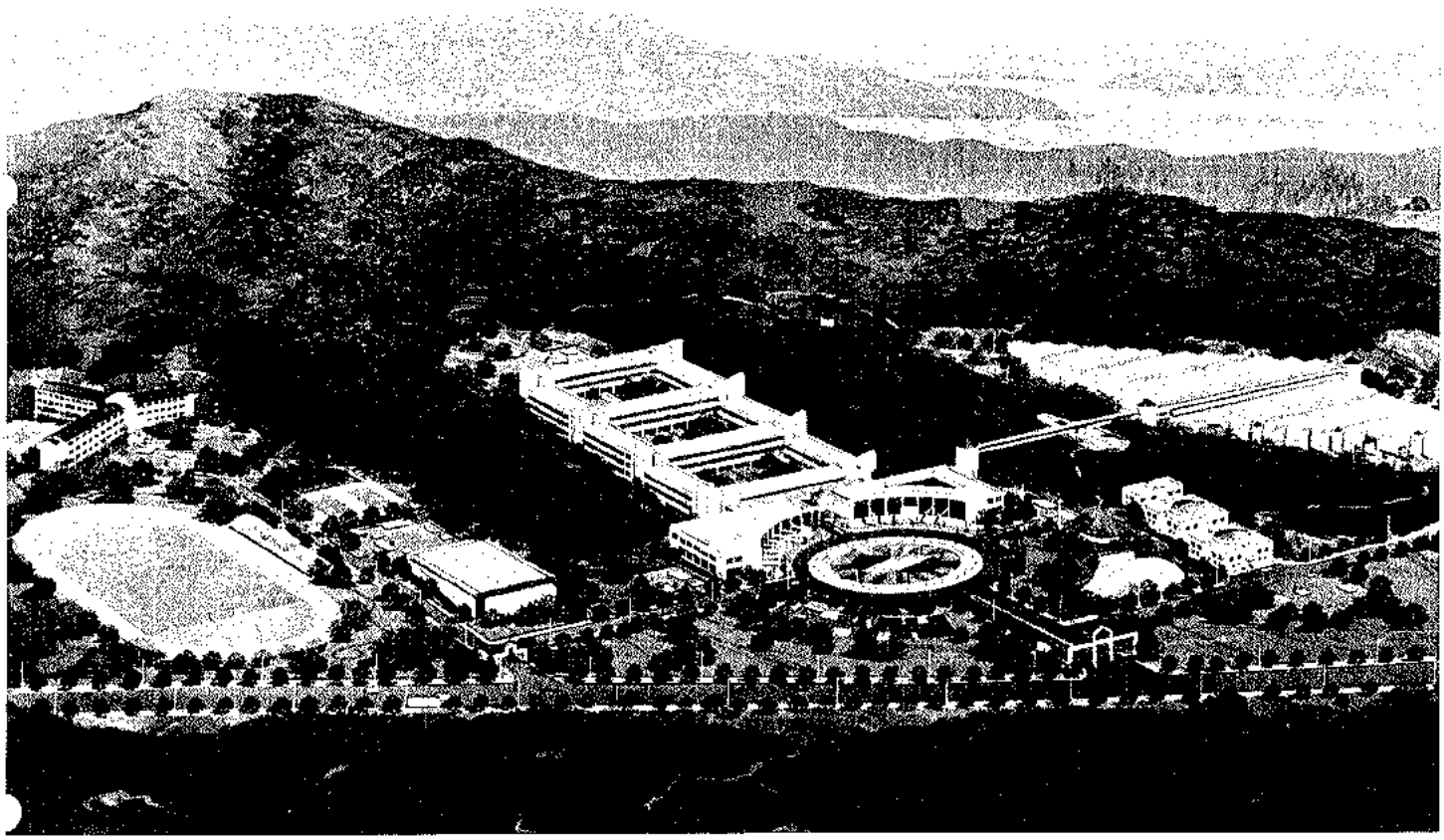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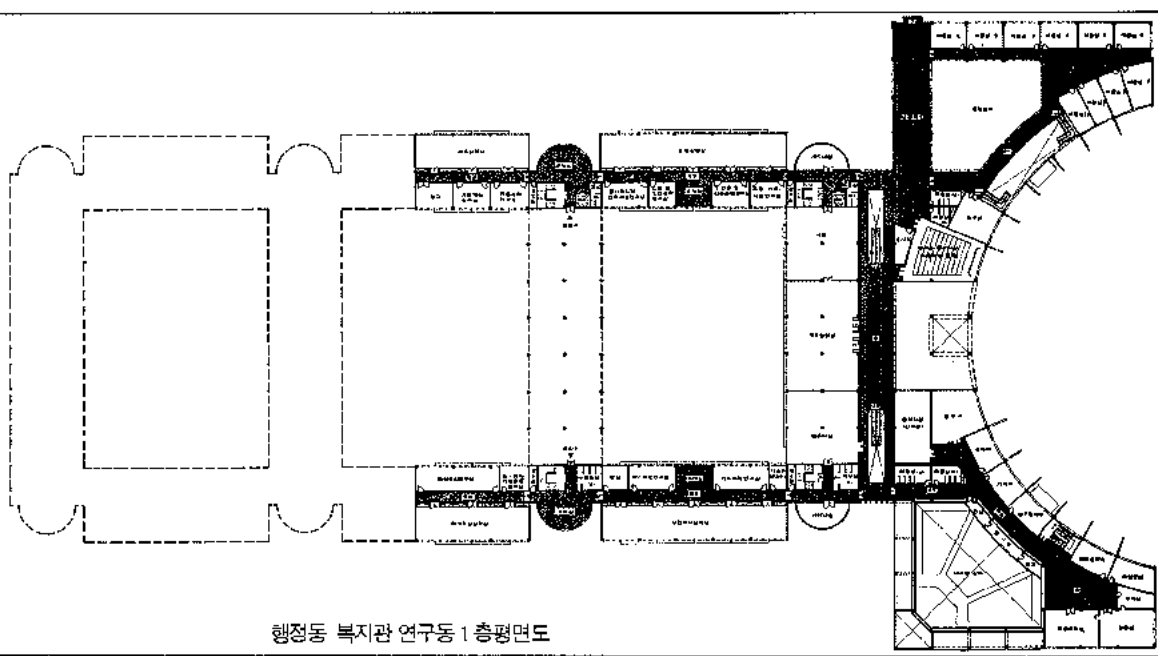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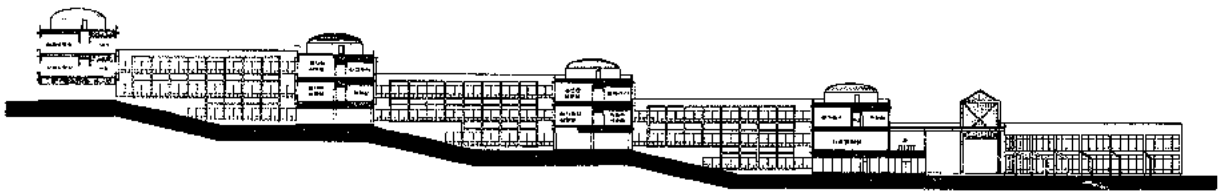
행정동 복지관 연구동정면도

행정동 복지관 연구동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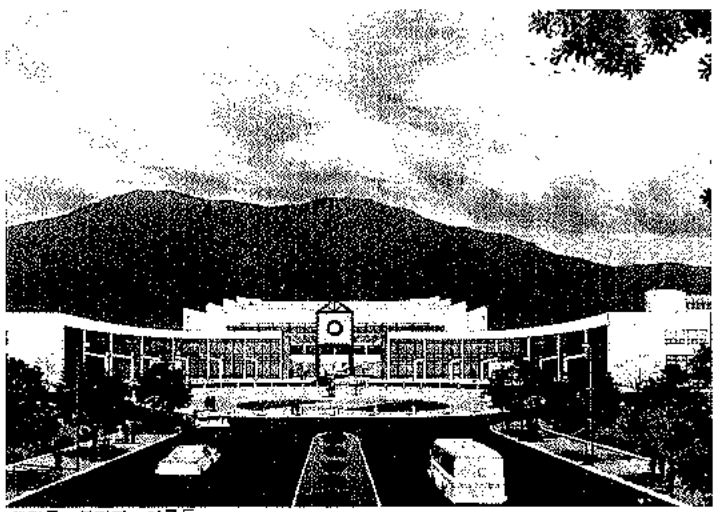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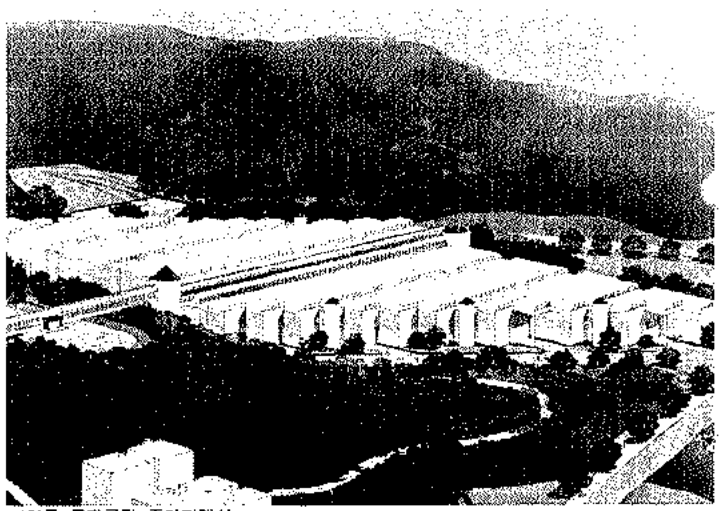
행정동 복지관 연구동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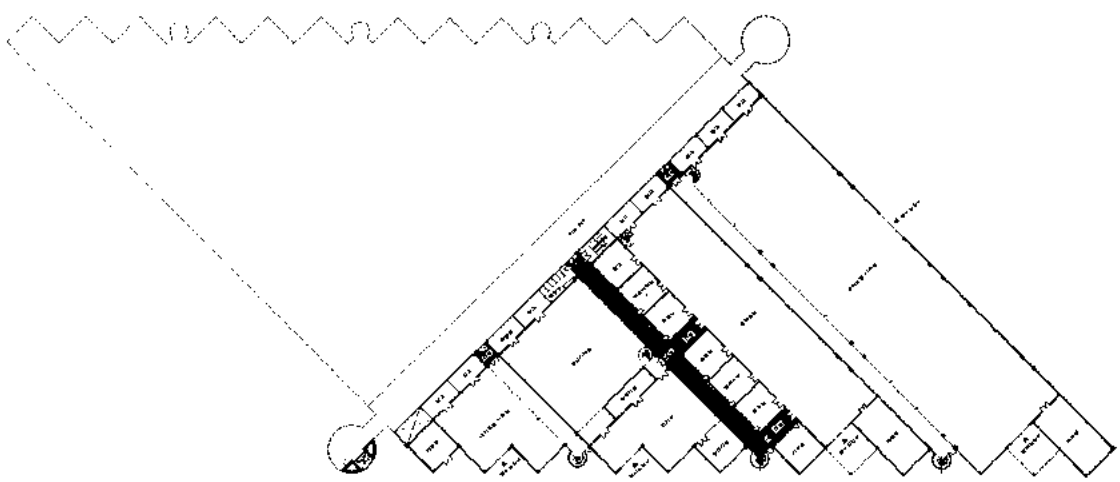
행정동 복지관 연구동 종단면도



행정동, 복지관, 연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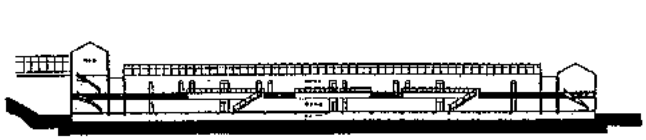


시험동·공작공장·중앙기계실



시험동·공작공장·중앙기계실 1층평면도

단면도



단면도

각 동 건축계획

연구실험동

○ 입지

소음 차단이 용이하고, 쾌적한 연구활동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성이 쉽게 요되는 부지 중심지역에 있는 중심 골짜기에 위치

○ 기본개념

- 건물형식 : 중정을 가진 ㄷ자형의 반복
- 연구실 Zoning : 제1, 2, 3, 4 연구부의 독자성과 유기성
- 연구원실과 실험실의 밀접한 연계
- 성장과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 7.2m×7.2m 구조 Module
  - 프리패브 공법에 의한 경량 가동 칸막이
- 지층화 : 층수 3층
- 가능한 남동향 배치 원칙
- 충분한 휴게공간의 제공
  - 중정
  - 1층 피로티
  - 코아의 휴게실
  - 연구실 Zoning 간의 완충 휴게실
- 효율적인 설비체계
  - 수직식 드레프트 배기닥트 시스템
  - 수직, 수평 혼합식 배관 시스템

행정동

○ 입지

연구, 복지 시설과 연접하고, 연결통로에 의해 시험동으로 옥내 연결되는 위치

○ 기본개념

- 상징성 : 주진입로에 정면으로 배치하여 상징성의 종추적 건물로 설계
- 기능성 : 연구시설의 지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

시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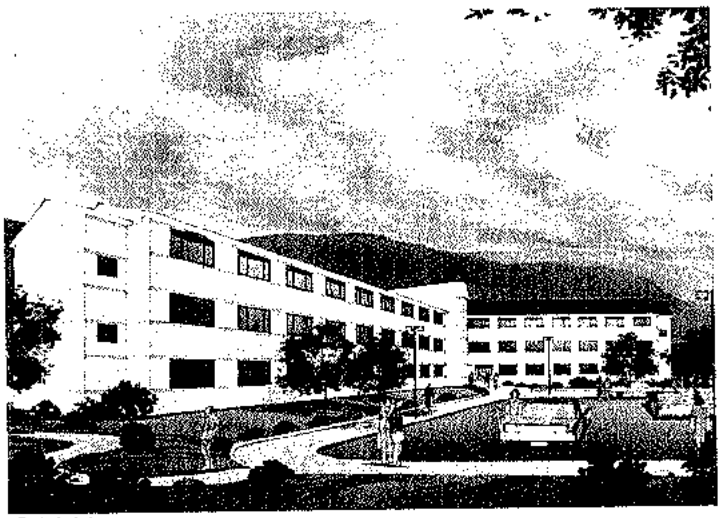
○ 입지

중앙능선 배후에 있는 차폐지에 위치하여 단지 전체의 주 시야권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경관성의 향상과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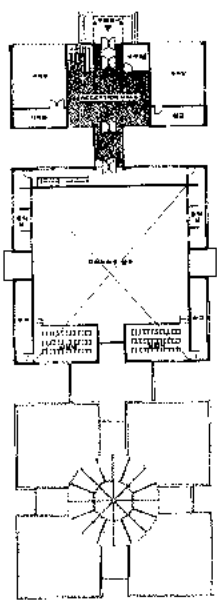
○ 기본개념

- 건물형식 : 1동 다 시험실
- 성장과 변화에 대응
  - 7.2m×7.2m Module을 기본으로 한 기대한 공간을 제공(1동 다 시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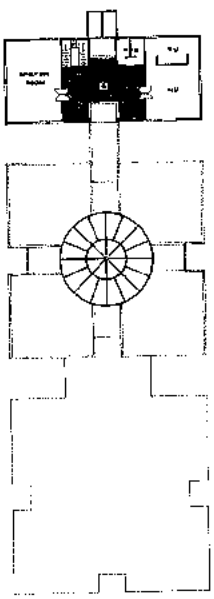
전시관, 내빈관



독신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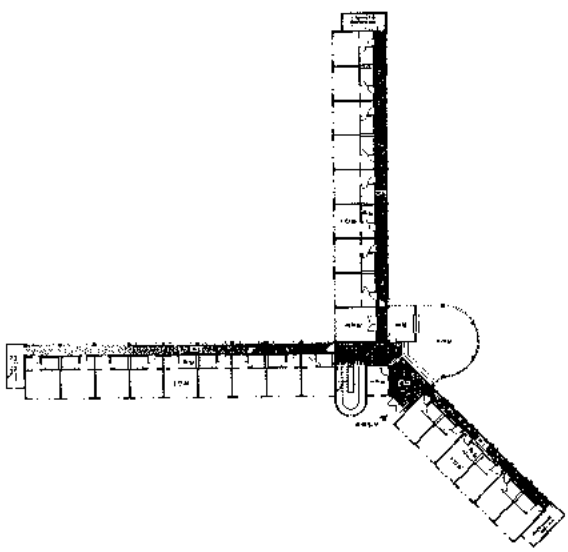


+88 LEVEL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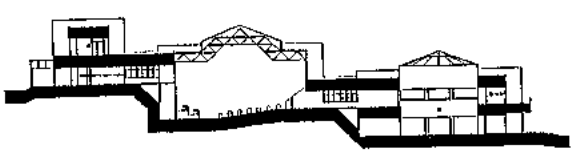


+73.5 LEVEL 평면도

전시관·내빈관 평면도



독신아파트 1층평면도



전시관 내빈관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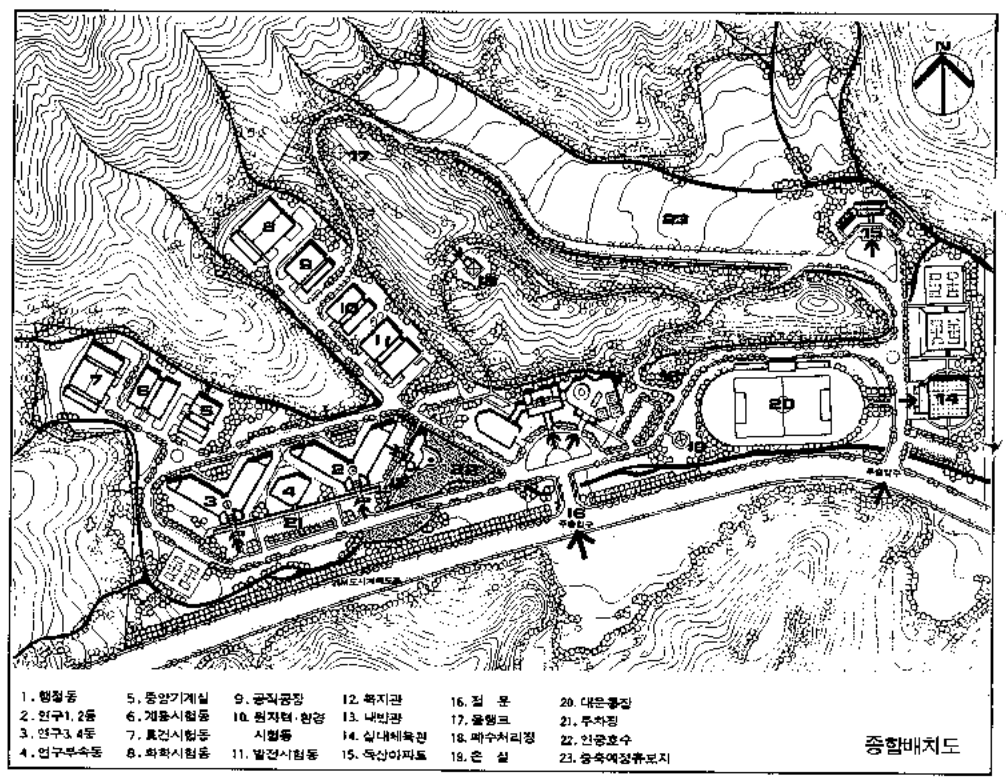
행정동·복지관·연구동 횡단면도

정일엔지니어링 (案)

Jungil Engineering Architects Engineers & Planners Plan

(주) 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宋基德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09 / 714 - 7938

◆
위치 / 충남 대전시 중구 문지동 대덕 연구단지내
지역, 지구 / 자연녹지지역, 교육연구지구
대지면적 / 333, 300m² (101, 000평)
건축면적 / 24, 696. 6m² (7, 478. 8평)
연면적 / 42, 320. 5m² (12, 802평)
건폐률 / 7. 4%
용적률 / 12. 04%
층수 /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동수 / 16동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철골트러스조
주차대수 / 115대
부대시설 / 대운동장, 테니스코트 6면 인공호수



계획의 기본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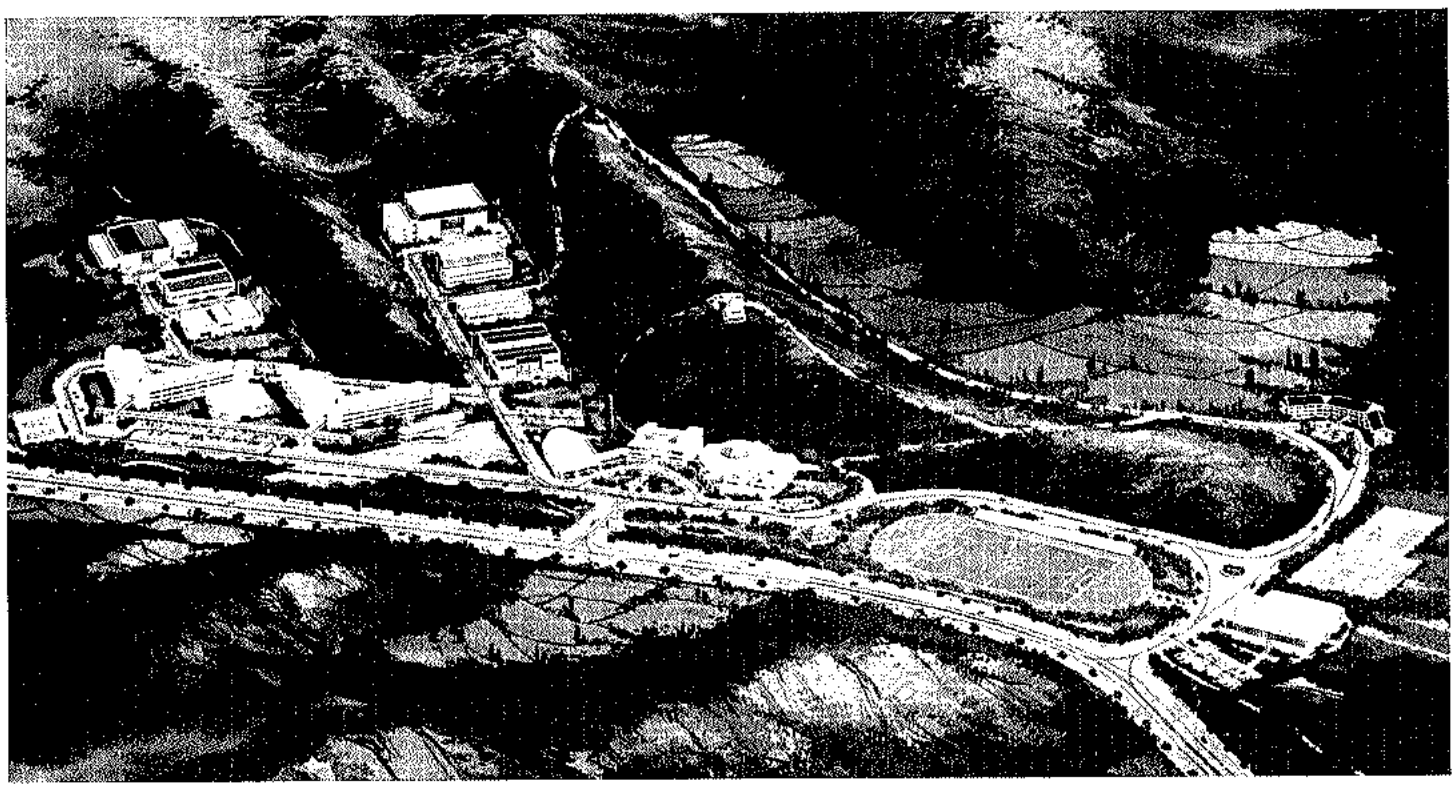
- 건축 가용면적을 제외한 기존 지형 · 녹지보존과 자연환경의 보호
- 연구 관리시설의 집약화와 부대시설의 효과적 배치로 기능의 단순화, 운영의 능률화 추구
- 쾌적한 연구 분위기 조성
- Flexibility (융통성) 에의 대응
- 에너지공급, 배출의 집중화 및 실험실 단위 자기완결형 Energy System
- 적절한 시설의 집중 및 분산으로 건축화 구역, 특수실험구역, 녹화구역, 유보지 등 4 - Zoning 계획 Module 조합에 의한 Module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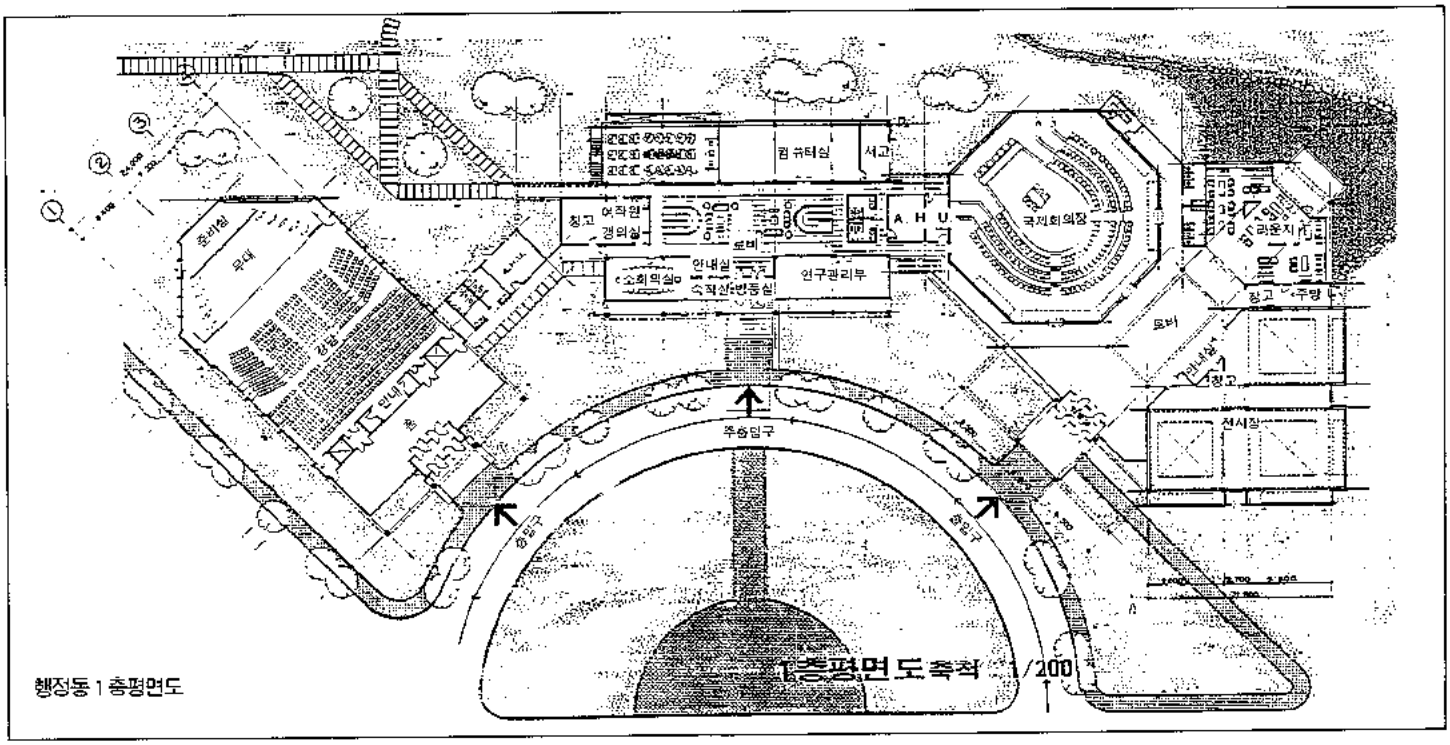
배치계획의 개념

- 기존 녹지와 자연환경 보호
- 연구관리시설의 집약화로 명쾌한 기능, 쾌적한 환경조성, Coast Down
- 에너지공급, 배출의 집약화
- Flexibility (융통성) 에 대응하는 증축용지 (유보지) 확보
- 건축화 지역, 특수실험지역, 녹화지역, 유보지역의 4 - Zoning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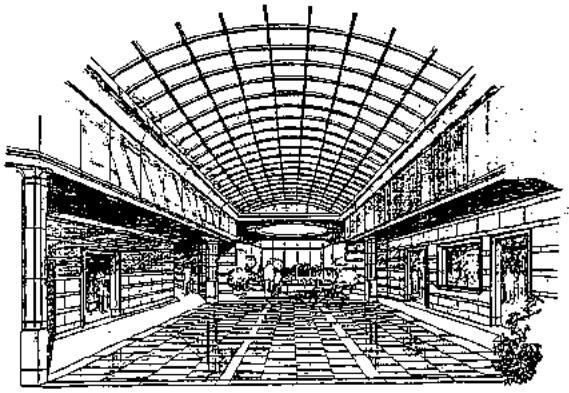
행정동 배면도

행정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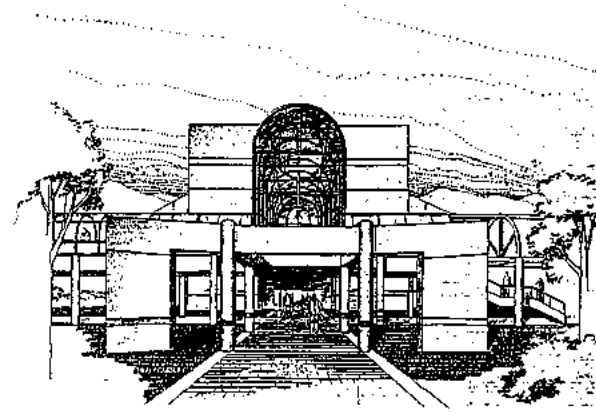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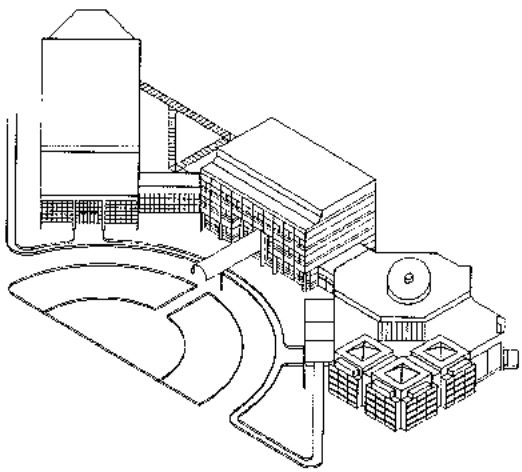
행정동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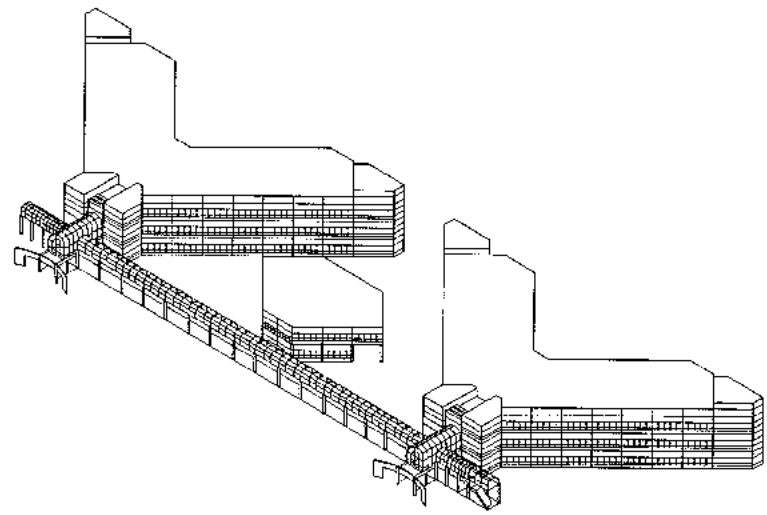
국제회의장 및 전시장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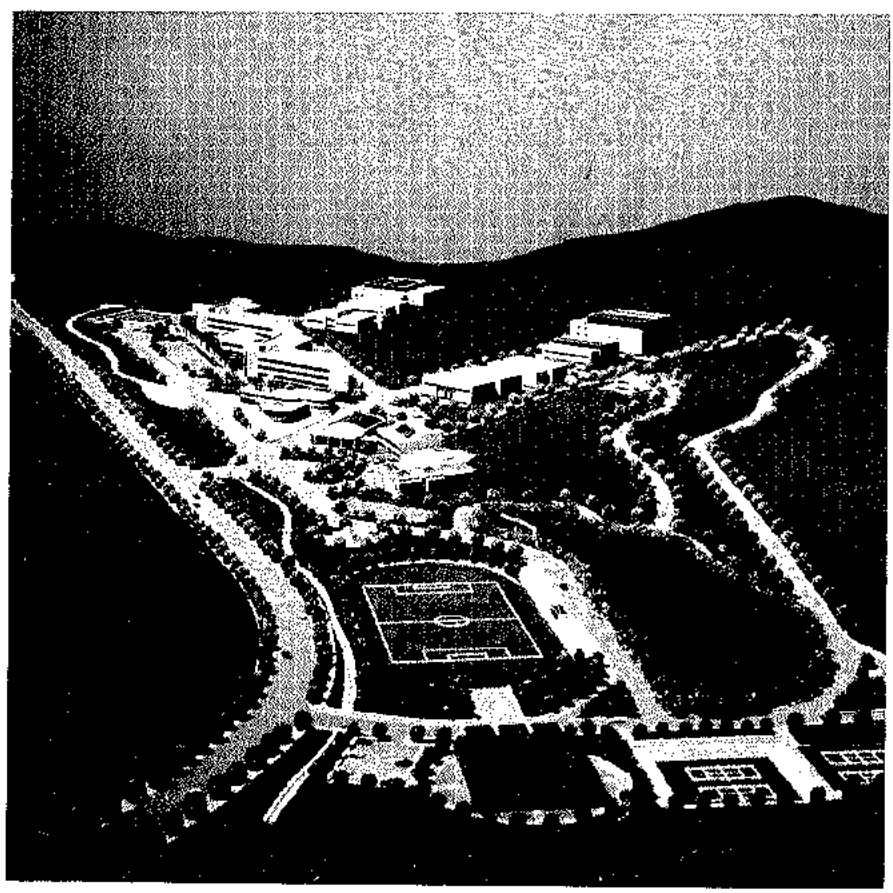
연구동 주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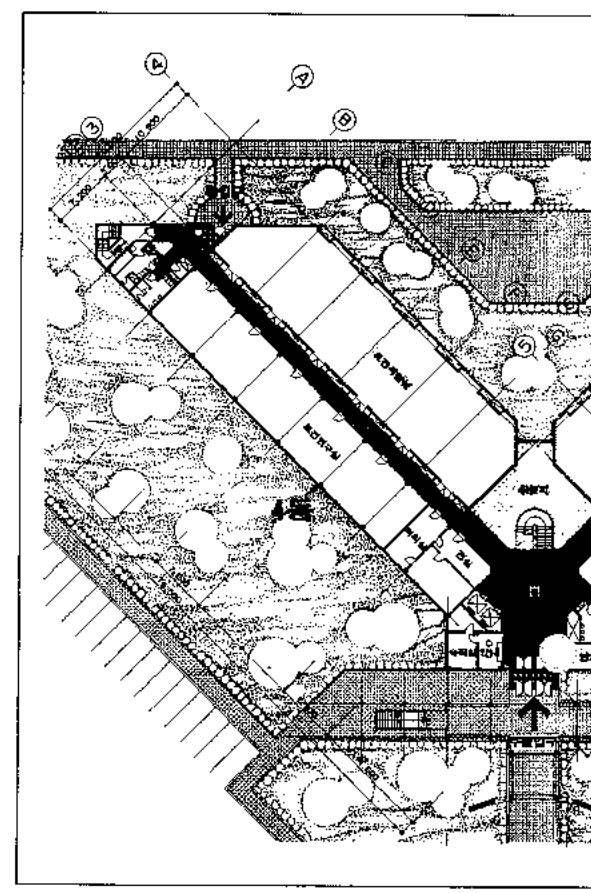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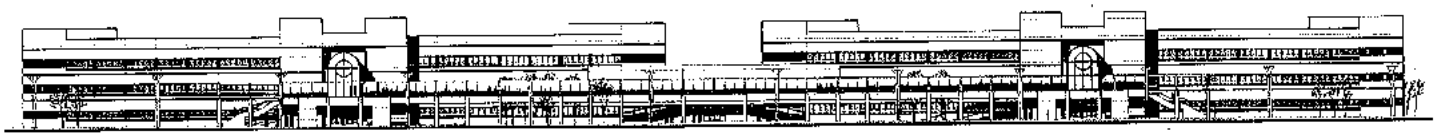
행정동 AXNOMATRIC



연구동 AXN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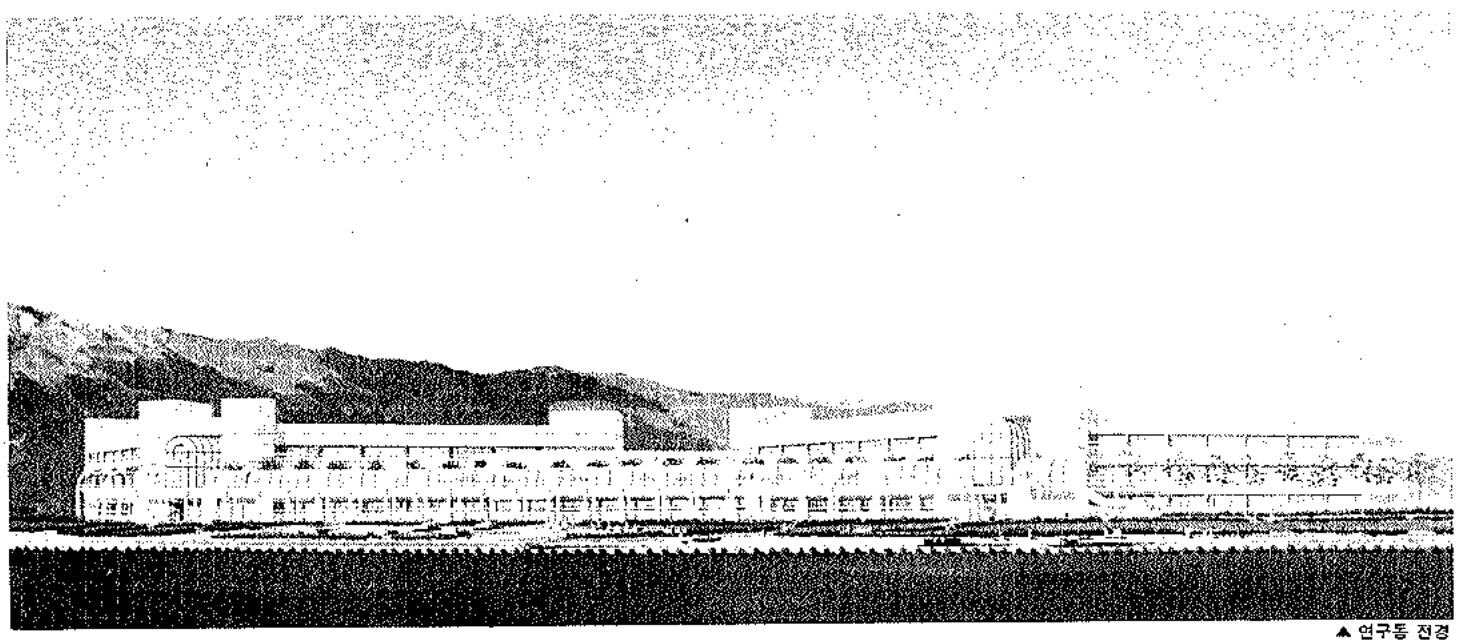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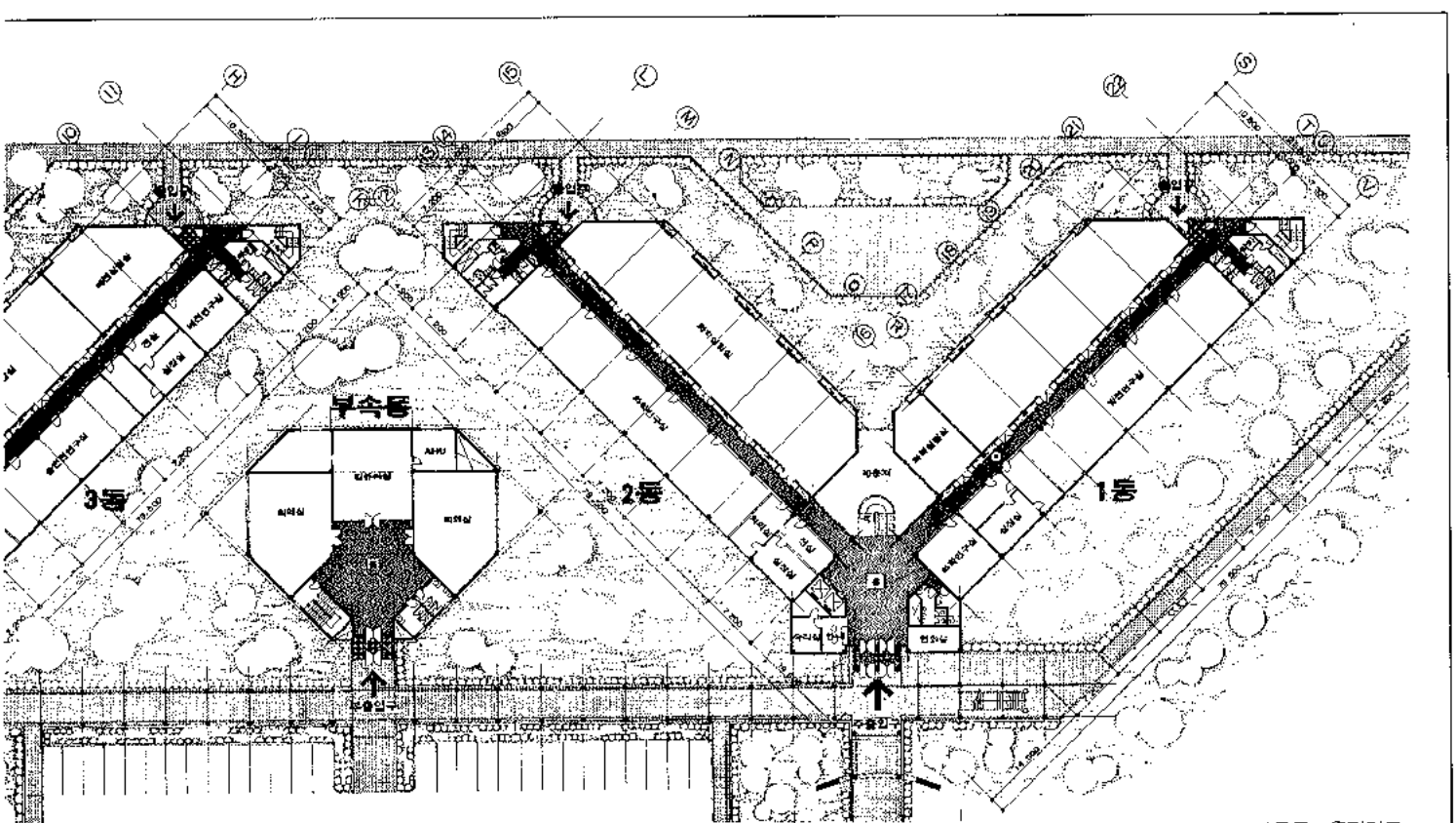


연구동 정면도

연구동 배면도



▲ 연구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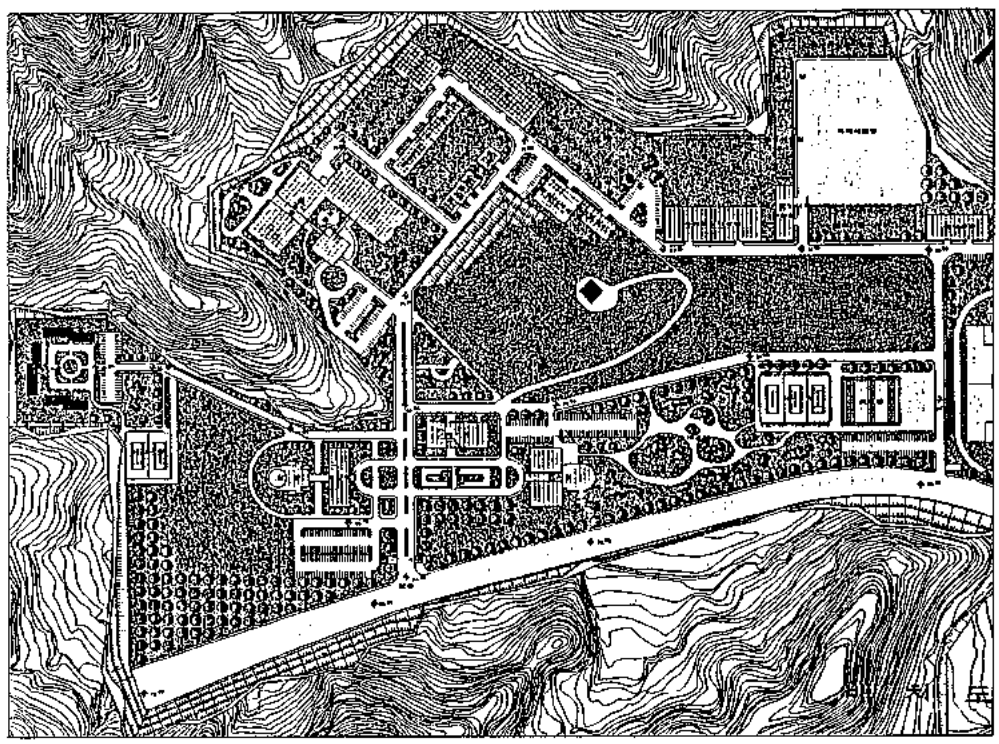


연구동 1층평면도

우일종합건축 (案)

U-il Architects & Engineers Plan

(주)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 朱寧伯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2/783－4145



건축계획

배치계획

- 각 건물의 기능에 따라 상호간 유기적 연결에 역점을 두어, 관련 건물들을 군 별로 집약 배치한다.
- 남측 대지가 도로에 따라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건물을 동서에 따라 장방형으로 길게 배치한다.
- 중앙 진입 도로에 행정동, 복지관, 전시관이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Plaza를 중앙에 두고 강한 구심점을 이루며 그 후면 얕은 골짜기 사이에 연구동이 뒷산을 배경으로 감싸도록 유의한다.

MASS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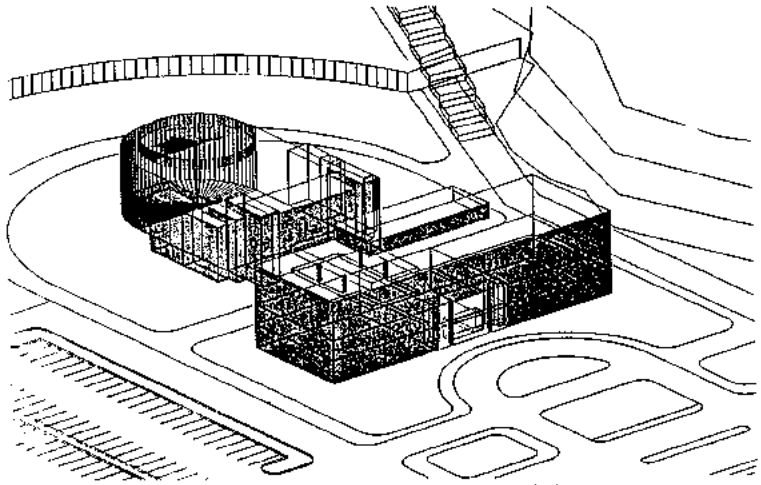
- 전체적인 건물 Mass를 단순 명쾌한 Box형을 유지하여 통일감을 주고, 사각형에 부분적으로 원을 도입하여 Mass의 변화감을 부여한다.
- 중앙 진입로에 직각인 Plaza 축 선상에 마주보고 배치되는 행정동과 전시관은 양 건물 후면의 강당과 국제장을 반원으로 처리하여 양 건물의 대응과 조화를 꾀한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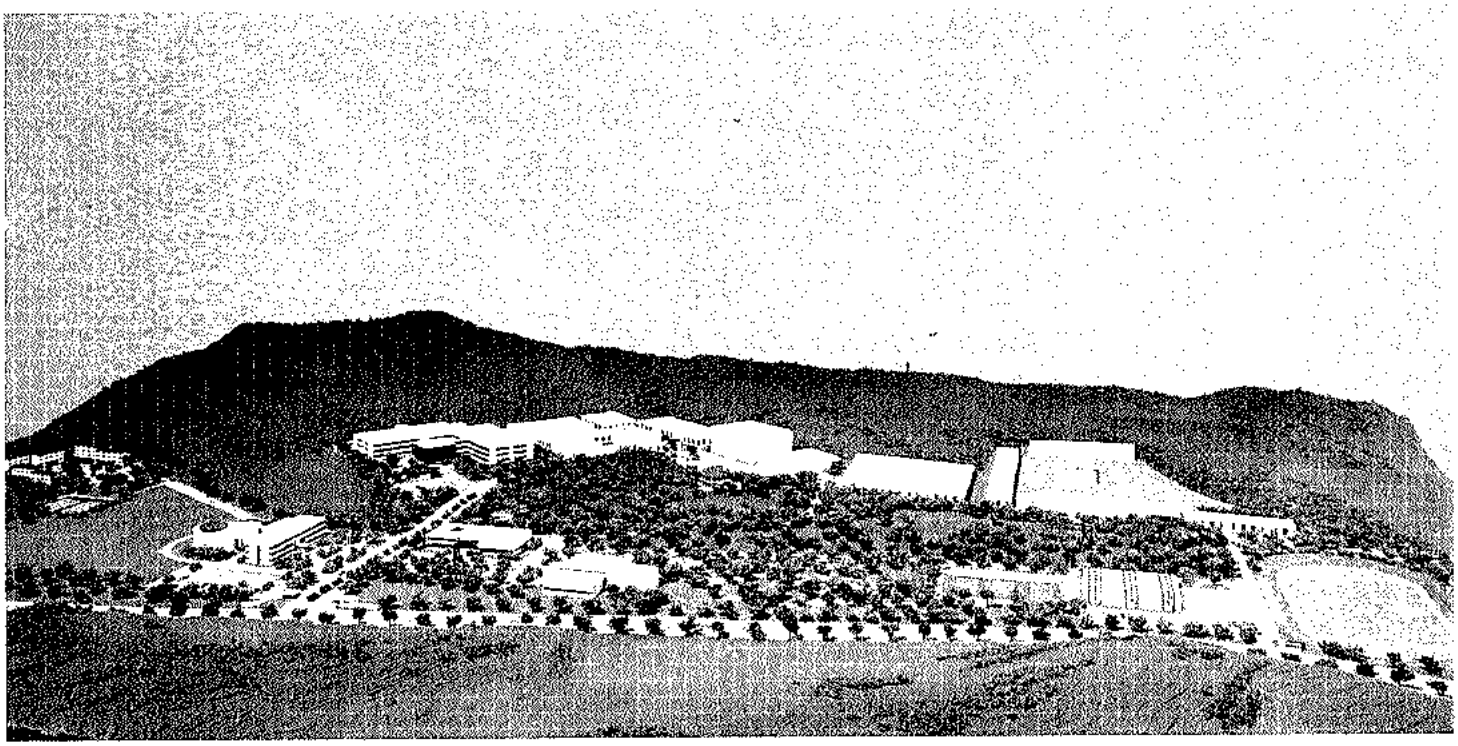
-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남쪽을 변하게 하되 필요에 따라 View와 기능에 우선 순위(Priority)를 두도록 하였다.
- 기본 모듈
  - 행정동, 연구동, 내빈관 : 3. 6m
  - 전시관, 복지관, 체육관 :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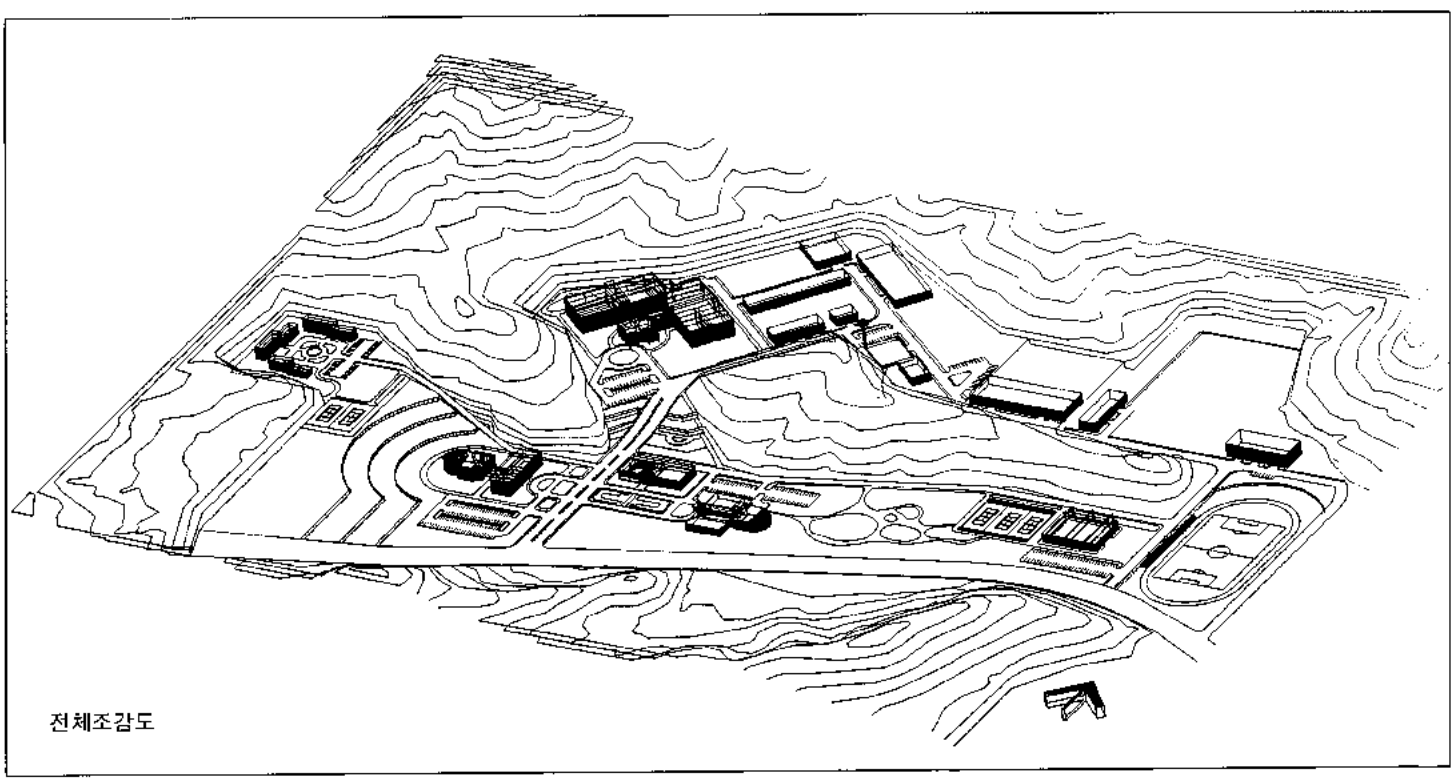
입면 및 단면계획

- 미색(Ivory Color) 타일을 Grid (W＝150 or 180cm H＝60cm) 처리하여 정결하고 규칙적이며 조직적인 Hightech의 Image를 부여한다.
- Skin으로 처리된 입면에 연속된 띠창을 주어 낮은 구릉의 주변 경관에 순응하고, 안정감 있게 처리한다.
- 부분적으로 큰 Mass를 Solid처리하여 중량감을 주고 All Gass 부분을 일부분 사용 단조로움 탈피.
- 60cm의 단면 Module을 설정하여 입면과 조화시킨다.
- Office 계통을 공통적으로 2. 4m로 계획한다.



행정동 AXONOMETRIC





전체조감도

각 동 배치계획

행정동

- 연구원 행정의 중심 건물로서 연구원의 상징적 구심점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 광장과 복지관, 전시관을 잇는 동서축 선상에 건물을 배치시킨다.
- 좁고 긴 남측 대지 상부에 위치하여 중앙광장을 향하고 있어 가장 좋은 전망을 가지며, 주 진입로에 접하여 강한 접근 접근성을 부여한다.
- 연구원의 중심으로 통행량이 가장 많고 외부 내방객의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 외부에서의 인입 동선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단지내 모든 건물에서 쉽게 접근되도록 계획한다.

연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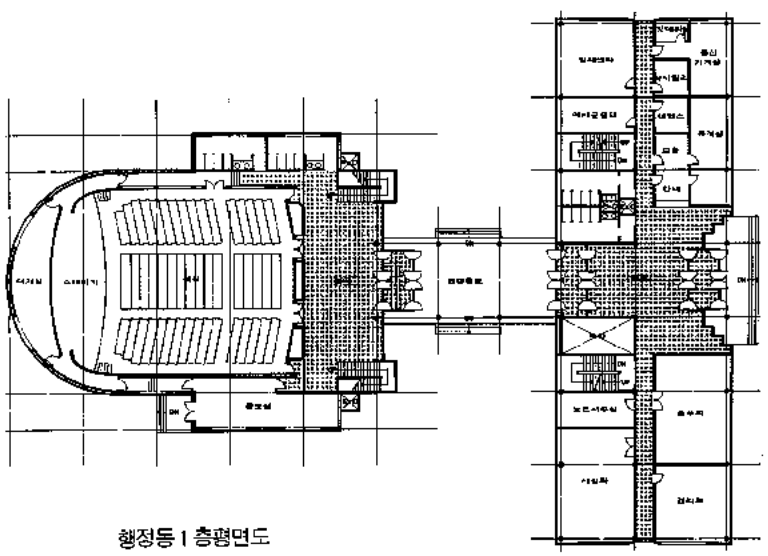
- 골짜기 사이로 인입되는 주 진입도로를 약간 비껴서 클 Mass 로 막아 연구 Zone Gate 의 Image 를 주고 그 뒤에 큰 Facade 효과가 적은 시험동을 배치한다.
- 연구원, 내방객, 서비스 동선을 완전 분리하고, 통제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출입구를 크게 2개로 축소 분리한다.
- 연구기능을 뒷받침하는 좋은 환경을 위해 넓은 조경면적과 휴게공간, 훌륭한 조망 제공한다.

시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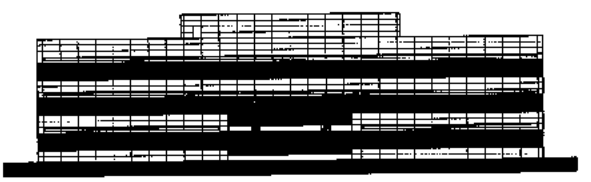
- 연구동 후면으로 북측 대지 전반에 배치하여 자연보존 지역에 의해 시각상, 기능 보안상 차단되도록 한다.
- 연구동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므로 관련성이 많은 순서로 연구동에서 동쪽으로 배치한다.
- 순환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가깝도록 배치한다.
- 중축분에 대하여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축 예정지를 확보한다.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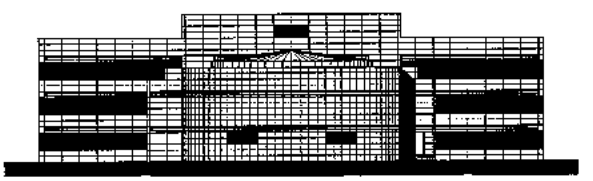
- 외부 관람객 방문이 용이하도록 주 진입로에 근접하여 배치한다.
- 외부 개방 성격상 체육관, 운동장 등 외부이용 Zone 에 인접 배치한다.
- 긴 Plaza 를 통해 접근하여 전시관의 기념비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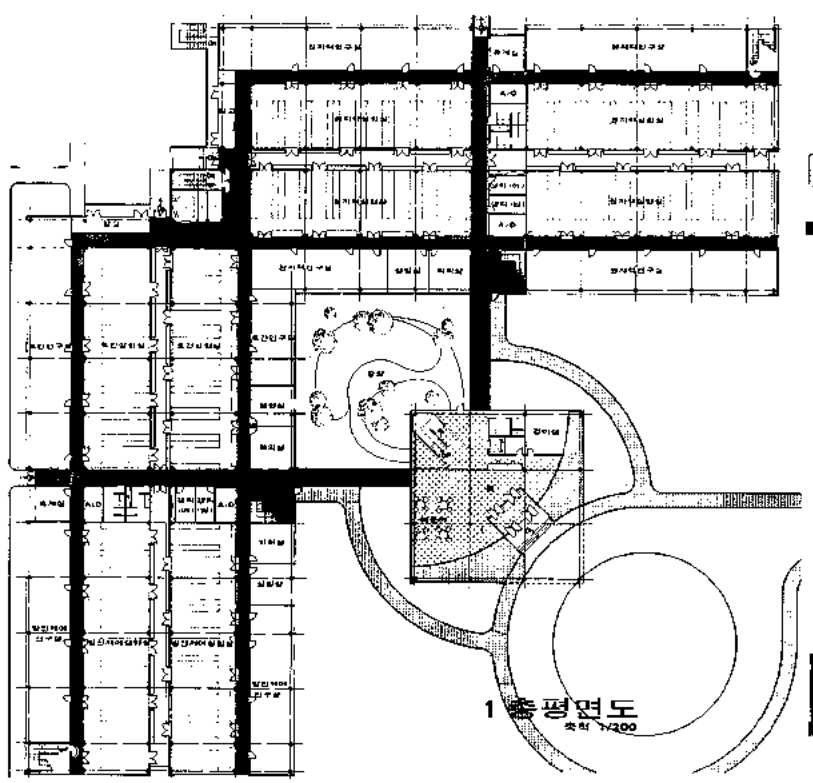
행정동 1 층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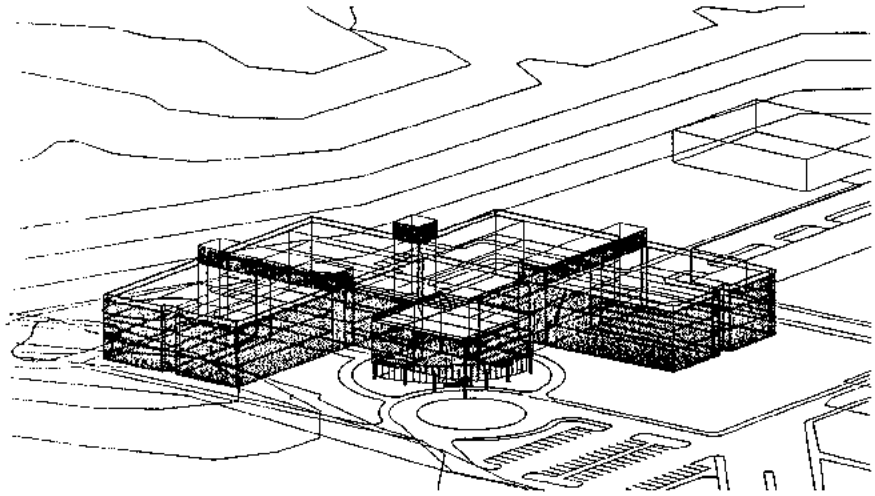
1 층 평면도

연구동 1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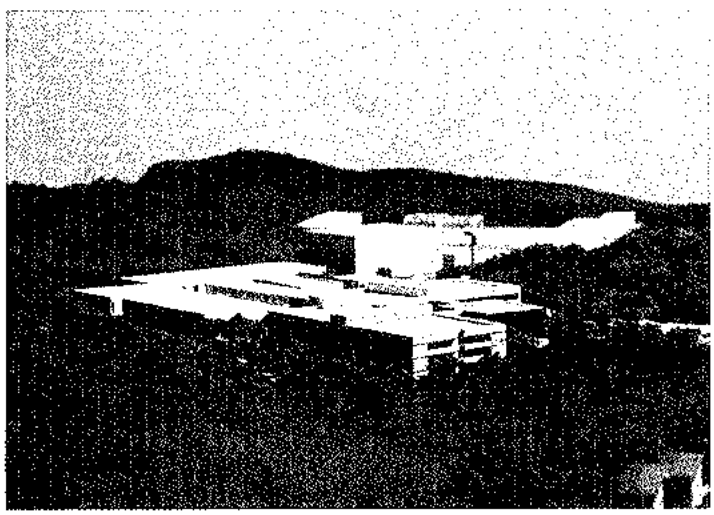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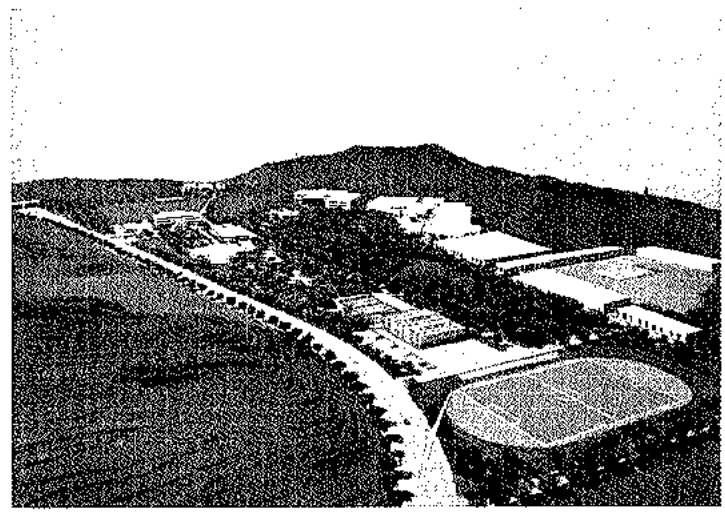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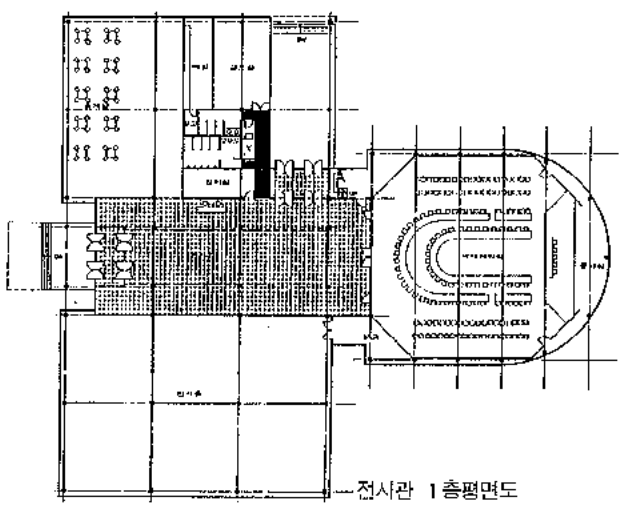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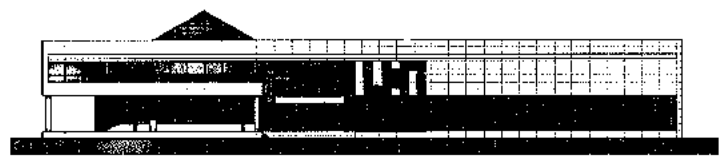
연구동 AXONO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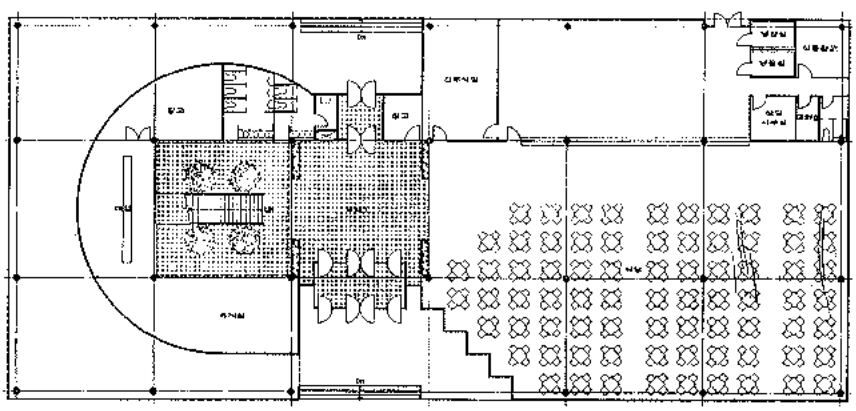
전시관 1층평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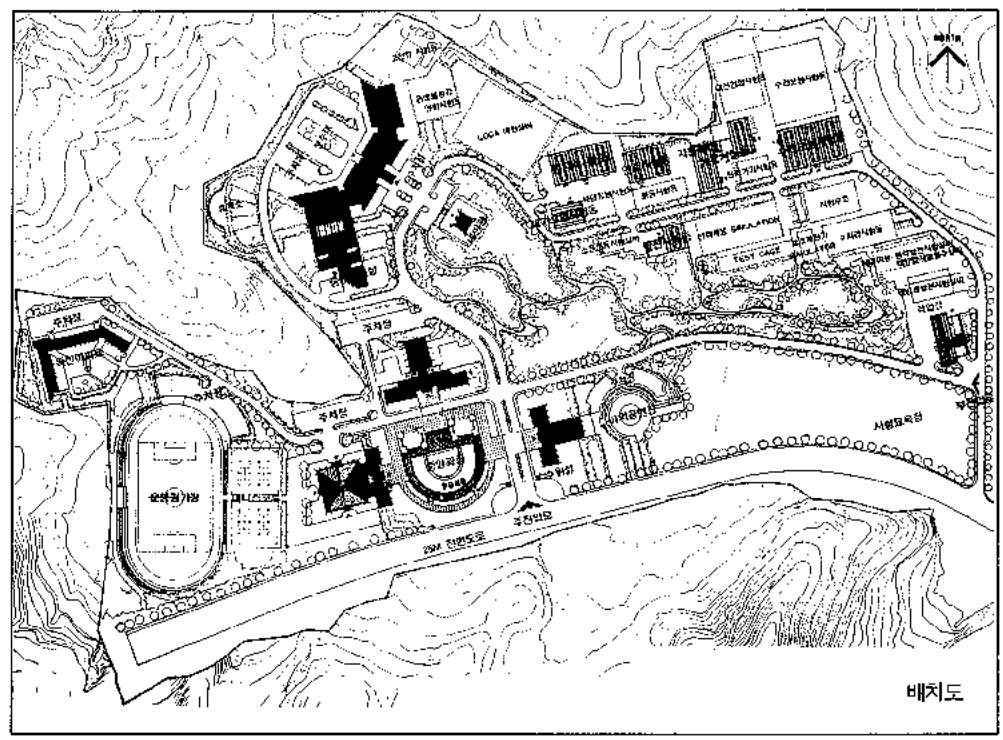
복지관1층평면도

삼예종합건축 (案)

3 Art Archi-Group Plan

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 鄭求殷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7 – 1 / 543 – 1031

◆
부지면적 / 313, 500m² (95, 000평)
건물면적 / 41, 411m²
행정동 : 3, 682. 5m²
연구동 : 17, 428. 2m²
시험동 : 9, 900m²
복지후생 및 기타 :
7, 563. 2m²
독신아파트 : 2, 837. 1m²



배치도

배치개념 계획

- 유사기능별 배치로 동선의 혼란이 없는 자연스러운 연결
- 계획 대지를 유사기능군으로 배치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높임
-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건물의 공간 질서 부여
  – 자연 – Centural Image 구현
- 대지의 형태에 따른 건물의 배치
  – 자연과의 조화
- 남향배치에 의한 태양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및 풍향의 이용
- 장래 건축가용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로 연구 확대에 따르는 증축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신축성있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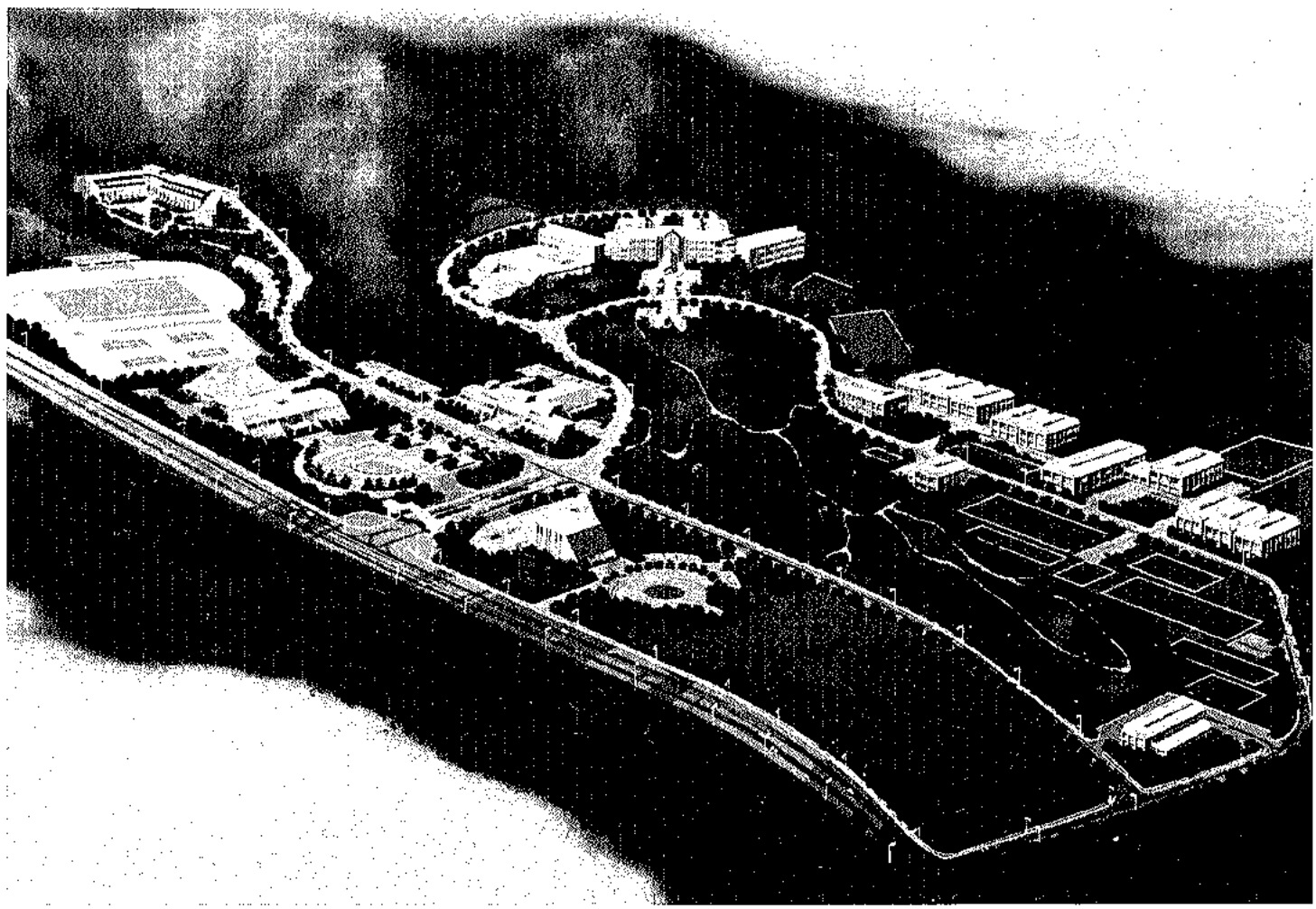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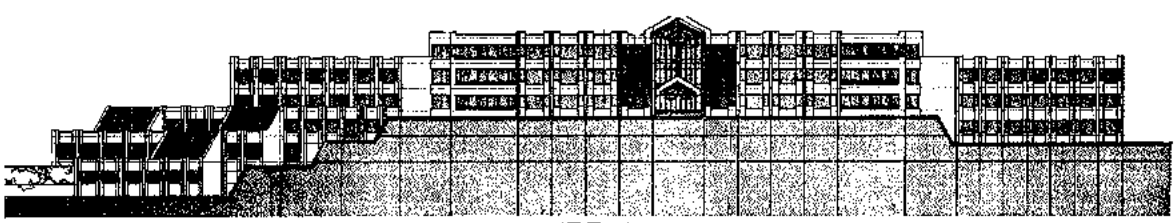
● 공간계획
-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에 맞는 최적의 Volumn 상태 구현으로 전통공간이 지니는 장점을 도입
- 경사진 대지의 지세에 수용되는 Mass를 투입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유기적 질서와 조화구현 및 공간이용의 극대화
- 매개공간과 전이공간의 도입으로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 (Continuty) 부여

● 평면계획
- 융통성 – 기능의 가변성 대처
- 간결성 – 평면의 단순한 정리
- 실용성 – 모듈 (Module) 설정
- 경제성 – 에너지절약의 적극적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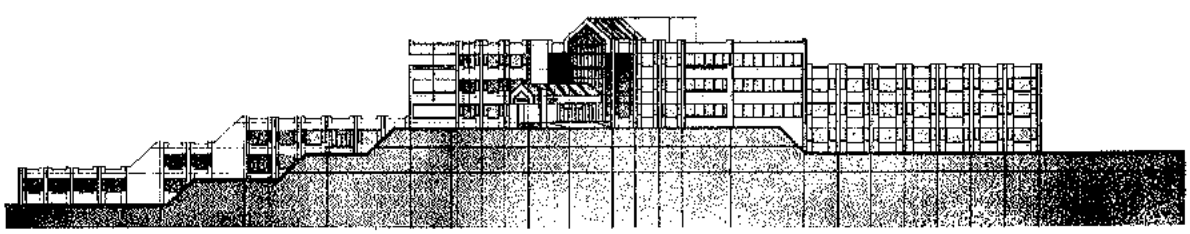
● 입면계획
- 사선형태의 입면채용
  – 사선의 확장 및 친근감
- 기존환경과의 Visual Balance
- 관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재료선정

● 단면계획
- 사선공간의 쾌적성
- 태양에너지의 적극적활용 방안
- 사선공간의 적절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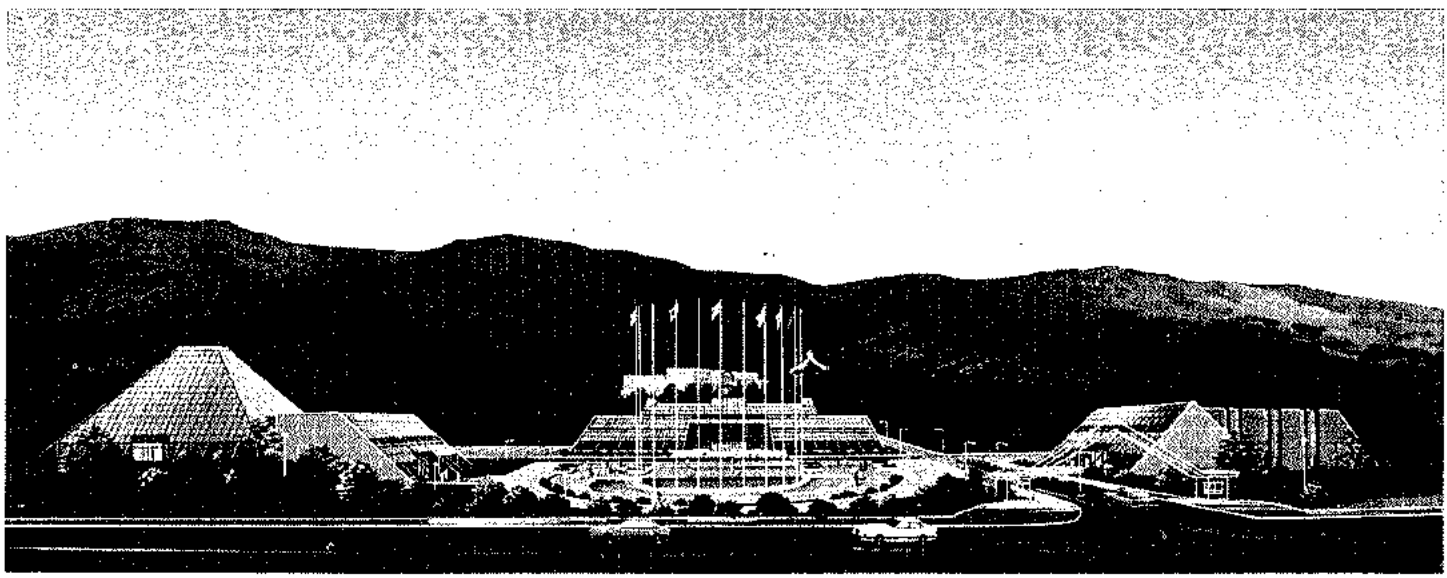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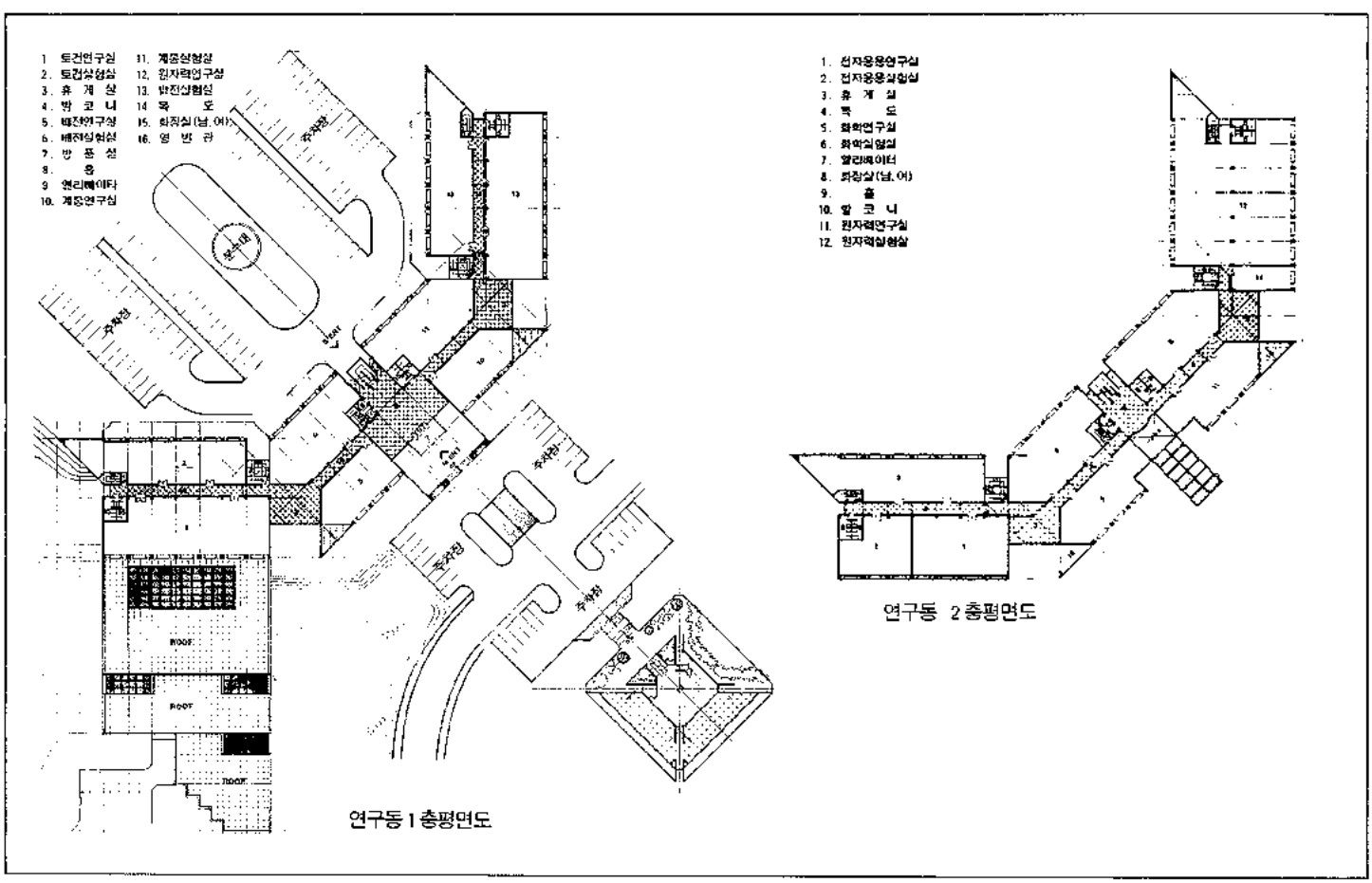


연구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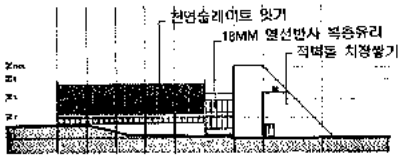
연구동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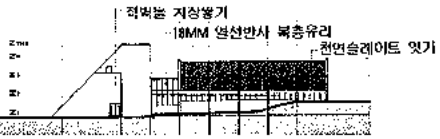
연구동 1층평면도

연구동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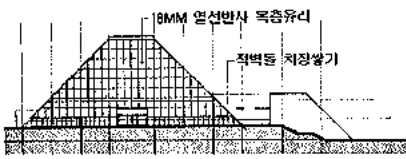


행정동좌측면도

전시관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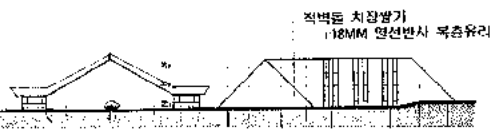


행정관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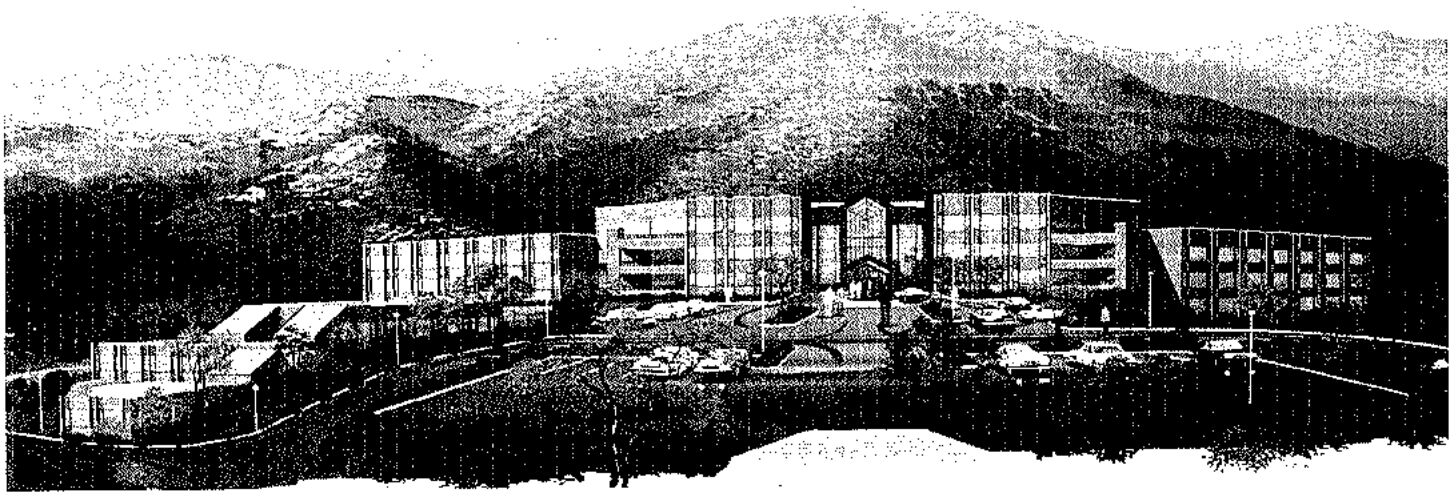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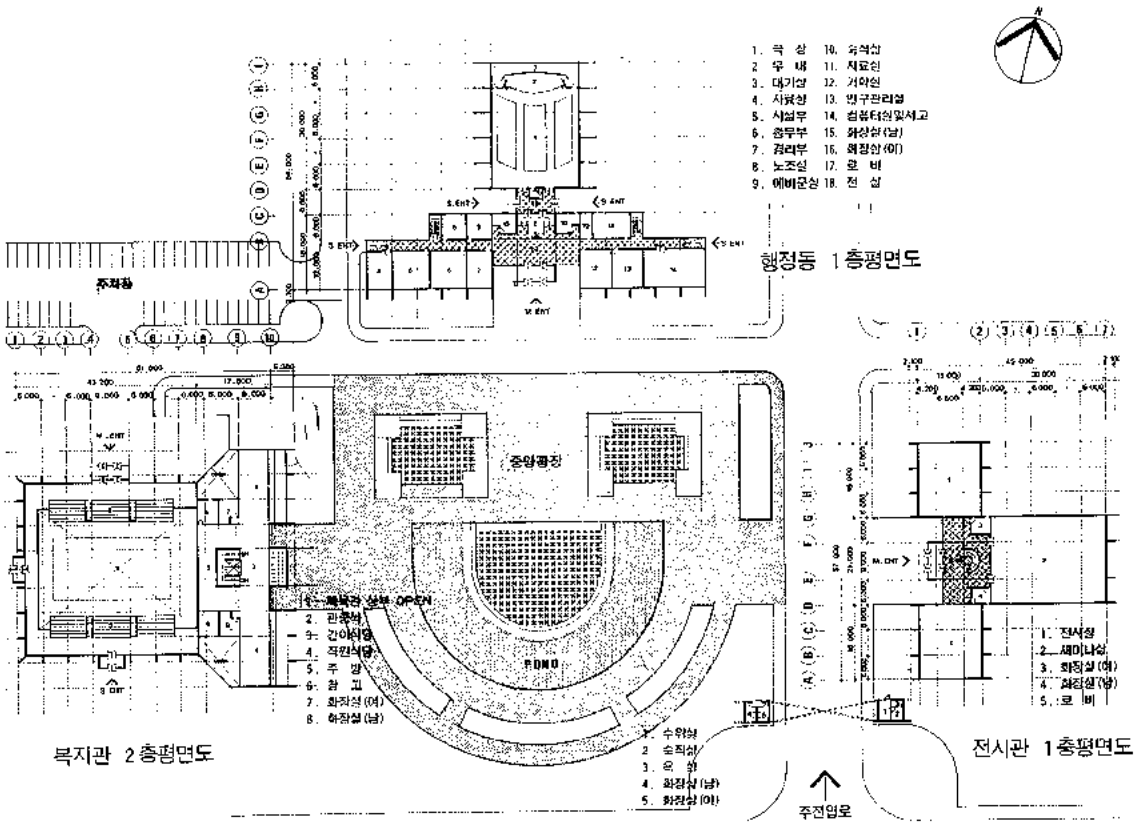
복지관 좌측면도

행정동 정면도



전시관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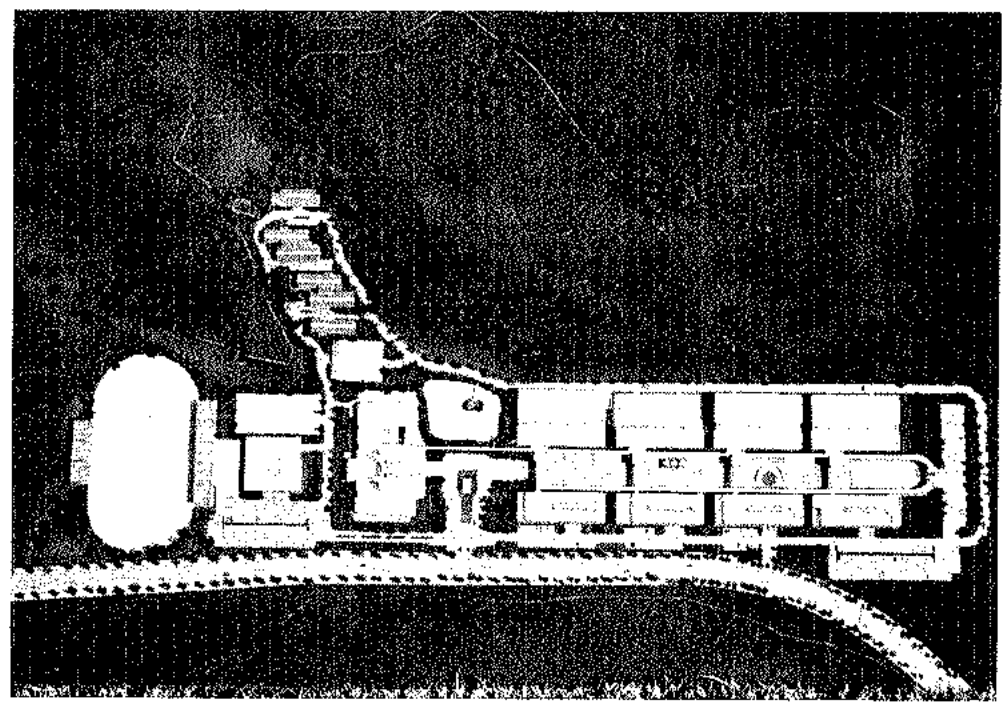


예 종합건축(案)

Art Group Plan

(주) 예종합건축사사무소 · 林承茂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 566-6007

◆
계획의 목적 / 물리적 연구시설의 충족
쾌적한 연구환경의 조성
부지면적 : 313,500m² (95,000.05평)
건축면적 / 25,375.36m² (7,676.05평)
연면적 / 39,934.90m² (12,080.04평)
외장재 / 일마늘 쉬트 화강석 TINTED GLASS
기준층고 / 연구동 : 1 층 - 4.5m
기준층 - 3.9m
행정동 : 1 층 - 6.4m
기준층 - 3.9m
시험동 : 8.4m
독신 APT : 3.3m
체육관 : 10m
설계기본모듈 / 7.2m × 7.2m
구조 / 철근 Conc. 구조 및 철골구조



건축계획

●계획의 목표

본 연구원의 건축계획은 부지의 환경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각 기능건물의 내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장래의 성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목표를 설정한다.
건축계획의 전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건물배치개념 및 질서에 부합되는 외관의 조형적 표현성을 확보한다.
-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획이 되도록 각 시설을 구조적 · 공간적으로 모듈(Module)화 한다.
- 쾌적한 연구환경이 되도록 환경계획적 고려를 한다. 이는 방음 · 방진의 구조적 측면과 더불어 인간공학적 배려를 뜻한다.
- High-Technology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 유지관리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

●계획의 개념

건축기본계획의 개념은 부지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건물의 세부적인 개념은 전체적인 계획개념 및 계획기준에 따르면서 독자적인 개념을 가져야 한다. 말하자면 통일성내의 다양성 표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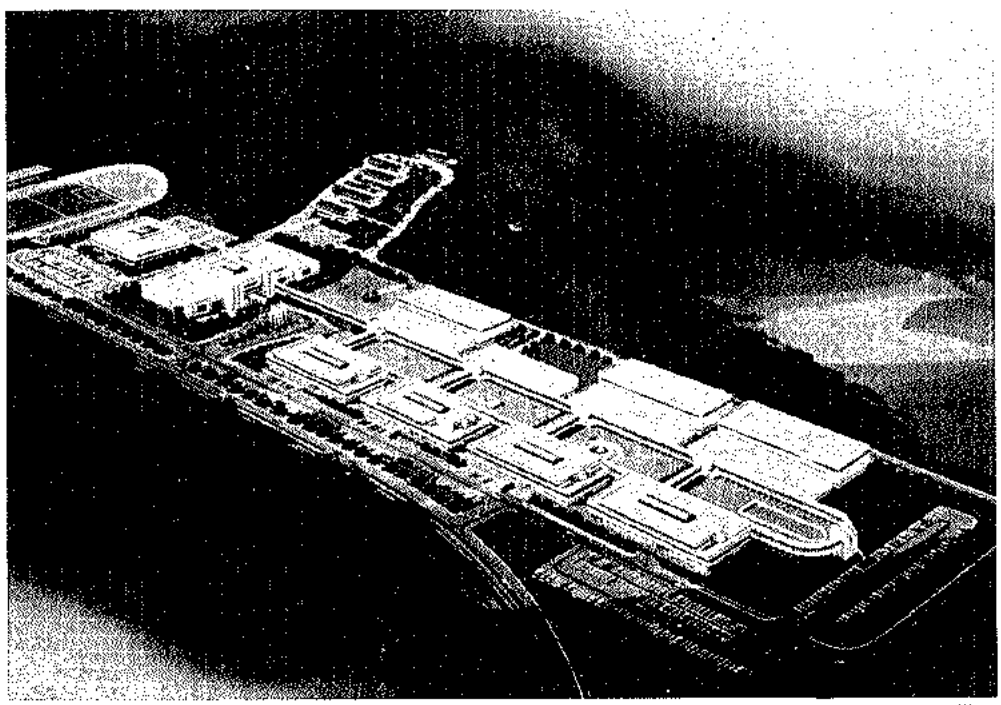
이러한 원칙과 목표에 준하여 계획의 개념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 전원적인 분위기에 맞도록 건물의 층수를 4개층 이하로 계획한다. 이것은 건물과 대지와의 접지성을 높이고 수평적인 안정감을 부여한다.
- 동선이 집중하고 부지의 중심을 차지하는 지역에는 상징성을 표현하는 Landmark Landmark의 의미를 부여한다.
- 부지내의 건물은 첨단기술(High-Tech.)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외장재료를 모듈화된 디테일로 처리하고, 정교한 비례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을 갖도록 한다.
- 큰 옥외공간에 대한 대비적 효과를 위해 건물사이의 공간을 주변건물 높이와 비례한 적정크기의 Human Scale의 공간으로 만들고, 이러한 공간들이 폐쇄적이지 않도록 공간흐름의 방향성을 부여한다.
- 내 · 외부공간은 공적 → 반공적 → 반사적 → 사적인 위치를 갖도록 하여 영역성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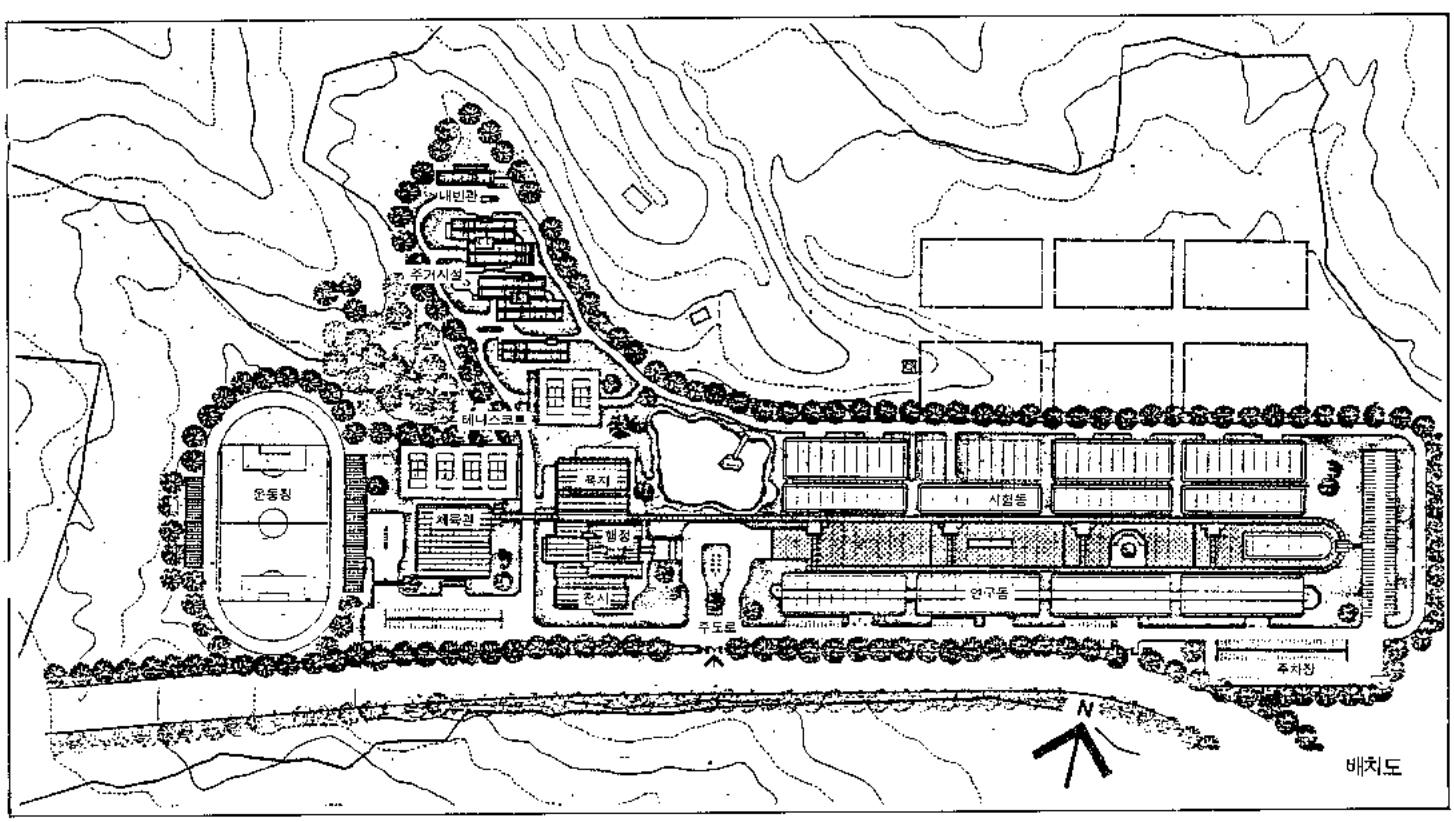
● 연구시설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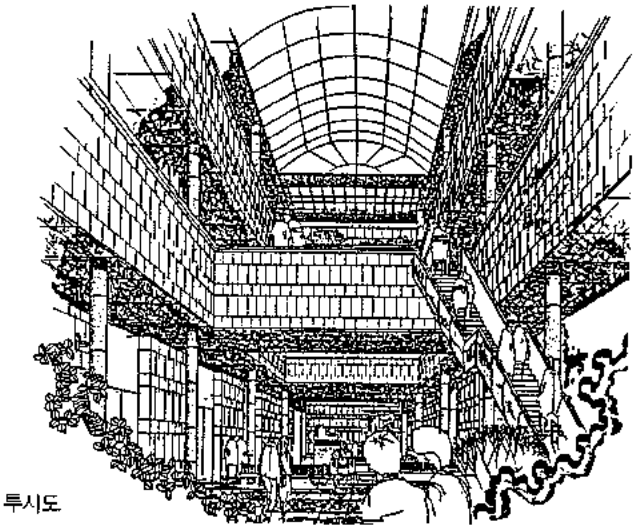
- 연구시설은 4개의 연구동에 14개의 연구 분야가 수용되며 각 연구소는 전문연구소의 개념을 갖는다. 제1연구동에는 발전·원자력·에너지 분야가 들어서고 제2연구동에는 화학과 환경분야, 제3연구동에는 송변전·배전·계통 그리고 통신분야, 제4연구동에는 토건·전력경제 및 발전제어 분야가 포함된다.
- 건물은 연구실과 실험실이 중앙호을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배치된다.
- 내부동선은 연구실과 실험실을 연결하는 중앙서비스 구역에서 수평·수직의 모든 동선이 체계적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보다 규모가 큰 실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옥외로의 출입없이 곧바로 목적장소로 갈 수 있는 관징가로(Deck Street) 동선을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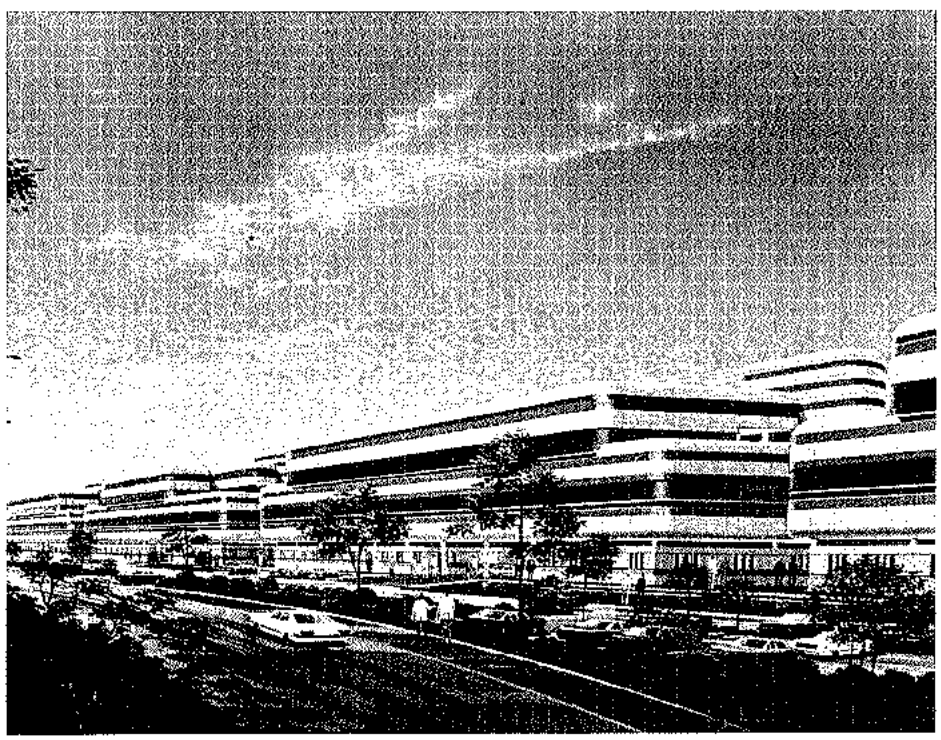
▲ 조감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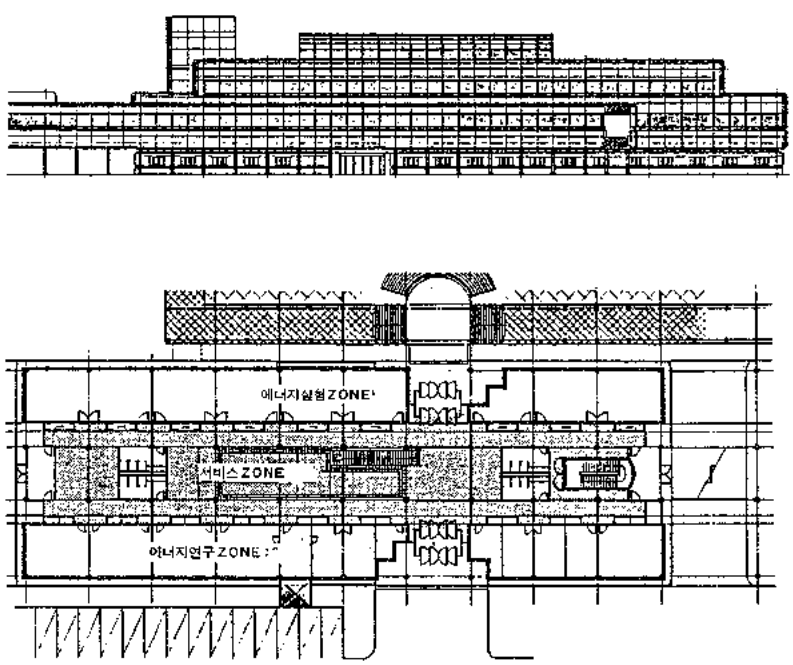
연구1동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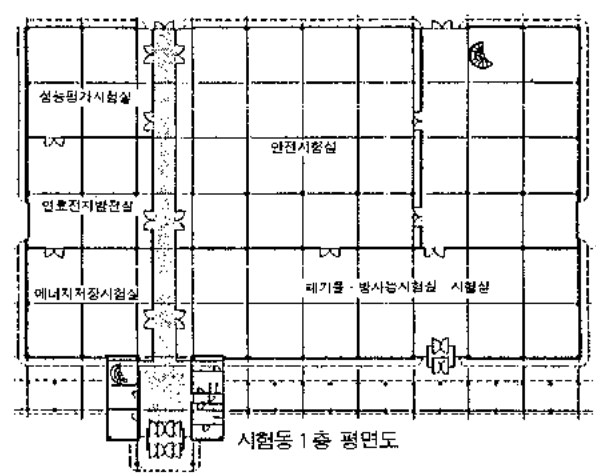
● 시험시설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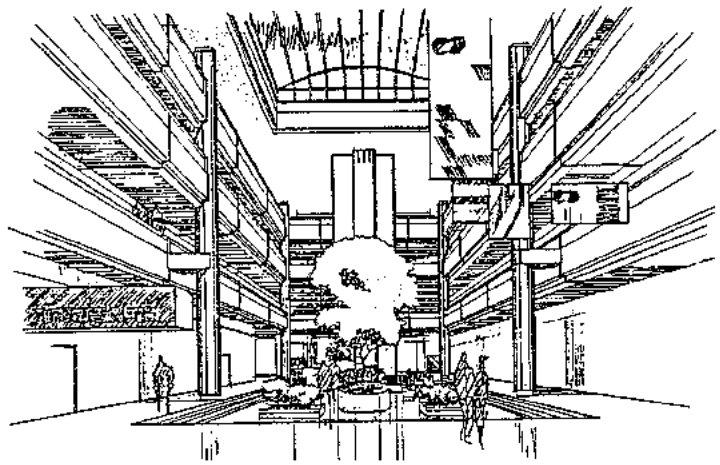
- 시험동에는 전력경제분야를 제외한 제반 연구분야의 각종 시험시설이 설치되며 각 연구동과는 전술한대로 Deck Street를 통하여 연결된다.
- 평면은 중앙의 매개구역을 중심으로 단위 실험실과 대규모 실험실이 남북으로 배치된다.
- 특히 중복도 계획으로 인한 환기, 소음, 자연광에 대하여 적절한 설비체계를 갖는다.
- 시험동의 전체공간은 모듈러 시스템 (Modular System) 에 의해 구획되므로 공간에 융통성이 부여된다.



연구동 1층평면도



시험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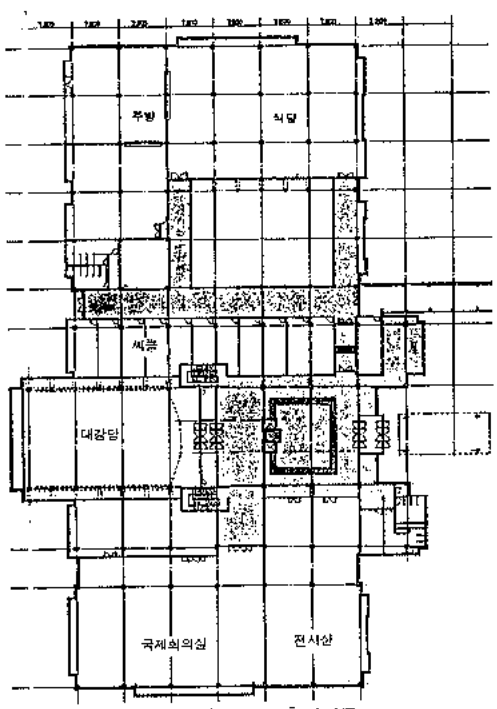


행정동 로비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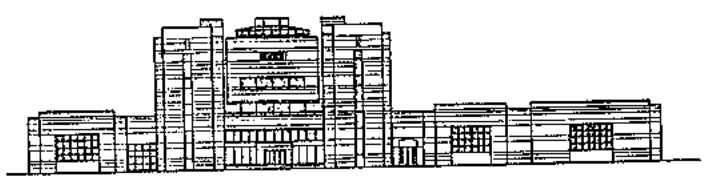
● 행정 · 복지 · 지원시설

○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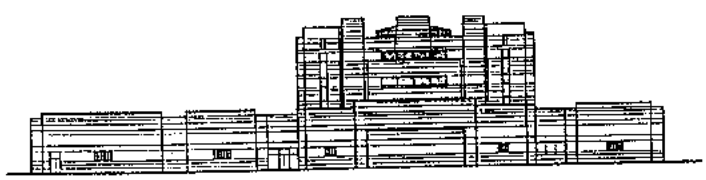
- 전반적인 공간구성은 외부인 출입구역과 행정지원구역 그리고 복지지원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외부인 출입구역은 주도로에서 주도로에서 가까운 남측에 배치되고 복지지원 시설은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북측에 배치한다.
- 본 건물은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복합건물로써 3부분으로 분절되어진다. 즉 1층 중앙엔 종합적으로 동선을 처리하는 홀이 들어서고 양편에는 각 국제회의장, 전시실, 식당, 써클실 등이 구성된다. 그리고 2층에는 콤퓨터, 텔렉스, 교환실과 같은 업무지원 시설이 차지하고 3층과 4층에는 행정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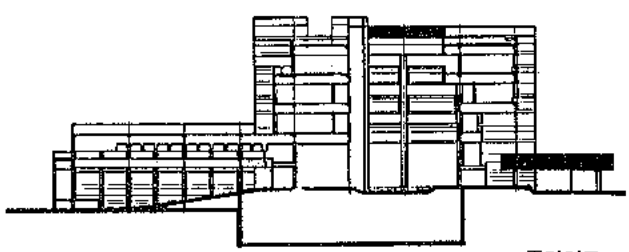
행정복지지원시설 1층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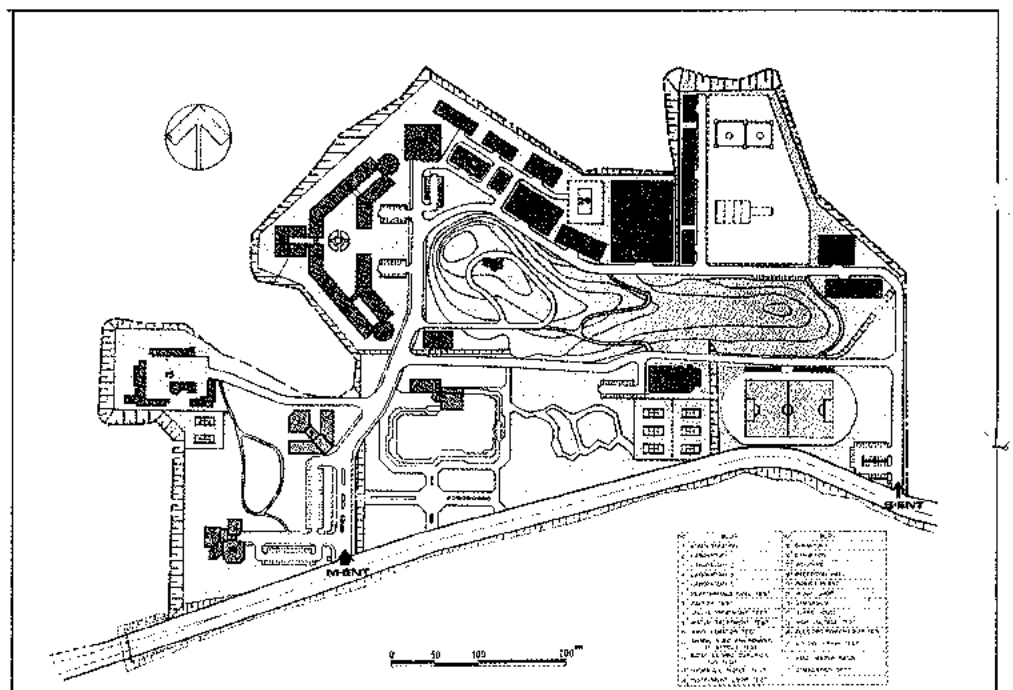
주단면도

한국전력기술(案)

KOPEC Plan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申金鎭 外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540-7701

NO	BLDG.	NO	BLDG.
1	ADMINISTRATION	15	DORMITORY
2	LABORATORY I	16	EXHIBITION
3	LABORATORY II	17	WELFARE
4	LABORATORY III	18	RECEPTION HALL
5	LABORATORY IV	19	POWER PLANT
6	PERFORMANCE EVAL. TEST	20	WORK - SHOP
7	SAFETY TEST	21	GYMNASIUM
8	WASTE TREATMENT TEST	22	GUARD HOUSE
9	WATER TREATMENT TEST	23	HIGH VOLTAGE TEST
10	WIND VIBRATION TEST	24	ELECTRIC POWER EQUIP. TEST
11	ANIMAL & BIO ENVIRONMEN - AL EFFECT TEST	25	AIR POLLUTION TEST
12	EQUIP. SEISMIC QUALIFICA - TION TEST	26	YARD WATER BASIN
13	HYDRAULIC MODEL TEST	27	COMBUSTION TEST
14	INSTRUMENT EQUIP. TEST		



배치도

배치계획

중앙에 기존 자연녹지를 보존하여 계획부지가 동서를 축으로 상하양분되어 상부에 연구 및 시험시설을 하부에 관리, 서비스시설 및 휴식공간을 두어 연구시험 시설을 외부인의 출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차단하였다.
시설군 별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연계성을 고려하고 일반인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전시관, 체육관을 진입로 가까이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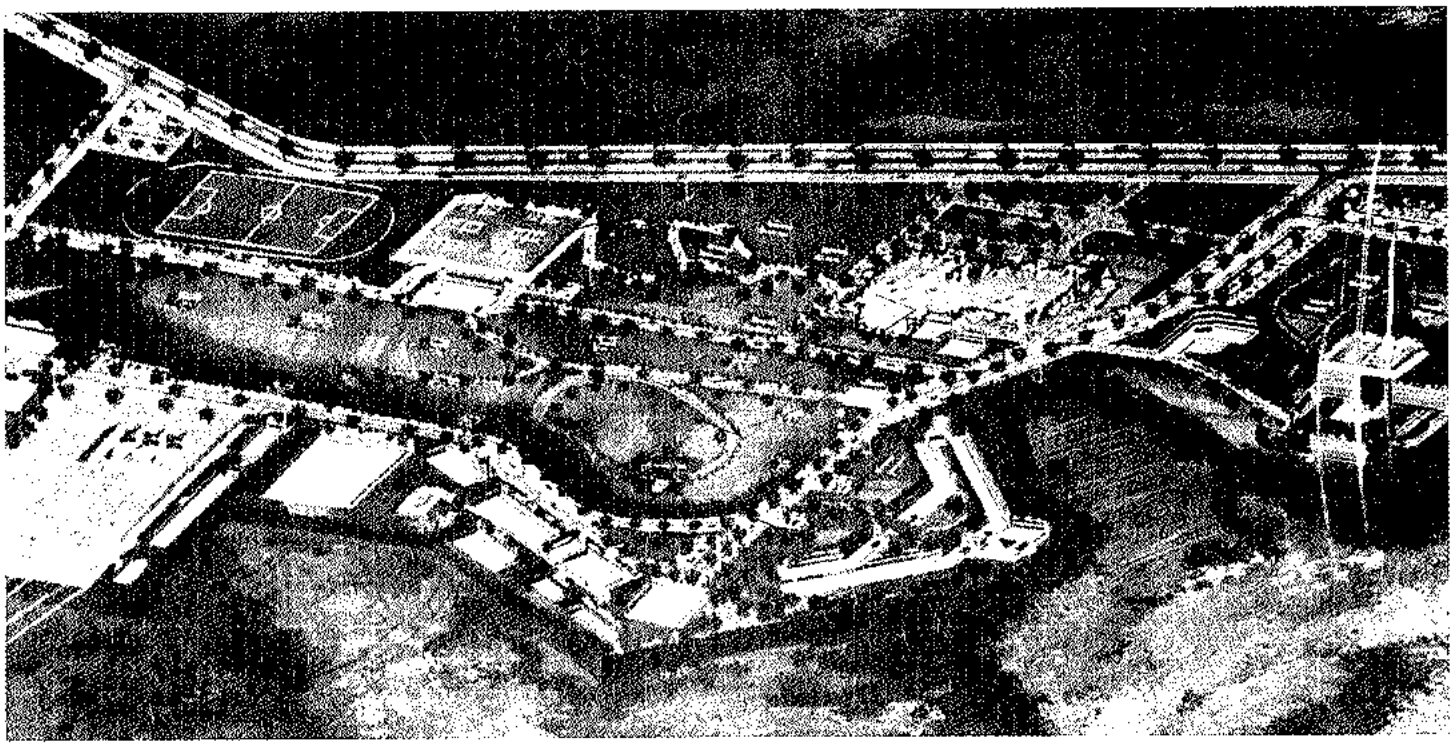
건물계획

계획부지의 형태 및 자연을 최대한 살려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연구원의 특성을 살린 건물 계획을 한다.
연구원내의 보행자는 보행로나 보행광장 및 녹지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향하는 과정을 느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건물과 건물사이에서 기능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각 건물마다 특징을 두어 한 눈에 그 건물의 기능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람들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연구활동과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조성되도록 한다.
특수시험동은 기본설계시 구체적 계획수립 예정, 본 계획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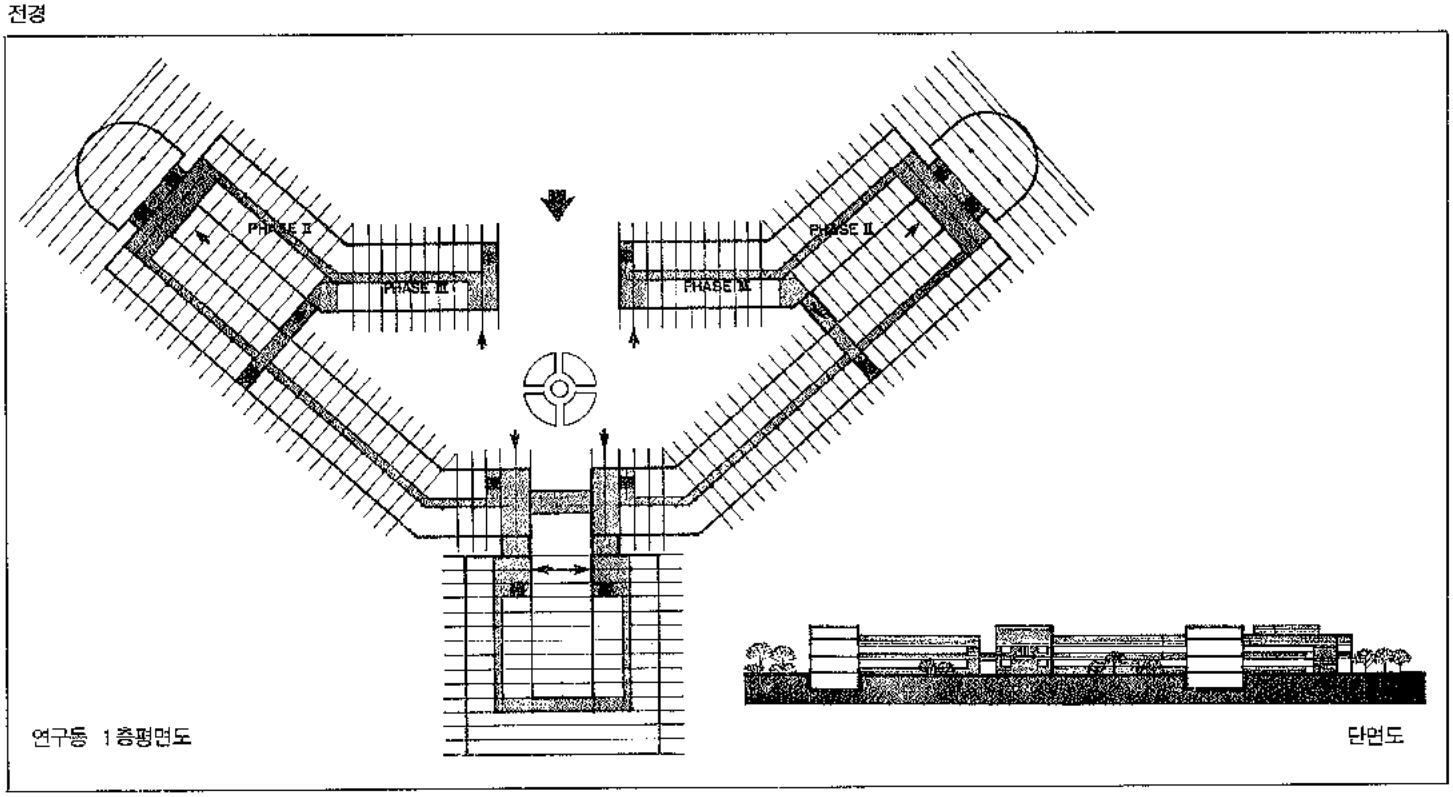
● 연구동

- 연구원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연구활동을 하는 곳으로서 특수시험시설과 지원시설에 근접하여 있으며 주로 연구자들만 사용하는 곳이다.
- 연구동의 배치는 부지형태와 조화를 이루며 에너지(햇볕)를 상징하고 있고 연구동 중앙에 전용광장을 두어 여유있고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 연구동 계획은 Cluster 형과 Court 형의 절충형식이다.
- 제 2 연구동은 타 연구동과 분리시켰으며 성격이 비슷한 타 연구동은 융통성있는 한동의 개념으로 계획
- 광장중앙에는 상징탑이나 분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의 휴식처로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동정면도



전경



연구동 1층평면도

단면도

● 행정동

• 외부와의 상호관계가 높은 행정동은 주진입로 정면에 위치하여 쉽게 근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뒷 부분에는 강당을 두어 각종행사 및 대집회를 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도 개방하여 지역의 문화생활에도 기여한다.

• 강당을 중심으로 남·동쪽을 병풍처럼 둘러싼 형태이며 로비를 여유있게 하여 강당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함. 외부재료는 적벽돌과 커튼월을 사용하여 고전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분위기의 조화를 이룬다.

● 전시관

• 전시기능을 주기능으로 하고 국제회의실 및 휴게실의 부속기능을 계획하였다.

• 바닥차이를 두어 각실의 독립성과 변화있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 전시관 기능뿐만이 아니라 국제회의실, 휴게실을 두어 일반인의 이용을 고려하였다. 전시관은 주로 에너지에 관한 자료와 한국전력의 변천과 미래를 보여줄 예정이다.

● 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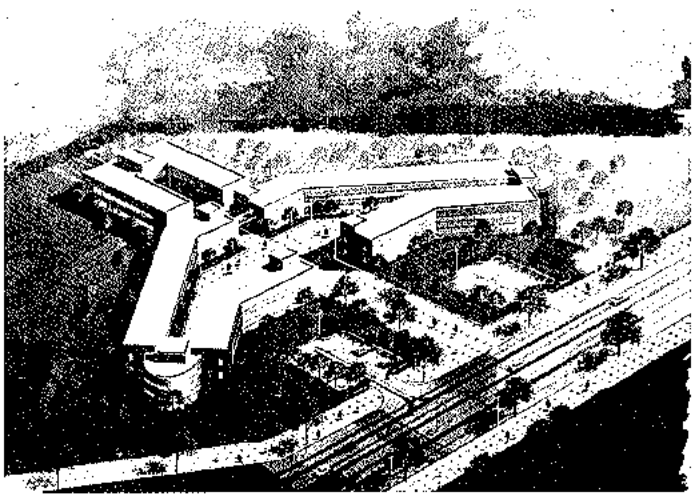
• 연구원내의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호수 가까이에 두어 쾌적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하였다.

• 써클실은 직원들의 취미, 여가활동의 장으로 이용될 것이고 연구동, 행정동, 휴식공간의 중앙에 두어 이용에 편리하게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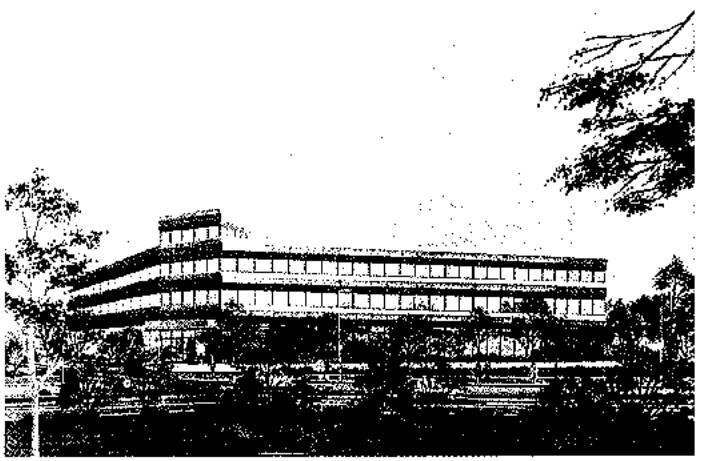
• 동선분리에 중점을 두어 원활한 써클활동을 유도하였다.

● 독신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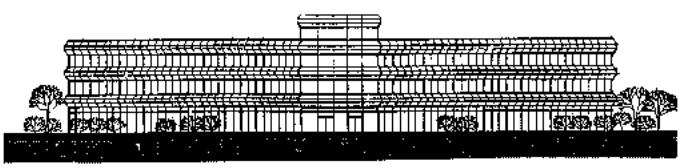
• 독신자를 위한 기숙사로서 방문객의 이용도 고려하였으며 1인실과 2인실을 두고 독신APT 중앙에 휴게실과 오락실을 두어 수용인원 상호간에 친목과 상호 교류를 돈독히 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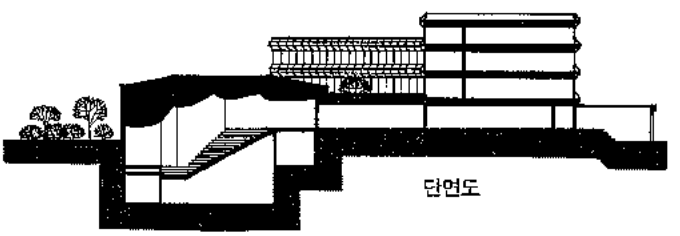
연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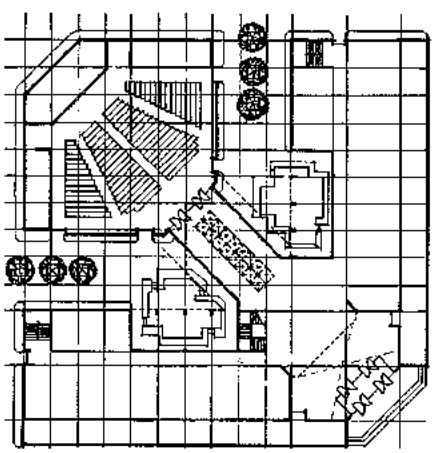
행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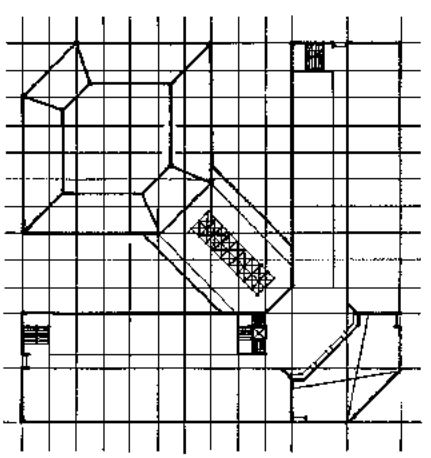
전시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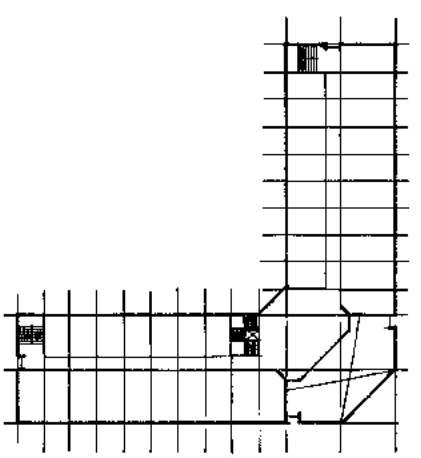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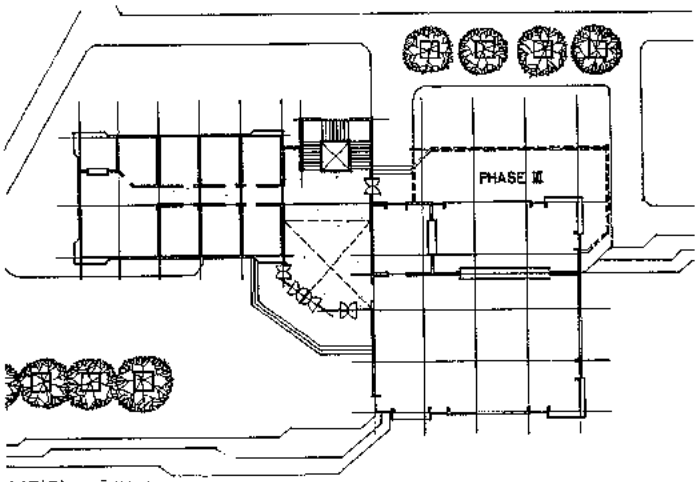
행정동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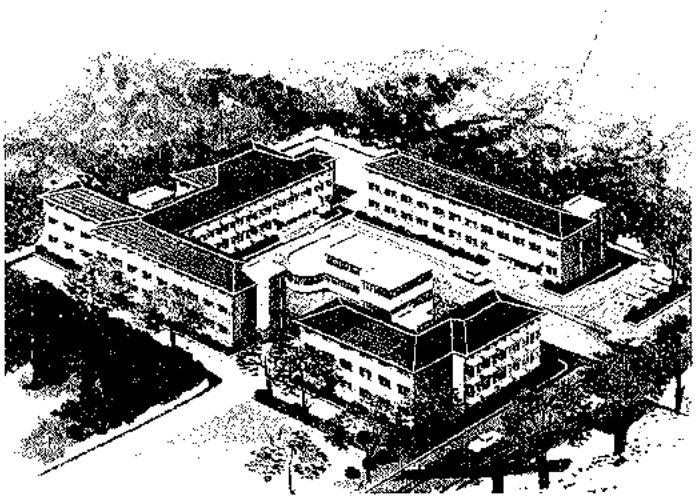


복지관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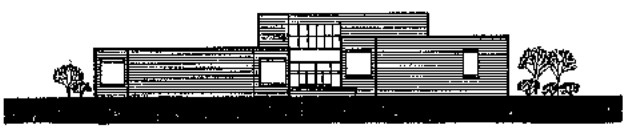
복지관정면도

복지관단면도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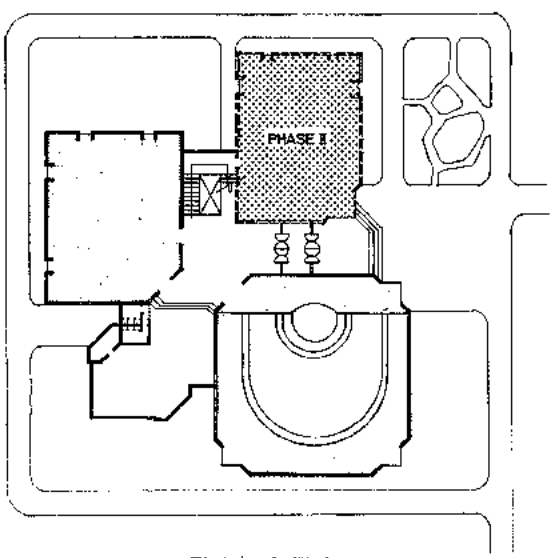


독신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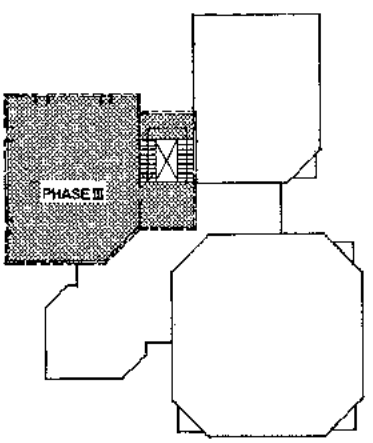


전시관 정면도

단면도



전시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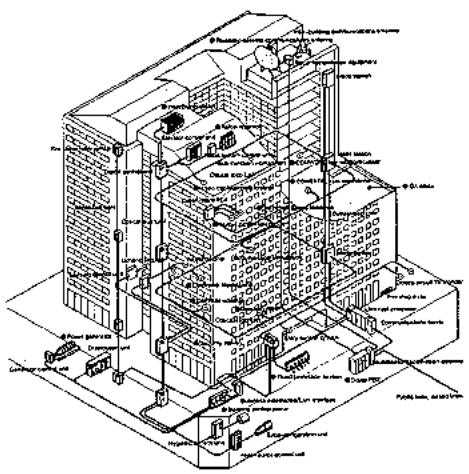
전시관 2층 평면도

인테리젠트 빌딩

— 건축 · 전기 · 설비계획에 대하여 —

For Intelligent Office system Planning

李永洙 / 새한콘설탄트대표, 기술사
by Lee, Young-Soo



1. 개념

미국에서 인테리젠트빌딩의 임대사무실은 건축주가 설비한 고도정보통신 설비를 통하여 1) 비지니스(Bussness) 지원기능 (Data 처리 Service, Data base 이용 Service, OA System, OA 기기 라스 Service, OA 교육 Service)
2) Communication 지원기능(다기능전화, TV 회의, CATV) 등의 Service 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임대사무실 건물을 대상으로 쓰이는 인테리젠트빌딩 이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임대사무실에 한하지 않으며 자사(自社) 전용건물에서도 사무실의 전자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쓰인다. 인테리젠트화에 의해 전자기기 특히 VDT 등을 사용하는 율이 높아지면 지금까지 느끼지못한 피로가 생긴다.
이 피로를 회복시키거나 인체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사무실과는 다른 노동환경을 성비할 필요가 있다. 구미지역의 사무실환경, 다시말해서 직원 1인당 점유면적, 가구, 조명 System, 공조,휴게소 등 어느것을 보아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의 엔테리젠트빌딩에 필적하는 기능을 우리나라에서도 얻기위하여는 이 노동 환경문제가 우리나라에서의 특색으로서 가해진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인테리젠트 빌딩은 「고도 정보통신에 의해 Computer, Data, Highway 등 기본장비와 Soft Service 기능을 가지고, 또 이것에 빌딩관리 System, Communication System (Digital 교환기)의 기능향상을 도모하며 보다 풍족한 노동환경을 실현한 빌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테리젠트화에 따라 건물의 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2. 건축계획상 유의점

건축계획에 임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① 고도정보통신기능, 종래의 정보 System 의 기능향상, 빌딩관리 System 의 기능향상 등 인테리젠트 Service 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 ② 쾌적한 노동환경을 실현하기위한 조건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① 에관한 사항은 바닥하중(床荷重), Space (배관, 배선, 기기)등 비교적 한정된 범위이며 ② 에관한 사항이 건축계획상에는 압도적으로 많다.

1) 바닥(床) 하중

일반 사무실은 바닥하중을 300kg／㎡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설계 조건이면 예컨대 Workstation 이나 기타 전자기기를 장래 대표적으로 증설 하더라도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사무실에 설비되는 Computer System 가운데 대규모적인 것은 20㎡ 전후의 방에 중량이 있는 기기로서 CPU 본체, 자기 Tape, Disc 구동 장치, Line Printer 등이 설치된다. 이러한것중 가장 무거운 Line Printer 로서 200kg 전후로 특히 지장은 없다. 전산 Center 로서 초대형규모의 System 을 도입하는 경우는 500kg／㎡가 필요하게 되나 일반 임대 사무실 등에 이러한 System 을 설치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혹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일부바닥에 한정된 면적에 대해 보강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2) Space

(1) 배관, 배선 Space
① 종방향 (Vertical)
지금까지의 건물에 비교해서 늘어나는 배선은 소비전력의 증가에 수반된 전원용의 배선과 새로 추가되는 정보용 배선이 주로 이룬다. 전원용 배선 Space 는 지금까지의 배선 Space 에다 약간의 예비 Space 를 고려 함으로써 특히 Shaft Space 의 확대에는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보용 배선은 기 배선된 전화계의 추가 배선외에 동축케블이나 광섬유 케블이 금후 추가된다. 건물의 규모, Plan 에 의해 다르나 기밀유지, 방범의 관점에서 양전용 Shaft Space 를 확대도면에 하든가 단독으로 Space 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李永洙
필자는 28년 서울생으로 57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새한설계콘설탄트를 자영.

표-1. Building기능과 운용 Service

	System	
	Concept	운 용 Service
건 축 공 간	• 인간성을 추구한 공간구성 • 쾌적하고 대응성에 우수한 空調, 조명 • 기기 Layout에 적합 Wiring System • 기기하중, 내진의 대책	• Office 공간의 연출 • (Office Layout, 장식등의 Consulting) • 건축공간, 외부환경의 유지보전 (예방보전, 청소, 식재 등의 관리) • 리노베이션의 대응 (칸막이벽의 변경, 용도변경, 갱신)
건 축 설 비	• 환경향상 세분화된 운전제어 • 자원절약, 省에너지절약 省力, 省人化의 System • 인명, 재산, 기능, 기밀의 보전 • 예방보전重視의 설비유지관리	• System Operation (쾌적성, 경제성, 안전성중시의 최적 운전) • System Maintenance (예방보전, 고장대응) • 리노베이션의 대응 (Office변경, 갱신)
정보 · 통신	• 확실하고 효율적인 외부통신의 수입 • Highgrade 基幹설비의 장비 •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공용설비 • 편리하고, 효과적인 단말기기	• Lystem Support와 Operation (System Consulting, 基幹 · 공용설비의 관리) • OA기기의 임대 Service (각종기기 리-스, Rental • Maintema (예방보전, 고장대응)
Office Service	• 기밀하고 적절한 정보 Service • 편리인 대회의실 등의 제공 • 경비절감이 되는 집기비품의 대여 • 省力·성인화가 되는 업무대행	• 빌딩내 정보의 Service (Private Videotex 외부 Data Base의 Service • 시설비품임대 (회의실, 응접실의 운용, 집기비품의 대출) • 업무대행 (인쇄, 수부, 계산업무의 대행)

전자기기로 부터 발열량이 많아지면 냉방기기의 추가가 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한 냉매관 또는 냉각수배관의 Space 를 고려하여 두면 편리하다.

② 횡방향(Horizontal)

Shaft 에서 각기기 까지의 배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특히 건축계획에 영향을 줄만한 케블은 증가하는 것이 없다.

(2) 기기 Space

전원용기기의 증설에 필요한 Space (주로 전기실내에 있어 변압기 등의 설치 Space) 와 냉방기기의 설치 Space 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 앞서말한 처음설비용량과 장래 예측되는 용량과의 차분만큼 Space 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점유면적

직원(Worker) 1인당의 점유면적은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5~9㎡/인(人)이나 미국에서는 12~20㎡/인(人)으로 금후 면적확대로의 요구를 수용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무실내에 전자기기가 증가하여 Workstation 이 각 1인에 1대씩 쓰일경우 이것에 대한 면적은 약1㎡ 여분의 면적이 필요로 하게된다. OA 화에 의해 Less Paper 의 기대도 있으나 어느 경우로 하든 현재의 늘은 남는다는 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점유면적 확대방향에 진전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건축계획에 임해 이것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사무실 Planning

(1) Zoning

전자기기가 집중된 Operation 공간은 기기로 부터 발생하는 음, 열, 및 기기의 보수관리, 기밀유지 등의 점에서 일반 집무공간및 공용 Service 공간으로 부터 격리하여 중간 Space 로서 Zoning 시킨다. 또 개별 Space, 공용 Space 도 목적에 적응하여 세세한 Zoning 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통신에 의한 Communication 이 많으면 인간대 인간의 대면 Communication 의 중요도가 효율면만이 아닌 인간성의 확보의 면에서 인식되어 옴으로써 이점도 가미된 균형이 취하여진 Zoning 이 요구된다.

(2) 가구 및 비품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사람에 맞추어 Zoom up·down 되는 의자, 다기능 책상에 의한 작업 Space 의 확대, 환경의 정비, 이동가능한 수납 System 에 의한 사무 Space 의 효율화를 꾀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구색의 선택 폭만은 아직 늦어지고 있어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인공적 Space 를 부드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Green, 식물, 수(水), 자연광등의 적극적 도입이 계획되며 상시 눈의 피로를 회복시키며 또한 Partition, Sun, Break 등의 역할도 기대하는 수법이 보급될 것이다.

4) 공간구성

(1) 천정

현대건축의 천정은 조명기구, 공조용 급배기구와 방재(Sprinkler, 매연감지기, Speaker) 등으로 되어 있으며 System 화 되어,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 벽

Partition 은 전자기기나 전화, 사람의 목소리, 외의 소음을 흡수할 흡음처리된 Fassard 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공용의 Signboard 로도 되며 개인의 Pinnapboard 로도 쓰여지며 그것에 Coloring 등에 의해 개인 및 Group 에 조용하고, 쾌적한 직무 Space 를 제공되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바닥 상(床)

사용자의 다양화에 의해 Flexiblity 의 높은 실내환경이 요구되므로 바닥(床)도 중요한 정보매체 Element 이다. 또 바닥에 카페트를 쓰면 사무실의 흡음성능, 단열성, 물품의 파손방지, 위생환경, 피로도의 회복촉진에 의해 작업효율이 높을수 있는 Melit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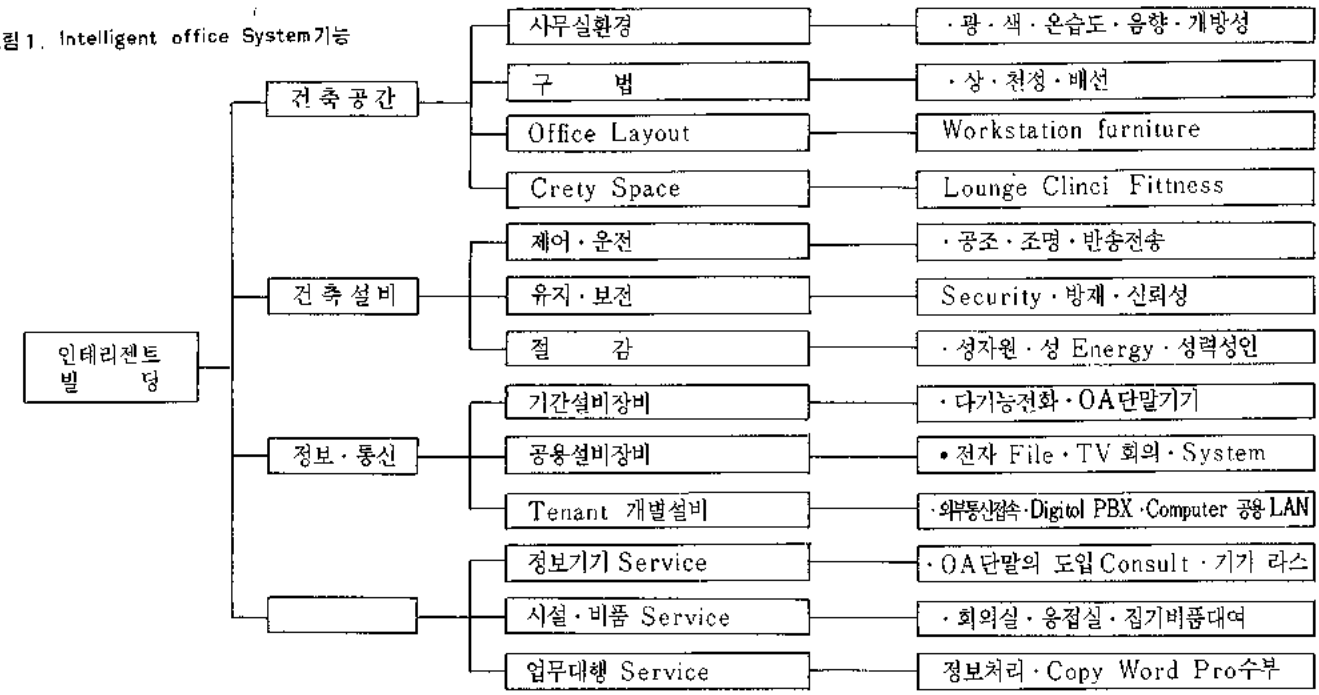
3. 설비계획상의 유의점

사무실에 대량의 전자기기가 도입되면 설비계획의 면에서 많은 영향이 생긴다. 그중 주목할 항목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자기기에의 전력공급량이 많아지며 종래의 표준적인 전원 용량을 초과한다.

② 전자기기에의 전력공급량 증가,

그림 1. Intelligent office System기능



전자기기간의 배선수의 증가에 따라 종래의 배선 Space 로서는 부족하다.

③전자기기의 도입 및 가동에 의해 표준 공조부하를 초과하여 냉방능력이 부족된다.

④사무실업무가 전자기기의 Display 중심의 작업으로 되어 종래와 다른 작업환경이 요구된다.

⑤방재, 방범등 안전성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된다.

1) 전원

인테리젠트화에 의한 전자기기의 증가에 따라 기기의 소비전력이 증가되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으나 이외에 환경향상에 관련된 조명 System 의 개선에 의해 소비전력의 증가, 전자기기에 의한 발열 때문에 냉방기기용 전원의 추가 등이 있다. 전자기기의 소비 전력은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감소하여 최대현상의 반정도 가깝게 된다고 예측되어 전자기기의 대수 증가가 상실되어 소비전력은 어느 Point 까지는 증가하나 그 이후는 약간 감소되는 방향에 이른다고 생각된다.

Peak 시(時) 까지는 전자기기, 조명, 냉방등을 합쳐서 현재에 비해 40~60 va/ ㎡의 소비전력의 증가가 예측된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사무실 건물에서 전체전력에 대하여 30% 이상 상승된다. 이 증가분은 시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2) 배선

전자기기의 도입은 사무실 내에 배선수의 증대를 가져온다. 종래에도 콘센트, 전화의 배선 Root 가 확보되어 있으나, 여기에 OA 용의 정보용 배선 Root 와 전자기기에 의해 증가하는 전원용의 배선 Root 를 확보하고 나가는 것으로 된다. 물론 사무실 내의 배선 Root 만이 아니라 수평의 Root 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배선방식의 선정의 어려움은 수직보다 수평방향, 다시말하면 사무실 내에 있어서이다. 현재도 새로운 방식이 계속해서 고안되어 있으나 과거에 가장 실적이 많은 배관방식, 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에 쓰인 Floorduct방식, 최근 화제의 중심에 있는 Flatcable 방식을 포함하여 Case by case 로 상용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래를 전망하면 바닥(床)내에 부설하는 배관, Floorduct 등에 의한 배전방식은 Root 가 고정하고,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 인출구에서 전자기기까지의 배선의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인 용도에 한정하여 쓰이게 된다. Free Access, OA Floor, Undercarpet 등은 가격면, 시공면의 개량에 의해 전자기기의 증설, 변경에 대처하기 용이하게 보급된다. 그러나 금후 천정내를 배선 Root 로서 쓰일 System 이 다시 검토되어 천정에서 필요한 장소로 Telepower pole(Flex panel) 를 사용하여 바닥(床)에 배선을 내리는 방식 등이 주목된다.

3) 공조

전자기기의 발열에 의해 냉방부하가 증가하므로 전자기기의 증설에 맞는 공조의 추가가 될 수 있는 Flexibility 가 있는 대응을 필요로 한다. 냉방부하는 현후의 사무실 공간 안의 전체부하에 비하면 15~30%의 증가가 예상된다. 공조의 경우는 기기의 Space, duct, 배관의 Space 등 비교적 큰 Space 를 필요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전자기기가 많아지면 24시간 냉방을 필요로 하는 Case 가 생기므로 이에 대응도 중요시된다.

4) 환경

(1) Building Automation

설비면에서의 환경유지 혹은 향상에 종합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B.A 의 기능이 재 평가되어가고 있다.

건축설비(공조, 위생, 전기, 방재, 방범)의 운전감시 System 에 의한 온도, 습도, 밝기 등 직접 몸에 느끼는 환경이나 성에너지, 성력, 안전 등의 면에 까지 큰 영향이 나오므로 이 기능향상이 인테리젠트 빌딩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조명

조명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조도, 휘도, 대비, Glare, 연색성, 에너지절약 등이 있으나 Display(CRT) 의 화면을 보기쉽도록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명의 질의 점에서 우리나라는 구미에 비교하여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으므로 간접조명이나 Taskambinent 등이 금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Security

정보의 취약성에 대응한 Security System 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된다. Computer System 은 여러곳에 취약성을 갖고 있어 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Computer System 그 자체의 신뢰성 향상에 의한 취약성의 극복, 범죄방지 대책, 운용관리면의 강화, Computer System 또는 건물의 안전기준의 확립 Computer 범죄에 대한 의식의 고양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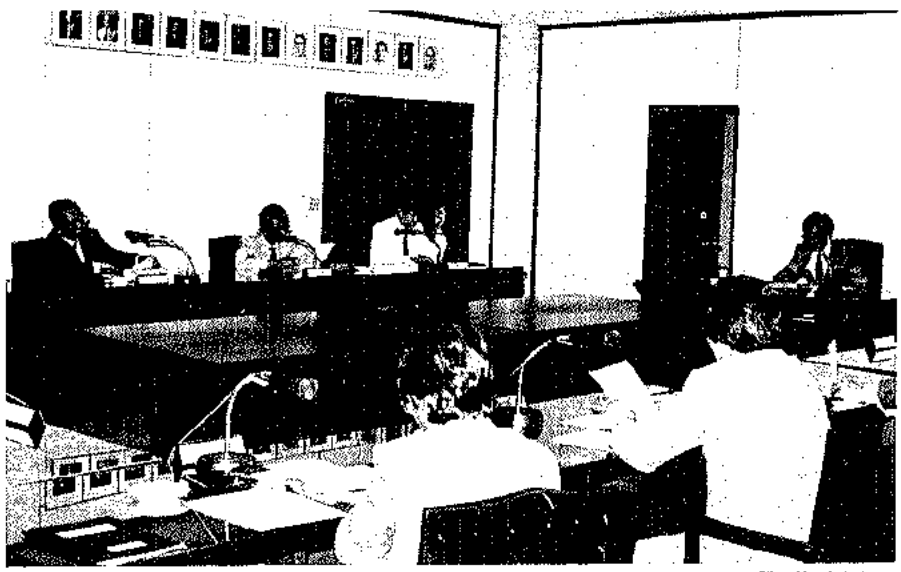
4. 結

끝으로 한국적인 인테리젠트 빌딩이 정착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른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이 날로 건설되어가고 있어 장래 용이하게 인테리젠트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 필요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래를 겨냥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것으로 볼 수 있다.

제4회 理事會 개최

4월22일 오후 2시부터 安箕泰회장 주재하에 부회장, 이사, 감사, 서울특별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理事會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전례대로 전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의 순에 이어 부의사항, 협의사항을 다루어 나갔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회 이사회 ▲

전회 會議錄

〈제3호의안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안) 승인의 건〉의 의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함〉에서 〈原案과 같이 建設部에 提出키로 함〉으로 修正.

부의사항

• 分所管轄區域變更 :
전남지부장으로부터 지부직할구역과 목포분소 관할구역중 일부의 관할구역 조정 요청이 있었으나 지부직할구역내 회원으로부터는 그에 반하는 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어 본이사회에서 검토결과 현행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부결키로 결의.

• 停年退職對象職員 延長勤務 :
전남지부장으로부터 정년에 달한 지부 사무국장의 연장근무 제청이 있었으나 본 안건은 폐기키로 결의.

• 人事規定改正 :
본협회 정기검사시 정년퇴직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이 요구된 인사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키로 결의함. (오른쪽 표 참조)

• ACA-3大會行事經費充當을 위한 誠金募金 안건을 폐기키로 결의

• 特別銓衡試驗에 대비한 教育費支出 :
건축사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특별전형에 응시한 2급회원들을 특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교육훈련비에서 3백만원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인바 원안대로 승인.

• 講堂 및 展示場賃貸 :
현재 지하식당을 운영중인 임차인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으나 협의 결과 부결키로 결의

• 實績會費算出基準表와 建築士業務 및 報酬基準補完硏究 :
가.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에 대한 것은 건축위원회와 법제위원회에서 연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함
나. 건축사보수기준에 대한 연구는 용역을 주기로 하되 그 추진은 건축위원회와 법제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함.

현 행	개 정
제32조(퇴직) ③정년퇴직 : 가. 직원의 정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2급이상 : 55세 3급이하 : 50세 나. 정년에 달한 직원을 연장근무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본부직원 및 2급이상의 지부직원은 이사회, 기타 지부직원은 간사회의 승인을 얻어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근무 시킬 수 있다. 다만, 본부직원은 사무처장, 2급이상의 지부직원은 지부장(간사회 승인)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32조(퇴직) ③정년퇴직 : 직원의 정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2급이상 : 60세 3, 4급이상 : 58세 5급이하 : 55세

인사규정개정내용 ▲

協議事項

• 實績會費徵收에 관한 해석 法制委員會에 위임

• 建築士報酬基準의 해석 法制委員會에 위임

• 建築士誌 표지디자인 變更 다음 이사회에서 협의키로 함.

• 建築士年金管理 건축사연금규정 개정, 보험관리가 어려울때 대책방안, 연금배당증서교부 방법등을 8인 연금관리 소위원회에서 다루어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 보고키로 함.

特別銓衡對策委員會

특별전형대책위원회(위원장 金椿培)는 5월10일(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 建設技術教育院에서 硏修教育을 실시하는 방향 추진

• 시험장소 및 硏修人員은 6백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 현안을 협의하였다.

建築士年金管理8人小委

4월22일 제4회 理事會의 協議結果에 따라 建築士年金管理8人小委員會를 5월3일 개최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금배당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
年金持分證書 또는 年金持分通知書의 형태를 취하여 회원 각자의 지분액수만 통보하고 연금배당증서는 보험사가 결정되면 그 보험사에서 교부하도록 하되 年金運營委員會에서 결정한 후 시행토록 할 것을 協議.

• 建築士年金規定改正推進에 관한 사항 :
건축사 연금규정중 불합리한 조항등 문제점을 발췌하여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할 것을 協議

• 年金의 保險管理에 관한 사항 :
조속한 시일내에 연금규정개정(안)을 다루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장 알맞는 상품을 각 보험사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여 그 자료를 비교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을 協議

'88建築士資格試驗實施

5월8일(일) 오전10시부터 한양중공업 고등학교와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에서 88년도 제1차 建築士資格試驗(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실시하였다.
응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접수인원	응시자	비 고
일반전형	4,046	3,123	77%응시
특별전형	826	602	73%응시
계	4,872	3,725	76%응시

建築士研修 및 耐震設計 教育

'88년도 建築士研修와 7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耐震設計에 대비한 교육을 5월16일부터 본협회 강당에서 시작하였다. 교육일정은 옆 표와 같다.

특별전형대책위원회 ▲

88년도건축사연수 및 내진설계교육 ▲

기별	대 상 지 부	일 자	장 소	교육대상회원수
제1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88. 5. 16	본협회 강당	415 명
제2기	〃	88. 5. 18	〃	442 명
제3기	〃	88. 5. 25	〃	363 명
제4기	〃	88. 5. 26	〃	360 명
제5기	충남, 충북	88. 5. 30	대전카톨릭문화회관	188 명
제6기	대구, 경북	88. 6. 2	대구시민회관	275 명
제7기	부산, 경남	88. 6. 8	부산 반공연맹	474 명
제8기	제 주	88. 6. 13	제주파라다이스호텔	31 명
제9기	광주, 전남, 전북	88. 6. 16	광주안보회관	202 명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俞景哲)

• 會員親睦낚시大會

88년도 지부사업계획의 일환으로 4월20일 충남 아산군 도고저수지에서 회원친목 낚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장원 : 이백길회원 / 무예 · 서료종합건축사무소
1 등 : 박정현회원 / 대극건축사사무소
2 등 : 박배원 / 우림공간건축사사무소
3 등 : 안충회 / 삼안건축사사무소

▲ 입상자에게 施賞하는 前景哲 서울支部長

忠淸北道支部

(지부장 表在範)

• 建築士補와 關聯公務員敎育

4월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대한적십자사 4층 회의실에서 건축사보 1백60명과 건축관련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정신교육, 건축법규교육 등을 방라한 職務敎育을 실시하였다.

▲ 忠北支部, 建築士補와 관련 公務員에게 職務敎育실시

팩시밀리 이용안내

협회는 '88. 1. 1. 부터 사무자동화를 위해 본부 및 각 시도지부에 FAX를 설치,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번달에는 충청북도지부에서 FAX를 신설하였읍니다.

○ 설치현황
본부FAX : (02) 586 - 8823
경북지부 : (053) 422 - 9828
충남지부 : (042) 254 - 244
전북지부 : (0652) 85 - 1875
○ 설치기종
KOREA XEROX
7030 TELECOPIER

전산 모임안내

점차적으로 건축분야에서도 전산화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읍니다.
회원 다수가 전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비용관계, 정보자료의 부족등의 사유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실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회원께서도 정보자료의 부족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전산화에 관심이 많으신 회원이나 전산실무자의 친목도모, 정보자료의 교환, 기술향상등의 목적으로 건축분야 전산화에 이바지할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 건축의 2000년대를 이끌어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사무개선위원회 위원장 김창서

*참여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신청서를 보내드리겠읍니다.
○신청기간 : 1988년 6월1일 ~ 31일
○보내실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대한건축사협회 전산실 (우 : 137 - 071)
○연 락 처 : 대한건축사협회 전산실 (02) 585 - 8057

지금부터 한강에 정성을!

백승진 / 경인에너지(주) 기술실과장

한강은 우리의 젖줄로서 민족과 함께 더불어 반만년 역사를 지켜왔다. 그 묵묵히 흘러 온 세월 속에는 숱한 애환과 환희의 역사가 살아 숨쉰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팽창 그리고 각종 산업의 발달로 공해라는 신종어를 유발시키고 급기야 한강에 까지 수질오염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말았다.

1982년 첫 삽질이 시작된 한강종합개발공사로 인해 암사동과 행주대교간 36km의 물길이 열리고 강변에 2백10만평의 새땅이 생겼다.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 하천변에 문화, 체육등 갖가지 시설등이 설치되고 물위에는 보트, 조정, 윈드서핑과 행글라이딩 그리고 유람선에서 음악회도 열리고 있다.

진정 앞으로 줄지어 찾아올 외국인에게 우리민족의 물길을 잘다스릴줄 아는 슬기로운 민족임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자랑거리임에 틀림이 없어 온국민의 관심이 자못 크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수질오염으로 자취를 감추었던 철새들도 다시찾아왔으며 천연기념물인 큰고니와 흰꼬리수리도 모습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강을 거레의 숨결을 간직하고 번영을 기약하는 민족의 강으로 이루기 위하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많다.

지금부터 정성을 들여 한강을 지키고 활용하는 일이다. 맑아진 한강을 더욱맑고 깨끗한 강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한강보호운동에 앞서고 강변체육공원에서 젊고 활기찬 기풍을 마음껏 펼치면서 자연의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해두어야겠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행정당국이나 몇몇단체에서 벌이는 사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일상생활중 음식지꺼기등은 귀찮게 느끼면서 함부러 버릴때가 있는데 앞으로 비닐봉지로 따로싸서 버리도록 하여야겠다. 정화조 청소도 구청의 독촉이나, 권장에 못이겨 청소할때가 있는데 우리모두 건강을 위하여 1년에 한번씩은 꼭 청소하여야겠다.

한강수질에 영향을 주는 오물, 생활하수, 폐수의 미처리방류 문제가 급선무다.

저녁뉴스시간에 TV 카메라에 비춰진 개천의 버려진오물, 산업폐수를 볼 때 너와 내가아닌 우리모두가 한강의 파수꾼이 되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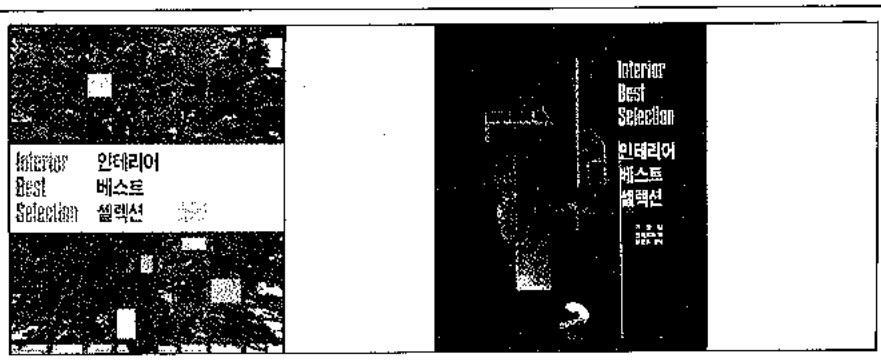
눈앞의 이익을 위해 나쁜일을 하는분들! 정말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오물이 당신의 몸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는 주일, 가족과 함께 강변에서 공놀이도 하면서 잔디밭에서 푸른하늘을 보면서 동심의 꿈을 그려보아야겠다.

□新刊案內□

인테리어 베스트 셀렉션
1卷 · 2卷

編　著　그래픽사 오렌지북 편집부
編　譯　가문당 인테리어북 편집부
発行人　姜 海 作
発行處　持 文 堂
電　話　(02) 295 -6171 ~5
定　価　各卷当 38,000 원



본서는 우수한 일본의 인테리어 디자인 5백60점을 수록한, 말하자면 일본의 모든 우수한 인테리어 현장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 시대의 감수성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작품들이 모여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인테리어 디자인의 가장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현대 인테리어 디자인을 집대성한 〈기록〉으로서의 의의를 겸비하고 있다고 하겠다.

〔註〕本書는 持文堂이 建築士 業務에 도움을 드리고자 本協會에 寄贈한 것이므로 本協會 資料室에서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읍니다.